

최종보고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연구

2017년 11월

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원: 김민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곽민주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시간강사)

김민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보조연구원: 이하나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제 출 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위탁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 민 정

목차

요 약 문	xiii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가 필요한 이유	1
2) 공무원을 위한 자가진단 지표가 필요한 이유	3
2. 연구목적	6
제 2 장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7
1. 은퇴준비의 일반적 특성	7
1) 은퇴에 대한 인식	7
2) 국내·외 은퇴준비실태	11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19
2.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	21
1) 공무원의 은퇴 관련 특성	21
2)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	24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32
3. 국내·외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35
1)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35
2) 국외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53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56
제 3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57

1. 지표개발 방향	57
2. 초기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도출	58
1) 건강관리	58
2) 대인관계	64
3) 주거관리	75
4) 여가활동	81
5) 일자리 관리	87
6) 재무설계	90
3. 초기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수정	96
1)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표 수정	96
2) 예비조사를 통한 지표 수정	98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확정	99
4.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 산출 방식	103
1)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출 방식	103
2)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 산출 방식	103
제 4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적용 결과	111
1. 조사개요	111
1) 조사대상 및 방법	11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2.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진단 문항 응답 결과	114
1) 건강관리 영역	114
2) 대인관계 영역	118
3) 주거 영역	121
4) 여가활동 영역	123
5) 일 영역	125
6) 재무관리 영역	127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129

1)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 점수	129
2)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분포	130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산출결과	132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종합점수	133
5)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 상관관계	137
4.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분석 결과	139
1) 건강관리 영역	139
2) 대인관계 영역	146
3) 주거 영역	153
4) 여가활동 영역	159
5) 일 영역	166
6) 재무관리 영역	173
5. 본조사를 통한 의의와 결과의 활용	179

제 5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의 유형화

1. 진단결과 및 가이드 제시의 기본 방향	181
2. 자가진단 점수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181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및 준비수준	182
2)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 및 준비수준	183
3. 군집분석을 통한 은퇴준비 유형화	186
1) 군집1 : 우수 균형형(17.7%)	187
2) 군집2 : 일 준비 보완형(9.8%)	187
3) 군집3 : 평균 균형형(21.7%)	188
4) 군집4 : 시간활용(일-여가활동) 준비 취약형(10.6%)	188
5) 군집5 : 일 준비 취약형(10.1%)	189
6) 군집6 : 대인관계 준비 취약형(8.5%)	190
7) 군집7 : 주거 준비 취약형(11.3%)	190
8) 군집8 : 전반적 취약형(10.5%)	191

제 6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 · 194

1. 은퇴준비 종합점수(RRS)	194
2.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194
1) 건강관리	194
2) 대인관계	196
3) 주거	197
4) 여가활동	198
5) 일	199
6) 재무관리	200
3. 자가진단 결과 출력 화면 구성 가이드	201
1) 1단계 : 종합점수를 통한 은퇴준비수준 판단	202
2) 2단계 :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정보	205
3) 3단계 : 영역별 진단 결과	208
4) 4단계 : 영역별 진단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216
5) 마무리 화면	244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46
1) 연구의 의의	246
2) 기대효과	247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안	248
1) 공무원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248
2) 공무원연금공단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249
3) 공무원 은퇴준비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250

참고문헌

1. 해외자료	252
2. 국내자료	253

3. 참고 사이트	263
부 록	265
<부록 1> 초기문항	267
<부록 2> 전문가 자문 내용	277
<부록 3>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표 수정 및 보완	289
<부록 4>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지표 수정 및 보완	305
<부록 5> 본조사 설문지	317
<부록 6>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에 대한 자문 내용 및 반영사항	327
<부록 7> 최종 진단 문항	333
<부록 8>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343
<부록 9> 6대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349
<부록 10> 은퇴준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전략	355
<부록 11> IRB 심의결과서	361

표 목차

<표 2-1> 미국, 일본, 독일의 연금의 소득대체율('15)	15
<표 2-2>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노후 주요 수입원	16
<표 2-3> 미국, 일본, 독일의 1인당 가계의 순금융자산의 규모('13년)	16
<표 2-4> ARRI의 구성요소	17
<표 2-5> 미국, 일본, 독일의 은퇴준비도(ARRI)	18
<표 2-6> 미국, 일본, 독일의 은퇴소득대체방식	18
<표 2-7>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공공부문	40
<표 2-8>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민간부문	50
<표 2-9> 해외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55
<표 3-1> 건강 관련 조사 항목 비교	63
<표 3-2>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의 구분 및 측정	71
<표 3-3> 대인관계 관련 조사 항목 비교	73
<표 3-4> 주거영역 관련 조사들의 문항 비교	80
<표 3-5> 공무원 여가시간 활용 현황	83
<표 3-6> 은퇴 후 여가활동 유형 구분	85
<표 3-7> 여가활동 관련 조사들의 문항 비교	87
<표 3-8> 중고령층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88
<표 3-9> 재무설계 관련 조사들의 항목 비교	95
<표 3-10> 본조사에 포함된 6대 영역별 하위영역 구성 및 문항 수	99
<표 3-11> 은퇴준비 자가진단 최종 문항	100
<표 3-12> 6대 영역 점수 및 RRS 산출 과정	103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3
<표 4-2> 건강관리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16
<표 4-3> 대인관계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19
<표 4-4> 주거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22
<표 4-5> 여가활동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24
<표 4-6> 일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26

<표 4-7> 재무관리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128
<표 4-8>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6대 영역별 점수	129
<표 4-9> 개별 영역 가중치 응답 결과	131
<표 4-10>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 ..	132
<표 4-1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석 결과 ..	135
<표 4-12> 6대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37
<표 4-13>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39
<표 4-14> 건강관리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42
<표 4-1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리 영역 분석 결과	144
<표 4-16>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46
<표 4-17> 대인관계 영역점수 및 4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48
<표 4-1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인관계 영역 분석 결과	151
<표 4-19>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53
<표 4-20> 주거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55
<표 4-2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거 영역 분석 결과	157
<표 4-22>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59
<표 4-23> 여가활동 영역점수 및 4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62
<표 4-2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영역 분석 결과	164
<표 4-25>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66
<표 4-26> 일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68
<표 4-27>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 영역 분석 결과	171
<표 4-28>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173
<표 4-29> 재무관리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175
<표 4-3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재무관리 영역 분석 결과	177
<표 5-1> 은퇴준비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점수 백분위	182
<표 5-2>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RRS	183
<표 5-3>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 기준	184
<표 5-4>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분포	184
<표 5-5>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 기준 (동일 연령대별 평균)	185
<표 5-6>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진단 결과에 따른 분포	186

<표 5-7> 은퇴준비 종합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93
<표 6-1> 가중치를 반영한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정	194
<표 6-2> 은퇴준비점수 건강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94
<표 6-3> 은퇴준비점수 대인관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96
<표 6-4> 은퇴준비점수 주거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97
<표 6-5> 은퇴준비점수 여가활동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98
<표 6-6> 은퇴준비점수 일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99
<표 6-7> 은퇴준비점수 재무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	200
<표 6-8> 자가진단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로직 및 제시문	202
<표 6-9> 종합점수 자세히 보기 화면을 위한 로직 및 제시문	205
<표 6-10>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 로직	208
<표 6-11> 영역별 하위영역의 균형성 판단 로직	209
<표 6-12> 영역별 진단 결과 화면의 로직 및 제시문	211
<표 6-13> 영역 간 균형 잡힌 은퇴준비가 필요한 이유	213
<표 6-14> 건강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6
<표 6-15>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216
<표 6-16>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218
<표 6-17> 대인관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24
<표 6-18>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225
<표 6-19> 주거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29
<표 6-20>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229
<표 6-21>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230
<표 6-22> 여가활동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32
<표 6-23>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232
<표 6-24>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233
<표 6-25> 일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36
<표 6-26>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236

<표 6-27>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	237
<표 6-28> 재무설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240
<표 6-29>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241
<표 6-30>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	241

그림 목차

<그림 2-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종합진단」	37
<그림 2-2> 금융감독원의 「참 쉬운 재무진단」	38
<그림 2-3> 금융감독원의 「노후 재무설계」	39
<그림 2-4> 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	45
<그림 2-5>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	46
<그림 2-6> 신한은행의 「S-미래설계 은퇴준비 자가진단」	47
<그림 2-7> 삼성자산운용의 「은퇴설계 시뮬레이터」	48
<그림 2-8> 미래에셋생명의 「수요분석도구 : 은퇴견적과 재정설계」	49
<그림 4-1> 영역별 은퇴준비 진단 결과(100점 만점)	130
<그림 4-2>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에서 개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132
<그림 4-3>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포	133
<그림 4-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136
<그림 4-5> 6대 영역 간 상관관계 분포도	138
<그림 4-6>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40
<그림 4-7> 체질량 지수(BMI) 판단	140
<그림 4-8> 건강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42
<그림 4-9>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리 영역 점수	145
<그림 4-10>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47
<그림 4-11> 대인관계 영역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48
<그림 4-1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인관계 영역 점수	152
<그림 4-13>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54
<그림 4-14> 주거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55
<그림 4-1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거 영역 점수	158
<그림 4-16>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60
<그림 4-17> 여가활동 목적 분포	161
<그림 4-18> 여가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62

<그림 4-19>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영역 점수	165
<그림 4-20>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67
<그림 4-21> 일 목적 분포	168
<그림 4-22> 일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69
<그림 4-2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 영역 점수	172
<그림 4-24>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174
<그림 4-25> 재무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175
<그림 4-26>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재무관리 영역 점수	178
<그림 5-1> 군집1: 평균 이상의 균형형	187
<그림 5-2> 군집2: 일 준비 보완형	187
<그림 5-3> 군집3: 보통 수준의 균형형	188
<그림 5-4> 군집4: 시간사용 준비 취약형	188
<그림 5-5> 군집5: 일 준비 취약형	189
<그림 5-6> 군집6: 대인관계 준비 취약형	189
<그림 5-7> 군집7: 주거 준비 취약형	191
<그림 5-8> 군집8: 전반적 취약형	191

요 약 문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은퇴준비 자가진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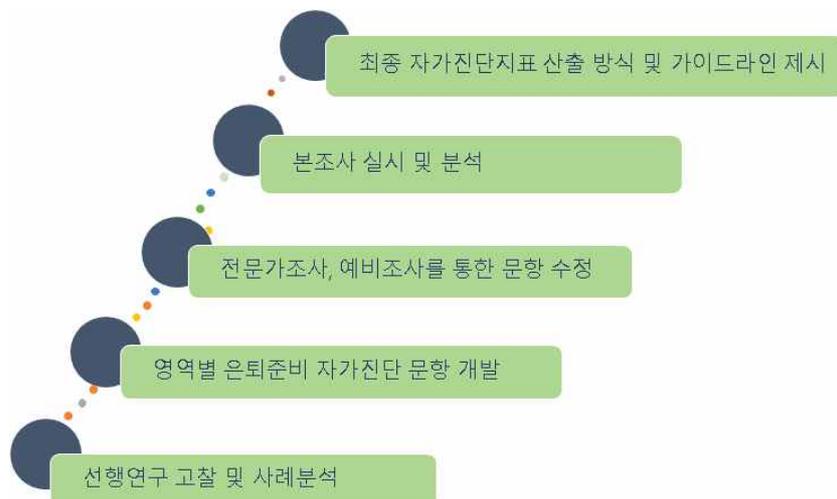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은퇴준비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특히 경제생활을 하는 시기에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생애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은퇴준비는 인생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기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은퇴준비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인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은퇴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생애설계 측면에서의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초기 은퇴준비지표는 재무적 영역만을 다루어 제한적인 면이 있었으나 은퇴준비에 있어서 비재무적인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사회활동, 시간관리(여가), 주거 등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음
- 그러므로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적 생활설계를 고려해볼 때, 은퇴 전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은퇴설계지표를 통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은퇴설계의 현재 수준 인지와 자각을 통한 준비도 향상을 도와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공무원을 위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필요성

-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은퇴 준비에 여유가 있음
- 또한 비재무적 은퇴준비에 있어서도 퇴직 전 시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점과 기회가 있으며, 공무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높은 직업적 인기를 얻는 데에는 일반 회사원 및 자영업자에 비하여 휴일 및 근무시간이 잘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큰 역할을 차지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재무적, 비재무적 장점과 기회는 자칫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거나 사회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은퇴준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쉬움. 또한 공무원은 노후준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은퇴자 개인의 삶의 질은 담보되지 않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현 공무원들은 이미 은퇴한 공무원들에 비해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중요함
-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미흡한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입한 전 국민 대상 노후진단서비스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체계적인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은퇴준비 관련 교육을 보완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공무원을 위한 은퇴설계진단지표를 통하여 퇴직 전 제공되는 은퇴설계교육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진단 결과를 활용한다면 은퇴설계의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돕는 효과가 클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은퇴준비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설계 관점에서의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은퇴준비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며 개인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무원 스스로 영역별 은퇴준비수준과 종합은퇴준비수준을 진단하게 하여 균형 있는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함
 - 둘째, 기존 은퇴준비 관련 지수에서 주요 영역으로 꼽은 재무, 건강관리, 대인관계, 여가활동, 주거, 일 등 6대 영역을 포괄하되, 공무원의 여건과 고유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진단 문항을 개발하고자 함
 - 셋째, 영역별 은퇴준비정도에 대한 피드백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은퇴준비를 유도하고자 함
 - 넷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지원실에서 진행되는 공무원대상 은퇴설계 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연구 진행은 구체적으로 <그림 i -1>과 같이 이루어짐.



<그림 i -1> 연구진행 과정

제 2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측정지표의 개발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포함 영역

- 본 연구의 은퇴준비 자가진단을 위한 지표는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생활, 일, 재무관리 6대 영역이며, 각 영역의 진단 결과를 계량화하여 합산한 점수로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를 산출하였으며, 각 영역의 포함 내용은 다음의 <표 i-1>과 같음

<표 i-1>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포함 영역

영역	포함 내용
건강관리	식습관, 질병관리, 음주 및 흡연 현황 등 신체적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 실천 등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을 위한 준비정도와 스트레스 현황 및 관리, 정신적 건강 관리 등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위한 준비정도
대인관계	배우자, 자녀, 친척 등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퇴 후 가족관계에 대한 준비정도와 가족 이외에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정도
주거	은퇴 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정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에 대한 준비 정도
여가활동	운동, 수영, 취미생활 등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레저형 여가활동)은 물론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타인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정도
일	은퇴 후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능기부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준비 정도
재무관리	현재 보유한 은퇴자산 및 은퇴소득(연금)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와 은퇴자금 준비 및 은퇴자금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 및 실천 등 은퇴 후 재무관리를 위한 준비 정도

2. 지표개발 방향

-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은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은퇴설계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며 개인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 지표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무원 스스로 영역별 은퇴준비수준과 종합은퇴준비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며 체계적인 은퇴준비가 가능하도록 개발함
 - 이 때, 자가진단에 따른 능동적 은퇴준비가 가능하도록 자기평가 방식을 취함.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활동으로, 경쟁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로 타인에 의한 평가와 달리 개인의 발달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식임
-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은퇴준비 6대 영역의 주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공무원의 고유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고려하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수차례 반영하여 진단지표를 고도화함
 -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주거와 일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 비중을 높임으로써 신체적 건강 진단에 치중되었던 건강영역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또한 재무 영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금충분성을 진단하되,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무관리습관 형성을 위한 진단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였음
 - 지수개발 및 측정 모형은 최현자 등(2012)이 개발한 SPA모형을 단순화한 EA(Evaluation-Action)모형으로 수정하여 적용함
- 셋째, 영역별 진단결과 및 가이드라인은 자신과 유사한 연령대와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준비가 취약한 영역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및 상담 관련 연구결과의 주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비교집단과의 동질감 인식 및 연령 코호트 간 차이점 반영을 위하여 진단결과 제시를 세분화함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측정 지표

1) 영역별 지표의 구성 및 문항 수

- 6대 영역 및 하위영역의 구성과 각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 산출에 반영되는 문항 수는 다음의 <표 i -2>와 같음

<표 i -2>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 산출 반영 문항 수

영역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	일	재무관리
하위 영역	일상생활관리 (6)	배우자와의 관계(4)	주거환경(4)	여가활동 지속성관리(2)	역량관리(2)	현금흐름관리 (2)
	질병상태 및 관리(3)	자녀와의 관계(3)	주거안정(2)	여가비용관리 (1)	일정보활용 (1)	자산부채관리 (3)
	정신건강 관리(3)	가족이외의 관계(2)	주거계획(2)	동반자관리(1)	관련프로그램 참여(1)	은퇴준비인식 (3)
		정서적 교류 (2)		관련정보 활용도(1)		
문항 수	12	11	8	5	3	8

* 하위영역의 괄호 안 숫자는 하위영역의 문항 수임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최종문항

- 은퇴준비 자가진단 최종문항 : SPA모형을 단순화한 EA(Evaluation-Action)모형과 기존의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은퇴준비 자가진단 측정 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간보고회를 거쳐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최종 문항을 확정함
-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을 측정하기 위한 최종 지표는 다음 <표 i -3>과 같이 구성됨

<표 i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측정 지표

영역별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생활 관리	식생활 관리 3.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운동관리 4.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흡연량 5.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음주량 6.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 (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면 7.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휴식 8.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질병 상태 및 관리	건강검진 9.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중증질병 10.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10-1. (중증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만성질병 11.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11-1.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앓고 있는 만성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우울감 12-1.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12-2.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12-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12-4.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12-5.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스트레스 빈도	13.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스트레스 해소방법	14. 귀하께서는 귀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BMI	15.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대인관계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3. 평소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4.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5.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6.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7.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8. 평소에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9.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가족 이외 와의 관계	친지 관계	10.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 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회적 관계	11.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정서적 교류		12.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13.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 조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주거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주거 인식		2.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거 환경	안전성	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쾌적성	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편의성	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접근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유지관리 용이성	6.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성	7.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지,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주택자산 운영	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집의 규모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
주거 계획	주거유형	9.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동반자	10.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여가활동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가 활동 지속 성	여가활동 인식	3.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활동 참여	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여가비용		5.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동반자		6.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보활용		7.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 본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일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역량 관리	역량개발 3.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관련경험 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정보활용	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참여	6. 은퇴 후 일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관리	
중요도	1.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흐름관리	3.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4.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자산부채관리	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6.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퇴준비인식	8.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9.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다.
	11. 자녀를 위한 지출(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되십니까?

4. 은퇴준비 자가진단 산출 방식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산출 방식

-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는 6대 영역별 진단결과 점수(100점 만점)에 개인이 응답한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

$$\text{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 \sum_{i=1}^6 (i\text{영역 점수} \times i\text{영역 가중치}_n)$$

i : 6대 영역(건강관리영역, 대인관계 영역, 주거 영역, 여가활동 영역, 일 영역, 재무관리 영역)

i영역 점수 : 각 영역별 100점 만점 환산 점수

n : 개인응답자

2)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산출방식

□ 각 영역별 산출방식은 다음의 표와 같음

(1) 건강관리

항목		측정문항 및 측정방법		산출식	
1단계	번호	문항별 점수 산출			
일상 생활 관리	식생활관리	A11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1 =A11*2
	운동관리	A12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2 =A12*2
	흡연	A13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담배를 피운다. ②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	A203 =if(A13=2,10,0)
	음주	A14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번 정도 ③ 한 달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1번 미만 ⑤ 전혀 없다(술을 마시지 않는다)	A204 =A14*2
	수면	A15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5 =A15*2
	휴식	A16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6 =A16*2
질병 관리	건강검진	A17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7 =A17*2
	중증질병	A18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208 =IF(A18=2,10,IF(A19=5,8,IF(A19=4,6,IF(A19=3,4,IF(A19=2,2,0))))
		A19	귀하가 앓고 있는 중증질환에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만성 질병	A20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209	=IF(A20=2,10,IF(A21=5,8,IF(A21=4,6,IF(A21=3,4,IF(A21=2,2,0))))))
	A21	귀하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신건강관리	A22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① 있다 ② 없다	A210	=COUNTIF(A22:A26,2)*2
	A23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A24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25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26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스트레스 정도	A27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1	=(6-A27)*2
스트레스 해소	A28	귀하께서는 귀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2	=A28*2
2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일상생활관리		100점 만점	A301	=SUM(A201:A206)*(10/6)
	질병상태 및 관리			A302	=SUM(A207:A209)*(10/3)
	정신건강 관리			A303	=SUM(A210:A212)*(10/3)
3단계		건강관리 영역 점수 산출			
건강영역 점수		100점 만점	A401	=AVERAGE(A301:A303)	

(2) 대인관계

항목		측정문항		산출식		
1단계		문항별 점수 산출				
배우자와 의 관계	B11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있다	B201	=B11*2	
	B12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2	=B12*2	
	B13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3	=B13*2	
	B14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4	=B14*2	
자녀와의 관계	B15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자녀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있다	B205	=B15*2	
	B16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① 자녀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6	=B16*2	
	B17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① 자녀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7	=B17*2	
가족 이외	친 지 관 계	B18	귀하께서는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형제자매, 친지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	B208	=B18*2
	사 회 적 관 계	B19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① 친구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	B209	=B19*2
정서적 지지	B20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① 1~2명 ② 3~4명 ③ 5~6명 ④ 7~8명 ⑤ 9명 이상	B210	=B20*2	
	B21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① 1~2명 ② 3~4명 ③ 5~6명 ④ 7~8명 ⑤ 9명 이상	B211	=B21*2	
2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배우자		100점 만점	B301	=SUM(B201:B204)*(10/4)	
	자녀			B302	=SUM(B205:B207)*(10/3)	
	가족 이외			B303	=SUM(B208:B209)*(10/2)	
	정서적 지지			B304	=SUM(B210:B211)*(10/2)	
3단계		대인관계관리 영역 점수 산출				
		대인관계영역 점수		B401	=AVERAGE(B301:B304)	

(3) 주거

항목		측정문항		산출식		
2단계		번호	문항별 점수 산출			
주거 환경	안정성	C11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201	=C11*2
	쾌적성	C12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2	=C12*2
	접근성	C1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3	=C13*2
	유지관리 용이성	C1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4	=C14*2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성	C1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5	=C15*2
	주택 운영	C16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6	=C16*2
주거 계획	유형	C17	은퇴 후 어디에서 생활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7	=C17*2
	동반자	C18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8	=C18*2
3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주거환경		100점 만점	C301	=SUM(C201:C204)*(10/4)
		주거안정			C302	=SUM(C205:C206)*(10/2)
		주거계획			C303	=SUM(C207:C208)*(10/2)
4단계		주거계획 영역 점수 산출				
주거계획 점수(100점 만점)				C401	=AVERAGE(C301:C308)	

(4) 여가활동

항목		측정문항		산출식			
1단계		번호	기본정보				
여가활동지속성	여가활동인식	D11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1	=D11*2	
	여가활동참여	D12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D202	=D12*2	
여가비용		D13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3	=D13*2	
동반자		D14	3.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4	=D14*2	
정보활용		D15	4.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4	=D15*2	
3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여가활동지속성		100점 만점	D301	=SUM(D201:D202)*(10/2)	
		여가비용			D302	=D203*10	
		동반자			D303	=D204*10	
		정보활용			D304	=D205*10	
4단계		여가활동 관리 영역 점수 산출					
		여가활동영역 점수		100점 만점	D401	=AVERAGE(D101:A106)	

(5) 일

항목		측정문항		산출식	
1단계	번호	기본정보			
역량 관리	E11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1	=E11*2
	E12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2	=E12*2
정보 활용	E13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3	=E13*2
프로 그램 참여	E1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4	=E14*2
3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역량관리	100점 만점		E301	=SUM(E201:E202)*(10/2)
	정보활용			E302	=E203*10
	프로그램 참여			E303	=E204*10
4단계	일자리 관리 영역 점수 산출				
	일자리영역 점수	100점 만점		E401	=AVERAGE(E301:E305)

(6) 재무관리

항목	측정문항		산출식	
1단계	기본정보			
현금흐름 관리	F11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1 =F11*2
	F12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2 =F12*2
자산부채 관리	F13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3 =F13*2
	F14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4 =(6-F14)*2
	F15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환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5 =(6-F15)*2
은퇴준비 인식	F16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6 =F16*2
	F17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7 =F17*2
	F18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F208 =IF(F18=1,10,0)
3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현금흐름관리	100점 만점	F301	=SUM(F201,F202)*(10/2)
	자산부채관리		F302	=SUM(F203:F205)*(10/3)
	은퇴준비인식		F303	=SUM(F206:F208)*(10/3)
4단계	재무관리 영역 점수 산출			
	재무영역 점수	100점 만점	F401	=AVERAGE(F301:F304)

제 3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결과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공무원 직군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의논하여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40-5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개발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26부를 회수하였으나, 월평균 가계소득 극단치(29명 제거, 38 이상, $\delta = 2133.1$), 혼인관계, 자녀유무와 관련 응답 불일치 등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750명을 분석에 이용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i-4>와 같음

<표 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50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883	(50.5)	거주지역	대도시	839	(47.9)
	여성	867	(49.5)		중소도시	772	(44.2)
연령	40-44	193	(11.0)		농어촌	139	(7.9)
	45-49	389	(22.2)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	(63.9)
	50-54	435	(24.9)		지방직 공무원	632	(36.1)
	55-59	733	(41.9)	공무원 직종 및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	(42.8)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	(10.9)		소방직 공무원	34	(1.9)
	대졸	847	(48.4)		교육직 공무원	967	(55.3)
	대학원졸 이상	712	(40.7)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178	(10.2)
혼인상태	미혼	86	(4.9)		없다	1572	(89.8)
	기혼-유배우	1577	(90.1)	월평균 가계소득(평균 : 637만원)	400만원 미만	237	(13.5)
	기혼-무배우	87	(5.0)		500만원 미만	284	(16.2)
자녀유무	없다	52	(3.1)		600만원 미만	356	(20.3)
	있다	1612	(96.9)		700만원 미만	232	(13.3)
	계	1664	(100.0)		800만원 미만	197	(11.3)
	자녀수 (평균 : 2명)	1명	225		(14.0)	900만원 미만	180
2명		1184	(73.4)		900만원 이상	264	(15.1)
3명		203	(12.6)				
계		16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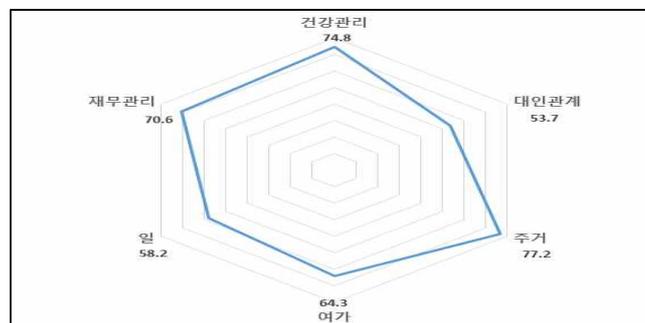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

1)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 점수

- 은퇴준비점수를 구성하는 6대 영역의 진단 결과는 영역별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었음. 6대 영역 중 진단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77.2점인 주거 영역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53.7점인 대인관계 영역으로 나타남(<표 i -5> 참고)
- 영역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인관계(53.7점) < 일(58.2점) < 여가활동(64.3점) < 재무관리(70.6점) < 건강관리(74.8점) < 주거(77.2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은퇴준비를 하는 영역에서 대인관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퇴 후에도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은퇴준비를 위한 6대 영역 중 주거 영역과 건강관리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무원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주거 생활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 -5>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6대 영역별 점수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	일	재무관리
평균	74.8	53.7	77.2	64.3	58.2	70.6
(S.D.)	(9.9)	(15.1)	(14.3)	(17.3)	(20.2)	(12.5)
중앙값	75.5	54.5	80.0	65.0	60.0	71.1
최소값	32.2	0.0	20.0	18.0	20.0	18.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i -2> 영역별 은퇴준비 진단 결과(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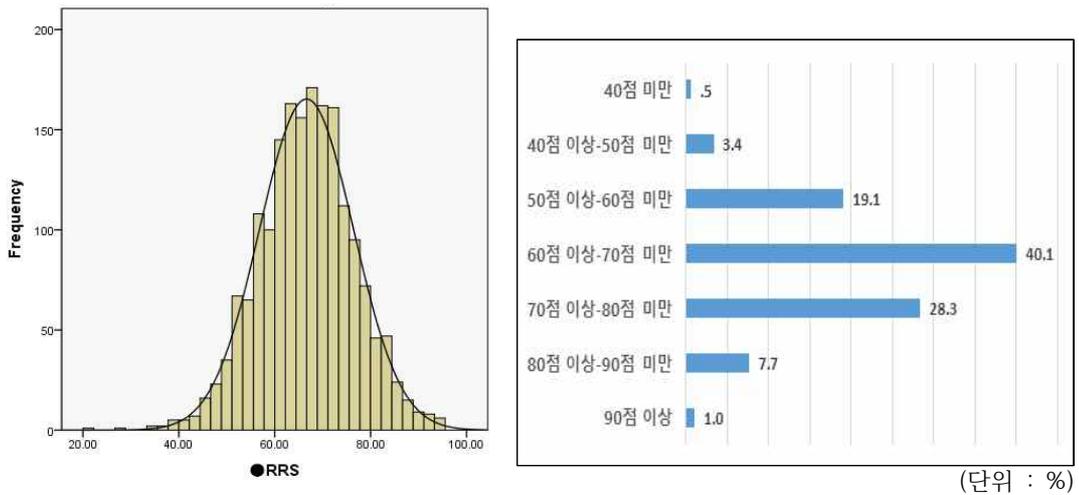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평균은 68.8점이었고 최소값은 22.2점, 최대값은 96.0점이었음(<표 i -6> 참고)

<표 i -6>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68.4	9.8	68.8	22.2	96.0

-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0.1%가 60점~70점 사이에 해당하였고, 28.3%는 70점~80점 사이였으며, 23.0%는 60점 미만이었음. 반면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가 80점 이상인 공무원은 8.7%에 불과하였음



<그림 i -3>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포

제 4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유형화 및 가이드 라인

1. 진단결과 및 가이드 제시의 기본 방향

-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는 공무원들의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개인의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 전달과 교육 참여의 동기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단 결과 및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첫째,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를 보여주어 은퇴준비 수준을 인식하게 하고,
 - 둘째,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와 준비 수준을 보여주어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줌. 또한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함
 - 셋째, 이상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 및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교육 소개하는 등 공무원들의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2. 자가진단 점수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 자가진단 결과를 이용하여 은퇴준비의 유형화 방법에는 영역별 준비 특성을 고려하여 명명하는 방법(국민연금 노후보장서비스)과 점수를 기준으로 취약한 정도를 통해 유형화하는 방법(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고 취약한 영역을 인식하게 하고, 6대 영역 간 균형잡힌 준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강조하기 위해 후자의 방법 즉, 점수를 중심으로 한 평균 및 중앙값과의 비교를 통한 점수 기준 유형화 작업을 진행함

- 이에 따라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및 준비수준

-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6대 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에 개인이 생각하는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로, 전반적인 은퇴준비 수준을 알려줌으로써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종합점수 수준의 판단은 1) 개별 응답한 가중치를 반영한 은퇴준비 종합점수, 2) 공무원 평균 점수와의 차이, 그리고 3) 공무원 중 본인의 은퇴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줌
 - 은퇴준비 수준은 종합점수를 이용하여 우수/양호/보통/미흡/위험으로 분류함. 이는 산출된 RRS(종합점수)의 10분위 수를 이용하여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분류한 후 상위 10%는 은퇴준비수준 우수, 상위 20~30%는 양호, 상위 40~60%는 보통, 하위 30~40%는 미흡, 하위 10~20%는 위험으로 분류한 것임
 - 백분위 분포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통계량은 다음의 <표 i -7>과 같음

<표 i -7> 은퇴준비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점수 백분위

판단	백분위	분류기준				RRS
위험	하위 10%	56.0 미만				50.6(5.3)
미흡	하위 20%	56.0	이상	60.1	미만	61.6(2.8)
	하위 30%	60.1	이상	63.3	미만	
	하위 40%	63.3	이상	66.2	미만	
보통	상위 60%	66.2	이상	68.8	미만	70.1(2.2)
	상위 50%	68.8	이상	71.5	미만	
	상위 40%	71.5	이상	73.7	미만	
양호	상위 30%	73.7	이상	76.6	미만	76.8(2.0)
	상위 20%	76.6	이상	80.7	미만	
우수	상위 10%	80.7	이상			85.1(3.5)

<표 i -8>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RRS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위험
RRS (종합점수)	85.1	76.8	70.1	61.6	50.6
건강관리	86.0	80.6	76.7	69.8	61.9
대인관계	69.7	61.5	55.6	46.8	37.5
주거	92.7	82.4	76.8	72.2	67.5
여가활동	84.5	75.4	65.6	56.1	42.9
일	77.5	66.8	59.0	51.4	40.3
재무관리	85.5	77.3	71.4	65.0	57.4

2)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 및 준비수준

-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는 은퇴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6대 영역들 간의 균형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균형있는 은퇴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각 영역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영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고, 6대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중상/중하/하 수준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수준을 판단함
- 또한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인식-평가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3~4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평균 기준 상하집단을 분류한 후 조합하여 하위영역에서의 균형성을 함께 파악함

(1)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및 영역 간 균형성

-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은 각 영역 점수의 4분위수를 이용하여 상/중상/중하/하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기준에 대한 통계량은 다음의 <표 i -9>와 같음

<표 i -9>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 기준

수준	하 (미만)	중하 (이상~미만)	중상 (이상~미만)	상 (이상)
건강관리	68.9점	68.9점 ~ 75.6점	75.6점 ~ 82.2점	82.1점
대인관계	45.0점	45.0점 ~ 54.6점	54.6점 ~ 63.3점	63.3점
주거	70.0점	70.0점 ~ 80.0점	80.0점 ~ 83.3점	83.3점
여가활동	55.0점	55.0점 ~ 65.0점	65.0점 ~ 77.5점	77.5점
일	40.0점	40.0점 ~ 60.0점	60.0점 ~ 73.3점	73.3점
재무관리	63.3점	63.3점 ~ 71.1점	71.1점 ~ 78.9점	78.9점

<표 i -10>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분포

	하		중하		중상		상	
건강관리	418	(23.9)	385	(22.0)	481	(27.5)	466	(26.6)
대인관계	412	(23.5)	455	(26.0)	440	(25.1)	443	(25.3)
주거	432	(24.7)	405	(23.1)	436	(24.9)	477	(27.3)
여가활동	436	(24.9)	437	(25.0)	391	(22.3)	486	(27.8)
일	181	(10.3)	567	(32.4)	555	(31.7)	447	(25.5)
재무관리	423	(24.2)	434	(24.8)	429	(24.5)	464	(26.5)

(2) 영역별 하위영역의 균형성

- 각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균형성은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결과를 보여줄 때 개인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즉, 영역 점수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간에 균형적인 요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 각 영역을 구성하는 3~4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동일 연령대¹⁾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여부를 판단한 후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의 수를 이용하여 영역 내에서의 하위영역별 균형성을 판단함
 - 동일 연령대의 평균과 비교 목적은 같은 연령대의 집단에서 은퇴준비가 부족한 측면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1) 연령집단은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로 비교하였음

- 전체 6대 영역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하여, 유형을 명명하기 위한 유형화가 아닌 취약한 부분을 짚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하였음
- 하위영역을 바탕으로 한 네 집단의 명명은 양호-균형, 보통-불균형, 미흡-불균형, 위험으로 하였음. 평균이상의 하위영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균형성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은퇴준비가 부족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하위영역이 4개인 대인관계, 일 영역의 경우, 4개가 모두 평균 초과면 양호-균형, 2개~3개 평균 초과이면 보통-불균형, 1개만 평균 초과이면 미흡-불균형, 4개가 모두 평균 미만이면 위험으로 함
- 하위영역이 3개인 건강관리, 주거, 일, 재무관리의 경우, 3평균 초과면 양호-균형, 2개가 평균 초과이면 보통-불균형, 1개만 평균 초과이면 미흡, 3개가 모두 평균 미만이 위험으로 함
- 3개 또는 4개 하위영역 모두 평균 초과하는 경우영역별 하위영역 구성 및 평균상하 여부 판단에 이용된 각 영역의 연령대별 평균은 다음과 같음

<표 i -11>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 기준 (동일 연령대별 평균)

6대 영역 및 하위영역		전체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후반
건강관리	일생활 관리	72.6	68.3	71.6	73.9	73.5
	질병상태 및 관리	87.7	89.4	89.1	87.4	86.7
	정신건강관리	64.2	59.8	63.5	64.6	65.5
대인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63.8	59.1	61.5	65.8	65.1
	자녀와의 관계	63.6	57.8	62.8	64.6	65.0
	가족이외관계	56.9	55.4	55.9	57.3	57.5
	정서적 교류	30.8	31.5	30.7	31.4	30.2
주거	주거환경	76.0	74.4	74.5	77.4	76.3
	주거안정	76.3	74.5	75.6	77.5	76.3
	주거계획	79.4	76.9	78.6	80.7	79.7
여가활동	여가활동지속성	64.2	60.7	61.3	65.0	66.2
	여가비용관리	65.5	60.5	61.0	67.1	68.3
	동반자관리	63.8	59.6	59.6	65.8	65.9
	여가활동 정보활용	63.8	57.4	59.6	65.0	66.9
일	역량관리	58.3	56.0	56.6	58.3	59.8
	취업 정보활용	59.6	55.8	57.8	59.3	61.7
	프로그램참여도	56.9	54.8	54.8	57.1	58.4
재무관리	현금흐름관리	62.5	60.5	59.6	63.5	63.9
	자산부채관리	71.9	73.2	69.9	71.8	72.6
	노후자금준비인식	77.6	73.1	76.7	78.7	78.7

<표 i -12>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진단 결과에 따른 분포

	양호-균형	보통-불균형	미흡-불균형	위험
건강관리	430 (24.6)	573 (32.7)	457 (26.1)	290 (16.6)
대인관계	301 (17.2)	854 (48.8)	343 (19.6)	252 (14.4)
주거	748 (42.7)	376 (21.5)	251 (14.3)	375 (21.4)
여가활동	472 (27.0)	541 (30.9)	269 (15.4)	468 (26.7)
일	807 (46.1)	237 (13.5)	107 (6.1)	599 (34.2)
재무관리	472 (27.0)	508 (29.0)	440 (25.1)	330 (18.9)

3. 자가진단 결과 출력 화면 구성 가이드

- 은퇴준비 자가진단 진단결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공하는 목적은 1)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2) 은퇴 준비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3)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 전달과 교육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은퇴준비 자가진단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은퇴준비 하위 영역을 포괄한 종합점수(RRS)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은퇴준비 6대 영역별 점수와 준비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역 간 균형 있는 은퇴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방식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됨
 - [1단계 : 종합점수를 통한 은퇴준비수준 판단] 개별적으로 응답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 은퇴준비 종합점수를 제시, 본조사를 통해 산출된 공무원들의 평균 점수와의 차이를 파악하여 은퇴준비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줌
 - 종합점수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위험’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위해 10분위 수를 활용함. 이 때 상위 10%는 ‘우수’, 상위 20~30%는 ‘양호’, 상위 40~60%는 ‘보통’, 하위 30~40%는 ‘미흡’, 하위 10~20%는 ‘위험’으로 구분함
 - [2단계 :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정보]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된 개인이 응답한 6대 영역 가중치를 보여주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중치를 부

여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보여줌

- **[3단계 : 영역별 진단 결과]** 6대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점수와 수준, 영역별 하위 영역의 균형성 판단 결과를 보여줌
 - 2단계는 은퇴준비 영역별 점수를 우선 제시한 후 4분위수를 이용하여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균형성을 판단하는 등 자세한 진단결과 및 정보를 제공함
 - 전체 6대 영역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현함. 하위 영역 모두 평균 이상인 경우 ‘양호-균형’, 하위영역 2~3개가 평균 이상인 경우 ‘보통-불균형’, 하위영역 1개가 평균 이상인 경우 ‘미흡-불균형’, 하위영역 모두 평균 미만인 경우 ‘위험’으로 판단함
 - **[4단계 : 영역별 진단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각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 및 균형성, 취약한 부분의 은퇴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 추가적으로 진단결과 저장 및 이메일 발송 방법을 안내하는 화면을 출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의의

- 공무원연금공단의 첫 번째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이며, 6대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첫 번째 은퇴준비 자가진단 도구임
 - 은퇴준비 수준 인식 개선을 위해 6대 영역을 구분하여 포함한 첫 번째 종합 자가진단 도구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현재 복지와 더불어 은퇴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기회가 됨
- 공무원 스스로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강조하는 지표로서, 체계적인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일반 국민이 은퇴에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와 퇴직 전 휴일 및 근무시간 보장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은퇴준비에 여유가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은퇴준비가 더욱 중요하므로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으로 공표할 수 있음
 -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으로 은퇴준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함
- 6대 영역별 진단을 포함한 종합적 진단도구로서 공무원의 고유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은퇴준비의 영역별 균형을 강조함
 - 영역별 진단결과에 따른 유형화는 전체 및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각 영역별로 준비가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은퇴 후 생활을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와 이를 위한 현재 생활에서의 실천력,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점검 등 은퇴설계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임
- 누구나 쉽게 은퇴준비의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연구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은퇴준비를 하는 공무원은 약 18%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60% 이상이 영역 간 불균형적인 은퇴준비를 하고 있었음
- 공무원들의 영역별 준비 수준이 높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은퇴설계를 통하여 퇴직 이후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2) 기대효과

-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개시를 통하여 공무원도 은퇴준비가 필요하며,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를 통해 은퇴준비정도를 인식하도록 하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와 준비 수준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은퇴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높이고,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 정도를 시각화하고 계획 및 실천의지를 강조함
-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함
- 개인별 맞춤형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대상 은퇴준비교육 및 미래설계 교육의 참여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은퇴설계 진단 결과에 따른 가이드 제공 시 공무원연금공단의 교육과정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임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안

1) 공무원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 현재 은퇴준비 실태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체계적인 은퇴준비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실행의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결과 제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여 은퇴 준비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은퇴준비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퇴준비의 필요성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미흡한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전 국민 대상 노후진단서비스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 해석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정보를 연계하여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외 사적연금을 활용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용 및 연금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
 - '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도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으로 기존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확대됨. 이에 각 금융권에서 공무원 대상 공격적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품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임

- 또한 재무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3층 연금체계” 중 1층 연금(공적연금)과 2층 연금(퇴직연금)이 분리되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연금공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연금공단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바로 접속하여 누구나 은퇴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연수 참여자들에게 URL을 이용하여 손쉽게 자가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향후 은퇴준비 유형 분류 결과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비은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 전략 및 성과 향상 전략을 구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변화 방안으로는 6대 영역 모두를 기본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영역별 2~3개의 선택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선택과정 운영 시 여가활동 영역과 재무관리 영역은 취약한 다른 영역이 있는 경우 여가와 재무관리 영역도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영역별 진단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77.2점인 주거 영역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53.7점인 대인관계 영역이었음. 영역별 진단 점수가 가장 낮았던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교육,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 등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교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 영역에서는 은퇴 후 일을 할 생각이 없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진단결과가 낮을 경우 여가활동 영역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두 영역에 대한 진단 및 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일 영역과 여가활동 영역은 시간의 활용을 토대로 하므로 상호연관성을 갖고 교육이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재무 영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상연금수령액 조회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재무관리 영역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제공에 연금소득대체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은퇴 후 예상생활비 대비 공무원연금의 대체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공무원연금 수령방법에 따른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공무원들의 자기진단 정보를 수집한다면 공무원의 은퇴준비 실태 파악 및 교육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축적된 자기진단 보고서를 활용하여 희망 시 전문가에 의한 은퇴설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자기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유형화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진단서비스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자기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공무원 연금에 관한 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공무원 은퇴준비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 은퇴준비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퇴를 앞둔 예비퇴직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순간부터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4~50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기진단 서비스를 20~30대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공무원으로서 은퇴준비와 관련된 차별성을 찾아 이를 반영한 문항 또는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자기진단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자기진단 결과가 상담으로 연계되어야 함. 본 용역에서 포함한 범위는 자기진단 문항 개발과 진단결과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

로 그 진단결과를 통한 상담연계 방안 및 상담 콘텐츠는 별개의 용역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퇴준비 관련 교육 또는 연수과정이 공무원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가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결과를 반영한 커리큘럼 및 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자가진단 데이터의 축적과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자가진단의 목표가 부족한 은퇴준비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통한 전후 비교 등의 변화관리를 위한 지표는 새롭게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함
- 개인이 인지하는 개념과 중요도, 우선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진단 후 교육과정 또는 연수, 상담 등을 종합적 또는 복합적 진단 서비스의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더 바람직할 것임
 -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집단 평균과의 비교 등 계량화된 정보 이외에 각 개인의 취약영역에 대한 복합적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해야 개개인이 자신의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 이상의 제언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가진단 문항이 개발된 이번 용역은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공무원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가진단 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도입
 - 은퇴준비 상담인력 확보와 지속적 교육 및 상담 콘텐츠 개발
 - 은퇴준비 교육 수행과 관련된 변화관리 툴 개발 및 적용
 - 은퇴준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 전 연령대에 맞는 자가진단 지표의 개발 및 보완
 -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과 연계된 재무설계 서비스 툴 개발 및 운영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가 필요한 이유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은퇴준비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왔음. 특히 경제생활을 하는 시기에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생애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 및 부모봉양에 대한 의식 부재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노후 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이르면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음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5년 12.8%에서 '30년 24.5%, '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은퇴준비는 인생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기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의 양적 측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은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은퇴준비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인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은퇴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이 증대하면서 자신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미흡함. 은퇴자산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산에 대한 관

- 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은퇴 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은퇴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은퇴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러므로 생애설계 측면에서의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초기 은퇴준비지표는 재무적 영역만을 다루어 제한적인 면이 있었으나 은퇴준비에 있어서 비재무적인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사회활동, 시간관리(여가), 주거 등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음
-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가족 및 친구나 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중요하며, 사회참여나 여가활동 등과 같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거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따라서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재무적인 측면의 은퇴설계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미흡한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진단과 설계, 교육에 널리 적용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표(2011)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였으며 노후준비지표를 기초로 ‘내연금-노후준비 알아보기(노후준비종합진단)’ 서비스가 제공됨
- 개별 금융회사에서도 각 적용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은퇴준비지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지수 산정을 위한 영역의 확대와 산정방식의 변화 등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은퇴준비지표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은퇴준비지수(2008, 2010, 2012, 2015)
 - 삼성생명의 RAINBOW 은퇴지수(2011)

-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은퇴준비지수(2011)
- 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지표(2016) 등
- 해외에서도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 행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의 은퇴자협회(AARP)가 주축이 되어 G7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등 10개국의 은퇴준비의 안정성을 조사(Retirement Security Survey)한 바 있음
 - 미국의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1996년부터 은퇴확신조사(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수행하여 저축이나 은퇴설계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와 행동들을 조사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의 통합적 생활설계를 고려해볼 때, 은퇴 전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은퇴설계지표를 통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은퇴설계의 현재 수준 인지와 자각을 통한 준비도 향상을 도와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공무원을 위한 자가진단 지표가 필요한 이유

-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은퇴준비에 여유가 있음
- 또한 비재무적 은퇴준비에 있어서도 퇴직 전 시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점과 기회가 있으며, 공무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높은 직업적 인기를 얻는 데에는 일반 회사원 및 자영업자에 비하여 휴일 및 근무시간이 잘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큰 역할을 차지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재무적, 비재무적 장점과 기회는 자칫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거나 사회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은퇴준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쉬움

- 또한 공무원은 노후준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은퇴자 개개인의 삶의 질은 담보되지 않음
 - 선행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공무원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 만족도에 비하여 준비 정도는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심현진·이일현·이현실, 2013; 가용현, 2015)
 - 공무원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박현숙·임정도, 2012)에 의하면, 공무원 역시 노후에 대한 책임주체로 본인과 배우자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대부분(83.9%)임
 -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43.0%로 많은 반면, 노후생활에 대해 경제력이나 건강에서 매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각각 60.1%와 71.4%에 달함
 - 또한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이유가 젊은 연령대에서 더 높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현 공무원들은 이미 은퇴한 공무원들에 비해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중요함
 - 2015년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기여율 증가(기준 소득월액의 9%,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재직기간 1년당 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65세로 단계적 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특히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충족 정도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이 26.8%, 부족하다는 공무원이 56%가 되어 기본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미흡한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전 국민 대상 노후진단서비스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노후준비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가진단 메뉴 중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에서는 직업 선택 메뉴에 "공무원" 선택이 가능하지만 추가 정보 입력에는 공무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 또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준비정도 알아보기 메뉴에서는 공무원연금 알아보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연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전국 예상연금액 한눈에 보기 서비스에서도 국민연금 평균액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공무원연금액이 더 높게 비교되어 은퇴준비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재무설계 서비스 메뉴의 경우에도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액,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서비스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의 체계적인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은퇴설계 교육을 보완하고 공무원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 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은퇴준비는 퇴직 전부터 장기간을 고려하여 시작되어야 하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은퇴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선진국과는 현저히 다른 복지제도 및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공무원에게 특화되어 적용 가능한 삶의 질 측정의 모범답안이 필요함
- 공무원을 위한 은퇴설계진단지표를 통하여 퇴직 전 제공되는 은퇴설계교육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진단 결과를 활용한다면 은퇴설계의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돕는 효과가 클 것임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은퇴준비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설계 관점에서의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공무원의 은퇴준비인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은퇴준비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며 개인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무원 스스로 영역별 은퇴준비수준과 종합은퇴준비 수준을 진단하게 하여 균형 있는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함
- 둘째, 기존 은퇴준비 관련 지수에서 주요 영역으로 꼽은 재무, 건강관리, 대인관계, 여가활동, 주거, 일 등 6대 영역을 포괄하되, 공무원의 여건과 고유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진단 문항을 개발하고자 함
- 셋째, 영역별 은퇴준비정도에 대한 피드백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은퇴준비를 유도하고자 함
- 넷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지원실에서 진행되는 공무원대상 은퇴설계 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함

제 2 장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1. 은퇴준비의 일반적 특성

1) 은퇴에 대한 인식

- 은퇴는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 중 가장 대표적인 전환적 기점으로 간주되며, 주관적 상태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개념임(Dentinger, 2003)
 - 은퇴의 객관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상태 여부로 확인함. 개인 대상 질문으로는 “당신은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셨습니까?” 등의 질문에 대한 의사로 판단함(국민연금연구원, 2012)
 - 은퇴의 주관적 조건은 “당신은 은퇴를 하였습니다습니까?”와 같이 은퇴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질문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정순돌 외 3인, 2010)
- 은퇴 개념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문화의 차이에 의하여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활동상태가 취업과 비취업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은퇴를 단순히 경제활동상태 여부에 따른 사건으로 일괄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최문정, 2005)
 - 최근에는 은퇴를 교량적 직업을 가지는 단계와 완전은퇴 단계로 구분하고,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
 - 은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은퇴유형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계속 수행되고 있음(지은정, 2006; Kantarci & Soest, 2008; 신동균, 2009; 박경하, 2011; 김예지, 2016)
 -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실천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며, 결론적으로는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바람직할 것인지로 귀결될 것임
- 은퇴에 대한 인식은 은퇴 후 삶에 대해 가지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음
 - 비은퇴자에게는 ‘은퇴전망’, 은퇴자에게는 ‘은퇴평가’가 되며, 긍정적인 방향을 강조할 때에는 ‘은퇴기대’로 명명하기도 함

-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며,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 기대 등이 은퇴준비를 능동적으로 하는 기제가 됨
- 이와 반대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면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회피하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Joo and Grable, 2001; Reitzes and Mutran, 2004; Noone et al., 2010; 한경혜 외, 2012)
 - 계획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와 함께 행동을 이끌어주는 의도가 형성되는데 주된 요소로 작용함(Ajzen, 1991)
- 비은퇴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여가생활, 가족 및 친구관계, 주거생활, 마음의 안정, 재무상태, 건강상태, 전반적인 생활 등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한 대표적 연구로는 삼성생명 은퇴지수(최현자 외, 2013)가 있음
 - 은퇴전망지수*를 분석한 결과 비은퇴자는 은퇴 후 생활이 현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104.6점), 영역별로는 상이했으며(93.1점-117.8점) 재무, 일, 건강 영역의 경우 부정적으로, 여가, 가족 및 친구 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영역은 긍정적으로 인식했음
 - 반면 은퇴평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은퇴자는 현재 생활이 은퇴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빠졌다고 평가하였으며(97.9점), 7가지 하위 영역별로는 일, 재무 영역은 은퇴 이전보다 현저히 나빠졌으나 여가, 가족 및 친구 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영역은 은퇴 이전 보다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평가하였음(82.1점-118.4점)
- 동 연구에서 전반적 생활에 대해서는 물론, 여가와 건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은퇴에 대한 전망에 비해 은퇴생활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음. 특히 재무, 마음의 안정, 일 영역에서 그 괴리가 큼
 - 은퇴전망지수와 평가지수간의 차이는 미래 은퇴생활에 대한 전망과 실제 은퇴생활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은퇴준비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재무적 측면에서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은퇴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일과 사회활동의 결여를 이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은퇴전망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현재에 비해 은퇴 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가 더 많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현재에 비해 은퇴 후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가 더 많음을 의미

- 이와 더불어 은퇴 관련 전망을 제시하는 Macromill embrain(2015)의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해서도, 원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그렇기에 많은 돈보다 노년까지 꾸준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나 의미 및 가치 부여는 낮은 특징을 보이며, 노년기 복지 제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구체적 항목별 동의율은 ‘노년의 삶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68.2%), ‘아무리 오래 살 수 있어도 돈이 없다면 노년의 삶은 무의미할 것 같다’(84.8%), ‘향후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87.3%), ‘노년에 실버타운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또래 노인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36.8%)였음(Macromill embrain, 2015)
- 기존 학술연구들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을 은퇴인식, 은퇴태도, 은퇴전망의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은퇴생활의 영역별 준비도, 직업의 유형, 은퇴 재무설계의 수행여부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은퇴준비행동은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은퇴준비행동을 지속적인 저축액, 민간보험 납부액 등의 객관적 측면과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충분성 인식 등의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은퇴인식과 은퇴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들이 있음(정운영·백은영, 2009; 김종모·박상범, 2013)
- 은퇴인식과 은퇴태도는 은퇴준비를 목적으로 적립된 월 금액과 주관적으로 충분히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므로 은퇴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은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은퇴인식은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등의 요소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여가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은퇴태도와 은퇴준비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배문조·전귀연, 2004)

- 은퇴인식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것에 상관없이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루리, 2015)
 - 전반적인 노후준비에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은퇴를 다양한 여가활동, 봉사활동,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임
 -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즉 소외와 상실은 은퇴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은퇴준비행동과 연관됨(최은영·최혜경, 2015)
- 은퇴 재무설계 수행여부는 은퇴준비를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며, 은퇴에 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침
-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이는 은퇴태도가 은퇴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고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차경옥·박미연·김연주, 2008)
 - 언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태도가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은퇴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가 중요함
-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은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이며, 은퇴까지의 시간적 거리와 은퇴생활의 영역에 따라 은퇴에 대한 인식에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요컨대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은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 있고, 경제적 준비, 일, 마음의 안정과 같은 생활영역을 고려할 때 은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은퇴준비행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은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노력의 모든 과정에서는 국민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은퇴생활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은퇴준비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은퇴기에 진입하는 개인 및 가계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이 필요함

2) 국내·외 은퇴준비실태

(1) 우리나라의 은퇴준비

- 한국에서 은퇴준비에 관한 필요성 인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를 맞이하기 직전인 2007-2008년부터임.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객관적, 주관적 은퇴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은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은퇴생활의 질은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인간관계 등 비재무적 측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재무적 측면에서의 은퇴준비에 치중되어 있는 연구들이 많음(James et al., 2016)
-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2.8%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21.0% +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51.8%)고 응답함(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 ‘준비되어 있다’의 응답 비율은 27.2%로(‘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1.6% + ‘약간 준비되어 있다’ 25.6%) 남녀 간 평균 점수는 동일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본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2015년 2.0점에서 2016년 2.1점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는 40-50세 미만 2.64점, 50-60세 2.67점으로 역시 은퇴준비가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1.4%가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주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7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적금 45.0%, 개인연금 43.7%순임. 주식·채권(4.5%)과 퇴직금(15.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저조함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 62.3%에서 72.3%로 높아진 반면, 예·적금은 67.1%→45.0%, 개인연금은 46.8%→43.7%, 퇴직금은 18.4%→15.3%로 낮아짐
-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7.6%→34.0%로 높아져 부동산에 과잉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첫째, 준비할 능력이 없음(49.9%), 둘째,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5.7%),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의탁(14.4%) 순으로 나타났음(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15)
 -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는 비중(27.0%)이 2년 전 조사 결과(31.7%)보다 감소하여 노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화됨
 - 19세 이상 가구주 중 55.1%가 노후준비방법을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했으며 예·적금(17.7%), 사적연금(9.0%), 특수지역연금 포함 기타공적연금(8.5%)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 조사에서는 부동산운용(5.2%), 퇴직급여(3.9%), 주식, 채권 등 투자포함 기타(0.6%)는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 노후를 위한 사회 지원으로는 소득과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15)
 - 조사대상자들은 소득(40.4%)과 취업(26.3%)을 지원하여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랐으며, 문화·여가복지서비스(9.8%)나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1.6%)은 비교적 낮은 비중이었음
 - 한편 60세 이상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요양보호서비스 또한 원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
 - 이와 같이 재무 영역에서의 은퇴준비는 대부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불균형 준비 상태임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시행 최초 70%에서 최종적으로 2028년 기준 40%까지 축소될 예정임(김연명, 2015)
 -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목표 40%로 납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납입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은 최소 및 적정생활비 대비 20%에 못 미치는 실정임(김동훈·권형구, 2016)

-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임.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 50%는 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임
- 우리나라의 일반 가계는 금융자산 및 저축액 등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움
 -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평균 226만원이지만 현재 보유한 자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준비자금 예상액은 월 110만원에 불과하여 예상된 월평균 필요자금의 48%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남(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
 - 최현자 외(2009)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계의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직전 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퇴직전 소득의 21%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재무적 준비 부족의 해결책으로는 부동산자산의 현금화로 현재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우거나, 자녀와 관련된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채로 인한 불안정성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은퇴자금충분도는 0.60으로 원하는 은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퇴까지 40%의 은퇴필요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하며, 은퇴기 동안의 예상생활비와 실제 가능한 은퇴자산 간에는 대략 1억 6천만 원의 차이가 있음(최현자 외, 2009)
- 비재무적 영역과 관련된 준비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은퇴 이후 삶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가 내포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재무적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을 포괄한 은퇴준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최현자 외, 2012;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최현자 외, 2017)
 - 삼성생명은퇴연구소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에서는 노후준비의 7가지 하위영역을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으로 구분하고 준비지수를 분석하였음
 - 하위영역별 준비지수는 50점 ~ 60점대로, 건강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일영역의 은퇴준비지수는 51.1로 가장 낮았음.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를 높은 순부터 나열하면 건강 > 주거 > 가족 및 친구 > 마음의 안정 > 여가 > 재무 > 일 순임

- 후속연구인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5-74세에 해당하는 2,271명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준비 점수를 분석하였음
- 은퇴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고 0점부터 49점까지 위험, 50점부터 69점까지 주의, 70점부터 100점은 양호로 정의함.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하였으며, 재무 영역은 57점, 건강 영역은 55점, 활동 영역은 50점, 관계영역은 58점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주의를 요함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6)의 ‘행복수명지표개발’에서는 한국 가계의 전반적인 은퇴준비도를 행복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삶의 질적 수준을 계량화하였음
 - 행복수명의 평균은 74.9세로 기대수명보다 평균 8.2세 더 낮고, 93%의 대다수 응답자는 행복수명이 기대수명보다 짧아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4가지 영역을 활동수명, 관계수명, 건강수명, 경제수명으로 명명하고 4가지 수명을 종합한 행복수명 중 활동수명이 72.9세로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은퇴 전부터 사회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원체계를 구축하고 은퇴 후 시간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관계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7.4년 짧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배우자와 자녀의 대화로 보았음
 - 건강수명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에 대한 관리를 미처 하지 못할 경우 10년 이상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32%로 나타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국가의 은퇴준비(미국, 일본, 독일)

- 한국에 비하여 고령자 및 은퇴자 비율이 높거나 국가 및 사회 차원의 준비가 선행되었던 국가들의 은퇴준비상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준비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은퇴준비상황을 노인빈곤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거시적 지표 및 미시적 지표를 통하여 비교하였음

- 거시적 지표를 먼저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2.6%인데 비하여 미국, 일본,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각각 21.5%, 19.4%, 9.4%로 집계되었음(OECD, 2013)
 -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에 육박하여 전체 평균의 4배 이상임
 -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OECD 전체 평균의 2배정도이나 독일은 미국, 일본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특히 낮음
- GDP 대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포함한 연금기금의 비중은 미국 83.2%, 일본 29.2%, 독일은 6.1%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6.0% 임(OECD, 2015)
 - 공적, 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미국이 70.3%, 일본이 35.1%, 독일이 50.0%로 나타났으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39.3%)보다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OECD, 2015)

<표 2-1> 미국, 일본, 독일의 연금의 소득대체율('15)

단위: %

국가	0.5 소득대체율	1.0 소득대체율	1.5 소득대체율
미국	88.8	70.3	58.3
일본	48.8	35.1	30.5
독일	50.0	50.0	50.0
우리나라	58.6	39.3	29.3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은퇴 후 노후 주요 수입원 중 공적, 사적연금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함
 - 미국, 일본, 독일의 연금 수입 비중은 67.0%, 67.5%, 84.3%인데 비하여 자녀 도움의 비중은 각각 0.7%, 1.9%, 0.4%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의 자녀 도움 의존 비율은 30.1%로 나타나, 자발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일본내각부, 고령화백서, 2011; 금융투자협회, 2015에서 재인용)

<표 2-2>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노후 주요 수입원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자녀의 도움	0.7	1.9	0.4	30.1
공적·사적연금	67.0	67.5	84.3	13.2
기타	32.3	30.6	15.3	56.7

자료: 일본내각부, 고령화백서(2011); 금융투자협회(2015)에서 재인용

- 연금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산의 규모가 크면 노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하여 자산 규모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OECD에서 1인당 가계의 순금융자산의 규모를 발표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순금융자산은 미국의 1/5, 일본의 1/3, 독일의 2/3 수준에 불과함

<표 2-3> 미국, 일본, 독일의 1인당 가계의 순금융자산의 규모('13년)

단위: USD

	미국	일본	독일	한국
1인당 가계 순금융자산	163,120.6	97,774.6	52,758.9	33,665.5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5.

- 다음으로 주관적 인식에서는 미국과 독일은 은퇴준비도가 양호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한국인의 주관적 인식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국, 일본, 독일을 포함한 15개국을 대상으로 AEGON이 개발한 은퇴준비도(ARRI)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미국은 6.94점, 독일은 6.03점, 일본은 4.74점으로 집계되었음(AEGON, 2017)
- 은퇴준비도(ARRI) 점수가 8점에서 10점인 경우 우수한 수준, 6점에서 7.9점인 경우 양호한 수준, 6점 미만인 경우 미흡한 수준임

- 은퇴준비도(ARRI)의 평가 영역은 ‘은퇴 후 소득대체방식’, ‘경제적 준비여부’, ‘은퇴계획여부’를 묻는 직접적인 행동 측면에서의 은퇴준비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책임의식’, ‘은퇴계획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경제적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태도 측면의 은퇴준비로 구성됨

<표 2-4> ARRI의 구성요소

Behavior	Income replacement	Do you think you will achieve the level of income you think you will need in retirement?
	Financial preparedness	Thinking about how much you are putting aside to fund your retirement, are you saving enough?
	Retirement planning	Thinking about your own personal retirement planning process, how well developed would you say that your personal retirement plans currently are?
Attitude	Personal responsibility	To what extent do you feel personally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you will have sufficient income in retirement?
	Level of awareness	How would you rate your level of awareness on the need to plan financially for your retirement?
	Financial understanding	How able are you to understand financial matters when it comes to planning for your retirement?

자료: AEGOM(2017)

□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5.9점(10점 만점)으로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은퇴준비도(ARRI)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의 은퇴준비도는 4.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Aegon, 2017)

- 미국은 자발적 은퇴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더불어 401(K)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및 개별 가계의 투자행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준비도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0.27점 향상한 것으로 판단됨
-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의 비중이 57%로 달하는 것 또한 은퇴준비도(ARRI)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언급됨

* 401(k)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되,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제도로 우리나라의 DC 퇴직연금과 유사함

<표 2-5> 미국, 일본, 독일의 은퇴준비도(ARRI)

(단위 : %)

	전체	미국	일본	독일
미흡(6점 미만)	51	31	80	49
양호(6점-7.9점)	30	32	16	33
우수(8점-10점)	19	37	4	19
평균점수 (점)	5.92	6.94	4.74	6.03

자료: AEGOM(2017)

-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이나 독일은 개인저축은 물론 정부 보조 기반 방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개인 저축의 비중(66%)이 높았음
- 특히 독일은 개인이나 고용자가 구매한 보험으로 은퇴소득을 충당하는 비중이 49%로 나타나 정부 보조의 방식을 통한 연금소득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Aegon, 2017)

<표 2-6> 미국, 일본, 독일의 은퇴소득대체방식

(단위 : %)

	전체	미국	일본	독일
My spouse/ partner working	30	32	13	30
Gifts/ loans from family embers/ friends	10	13	5	6
Loans from bank, etc.	10	13	4	3
My savings	27	54	66	41
Inheritance	16	16	11	14
Mortgage payment insurance	10	13	6	4
Income protection	19	NA	12	5
Disability insurance from my employer or that I purchased	17	16	18	49
Critical illness insurance	21	15	14	19
Redundancy insurance	13	NA	3	16
Downsizing my home/selling a second home	19	19	10	14
Government disability insurance	15	20	17	22
Government unemployment insurance	16	14	14	20
Early withdrawals from retirement account(s)	2	22	NA	NA
Other	8	7	17	7
None of the above	2	1	1	3
Don't know	1	0	0	0

NA - Question not asked

자료: AEGOM(2017)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 첫째, 은퇴에 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어야 함
 - 은퇴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은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은퇴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이며, 은퇴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재무설계와 전반적 계획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은퇴를 앞둔 경우 미리 은퇴에 대해 진단하고 은퇴 후 생활을 전망해 본다면 은퇴 후 삶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은퇴 인식을 통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 둘째, 은퇴 전 심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가진단을 통한 준비 상황 점검이 필요함
 - 비은퇴자들은 은퇴 후 생활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은퇴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퇴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나빠졌다고 평가함
 - 특히 재무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일과 사회활동의 결여에 대해 은퇴 전의 전망은 관참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 은퇴 후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 재무적 준비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심리적 불안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결여되면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태도를 고민하고 준비 정도를 체크할 수 있음

- 셋째, 은퇴 필요성 인식 및 준비상태 진단을 통한 은퇴 전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선행연구들은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때 노후준비가 매개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음
 - 준비상태 점검을 통해 은퇴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은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제언함

□ 넷째, 은퇴 진단 및 교육에서는 은퇴 후 일과 관련된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은퇴 후 재무적 어려움 해소 및 사회활동의 지속을 위하여 일자리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은퇴 후에는 수입에 가치를 두지 않더라도 꾸준한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꾸준한 추가수입은 물론 사회참여와 자아성취를 위한 일자리를 고려해볼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직업 및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은퇴태도와 은퇴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여가와 직업,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섯째, 은퇴 이후 삶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을 포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

- 각종 조사 결과 한국인의 재무적 은퇴준비는 낙제점 수준이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하여 순금융자산 규모가 작고, 생활비 과다사용, 과다부채, 자녀와 관련된 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 준비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비공무원에 비하여 연금수령액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재무적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출의 누수를 막는 등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비재무적 영역에서는 특히 일과 여가 등 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

1) 공무원의 은퇴 관련 특성

- 공공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직무수행을 마친 후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됨
 - 퇴직의 긍정적인 측면은 후배나 후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넘겨주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워지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 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임
 - 퇴직의 부정적인 측면은 직업생활을 함으로써 향유했던 모든 심리·사회적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위기일 수 있다는 점임(고종승, 2000)
- 공무원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은퇴가 일반인과 다른 점은 1)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2) 정년이 보장되며, 3)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4) 위계질서에 따른 업무처리 경험으로 인하여 외부 환경 적응도가 다소 저하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김순애, 2017)
 - 공무원은 국민에게 지속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실제적인 공익을 달성해 가면서 국가과제를 실현하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공익추구라는 추상성과 정책과제의 가변성 때문에 은퇴자로서의 공무원은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 정년제도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이끌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으로 그 자격이 유지됨. 이러한 신분보장과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은 적극적인 자기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퇴직공무원들은 퇴직을 기점으로 개인에게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역할과 지위의 변화, 환경변화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함(한국행정연구원, 2012)
 - 공무원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전지영, 2004; 김태

일, 2005; 고의택, 2006; 최인숙, 2007; 박현숙·임정도, 2012; 가용현, 2015; 구혜영, 2015; 김순애, 2017 등)

- 평생을 국가발전에 봉직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가정적·사회적 역할상실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건강문제, 여가활용과 소일문제, 재취업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퇴직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이종희, 2001)
 - 공무원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이 약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됨
- 그러므로 은퇴하기 전 노년에 다가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특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공무원 대상 은퇴설계 교육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
- 은퇴준비의 구체적인 목표는 은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은퇴 후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최인숙, 2007)
 -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을 관리하고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전략적으로 향후 충격을 최소화하고 비용 및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은퇴준비 프로그램은 은퇴 계획프로그램, 은퇴 전 프로그램, 은퇴준비 프로그램, 은퇴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은퇴자들의 상황과 욕구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김연옥, 1992)
 - 안전행정부에서 은퇴공무원들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참여활동 지원(봉사활동 지원, 창업활동 지원, 귀농·귀촌지원), 퇴직지원서비스(퇴직교육, 공무원 상담지원, 퇴직공무원 지원, 후생복지시설 이용), 공무원 연금제도, 공로연수 등이 있음(김순애, 2017)
- 이제껏 공무원의 은퇴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공무원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진단 등의 노력 및 시간 확보가 결여된 형식적인 은퇴지원은 실질적인 은퇴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줌

-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연금제도와 공로연수 등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은퇴 전 공로연수 6개월은 은퇴를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받는 장기 휴가로, 그 외에는 노동시간 때문에 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어려움
 - 은퇴 후 자원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60세 정년퇴임을 앞둔 10년 전, 최소한 5년 전 부터 은퇴를 대비한 소득준비와 생활설계를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이상엽, 2011)
 - 따라서 공무원 은퇴교육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하여 생활적응 및 재취업, 여가선용 등의 주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최인숙, 2007)
- 공무원들에게는 건강, 경제문제, 여가, 가족생활 분야의 생활설계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은 수준으로 은퇴자의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은퇴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가 높다는 양적, 질적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은퇴준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제에 있어서는 은퇴자의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은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심리적 교육에서 건강 및 보건교육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은 가계재정, 직장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이며, 주거생활, 건강, 교육, 삶에 대한 견해 등에서의 요구도 또한 늘어나는 양상임
- 또한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무 분야의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공무원들에게 은퇴 전의 자산운용과 은퇴 후의 소비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최적의 사결정을 모형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은퇴준비지수 모형의 기본적인 틀인 1) 은퇴기간동안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은퇴시점 가치, 2) 은퇴기간동안 예상되는 개인연금 수령액의 은퇴시점 가치, 3) 예상되는 퇴직금 수령액 또는 퇴직연금의 은퇴시점 가치, 4) 은퇴시점까지의 저축 총액, 5) 은퇴 직전 소득의 모형을 설정해보도록 해야 함(이상엽, 2011)

- 더불어 재직자의 재취업 교육 및 은퇴 후 전문성 발휘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하여 높으므로 ‘일’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들은 은퇴이후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 적지만, 최근 재직자의 재취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무원이 평생직장이 라는 관념이 점차 변화함을 반영함(김경숙, 2006)
 - 재취업을 위하여 그동안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업종의 추이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은퇴 5년 전 부터 향후 유망 산업군에 대한 정보와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연구결과도 있음(이상엽, 2011)
- 이처럼 실효성 있는 은퇴준비 교육을 위해 자신의 은퇴 후 상황 변화 가능성과 준비 전략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은퇴예정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은퇴 후 소득준 비도와 은퇴 생활 준비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온·오프라인 과정을 통한 은 퇴 후 소득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상엽, 2011)

2)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

- 공무원의 노후준비는 퇴직 전부터 장기간을 고려하여 시작되어야 하며, 퇴직 전 삶의 질은 은퇴 후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선행연구 결과, 공무원의 노후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 만족도에 비하여 준비 정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음(심현진·이일현·이현실, 2013; 가용현, 2015)
 -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6 %에 불과하고, 계획이 막연하거나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응답자가 56.7%에 달 함. 많은 공무원들이 장래에 대한 계획 없이 은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 음(신승택, 2010)

-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건강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71.4%, 경제력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60.1%,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35.5%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박현숙·임정도, 2012)
- 은퇴 후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역할상실이 2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건강문제가 17.5%, 경제적 어려움이 15.3%, 여가활동 문제가 15.1%, 심리적 소외감이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한국행정연구원, 2012)
- 이에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각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건강관리

- 은퇴한 공무원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은퇴 전부터 인식하고 있음(김순애, 2017)
 - 건강관리를 위하여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응답은 90.6%로 나타난 반면 운동 ‘안함’은 8.8%임(윤정숙, 2006)
 - 그러나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중은 38.8%에 불과하였음(전지영, 2004)
 - 건강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재직할 때부터 동호회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도 함(김순애, 2017)
 - 본인의 건강상태는 ‘양호’ 278명(52.1%), ‘보통’ 229명(42.9%), ‘불량’ 24명(4.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윤정숙, 2006)
 - 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불량한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더 높음(윤정숙, 2006)
- 그러나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건강에 있어서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가용현, 2015), 특히 은퇴 후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지 여부 또한 조사대상자의 18.8%만 긍정적으로 답하였음(전지영, 2004)
 - 노후의 건강을 위해 성인병 예방을 위해 식생활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하고 있는 사람이 13.5%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43.2%임(윤종대, 2002)

(2) 대인관계

- 일반적으로 은퇴기는 사회적 활동의 감소, 대인관계의 감소 등으로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
 - 은퇴 이후에는 시간과 금전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이에 뒤따르는 심리적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 악화가 시작되면 불안, 의존성, 우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이상엽, 2011)
- 공무원들은 은퇴를 앞둔 시점부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녕감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함(이상엽, 2011)
 - 공무원들은 큰 변화 없이 30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존성 성향이 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창의성보다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임(김순애, 2017; 고대영, 2013)
 - 은퇴 후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한 규정과 권고되는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적극적인 생활환경 적응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은퇴 후 공무원은 기존에 따랐던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재구성하고 은퇴 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고대영, 2013)
 - 직장생활, 여가생활, 가족, 친구, 이웃을 포함하는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임동오·주상욱·정용악(2002), 이상헌·이성국(2003), 제갈돈·김태영(2007), 이상엽(2011), 고대영·임현승(2015) 등이 있음
 - 사회적 관계망을 혈연(가족 및 친척)과 비혈연(친구)으로 구분하여 은퇴 공무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결과 연락할 수 있는 친척(가족) 수,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친척(가족) 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고대영·임현승, 2015)

- 공무원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으나(김현수, 2002), 은퇴 후 사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부부관계의 불만족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은 부부간의 긍정적인 감정과 친밀감을 형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3) 주거관리

- 노후생활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나 자식과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박현숙·임정도, 2012)
 - 서울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59.1%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으며, 과반수가 경기도 지역으로의 귀촌을 원함. 연고지를 기준으로 이주 예정지역은 자신이나 부모의 연고지가 아닌 제3지역을 선호하고 있었음(박성택, 2017)
 - 실버타운 수요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34.5%가 연금액 범위 내의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면 입주하겠다고 하였고 31.0%는 퇴직공무원 대상의 실버타운이 있으면 입주하겠다고 응답하여 65.5%가 퇴직공무원 대상 연금액 범위 내에서의 입주비용을 원하고 있었음(정내훈, 2004)
- 주거와 관련하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험요인은 크지 않지만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주거 계획을 인터뷰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공간으로는 면담자 대부분 은퇴를 전후하여 집을 신축하거나 이사를 했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음
 - 은퇴 당시 집을 신축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경우 은퇴 후 임대소득이 있어 여유가 있었고,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집에 대한 지출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김순애, 2017)

(4) 여가활동

-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은퇴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했으며, 은퇴 후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컸음
 - 은퇴 후 공무원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으로 인하여 재취업, 창업, 사회봉사 등 생산적·경제적 활동에 대한 계획보다 퇴직금·연금과 같은 재정관리, 건강관리, 여가활용 측면 등 생활적 활동에 대한 계획이 높게 나타남(이미리·이영민, 2014)
 - 은퇴 공무원의 심리적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료정기모임, 퇴직연금, 은퇴 이후 취미생활, 정기여행 등 여가생활, 시간적 자유, 건강검진, 운동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음
 - 은퇴 공무원의 물리적 만족도는 정기적인 모임, 자식의 결혼자금 준비, 은퇴 후의 취미생활, 정기여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퇴직연금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정관용, 2014)
- 여가분야의 준비에 대한 열의는 강하고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습회 참여도, 여가활동시간 증감 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금숙, 2010)
 -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걱정은 덜하지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분명하게 있는지 여부는 부정적임(전지영, 2004)
 - 은퇴 후 여가 활동을 위해 취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결과, 54.0%의 사람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윤종대, 2002)
- 공무원의 은퇴 후 여가형태로는 운동 또는 레포츠를 즐긴다는 비중이 33.9%임(전지영, 2004)
 - 운동 및 레포츠(33.9%) 외에는 바둑 카드 또는 화투놀이(13.3%), 사회봉사활동(13.3%), 기타(13.3%), 여행(10.9%) 등으로 나타남(전지영, 2004)
- 그러나 공무원들 대상의 조사 결과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활동 참여,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에 대한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할 것임(임동오·주상욱·정용악, 2002; 김정욱, 2004)

- 사회적 은퇴준비에 대해서는 종교, 취미, 정기적인 친구모임 등에 늘 참여하고 있거나 취미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음(김순애, 2017; 가용현, 2015)
 - 은퇴 후 사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3%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3.1%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윤종대, 2002)
 - 퇴직공무원 387명(자원봉사활동 참여자 188명, 비참여자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재직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들(74.1%)이 비경험 퇴직공무원들(31.0%)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2배 이상 높음(윤종대, 2002)
 - 즉, 재직 중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여가활동에 미리 참여한 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같은 여가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윤종대, 2002)
-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직업, 가정생활, 친구관계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계재정과 여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했으며, 특히 여가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공통적인 불만족 원인이었음(김현수, 2002)
- 일과 중 여가 시간은 총 응답자 중 30분미만이 41명(38.0%) 이고, 1시간 미만은 40명(37.0%)으로 점심시간 외에는 여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이상현·이성국, 2003)
 - 여가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이유로는 마음의 여유, 시간과 비용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임동오·주상욱·정용악, 2002)

(5) 일

-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는 창업과 재취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음(박현숙·임정도, 2012)
 -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사회활동참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김금숙, 2010),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취업 희망자

는 직급이 낮을수록 많았음(박성택, 2017)

- 퇴직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은퇴자 중 35.5%가 일을 하고 있었음
 - 한국행정연구원(2012) 연구에서 은퇴자 중 35.5%가 은퇴 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용/임시직(33.3%), 전문 계약직(26.9%)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목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이 15.6%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 과거 재직 시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한국행정연구원, 2012)

(6) 재무설계

- 은퇴는 경제적으로는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이 중단되고, 은퇴 전에 준비한 연금, 보험, 저축 등에서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는 영향을 미침.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화, 우연한 사건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등에서 취약한 문제가 있음(이상엽, 2011)
-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립 의식이 강하며 부양의식 약화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박현숙·임정도, 2012)
 - 공무원은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박현숙·임정도, 2012)
 - 30-40대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바라는 경우가 드물고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83.9%였으며,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희망하였음
-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을 지님
 -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되어 1995년, 2000년, 2009년 등 총 3번의 개혁을 거쳐 지금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정이 2015년에 있었음

-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하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므로 상대적으로 노후 걱정이 덜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은퇴 후의 재무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노후생활비 마련에 걱정을 하고 있음
 - 은퇴 후 예상하는 생활비(월 기준)는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최인숙, 2007)
 - 은퇴 후 생활비 충당계획은 연금수급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56.0%임(최인숙, 2007).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51.2%였음(윤종대, 2002)
 - 한국행정연구원(2012)의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상황에 대해서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나타나 주관적으로도 풍요로운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데 퇴직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 노후생활비 충분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
 - 기능직과 별정직에서는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계획을 이미 갖추어 놓았다’, ‘퇴직 후 퇴직금 및 연금관리 계획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하여 은퇴 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선종영, 2010)
 - 그러나 최근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57%가 정년퇴직 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직급이 낮을수록 연금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음(박성택, 2017)
- 공무원의 소득 및 자산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전지영, 2004; 고의택, 2006; 박현숙·임정도, 2012; 가용현, 2015; 김순애, 2017). 생활비 및 고령화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행동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연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퇴직금 또는 연금 일시금수령 시 34.5%의 공무원들은 개인사업비로 사용했으며, 은행예치를 통한 이자 취득(29.7%), 자녀 뒷바라지(14.5%)가 후순위였고, 상대적

으로 차용금 청산(3%), 채권, 증권투자(1.2%), 부동산 투자(9.7%) 등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있음(전지영, 2004)

- 공무원총조사(2013)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노후생활 대비방법 1순위는 공무원연금(43.6%)이며, 예·적금(19.1%), 연금 등 보험상품(19.2%), 주식·펀드(4.9%), 부동산(5.4%)의 순으로 나타났음.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5.1%였음
- 노후 대비방법으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무원연금과 부동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적금 및 예금 선호 비율이 낮아져, 공무원연금과 부동산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함(공무원총조사, 2013)
 - 연금 : 20대 40.1%, 30대 41.9%, 40대 43.3%, 50대 46.5%, 60세 이상 49.7%
 - 부동산 : 20대 1.1%, 30대 3.7%, 40대 6.1%, 50대 7.3%, 60세 이상 8.0%)
 - 예·적금 : 20대 28.6%, 30대 21.8%, 40대 17.5%, 50대 15.8%, 60세 이상 16.8%
- 현실적으로 노후대비로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외에 별도의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자녀 독립 후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월급의 일부를 따로 떼서 보험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있을 뿐임(고의택, 2006)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 첫째,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은퇴준비 전략에 적용해야 할 것임
 - 재무적 준비는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준비에서도 은퇴소득 및 은퇴자산의 준비여부 및 예상치 못한 지출의 누수를 막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야 함
 - 비재무적 준비 부분에서는 건강과 여가활용, 심리적 소외감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고, 공무원의 특징을 반영하여 시장변화 및 새로운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적응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 둘째, 공무원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자가진단서비스를 개발하되, 수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지방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집단의 은퇴준비도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지는 못하였음
- 공무원 집단 간에도 직장생활, 가계재정, 주거생활, 건강, 교육, 가정생활, 여가생활, 삶에 대한 견해 등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진단서비스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대표성을 지니는 공무원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공무원 대상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진단지표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무원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일찍부터 구체적인 진단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은퇴를 위한 노후준비의 기본은 은퇴 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임. 따라서 젊은 시기부터 미리 은퇴준비에 경각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공무원의 은퇴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퇴직시기와 가깝게 제공되어 준비를 위해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연수 시간의 제약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음
-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은퇴 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장기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층도 노후준비 진단을 미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넷째, 공무원들의 노후준비는 재무적 준비뿐 아니라 비재무적 준비가 매우 필요함

- 건강 : 공무원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위한 계획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과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대인관계 : 공무원들은 은퇴를 앞둔 시점부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녕감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주거관리 : 은퇴 후 주거 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가활동 : 여가에 대한 준비 열의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재직 중에 여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은퇴 후 생활적

활동으로서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일 :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및 사회활동 유지 방법으로서 창업과 재취업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이를 위해 재직자의 재취업교육 및 전문성을 발휘한 노후 일자리 등 ‘일’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무설계 :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지만 재무적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재무적 준비 정도를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에 반영해야 함

3. 국내·외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1)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1) 공공부문

- 공공부문의 은퇴준비진단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금융감독원의 「노후 재무설계」, 「참 쉬운 재무진단」이 있음

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종합진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종합진단」은 기본사항 외에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등 4대 영역으로 응답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측정하고 후 상세진단결과를 제공함
- 관심영역은 1) 사회적 관계, 2) 건강한 생활습관, 3) 여가활동, 4) 소득과 자산으로 이루어짐
 - 기본사항에는 나이, 성별, 거주시도, 월평균소득, 현 직업 종류, 종사상 지위, 혼인 상태, 자녀수, 관심영역이 응답문항으로 포함됨
 - 사회적 관계는 가족(부부, 자녀,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대화 충분성, 만남 횟수, 가입된 동호회의 수 등을 통해 파악함
 - 건강한 생활습관의 평가항목은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 스트레스 체감도, 음주, 규칙적인 운동 횟수, 다양한 식품군 섭취, 수면 충분성, 건강검진여부, 키와 몸무게임
 - 여가활동은 노후의 취미 및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지속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평가됨
 - 소득과 자산은 ‘나’와 ‘나’의 배우자의 근로상황과 자산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됨. 근로상황을 묻는 문항은 현재 근로 여부, 예상은퇴연령, 직업안정성, 직업 전환준비여부가 해당됨. 자산상태를 묻는 문항은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월 소득 대비 개인연금액(또는 장기저축액) 비

을, 은퇴 후 예상 생활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액과 부동산자산액이 포함됨

- 한계로는 1) 관심영역의 범위가 노후준비를 위한 7대 영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2) 공무원의 특성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항이 발견되는 점을 들 수 있음

② 금융감독원의 「연금포털」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노후 재무설계」는 이용자의 연금상품 가입내력과 연동하여 필요 노후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참 쉬운 재무진단」은 간편진단과 정밀진단으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간편진단으로는 기본정보, 재무목표, 소득과지출, 부채관리, 저축과투자, 위험관리, 연금과 은퇴, 상속계획을 측정하고, 정밀진단으로는 기본정보, 소득과 자산, 부채와 소비, 은퇴준비에 대한 측정하고 있음
- 은퇴준비와 관련된 문항으로 간편진단에서는 은퇴자금의 지속기간과 유연장 작성여부이고, 정밀진단에서는 은퇴예상연령, 예상수명, 은퇴 후 월 생활비,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연금액, 본인의 개인연금액, 본인의 주택연금액, 예상 퇴직금이 해당됨
- 「노후 재무설계」는 회원등록 후 본인의 연금상품 가입내력을 확인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3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복잡함이 존재하는 데 반해 「참 쉬운 재무진단」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이 보장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지표 모두 1) 재무에만 국한되고, 2) 포괄적으로 재무진단을 하는 과정 중 은퇴준비에 대한 사항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은퇴준비수준을 진단하기 어려움

노후준비 종합진단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통해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여 균형있는 노후준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찾아주세요. [입금시작하기](#)

기분사항 - 사회적관계 건강한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자산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항목별로 정도를 결정하신 후 선택버튼을 체크해주세요.

나이 세

성별 1) 남 2) 여

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거주지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월평균 소득 ▼

현직업 종류 1) 미취업 2) 관리자 3) 전문기및관련종사자 4) 사무종사자
 5) 서비스종사자 6) 판매종사자 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9) 장차,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 단순노무종사자 11) 공무원 12) 군인

종사상 지위 1) 미취업 2) 단독자영업자 3) 고용주 4) 무급가족종사자
 5) 상용근로자 6) 임시근로자 7) 알용근로자 8) 공무원
 9) 기타

혼인 상태 1) 미혼 2) 가혼-배우자 있음 3) 기타-배우자 사별 등

자녀수 ▼

관심 영역 1) 사회적관계 2) 건강한 생활습관 3) 여가활동 4) 소득과 자산

[> 다음](#)

노후준비 종합진단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통해 현재의 노후준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기분사항 사회적관계 건강한생활습관

✓ 진단결과

구분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점수	87.00 점	70.57 점		
노후준비수준	상	중		
노후준비유형	전족중심형	건강군 비실천형	높음	

<그림 2-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종합진단」

금융감독원 **참 쉬운 재무진단** 간편 진단 | **정밀 진단**



간편 진단
나의 재무상태 쉽고 빠르게!
가계의 재무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하세요.
응답만으로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재무진단입니다.
(소요시간: 약 5분)



정밀 진단
나의 재무상태 꼼꼼하게!
가계의 재무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세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무상태를 위한 진단입니다.

FAQ 궁금한 질문을 클릭하세요

- ▶ '참 쉬운 재무진단'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 ▶ 간편 진단과 정밀 진단이 어떻게 다른가요? ▶
- ▶ 진단결과를 따로 보관할 수 있나요? ▶
- ▶ 로그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 ▶ '참 쉬운 재무진단' 이용에 적합한 컴퓨터 사양은 어떤 것이요? ▶

COPYRIGHT (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 RESERVED.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개발팀 02-3145-5956

금융감독원 **참 쉬운 재무진단**

STEP 1 기본정보 | STEP 2 재무목표 | STEP 3 소득과 지출 | STEP 4 부채관리 | STEP 5 **자산과 부채**

Q 귀하의 연령대(만 나이기준)를 선택하세요.

- ▶ ~ 25세 미만
- ▶ 25세 이상 ~ 39세 이하
- ▶ 40세 이상 ~ 49세 이하
- ▶ 50세 이상 ~ 59세 이하
- ▶ 60세 이상 ~

시작하기

간편 진단 재무상태를 읽고
간편 진단은 소득, 지출 등을 중
체시하고, 그 답변을 기초로 진
단합니다.

NOTICE 유의사항:
▶ 참 쉬운 재무진단은 특정 금
· 환 위주 재무진단을 개인의
· 자신의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COPYRIGHT (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 RESERVED.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개발팀 02-3145-5956

금융감독원 **참 쉬운 재무진단** 간편 진단 | **정밀 진단**

STEP 1 기본정보 | STEP 2 재무목표 | STEP 3 소득과 지출 | STEP 4 부채관리 | STEP 5 자산과 투자 | STEP 6 위험관리 | **STEP 7 연금과 은퇴** | STEP 8 상속계획 | STEP 9 최종진단

Q 귀하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공적연금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 ▶ 사적연금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 ▶ 아니요,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COPYRIGHT (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 RESERVED.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개발팀 02-3145-5956

사망 & 영구장애	▶ 양호	귀하가 만약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 상태가 될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가 충분합니다. 귀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귀하의 가족이 금·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귀하를 안심할 수 있도록 대한 대비가 충분합니다.
재산손해	▶ 양호	귀하는 자동차, 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손·대할 때 화재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할 때,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를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소득중단시	▶ 양호	귀하는 질병 또는 신체 또는 실직로 인해 6개월 이상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귀하의 소득 또는 생활비가 변동될 경·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금과 은퇴		
구분	진단	관련
연금	▶ 양호	귀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연금수령 가능액과 연금·
예상 연금 수령액	▶ 양호	귀하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점검·
연금 유지상태	▶ 양호	귀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귀하가 은퇴했을 때· 충분합니다. 연금수령액과 은퇴 후 필요한 노후지·
은퇴계획	▶ 양호	귀하는 향후 10년 안에 은퇴할 계획이 있으며, 은· 충분합니다. 은퇴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여·
상속계획		
구분	진단	관련
유언장	▶ 양호	귀하는 현재 유언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유언장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
상속절리	▶ 양호	귀하는 중요한 금융생활 관련 서류들을 일목요연· 충분합니다. 귀하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들은 귀하의·

<그림 2-2> 금융감독원의 「참 쉬운 재무진단」

노후 재무설계

Home > 노후 재무설계

· 소비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최저/적정 노후생활비 참고표

· 보기방식: 도표 그래프 · 예상 은퇴연령: 55세 · 예상 기대수명: 90세 · 기대수익률(할인율): 3.5% · 물가상승률: 1.9%

· 노후 재무설계는 예시연금액 화면에서 설정가능한 항목(산출가정, 가족 연금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연금액 화면 (예시연금액 비교하기) 에서 산출가정 변경 또는 가족 연금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시 노후 재무설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 기대수명과 기대수익률(할인율)선택에 따라 연금 수령시점에서의 노후 여유/부족자금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정보 및 생활비용 비교표 보기

귀하의 만 55세(2035년) 기준 연금자산은
 최저 노후생활비 대비 38,432만원 부족 , 적정 노후생활비 대비 66,961만원 부족

연금자산	노후 생활비		계부족
	최저	적정	
30,561만원	68,993만원	97,522만원	38,432만원 부족 66,961만원 부족

· 연금자산은 만 55세(은퇴시점)부터 만 90세까지 받는 연금액의 은퇴시점기준 현재가치의 합계입니다. (만 55세 시점 현재가치)

▶ 2017년 부터 은퇴시점(만 55세)까지 매월 약 119만원씩 납입하시면, 최저생활비 대비 부족한 연금자산(38,432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3.5% 가정)

▶ 2017년 부터 은퇴시점(만 55세)까지 매월 약 208만원씩 납입하시면, 적정생활비 대비 부족한 연금자산(66,961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3.5% 가정)

귀하의 보유자산을 알산하여 세 설계 하시겠습니까?

노후 재무설계

Home > 노후 재무설계

· 소비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최저/적정 노후생활비 참고표

· 보기방식: 도표 그래프 · 예상 은퇴연령: 55세 · 예상 기대수명: 90세 · 기대수익률(할인율): 3.5% · 물가상승률: 1.9%

· 노후 재무설계는 예시연금액 화면에서 설정가능한 항목(산출가정, 가족 연금정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연금액 화면 (예시연금액 비교하기) 에서 산출가정 변경 또는 가족 연금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시 노후 재무설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 기대수명과 기대수익률(할인율)선택에 따라 연금 수령시점에서의 노후 여유/부족자금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정보 및 생활비용 비교표 보기

<보유자산 고려 재설계 (만 55세, 2035년 기준)>

· 연금자산은 만 55세(은퇴시점)부터 만 90세까지 받는 연금액의 은퇴시점기준 현재가치의 합계입니다. (만 55세 시점 현재가치)

▶ 2017년 부터 은퇴시점(만 55세)까지 매월 약 26만원씩 납입하시면, 최저생활비 대비 부족한 연금자산(8,432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3.5% 가정)

▶ 2017년 부터 은퇴시점(만 55세)까지 매월 약 115만원씩 납입하시면, 적정생활비 대비 부족한 연금자산(36,961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3.5% 가정)

보유자산 입력

보유자산 입력

- 현재 보유중인 자산금액과 은퇴시점(55세)까지의 기대수익률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보유 자산은 은퇴시점(55세)의 연금자산과 합산되어 최저 및 적정 노후 생활비에 반영됩니다.

보유자산 만원

연금 수령정보 및 생활비용 비교표

연금명	노령연금(계사전, 최저 3.1%)	기타연금
예시 연금액	1,476만원(년) (월 123만원)	
수급기간	2045~(종신)	



- 최저 및 적정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각 연금 수령액의 월 평균 노후 생활비
- 최저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
- 적정생활비: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
- 출처: 제5차(2013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그림 2-3> 금융감독원의 「노후 재무설계」

<표 2-7>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공공부문

	제공자	지표명	영역		측정	
공공부문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종합진단」	기본사항		나이, 성별, 거주시도, 월평균소득, 종사상 지위, 혼인 상태, 자녀수, 관	
			사회적 관계		가족(부부, 자녀, 친인척), 친구, 이웃 가입된 동호회의 수	
			건강한생활습관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횟수, 다양한 신체활동, 건강검진여부, 키와 몸무게	
			여가활동		노후의 취미,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소득과 자산		현재 근로 여부, 예상은퇴연령, 직업,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예상 수령액,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월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생활비, 노후자금, 자산자산의 수준	
	금융감독원	「노후 재무설계」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연금 조회 내용(연금계약정보,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시기, 연금 수령처, 연금 수령방법,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금액, 연금 수령대상자,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시기,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처,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방법,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대상자별 연금 수령금액) · 현재부터 은퇴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제시함 · 이때 보유자산과 기대수익률을 추가하여 자산정성이 이루어짐 	
			「참 쉬운 재무진단」	재무	간편진단	기본정보
		재무목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무목표가 있고 재무목표가 있기는 하나 달성하는 방법이나 재무목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지출경로
					부채관리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외 부채,
					저축과투자	비상상황 대비 저축, 금융투자상품 및 자산의 종류
					위험관리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위험, 자동차 주
					연금과 은퇴	은퇴자금의 지속기간 추정
					상속계획	유언장 작성여부, 금융생활 관련 서류
				정밀 진단	기본정보	나이(만), 가족 수(본인 포함)
					소득/자산	세전정기소득(급여, 월급 등), 세전비정기소득(이자, 배당금 등), 세전비정기저축(예금, 적금 CMA, MMF, 등), 투자소득(배당금, 이자 등), 저축성보험(개인연금, 교육보험 등) 실물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부채/소비	주택관련대출 월평균상환액/남은 부채, 기타소비지출관련부채(자동차, 결혼자금, 생활비(식비, 의료비, 공과금, 교통비,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 고
					은퇴	은퇴예상연령(만), 예상수명(만), 물가상승률, 은퇴 후 월 생활비,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 후 월 생활비, 본인의 개인연금액, 본인의 주택연금액, 예상 퇴직금

(2) 민간부문

- 민간부문의 은퇴준비 자가진단으로는 주로 금융회사가 서비스 주체이며, 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 자가진단서비스」,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 체크리스트, 신한은행의 「S-미래설계」가 잘 알려져 있음. 또한 삼성자산운용의 「은퇴설계시뮬레이터」와 미래에셋생명의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 등과 같이 노후준비 자가진단 결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① 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 자가진단」

- 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 자가진단」은 은퇴 이후의 최종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행복수명을 늘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관심 영역은 4개로 기본사항 외에 1) 활동, 2) 관계, 3) 건강, 4) 경제 영역을 측정함
 - 「행복수명 자가진단」의 기본사항에는 성별, 나이(20세 이상), 경제활동여부, 혼인 상태, 자녀유무와 명수, 최종학력, 근로형태, 월 평균 소득, 영역별 중요도 비중, 은퇴예정연령 질문이 있음
 - 활동수명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사회봉사 및 종교 활동,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정적인 여가활동,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등에서의 현재 활동 빈도와 은퇴 후 활동 계획, 현재 활동 만족(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전반)으로 구성됨
 - 관계수명은 정보, 물질, 도구 등에서의 사회적지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인척 등과의 관계 빈도, 은퇴 후 관계 유지 계획, 현재 대인관계 만족도로 측정됨
 - 건강수명은 식습관, 운동 횟수, 흡연량, 음주량, 정신건강, 건강검진 빈도, 키, 몸무게, 질병유인, 은퇴 후 건강 계획, 현재 건강 만족도(전반)로 조사됨
 - 경제수명은 예상 은퇴연령, 은퇴 후 예상 은퇴생활비(일상적 의료비 포함), 은퇴 후 고액 중증질환 치료비 및 장기간병비, 질병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보장 금액 등으로 구성됨

②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

-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는 통합적인 생활설계로서 은퇴준비에 대한 전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로 영역별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선택된 문항 수에 따른 진단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함
- 4개 영역 즉, 1) 재무, 2) 건강, 3) 활동, 4) 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 재무영역에서는 은퇴 후 필요 생활비 계산 여부, 노후자금의 우선순위, 동년배 대비 노후자금 준비도,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계획, 국민연금 제외 노후저축여부를 질문함
 - 건강영역에서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 여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유무, 건강검진, 노후 의료비 준비, 장기요양 상태 준비를 묻고 있음
 - 활동영역에서는 은퇴 후 여가와 사회활동에 대한 계획, 취미와 여가활동 시간 관리, 은퇴 후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자격증 취득, 즐기는 취미 유무,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를 조사함
 - 관계영역에서는 부부 가사 역할 분담, 주변 사람들의 안부 확인, 본인의 감정 관리와 의사소통 등을 다루고 있음

③ 신한은행의 「S-미래설계 은퇴준비 자가진단」

- 신한은행의 「S-미래설계 은퇴준비 자가진단」은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음
- 재무영역에 중점을 두어 기본정보, 은퇴목표정보, 은퇴준비자금의 분석을 통해 현금흐름, 필요·준비자금, 포트폴리오현황, 종합진단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기본정보에는 성별, 연령, 기대수명, 예상 은퇴나이, 은퇴 후 월 생활비, 생활비 감소 비율을 입력하여야 함. 은퇴목표정보에서는 자녀교육, 자녀결혼, 의료비 등 생애주기 상 예비은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지출되는 자금을 측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의 은퇴준비자금액과 수령기간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음
 - 비록 재무 영역에 국한된 자가진단 형태이나 자녀교육, 자녀결혼, 의료비 등 은퇴 목표별 예상 필요자금을 고려하여 준비자금 진단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응답자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은퇴기 특성(예를 들어, 은퇴 전보다 생활비는 감소되는 경향)에 따라 생활비 감소 비율을 적용한 점도 응답자가 현재와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깨닫게 하므로 의미 있는 부분임

④ 기타 은퇴준비 자가진단

- 그 외 보험업권, 자산운용업권, 은행업권 등에서 노후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은퇴설계 시뮬레이터」와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로 명명됨
- 삼성자산운용의 「은퇴설계 시뮬레이터」는 현재 상황, 은퇴준비자금, 필요자금의 정보를 분석하여 노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량화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목표로 자산배분을 유도하고자 함
- 미래에셋생명의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는 기본정보와 재정상태 분석을 통해 저축/투자, 자녀 교육, 은퇴계획, 보장에서의 목표금액과 이를 위한 추가 저축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 자가진단 서비스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지만 각 업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종합적인 노후준비 자가진단은 아니며 재무 영역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은퇴기 목표자금의 충분성만을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

스스로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

스스로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행복수명은 **73** 세 입니다.

행복수명	73
연령대 평균행복수명	77
기대수명	81

귀하의 행복수명은 연령대 평균 행복수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귀하의 행복수명은 기대수명보다 8세 "더 짧습니다".

◀ 다른 수명 결과보기

귀하의 은퇴 후 활동 유형은 '활동 부족형'입니다.
 은퇴 후를 위하여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은퇴 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귀하의 행복수명은

자세히보기

<h4>활동수명</h4> <p>71세</p> <p>활동수명 늘리기 ▶</p>	<h4>관계수명</h4> <p>72세</p> <p>관계수명 늘리기 ▶</p>
---	---

◀ 다른 수명 결과보기

귀하는 연령대 평균에 비해 예상 은퇴생활비가 186만원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186만원 더 출어하여 경제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

<그림 2-4> 생명보험협회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

노후 저축,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한국인의 재무 은퇴준비지수는 56.8점으로 은퇴 후를 위한 재무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준비 수준은 약간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노후 필요 소득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진 데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재무 준비 상태가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퇴 자산 규모는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따져본 적이 있다.
-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자금보다 나의 노후자금이 우선이다.
- 주변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노후자금 준비가 잘된 편이다.
-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국민연금 외 개인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정기적인 노후저축을 하고 있다.

결과 보기

<p><input checked="" type="checkbox"/> 0~1개</p> <p>재무적인 노후준비 상태가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세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2~3개</p> <p>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4개 이상</p> <p>지금처럼 준비해 나간다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단 방심은 금물, 꾸준히 노력해주세요.</p>
---	--	---

의료비와 간병비, 얼마나 들 지 알고 있나요?

한국인의 건강 은퇴준비지수는 55.3점으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있지만 실천이 부족한 상태. 특히 건강에 대한 준비 정도는 극단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노력도 매우 부족한 반면, 양호집단은 운동, 관리 모습이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장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크리스트

-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을 꾸준히
-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
- 최소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 노후에 증가하는 의료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 언젠가 찾아올 장기요양 상태에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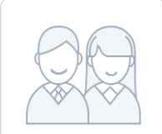
결과 보기

<p><input checked="" type="checkbox"/> 0~1개</p> <p>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이고, 재무적인 대비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세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2~3개</p> <p>건강은 행복한 노후 필수조건. 평소 생활습관 다시 한번 점검해봐. 부족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미리 준비</p>
--	---

<그림 2-5> 삼성생명의 「은퇴준비지수」

1 기본정보 입력 2 3 4

은퇴설계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부부 설계하기



단독 설계하기

이전
다음

은퇴준비 자가진단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필요자금을 입력해주세요. 필요자금

(필요자금 : 자녀교육, 자녀결혼, 의료비 등)

선택	구분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ex) 큰 아들 결혼

이전
다음

은퇴준비 자가진단



1 2 3 은퇴준비자금 정보입력 4

본인의 공적연금 유형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본인의 (예상) 월 수령액을 입력해주세요. 연금정보비로그기

월 250 만원

이전
다음

은퇴준비 자가진단

실계결과
연금흐름
필요/준비자금분석
포트폴리오 현황
종합?

필요/준비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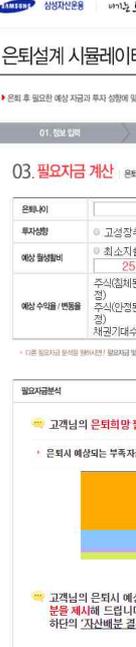


구분	필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 달성률 = 준비자금/필요자금 * 100%
 * 미래가치는 은퇴시점의 가치이며, 기준

64%
 준비자금 달성률

<그림 2-6> 신한은행의 「S-미래설계 은퇴준비 자가진단」



<그림 2-7> 삼성자산운용의 「은퇴설계 시뮬레이터」

PCA생명 MIRAE ASSET 미래에셋

PCA생명소개 | 현재내용 | PCA관심도 | 공시자료실 | 찾아오시는길 | + A Δ A - |

보통상용버로가기 (특) PCA 여직원분 용신업무문의(유치기금문의) ▶

은퇴설계 | 보험상품 | PCA e-Desk (사이버창구)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PCA생명 코리아
가장 신뢰받는 은퇴설계 전문가, PCA생명과 함께 고객님의 은퇴생활을 준비하세요.

1단계 개인 정보 | 2단계 재정 상태 | 3단계 분석 결과

남자 여자 현재 나이 50 60 은퇴자금 사용 기간 25

현재 상태 미혼 기본 주택 임대 소유 현재 자녀 수 2 부양가족 0

미래 계획 결혼계획 미나오 주택구입계획 미나오 추가자산계획 5,000만원 기타목표 (예: 재혼자금) 5,000만원 예상입상시기 5년 은퇴 후 예상 월 지출액 450만원 기본

PCA생명 MIRAE ASSET 미래에셋

PCA생명소개 | 현재내용 | PCA관심도 | 공시자료실 | 찾아오시는길 | + A Δ A - |

보통상용버로가기 (특) PCA 여직원분 용신업무문의(유치기금문의) ▶

은퇴설계 | 보험상품 | PCA e-Desk (사이버창구)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PCA생명 코리아
가장 신뢰받는 은퇴설계 전문가, PCA생명과 함께 고객님의 은퇴생활을 준비하세요.

1단계 개인 정보 | 2단계 재정 상태 | 3단계 분석 결과

이전 | 저축 | 은퇴 | 재무 | 보장 | 다음

저축보유자산 3,000만원 | 연금보유자산 5,000만원 | 주택용자금 5,000만원 | 생명보험 5,000만원

투자 3,000만원 | 월 납부액 100만원 | 미용자금 (예: 교육자금, 의료) 0만원 | 중대질병(II) 보장 3,000만원

자녀교육자금 3,000만원

PCA생명 MIRAE ASSET 미래에셋

수요분석도구: 은퇴견적과 재정설계-PCA생명 코리아
가장 신뢰받는 은퇴설계 전문가, PCA생명과 함께 고객님의 은퇴생활을 준비하세요.

1단계 개인 정보 | 2단계 재정 상태 | 3단계 분석 결과

이전 | 저축/투자 | 은퇴 계획 | 다음

저축/투자 목표금액 9,730만원 고객님은 3년 동안 매월 34만원

추가필요금액 873만원

은퇴 계획 목표금액 100,690만원 고객님은 3년 동안 매월 34만원

추가필요금액 155,690만원

<그림 2-8> 미래에셋생명의 「수요분석도구 : 은퇴견적과 재정설계」

<표 2-8> 국내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민간부문

	제공자	지표명	영역	측정 항목
민간 부문	생명 보험 협회	「행복수명 자가진단」	기본정보	성별, 나이(20세 이상), 경제활동여부, 혼인상태, 자녀유무, 최종학력, 근로형태, 월 평균 소득, 영역별 중요도 비중,
			활동수명	활동 계획 현재 활동 빈도1(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현재 활동 빈도2(사회봉사 및 종교 활동) 현재 활동 빈도3(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정적인 여가활동) 현재 활동 빈도4(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은퇴 후 활동 계획1(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은퇴 후 활동 계획2(사회봉사 및 종교 활동) 은퇴 후 활동 계획3(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정적인 여가활동) 은퇴 후 활동 계획4(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현재 활동 만족(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전반)
			관계수명	관계 유지 계획 사회적 지지1(정서적지지 및 정보적지지), 사회적 지지2(정보적지지) 현재 관계 빈도1(배우자), 현재 관계 빈도2(자녀), 현재 관계 빈도3(형제·자매·친인척), 현재 관계 빈도4(친구) 은퇴 후 관계 유지 계획1(배우자), 은퇴 후 관계 유지 계획2(자녀) 현재 대인관계 만족(전반)
			건강수명	식습관, 운동 횟수, 흡연량, 음주량, 정신건강 건강검진 빈도, 키, 몸무게, 질병유인, 은퇴 후 건강 계획
			경제수명	예상 은퇴연령, 은퇴 후 예상 은퇴생활비(일상적 의료비, 은퇴 후 고액 중증질환 치료비 및 장기간병비, 질병보험) 은퇴 대비 금융자산(개인연금포함, 자녀 결혼비용 및 교육비) 매일 은퇴대비 저축 비중(개인연금 납입액 포함), 주택자산 은퇴대비 부동산자산(부채제외), 은퇴 후 예상 연금수령액

삼성생명	「은퇴준비 지수」	재무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따져본 적이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자금보다 나의 노후자금이 우선이다. 주변 지인들과 비교할 때 노후자금 준비가 잘된 편이다.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개인/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정기적	
		건강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을 꾸준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 최소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노후에 증가하는 의료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 찾아올 장기요양 상태에 대비하고 있다.	
		활동	은퇴 후 여가와 사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쁜 일과 중에도 취미, 여가활동에 적극 시간을 투자한다. 은퇴 후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자격증 취득을 시도한 적 TV 시청, 신문 읽기 외 스스로 즐기는 취미가 하나 이상 은퇴 후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관계	우리 부부는 가사, 육아, 경제활동에 대해 역할 분담이 잘 가까운 사람들의 안부를 비교적 잘 묻고 살피는 편이다. 우리 가족은 갈등이 있을 때 내 감정과 생각에 대해 편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날 도와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	
신한 은행	「S-미래설계 은퇴준비 자가진단」	재무	기본정보	성별, 연령, 기대수명, 예상은퇴나이, 은퇴 후 월 생활비,
			은퇴목표 정보입력	노후 필요자금의 종류(자녀교육, 자녀결혼, 의료비 등)별
			은퇴준비자금 정보입력	본인의 공적연금의 유형과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의 유 준비금액(예금, 펀드, ELS형 투자상품, 개인연금), 금융지 주택연금 월 수령액과 수령기간, 부동산 월세수입, 예상

			은퇴준비결과	현금흐름, 필요/준비자금분석/포트폴리오현황/종합진단
삼성 자산 운용	「은퇴설계 시뮬레이터」	재 무	현재 상황	현재나이, 현재보유자산, 투자성향
			은퇴 준비자금	월저축/투자액, 개인연금 월 불입액, 퇴직연금제도, 연봉,
			필요자금	은퇴 후 예상필요자금: 은퇴나이, 월저축액, 투자성향, 예 예상 수익률/변동률
미래 에셋 생명	「수요분석도구 : 은퇴견적과 재정설계」	재 무	기본정보	성별, 연령, 예상은퇴연령, 은퇴자금 사용 기간, 혼인상 수, 결혼계획, 주택구입계획, 결혼준비자금, 주택구입자금 달성시기, 은퇴 후 예상 월 지출액
			재정상태	저축(저축보유자산, 투자, 자녀교육자금), 은퇴(연금보유자 불채무), 보장(생명보험, 중대질병 보장)

2) 국외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현황 및 사례분석

- 해외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및 은퇴준비지수는 국가 기관에서 주도하는 경우보다 국가 지원의 민간단체 또는 민간 지원의 학술단체 또는 대학연구소에서 조사되어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이소정 외(2008) 연구에서는 해외 노년기 지원의 사례가 크게 국가중심형, 민간 주도-국가인증형, 민간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은퇴지수현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은퇴 연구 센터(2006)에서 개발한 NRRI는 은퇴기에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비은퇴가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즉, 은퇴 이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인 은퇴소득대체율을 산출하여 개별 가계가 현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달성해야 할 목표 대체율과 비교한 뒤 두 지표 간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질 경우, 위험에 처한 가계로 분류하는 방식임
 - 미국 가계의 자산, 부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인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산출함

- 미국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운영하는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의 Retirement Readiness Index는 일, 여가, 관계, 소득 및 복지, 재무설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은퇴준비도를 측정함
 - Retirement Readiness Index에는 비재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수화는 재무적 측면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은퇴자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은퇴준비도를 측정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서비스인 Retirement IQ Test에서는 은퇴관련 수입, 지출, 연금 등의 지식을 측정하며, 재정적인 부분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음

- 미국의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통해 Retirement Confidence Index를 산출하였음

- Retirement Confidence Index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매년 조사되어 온 서베이를 통해 개발하였으며 주관적인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Sun life Financial의 US unretirement Index는 주관적인 중요도 인식을 기준으로 은퇴준비 정도를 측정함
- 거시경제, 개인재무, 건강,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은퇴준비지수임
-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만든 지표들과 같이 해외에도 재무적 측면에 국한하여 측정하는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음
- Foundation for Fiduciary Studies의 The Retirement Index는 은퇴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금을 저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은퇴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함
- AMP(豪)의 AMP Retirement Adequacy Index는 은퇴소득대체율 65%를 목표로 은퇴자금 충분도를 사용한 은퇴준비지수임
- Hartford(英)의 Hartford International Retirement Index는 은퇴설계(재무적)에 관한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수치를 통해 은퇴준비도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재무적 은퇴준비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노무라 종합연구소(日)의 Retirement Readiness Index는 총무성 가계조사+후생노동성 취업조건 종합조사 +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은퇴준비도를 측정하고 있음
- Melbourne Centre for Financial Studies(濠)의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연금에 국한된 거시 지표로, 적정성, 지속가능성, 청렴성의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11개 국가의 연금시스템을 지수화하여 비교함
- 이처럼 해외에서도 은퇴자 또는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정도 및 은퇴관련 지식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무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
- 또한 재무적 측면에 있어서도 해외은퇴지수들은 재무적 측면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측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실질적인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음

<표 2-9> 해외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기관	조사명	내용	비고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Retirement Readiness Index	- 일, 여가, 관계, 소득 및 복지, 재무설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은퇴준비도를 측정	- 비재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수화는 재무적 측면만을 활용함. - 은퇴자대상으로 조사대상 한계
	Retirement IQ Test	- 은퇴관련 수입, 지출, 연금 등 지식 측정	- 재정적인 부분만 측정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Retirement Risk Index	- 근로자 가계에서 재무적으로 은퇴준비가 미흡한 가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수 - 은퇴소득 충분도에서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가계를 위험가계로 분류	- 조사대상을 전기/후기 베이비부머와 X세대로 한정 -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Retirement Confidence Index	- 가장 오랫동안 매년 조사되어 온 서베이로, 주관적인 은퇴 재무설계에 대한 평가를 이용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 퇴직연금 위주 조사내용
Sun life Financial	US unretirement Index	- 거시경제, 개인재무, 건강,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은퇴준비지수	- 주관적인 중요도 인식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객관성 부족
Foundation for Fiduciary Studies	The Retirement Index™	- 은퇴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금을 저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은퇴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 -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제시	-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
AMP(豪)	AMP Retirement Adequacy Index	- 은퇴소득대체율 65%를 목표로 은퇴자금 충분도를 사용한 은퇴준비지수	-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
Melbourne Centre for Financial Studies(濠)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 적정성, 지속가능성, 청렴성의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11개 국가의 연금시스템을 지수화 비교	- 국가별 자료로 정책적 제언, 대중적 이용 및 활용 한계
Hartford(英)	Hartford International Retirement Index	- 은퇴설계(재무적)에 관한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수치를 통해 은퇴준비도를 보여줌	-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
노무라 종합연구소 (日)	Retirement Readiness Index	- 총무성 가계조사+후생노동성 취업조건 종합조사 + 거시경제 지표 이용하여 은퇴준비도 측정	- 2차 자료를 결합한 pooling data set을 사용으로 구조적 한계점 지남. -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

3) 본 연구에서 반영할 결과

- 첫째, 국내외 기존 지표들을 반영하되, 최대한 공무원의 은퇴준비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진단 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설계 서비스 등이 있으나 공무원의 연금수령 등이 달라 적용이 곤란함
- 둘째, 현실을 반영한 질문과 더불어 이상적인 노후준비의 구성요소들을 질문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노후진단 서비스의 목표를 인식 제고에 두고, 노후준비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형태의 문항 및 이상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한 문항들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무적 측면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향후 연금포털 등에서 연동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연금포털 서비스와 같이,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기간 및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현재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단하고도 직관적으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제 3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1. 지표개발 방향

-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은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은퇴준비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며 개인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 지표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무원 스스로 영역별 은퇴준비수준과 종합은퇴준비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며 체계적인 은퇴준비가 가능하도록 개발함
 - 이 때, 자가진단에 따른 능동적 은퇴준비가 가능하도록 자기평가 방식을 취함. 자기평가(Self-Evaluation)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활동으로, 경쟁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타인에 의한 평가와 달리 개인의 발달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식임
-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은퇴준비 6대 영역의 주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공무원의 고유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고려하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수차례 반영하여 진단지표를 고도화함
 -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주거와 일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 비중을 높임으로써 신체적 건강 진단에 치중되었던 건강영역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또한 재무 영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금충분성을 진단하되,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무관리습관 형성을 위한 진단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였음
 - 지수개발 및 측정 모형은 최현자 등(2012)이 개발한 SPA모형을 단순화한 EA모형으로 수정하여 적용함
- 셋째, 영역별 진단결과 및 가이드라인은 자신과 유사한 연령대와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준비가 취약한 영역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및 상담 관련 연구결과의 주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비교집단과의 동질감 인식 및 연령 코호트 간 차이점 반영을 위하여 진단결과 제시를 세분화함
- 넷째,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지원실에서 진행되는 공무원대상 은퇴설계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퇴직 전 교육의 동기부여 및 교육 후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온라인상에서도 스스로 자가진단 및 가이드라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정확히 조회하여 반영하는 데 적용 가능한 로직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강화함.

2. 초기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도출

1) 건강관리

(1) 이론적 배경

- 신체적 변화로 인한 노화는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노년기의 생활을 예측함에 있어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커진 만큼 은퇴 후 생활준비를 위한 건강 영역의 측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느끼고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건강상태에 따라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외로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준비에 있어서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정화, 2009)
- 그러므로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나 노후준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수이자, 실제로 은퇴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문제

라고 조사된 연구들이 많음(임경자, 2002; 임희정, 2002; 김기태, 2004; 강영숙, 2005; 안봉란, 2006 등)

- 또한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으며, 대부분의 노인질병이 갑자기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 생겼던 성인병이나 취약점이 점차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노년기 이전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함(조원희, 2012)
- 정부가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중점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 당사자 혹은 노후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결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없음
 - 노화의 원인은 유전, 환경, 생활양식, 건강관리와 활동, 스트레스와 누적된 손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규칙적인 생활(운동, 식사, 성), 수면(7시간 이상), 웃음 등과 같은 생활양식이 노화에 50% 이상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방식의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임(한국생애설계협회, 2016)
 - 국민연금공단(2011)의 노화준비 가이드에 따르면, 노인연령에 도달하기 전부터 노화에 대비하는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성인병 예방과 체중조절, 영양관리 및 균형 잡힌 식생활,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의 금지, 충분한 수면, 규칙적 생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노년기는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서적 건강도 중요함. 특히 노년기의 정서적인 문제는 건강 및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노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년기를 정신적 불안에 빠져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함
 - 김미경(2003)은 여가에 대한 준비부족과 사회참여 준비부족으로 정서적 사회적 고독감이 늘어남을 강조하였음
 -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은 노년기에는 부부 및 자녀간의 관계에 의한 정서적인 애정과 친밀감이 노후 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이영주(2010)는 노년기에 정서적 정신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신

승희(2010)는 노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녀, 친구, 성직자 등의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박현식(2012)은 정서적 노후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음.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주로 공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보다는 공무원들 간의 네트워크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가족적 여건과 환경에 맞는 정서적인 노후준비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건강수명, 건강나이 등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선행연구 결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주, 운동, 질병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요인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living to 100 (<https://www.livingto100.com>) : 보스턴 대학의 100세 연구소 thomas Perls 박사에 의해 설계됨

- 문항은 혼인지위, 지난 1년간 새로 사귄 친구 수,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 원인, 수면습관, 학력, 근로시간, 노화에 대한 태도, 두뇌자극을 위한 활동 여부 등의 개인 특성 관련 문항, 공기의 질, 커피 빈도, 차 빈도, 흡연(흡연여부, 흡연량, 간접흡연 노출), 음주, 아스피린 복용, 선크림 도포 여부, 치실 사용 등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문항, 가공육 섭취, 유제품, 비타민 D, 간식 여부, 붉은색 육류, 단 음식, 탄수화물, 철분, 운동여부 등과 같은 영양 관련 문항, 배변,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건강검진 등의 의료 관련 문항, 그밖에 가족력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응답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기대여명을 보여주고, 각 영역별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요소와 개선 가능한 연령을 보여주나, 질문이 총 40여개에 달해 응답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ttp://hi.nhis.or.kr/main.do>)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정보와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음. 특히 로그인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예측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보여줌으로써 건강나이를 제시하고 있음

- 건강나이 산출을 위해서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의 기본정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기타 건강검진 내역 결과를 입력하고, 검진기록,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흡연량, 음주량, 신체활동 등의 생활습관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면 기대여명이 아닌 실제나이 대비 건강나이를 보여주고, 행동의 개선을 통해 건강나이를 더 줄여줄 수 있는 위험요인과 위험 요인별 개선 가능 연령 및 이를 합산한 총 개선 가능 연령을 제시해 줌
-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그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검진 내역이 없을 경우 응답자가 혈당, 콜레스테롤 등과 같이 평소에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KB생명보험의 「건강나이계산기」** :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 식생활, 운동, 흡연량, 음주량, 지난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연간여행거리 혹은 직업의 위험도, 운전 및 안전습관, 건강검진, B형 간염 혹은 바이러스 보유자, 비만도 총 10가지의 질문을 통해 건강나이를 산출함
- 문항별로 응답자의 연령에서 일정 수명을 더하거나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에 따라서 가감되는 수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삼성생명의 「레인보우(RAINBOW) 은퇴준비종합지수」**: 신체적 건강 이외에도 마음의 안정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체적 건강은 운동, 건강검진, 흡연, 보험준비, 건강에 대한 중요성, 준비계획 실행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의 안정은 주거안정, 재무안정, 심적 안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신체적 건강을 중심으로 건강수명이나 건강나이를 측정한 반면, 삼성생명의 「레인보우(RAINBOW) 은퇴준비종합지수」는 마음의 안정을 측정하는 정서적 측면을 다룬 점에서는 다른 은퇴준비 지수와 차별화가 되었으나, 신체적

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이 규칙적 운동, 건강검진, 흡연, 건강 관련 보험 가입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적 건강을 진단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스트레스, 흡연량, 음주량, 식습관, 체중 유지 노력, 수면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측정함
 - 은퇴준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스트레스, 흡연량, 음주량, 식습관, 체중 유지 노력, 수면 등 11개 문항의 생활습관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나의 예상수명 진단, 생체나이 진단, 갱년기 진단, 만성피로증후군 진단, 기억력 테스트, 생활습관 진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지만, 너무 많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가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단점임

(2) 측정문항 도출

- 선행연구 고찰 결과 건강한 생활에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설문문항에 포함하고 있음
 - 키, 몸무게, 식습관(간식습관, 규칙적 식사 포함), 흡연, 음주, 운동량, 질병유인, 정기적 건강검진, 수면정도, 적절한 체중관리 노력, 주관적 건강평가, 정신건강
-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의 구조에 맞추어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 여부, 중요성 인식 및 준비계획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그리고 실천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식습관, 운동량, 흡연량, 음주량, 건강검진, 질병유인, 신체, 체중관리 노력, 수면, 휴식, 스트레스 관련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음

<표 3-1> 건강 관련 조사 항목 비교

문항	living to 100	국민건강 보험공단	KB생명보험 「건강나이계산기」	한국건강관리협회 (2006)	삼성생명의 「RAINBOW 은퇴준비종합지수」 (2012)
키/몸무게	○	○	○	○	
허리둘레		○			
적절한 체중					
흡연	○	○	○	○	○
음주	○	○	○	○	
특정 음식/식생활	○	○	○	○(염분, 과일, 탄 음식, 규칙적 식사)	
아침식사		○			
간식 안함	○			○	
주관적 건강평가	○				○(만족도)
운동여부(강도)	○	○(유산소)	○	○	○
스트레스	○	○(해소방법)	○	○	
사회적 지지		○			
평소 성격		○			
질병 유무	○	○(전반적 상태)			
질병 지장 여부					
장거리 여행과 위험한 직업 여부			○	○	
건강 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운전 및 안전습관			○	○	
건강검진	○	○	○	○	○
B형간염 바이러스		○	○	○	
충분한 수면	○	○(수면여부, 수면시간)			
혈압/콜레스테롤	○	○			

2) 대인관계

(1) 이론적 배경

-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특히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노년기의 대인관계가 행복과 생활의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인 안정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시켜주며, 삶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금전을 비롯한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가 됨
 - 노년기라는 생애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배우자, 친구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함. 이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다각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념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제적 위기상황에 잘 대처(장수지, 2010)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은퇴 후 가족관계와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
 - 노년기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간 역할 변화 및 접촉시간 증가 등에 따른 갈등으로 황혼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이혼 115,510건 중 65세 이상 남자는 5,914건(5.1%), 여자는 2,721건(2.4%)으로 전년 대비 남녀 각각 8.2%, 17.4% 증가하였음(통계청, 2015)
 - 황혼이혼 및 부모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고독사 및 고령자 자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를 차지하며 향후 2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독사 추이는 2011년 682명 → 2012년 719명 → 2013년 878명으로 증가하였음(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의원실, 2014)
 - 고령자 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만 명당 21.7명에 비해 2.6배 높은 수치임(통계청, 2015)

- 은퇴 후 원만한 대인관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구조적(양적) 측면과 기능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의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외적 형태와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시적인 파악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박영란·박경순, 2013) 대체로 인간사회의 개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역동적 상호작용(Cohen·Syme, 1985; Fisher, 1982; Gottlieb, 1981; Kahn·Antonucci, 1980; Wellman, 1979; 임소영, 2008에서 재인용)을 뜻하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최지민 등, 2015)
 - 사회적 관계망은 대인관계의 구성원, 그들과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 등 대인관계의 양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적합함
 -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Cohen·Hoberman, 1983; 리해근·하규수, 2012에서 재인용)하며 질적인 측면으로써 대인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대인관계의 양적 측면을 측정하는 경우 대인관계의 종류별로 접촉 및 연락 빈도를 측정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았음
 - 장수지(2010)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관계망의 규모가 클수록, 관계망 내의 관계들이 다양할수록 노인들은 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함
 - 또한 박경숙(2000)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고립되어 생활하는 노인이나 가족에 한정되어 생활하는 노인보다 높음을 보이며,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 대인관계의 질적 측면인 사회적 지지는 자원의 교환내용이나 사회적 지지의 종류,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구분해 측정하는 경향이 있음

- 최지민 등(2015)은 사회관계망이 고령자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영자와 김태현(1999)은 사회적지지가 심각한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분석함. 특히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주거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밝힘
 - 이가영과 박태진(2000)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여 사회적 관계망과 신체적 건강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였으며, Jeon 등(2012)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할수록 노인의 유병률이 증가함을 보여 사회적 관계망과 신체적 인 건강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 은퇴기 대인관계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관계망 관련 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 <표 3-2>와 같음
- 박경숙(2000)은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을 동심원 계층 구조로 설명함. 중앙의 동심원에 노인 자신을 중심으로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이 떨어져 사는 자녀, 형제를 포함한 친족이 위치한다고 하였음. 가족은 일차적 비공식집단, 이웃, 친구, 종교, 봉사활동단체 등은 이차적 비공식집단으로 세분화되며, 지역사회를 벗어난 공식집단이 있다고 하였음. 해당 연구는 일차적 비공식집단인 자녀와의 동거여부, 별거상황인 경우 근접성, 연락 및 왕래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차적 비공식집단에 대해서는 친구·이웃과의 만남 횟수, 경로당과 노인회관 참여정도, 종교 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정도로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함
 - 임소영 등(2013)은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함에 있어 가족관계를 보다 세분화함.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 없이 한 그룹으로 묶기보다 가족관계를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족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배우자유무, 동거 자녀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횟수, 형제·자매 및 친족과의 접촉횟수,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횟수 등 관계의 범위와 접촉 빈도에 관한 5가지 변수를 활용하였음
 - 강은나 등(2015)의 연구에서는 2012년 고령화 연구패널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배우자유무, 자녀연락유무 및 만남유무, 친구만남유무, 종교 활동, 친목 모임, 동호회 유무로 측정함
 - 윤정원과 엄기욱(2015)은 사회적 관계망이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구성

원들 간의 연결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계체계이자,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관심과 유대라고 하였으며, 자녀(며느리 및 사위 포함), 형제, 친척, 친구(이웃 포함), 공적지원자 등 5개 관계범주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분류하고, 그들과의 접촉빈도를 측정함

□ 한편,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은 대인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함

- 안경숙(2005)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자녀, 친척,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나누어서 측정함. 정서적 지지는 ‘어려운 일이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나를 늘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가’로 측정하였고, 도구적 지지는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가’,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주는가’,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가’로 측정하여 1-3점을 부여함
- 한정화(2010)는 전귀연과 임주영(2002)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 18개 문항으로 구성함
- 김옥희(2013)는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도움으로 보았음
- 정우진과 김태성(2015)은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내 상호 지지와 가족 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음

□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 연구와 한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의미상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해 측정한 연구들도 있음

- 장수지(2010)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은 관계의 유형과 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를 통해 다루면서 이를 배우자, 자녀, 가족이외의 인간관계, 사회활동 등으로 구성되는 관계의 유형별로 따로 측정하였음. 기능적 측면은 관계망 내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지지의 교환과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로 구성하여 자녀로부터의 지원, 자녀 외로부터의 지원, 자녀관계 및 부부관계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음
- 김원경(2001)은 사회적 접촉 빈도는 동창회, 교회 활동 등 사회적 기관 참여빈도와 가족, 친지, 친구 등과의 지난 6개월간 접촉 빈도로 나누어 측정함. 사회적 접촉 만족도는 6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지난 6개월간의 사회적 접촉 시 주

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했는지, 변화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접촉의 빈도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여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음

- Jeon 등(2012)은 사회적 관계망의 측정에는 친구, 친척과의 만남 및 사회단체 참여 여부의 3개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ENRICHED(Enhancing Recovery in Coronary Heart Disease) ESSI(ENRICHED Social Support Instrum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련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의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둘을 함께 다룸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외적 형태와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대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 또한 중고령자 및 노년의 삶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들은 가족 및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조사들은 조사대상자(베이비부머, 중고령자, 노인 등)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이웃 등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분류하고, 조사대상자들과 그들의 연락 및 만남의 빈도, 자원의 교환을 측정하였음

(2) 측정 문항 도출

- 은퇴 후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메트라이프-서울대 노화고령 사회연구소(2010)의 한국베이비부머 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2014)의 노인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 삼성생명(2012)의 「RAINBOW 은퇴준비종합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중노년층 삶의 질 지표 체계 등이 있음
- 문항 검토 후 다양한 은퇴준비 관련 지표들 중에서 대인관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

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설정하였음. 설문 문항은 응답자가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양태를 고려하여 은퇴 이후의 준비 정도를 예상하는 문항으로 대인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음

- 대인관계의 양적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을 다룬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였음
 -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구성원 별로 만남(왕래)과 연락의 빈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함. 은퇴기의 주된 사회적 관계망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및 지인 등의 관계망 존재 여부와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은퇴자들의 경우 직장 등 공식집단에서의 관계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비공식적 관계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 이외의 일에서 친한 직장동료와의 연락을 포함함
 - 사회적 지지는 ENRICHED(Enhancing Recovery in Coronary Heart Disease) ESSI(ENRICHED Social Support Instrument)를 참고하였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대인관계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음
 - 관계의 질적 측면은 관계의 기능과도 관련된 것으로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물질적 지지와 도움을 받는 정도를 질문함.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누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지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와 도움이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하고 있으므로(안경숙, 2005; 한정화, 2010; 김옥희, 2013; Jeon 등, 2012), 본 지표 구성에 있어서도 관계의 구성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로 그 정도를 파악함
- 설문 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의 구조에 맞추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대인관계에 대한 계획 여부, 중요성 인식 및 준비계획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 은퇴 후 가족관계 고려사항 인지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 각각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현재 만족도는 가족(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및 사회적 관계(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의 만족을 각기 따로 문항으로 구성함
 - 은퇴 후 대인관계 준비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9점 척도로 질문하여 노년기 대인관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실천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과 상호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시간공유, 대화, 가사분담,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임 수 등이 해당됨

<표 3-2>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의 구분 및 측정

개념	분석자료	측정 문항
사회적 관계망	1997년 노인의 주거 및 삶의 질에 관한 실태조사	일차적 비공식집단(자녀) - 자녀와의 동거여부, 별거상황에서의 근접성, 연락 및 왕래 정도 이차적 비공식집단(지역사회 내 친구, 동료, 이웃과 자발적 사회활동단체) - 친구, 이웃과의 만남 횟수, 경로당과 노인회관 참여정도, 종교 활동과 에의 참여 정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배우자유무, 동거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횟수, 형제·자매 및 횟수,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 횟수
	2014 노인문제 및 지역사회자본 조사	혈연(친인척)의 연고관계 - 1-5점 척도 근린 연고관계 - 1-5점 척도 1) 주민모임 참여 정도 2) 이웃과 대화 정도
	2012년 고령화 연구패널	배우자유무, 자녀연락유무(최소 격주에 한번 이상 연락하는 자녀), 자 두 달에 한번정도 만나는 자녀), 친구만남유무(최소 격주에 한번 이상 람), 종교 활동유무, 친목모임유무, 동호회유무
	직접 수집 (전라북도 거주 65세 이상 여성 대상)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포함), 형제, 친척, 친구(이웃 포함), 공적 전담 공무원 등) 등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 개개인 별 지난 1년간 접촉
	200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구조적 측면 -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지리적 근접거주 자녀유무, 가족이외의 유 도, 사회활동 참여개수, 비동거자녀 접촉빈도 기능적 측면 - 자녀로부터의 지원, 자녀이외로부터의 지원, 자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직접수집 (부산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정서적 지지(3문항) - ‘어려운 일이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있다고 느끼는가’, ‘나를 늘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가’ 도구적 지지(3문항) -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가’, 보살펴 주는가’,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가’ 각 3점 척도

	직접 수집	대인관계 및 사회적 특성 -대인관계 평가, 친척 및 형제·자매와 연락 및 만남 빈도, 여가활동 참여 빈도, 두터운 분 명수, 이웃과의 교류 정도, 감정표현 통제력 정도, 사회적 지지 -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총 4영역 18문항
	직접수집 (부산 65세 이상 노인)	정서적 지지 -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 행위 등 정보적 지지 -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물질적 지지 -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 평가적 지지 - 행위를 인정 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평가와 관련
	제 3차 고령화 연구패널	가족 내 상호지지 - 심리사회적지지: 대면적 만남과 비대면적 연락 빈도 - 금전적지지: 은퇴고령자와 자녀 상호간 주고받은 금전 지원 액수 - 돌봄 제공: 은퇴고령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돌봄 수발을 제공받는 시간,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 및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 가족 외 지지 - 심리사회적지지: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 돌봄 제공: 간병인으로부터 수혜 받는 돌봄 제공 시간
	직접수집 (미 펜실베이니아주 대학병원 노인병동 외래환자)	객관적 측면 - 사회적 접촉 빈도 : 동창회, 교회 활동 등 사회적 기관 참여 빈도 + 가족, 친지, 친척, 6개월간 접촉(통화) 빈도 주관적 측면 - 사회적 접촉 만족도 : 지난 6개월간 주변 사람들과 관계 변화 및 접촉 내용, 전반적 만족도, 접 척도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	직접 수집	사회적 관계망 - 친구, 친척과의 만남, 사회단체 참여 여부 사회적 지지 - ESSI Q1.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Q2.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Q3.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Q4. 필요할 때 소소한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Q5.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나 힘들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Q6.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필요할 때 마다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표 3-3> 대인관계 관련 조사 항목 비교

문항		메트라이프· 서울대 (2010)	한국 고용정보원 (201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4)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1)	
배우자	배우자 유무		0		0(보기)	
	배우자와의 대화	0(빈도)		0(충분성)	0(충분성)	
	배우자와의 외출	0(빈도)		0	0(빈도)	
	부부 공동 활동 참여					
	부부 지원	가사노동분담			0	
		정서적도움			0	
		간병, 수발			0	
	부부간 의사결정 방법					
	부부간 저녁식사 빈도					
	배우자와의 관계	0(8문항)				
	배우자와의 갈등	0(10문항)		0		
	갈등 시 행동방식	0				
	이혼 심각한 고려	0(빈도)				
결혼생활 만족도	0					
자녀	자녀 유무	0	0	0		
	자녀 지원	금전적 지원	0	0	0	
		도구적 지원			0	
		손자녀 돌봄 지원			0	
		간병지원			0	
		정서적 지원			0	
	자녀와 대화				0(충분성)	
	자녀와 물리적 근접성		0			
자녀와 (저녁)식사 빈도						
비동거 자녀(내외)와 왕래/연락빈도	0(왕래 7문항, 연락 14문항)	0	0			

	자녀와 외출 빈도	0				
	자녀에 대한 염려/생각/갈등	0				
손자녀	손자녀 유무		0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		0	0		
	손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0		
부모	부모(본인 및 배우자의) 생존여부		0	0		
	부모 동거여부/근접성	0	0			
	부모와의 대화	0				
	부모와 저녁식사 빈도	0				
	부모와의 금전적 지원	0(전화)	0	0		
	비금전 지원	정서적 도움			0	
		도구적 도움		0	0	
		간병 및 병원동행			0	
		비동거 부모와 왕래/연락빈도	0(왕래)			
		부모와 외출 빈도		0		
가족	동거가족과의 저녁식사					
형제·자매	생존 형제·자매 수			0		
	형제·자매와의 왕래				0(빈도)	
친인척(형제자매 등)	친인척과 왕래/연락 빈도			0		
	월1회 이상 만나는 친인척 수		0			
친구·이웃	친구와의 만남				0(빈도)	
	친구·이웃과 왕래/연락빈도			0		
사회적 관계	이웃의 도움 제공				0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수		0	0	0(명수)	
	월 1회 이상 만나는 친구·이웃 수		0			
단체 활동	친척, 이웃, 친구, 사적 모임과의 만남 빈도		0			
기타	참석하는 모임 수/참여빈도		0(빈도)		0(개수)	
	관계의 중요도/중요성 인식				0	
	관계의 만족도			0		
	사회적 관계 준비계획 실행 정도					

3) 주거관리

(1) 이론적 배경

- 주거환경은 인간의 실제 생활의 장으로, 개인생활의 근거지이며 사회생활의 토대가 됨. 은퇴 후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은 개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광의의 주거환경은 ‘인간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 조건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외부적 조건’임(박찬규, 1982)
 - 협의의 주거환경은 ‘주택을 둘러싼 여러 물리적 조건’으로 정의되며(도나라, 2010), 단순한 물리적 요소로만 주거환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노년기 주거 환경 향상에 관한 이론은 개인의 환경 합치 이론, 주관적 주거애착 이론, 주거지역 침투성이론,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론 등이 있음(Lawton et al., 1973; 최성재 외, 1993; 도나라, 2010; 남기민·남현정, 2013 재인용)
 - 첫째, 개인의 환경 합치 이론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 간의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은 안락과 만족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임.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하도록 개별화해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주관적 주거애착 이론은 노인이 주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택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웃에 대한 개인적 만족감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임. 객관적 환경요인 뿐 아니라 주관적 환경요인도 중요함
 - 셋째, 주거지역 침투성 이론은 개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경계를 넘어 침투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임. 이 이론은 특히 계획적인 노인주택단지 등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적용될 수 있음
 - 넷째, 탈시설화와 정상화 이론은 노인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독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인의 환경변화에서 오는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임
-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함

- 은퇴 후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노인들의 경우는 생활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주택의 머무는 시간이 길어 주거환경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남기민·남현정, 2013; 윤해수, 2010)
- 최근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생활 거점을 옮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생활 거점을 옮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노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친숙한 거주 공간에서 노화를 맞이하는 정책은 'Ageing in place'로 지칭됨
- 선행 연구들에서 주거환경에 대해 측정한 평가항목은 각 연구의 목표에 따라 그 내용과 분류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됨
- 소비자 측면의 주거 복지지표를 개발한 윤주현(1999) 연구에서는 주거복지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음. 지표군을 양적지표, 질적지표, 주거비부담지표, 주거점유안정성, 주거환경지표, 형평성지표의 6개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인 주거복지지표를 개인주거복지측면과 사회주거복지측면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개인주거복지측면에서 주거점유 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함
 - 소비자 측면의 주거복지체감지표를 개발한 지은영 외(2008)의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있음에 근거하여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 지속'으로 설정하고, 주거복지 목표에 따라 각각을 주택(house)부문과 주거환경(community environment)부문으로 구성하였음
 - 주거복지체감 측면의 주택지표는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시설·설비, 면적, 실내 환경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며, 주거안정 지속을 위한 거주기간, 주거비에 대한 개별지표를 포함함. 또한 주거환경지표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입지, 접근성, 물리적 근린환경, 공동생활에 대한 개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일본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택수요실태조사'는 국민의 주택에 관한 만족도, 최근의 개선 상황, 향후의 개

선 계획 등 주택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국토교통성 주택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주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주거만족도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택에 대한 평가 13문항,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11문항, 주택·주거환경에 대한 종합평가 3문항, 총 27문항으로 4점 척도로 만족 비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적 추이와 대도시별, 지역별로 파악하고 있음

□ 한편, 주거환경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적 측면은 주거의 기본적 조건에 해당함

- 주거의 기본조건은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5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1) 안전성은 기후변화와 재난, 도난,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 2) 쾌적성은 온습도 및 채광, 쓰레기오물처리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며 소음과 공기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곳, 3) 능률성은 짧은 동선 및 공간과 가구의 치수, 수납공간의 확보, 4) 심미성은 신체와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처, 가족의 개성이 표현된 공간, 5) 경제성은 주택구입비, 임차비, 주거비 등이 가족 경제수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한국FP협회, 2014)

- 주거환경만족에는 생명유지 및 위험 방지 목적의 ‘안전성’, 건강유지 목적의 ‘보건성’, 일상생활 불편 해소 목적의 ‘편리성’, 윤택한 생활을 위한 ‘쾌적성’, 차후 생활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성’이 포함됨(박신영 외, 2004)

- 일본 ‘주택수요실태조사’에서의 하위요인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음

- Lawton(1980)은 노인에게 중요한 근린 환경의 평가 요인으로 물리적 어메니티 관련 요인, 자원적 어메니티 관련 요인, 안전 관련 요소, 기타 자극 요소 등 네 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물리적 어메니티는 녹지, 깨끗한 환경, 쾌적한 공기 등을 의미하며, 2) 자원적 어메니티는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함. 3) 안전 관련 요인은 교통사고, 범죄, 화재 및 폭발 등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뜻함. 4) 기타 자극요소는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소음, 냄새, 이동에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등이 포함됨

□ 노후준비지표에서 주거 준비 정도를 측정한 최현자 외(2012) 연구에서는 1) 주거생활만족도, 2) 은퇴 후 주거생활 준비계획 여부, 3) 주거점유형태, 4) 주거자원의 은퇴재원활용계획, 5) 장기간병기의 주거지, 6)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준비계

획 실행 정도 등 총 6가지의 질문을 활용함

- 노인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주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노인 주거환경의 물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모두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만족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상권, 2002)
 -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환경의 중요 가치를 조사한 연구에서 노인 시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물리적 요인 중에서는 녹지와 환경, 안전 요소 중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기타 자극요소에서는 혼잡과 경사가 중요하게 나타났음(김영진, 2013)
 - 주거만족도와 거주 의사에 미치는 환경 요인들에는 공통적으로 자연환경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어메니티 요소, 주변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자원적 어메니티 요소, 사고 및 범죄 등과 관련한 안전 요소 등이 포함됨(이재현 외, 2012; 권치흥 외, 2012; 이승호 외, 2012; 김동근, 2008)
 - 주거의 지역적 성격(구시가지, 신시가지)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이영균·김동규, 2007), 노인의 주거욕구 중 미적인 욕구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김태현·서승희, 1987)
 - 여성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주거애착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음(최화강, 2012)

(2) 측정문항 도출

- 본 연구는 노년기 주거생활 영역에 대해 다룬 연구와 각종 조사들을 바탕으로 은퇴 주거 준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도출함. 다양한 은퇴준비 관련 지표들 중에서 주거영역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질문을 선별하여 은퇴준비를 측정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최현자 등(2012)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김영진(2013) 등의 조사 및 FP협회(2014)의 주거자산의 관리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퇴 후 주거계획, 노후주거 고려사항 인지와 노후주거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음

- 설문 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의 구조에 맞추어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 여부, 중요성 인식 및 준비계획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 은퇴 후 주거환경 고려사항 인지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리고 현재 주거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현재 만족도는 주거의 안정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을 각각의 문항으로 변환하여, 노년기 거주공간의 내부 위험성, 주택의 안전성, 주택의 외부환경 쾌적성, 주택의 심미성, 주거비를 고려해보았는지 질문함
- 은퇴 후 주거환경 준비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세우고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9점 척도로 질문하여 노년기 주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실천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과 상호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주거의 안정성, 주거지역과 형태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 동거인에 대해 생각해보았는지 등이 해당됨

<표 3-4> 주거영역 관련 조사들의 문항 비교

조사문항		최현자 등 (2012)	김영진 (2013)	FP협회 (2014)	박신영 외(2004)
주거점유형태		0			
주거자원의 은퇴재원 활용계획		0			
거주지 이전	거주지 이전 의향	0			
	장기간병기의 주거	0			
중요도, 만족도, 실행	주거생활 중요도/중요성 인식	0			
	주거생활 만족도	0			
	주거 준비계획 실행정도	0			
환경 요소	안전성/교통안전		0	0	0
	쾌적성			0	0
	능률성			0	
	심미성			0	
	경제성			0	
	보건성/노인시설 및 의료서비스		0		0
	편리성				0
	지속가능성				0
	스트레스/혼잡과 경사		0		

4) 여가활동

(1) 이론적 배경

- 여가는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노동시간이나 필수적 활동에 종사한 후 남는 자유재량 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정의되거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휴식, 오락, 지식습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 총체로 지칭되기도 함(허지정, 2017). 그러나 여가는 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연구자마다 상이한 정의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음
- 허준수(2002)는 여가가 자유 또는 비의무적이라는 시간의 특성과 자유재량 또는 자발적이라는 활동의 주체적 특성을 볼 때 여가활동을 자유시간 또는 비의무적인 시간에 자유재량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음
- 신상식(2011)은 여가를 가족에 대한 의무나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기분전환을 하며 지식을 넓히고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행하는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제시하였음. 따라서 여가는 재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2년마다 국민의 여가활동을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2016)는 여가를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 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처럼 연구자마다 여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지만, 크게 여가는 시간 개념(여가를 자유시간과 동일 시) 중심과 활동 개념(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활동) 중심으로 나눌 수 있음
-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들 수 있음
- Lemon 등(1972)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규범과 제도에 의해 노년기에는 활동의 감소를 경험하며, 이러한 활동의 감소는 자아정

체감의 혼란을 초래하여 노년기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킴. 따라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퇴직이나 은퇴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 활동을 대신하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지금까지의 사회 및 일 중심적 삶에서 개인 중심적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삶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감 해소, 자아 존중과 정체성 유지, 생활만족도 증진 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임병우, 2007)
-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한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내 여가활동을 즐긴 경험이 적고 여가활동의 방법과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홍성희, 1998). 또한 여가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의 감소와 건강 약화로 인해 여가투성이의 시기가 여가불모지의 시기가 되고 있음(이소정 등, 2011)
-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문화 활동, 교육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등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TV보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후 시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최현자 등, 2016)
- 또한 5년마다 조사하는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여가시간동안 TV시청이 15.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여행(14.29%), 스포츠(11.52%), 등산(9.86%), 독서(9.23%), 휴식(8.88%), 문화예술 관람(8.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으로서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역시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3-5> 공무원 여가시간 활용 현황

N= 903,148(중복응답) / 단위 : %

구분	TV시청	여행	스포츠	등산	독서	휴식	문화예술 관람	산책	외식
비율	15.08	14.29	11.52	9.86	9.23	8.88	8.46	6.48	2.70
구분	화초 가꾸기	기타	가사	자전거	컴퓨터 게임	학원수 강	자원봉사	장기. 바둑	복수 응답계
비율	2.61	2.39	2.36	2.24	1.20	1.01	0.89	0.82	100.0

출처: 행정안전부(2013). 2013년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 은퇴 후 노년기에 무의미할 수도 있는 시간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가령,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여가설계를 위한 인식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일관된 기준이 없고, 연구자마다 활동의 강도(활동력), 종류, 동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 및 분류하고 있음.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분류 기준은 활동의 강도(활동력)와 종류이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대부분임
- 여가활동 유형을 활동의 강도(활동력)에 따라 구분한 연구로는 최현자 등(2012), 장미옥(2015) 등이 있으며, TV시청, 독서, 신문·잡지 구독, 음악감상, 라디오 청취, 독서, 인터넷 이용 등과 같이 정적이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수동적, 소극적 여가유형으로, 운동, 종교 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등과 같이 동적이고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능동적, 적극적 여가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최현자 등(2012)은 여가의 유형을 신문/잡지, 독서,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은 소극적 여가와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사회봉사, 종교 및 친목모임 활동, 여행 등의 적극적 여가로 구분하였음
 - 장미옥(2015)은 Canada Well-being Index를 참고하여 중·고령층의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활동성 정도와 활동특성을 범주화하여 여가유형을 구분하

였음. 즉, 여가를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하고, 이 중 적극적 여가를 독서, 인터넷검색, 취미, 학습 참여, 카드/보드게임, 오락/스포츠 참여를 인지적 활동, 친구교제, 전화잡담, 사교모임/식당, 영화관람/댄스/파티를 사회적 활동, 운동, 산책, 스포츠 활동을 신체적 활동으로 더 세분화하였음

- 여가활동 유형을 활동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연구로는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문화체육관광부(2016), 허지정(2017) 등이 있으며, 활동의 종류에 따라 그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였음
 -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여가 영역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여가 영역들을 추가 보완하여 여가 유형을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활동참여, 스포츠관람,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관광 및 야외 나들이, 취미오락, 교양 학습, 자원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모임 활동 총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2년마다 국민의 여가생활을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2016)는 여가활동을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 오락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바탕으로 한 허지정(2017)은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을 스포츠활동으로 통합하여 총 6개의 영역으로 여가 유형을 구분하였음

<표 3-6> 은퇴 후 여가활동 유형 구분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6)	허지정 (2017)	최현자 등 (2012)	장미옥(2015)	최현자 등 (2016)	
취미오락	취미 오락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소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활동	
교양학습		휴식				휴식활동
-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 활동참여	문화예술 참여활동	문화예술활동	적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활동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스포츠참여활동					
관광 및 야외 나들이	관광활동					관광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사회기타 활동	적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당당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한 활동
종교 활동						
사교모임활동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활동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함. 특히 활동의 강도에 따른 분류 중에서 노년기에 무의미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여가에 만 관심을 가짐. 또한 적극적 여가활동 중에서도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등과 같은 여가활동은 크게 레저형 여가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모임활동 등과 같은 여가활동은 크게 사회참여형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2) 측정 문항 도출

□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최현자 등(2012),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최현자 등(2016)이 있음

- 4가지 영역으로 노후준비 종합진단 지표를 개발한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은 여가생활의 진단점수를 위한 점수용 문항과 상담을 위한 분석용 문항으로 구분하여 가장 다양한 문항을 제시하고 있음. 진단점수를 위한 점수용 문항에는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계획 및 실천, 현재 여가활동의 일상성 및 지속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용 문항에는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비용 지출정도, 선호여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7가지 영역으로 가장 다양한 비재무적 영역을 통해 은퇴준비지수를 측정하고 있는 최현자 등(2012)과 4가지 영역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는 최현자 등(2016)에서는 SPA모형을 적용하여 은퇴준비에 대한 만족도, 계획, 실질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KB노후준비지수를 통해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본 KB연구보고서(2012)에는 실질적인 현재 활동에 초점을 맞춰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지속여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의 구조에 맞추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 여부, 중요성 인식 및 준비계획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실천과 관련된 문항은 다양한 은퇴준비 관련 지표들 중에서 여가활동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은퇴준비를 측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수 점수 산출형 문항과 분석형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표 3-7> 여가활동 관련 조사들의 문항 비교

조사 문항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11)	최현자 등(2012)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최현자 등 (2016)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
은퇴 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고려	○			
은퇴 후 여가활동의 중요도 인식		○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계획	○	○		○
여가활동에 계획 실행(실천)	○	○		
현재 여가활동의 지속성	○		○	
여가활동의 관계적 측면(동반자)	○			
여가활동의 비용적 측면 (경제적 지출)	○			
은퇴 후 여가시설 선호도	○			
현재 여가활동의 종류	○	○	○	
현재 여가활동의 빈도	○	○		○
은퇴 후 예상 여가활동의 종류	○			
은퇴 후 예상 여가활동의 빈도	○			○
여가활동의 목적	○			

5) 일자리 관리

(1) 이론적 배경

- 일이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신의 성장을 보면서 삶의 의욕을 충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Friedman & Havighurst에 의하면 일의 다섯 가지 역할은 첫째, 일에 따르는 재정적인 보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둘째,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가해줌. 셋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 넷째, 의미 있는 생활

의 경험을 제공해 줌. 다섯째,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기본적인 장소를 제공함. 그러므로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다면 노후자금의 고갈 속도를 늦추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은퇴 후 고령자들은 취미와 여가 생활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자칫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커다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음
- 더욱이 액티브 시니어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아직 젊고 체력과 지력을 갖춘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은퇴 후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찾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임
- 2013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 장래 근로를 원한다는 중고령층은 59.9%에 달했으며, 이들 중 과반수(54.8%)는 생활비에 보태고자, 그리고 36.9%는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장래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3). 또한 은퇴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60.5%가 ‘비록 은퇴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하였음. 이 중 60세 이상 은퇴자의 경우에도 약 47%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근로지속 의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삼성생명 은퇴백서, 2014)

<표 3-8> 중고령층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천명, %)

55~79 세	계	장래 근로 원함	취업원인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전체	10,917 (100.0)	6,541 (59.9)	6,541 (100.0)	2,412 (36.9)	3,584 (54.8)	124 (1.9)	113 (1.7)	294 (4.5)	14 (0.2)
남자	5,098 (100.0)	3,766 (73.9)	3,766 (100.0)	1,523 (40.5)	1,953 (51.9)	97 (2.6)	63 (1.7)	125 (3.3)	5 (0.1)
여자	5,819 (100.0)	2,776 (47.7)	2,776 (100.0)	888 (32.0)	1,631 (58.8)	27 (1.0)	50 (1.8)	169 (6.1)	10 (0.3)

자료: 통계청(2013. 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 서울시교육청의 퇴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욕구를 연구한 송미영(2015)에 의하면, 재직자, 퇴직자 모두 퇴직 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으로 사회적 역할상실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자아실현과 자기발전, 건강유지 등의 이유로 사회참여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
- 퇴직공무원 지원에 관한 연구를 한 이성현(2013)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4.9%가 퇴직 후 사회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많은 수의 퇴직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기 원하고 있었음
- 일자리 유형은 은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경로에 따라 크게 생계형(고용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 재취업, 시니어창업 등), 혼합형(커뮤니티 비즈니스/사회적기업), 공헌형(사회공헌 일자리, 해외파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손유미, 2011). 이 중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적은 편(김순애, 2017)으로 일자리 유형 중에서 생계형보다는 공헌형에 더 관심을 가짐
- 퇴직예정교사의 퇴직 후 삶의 준비에 대한 연구를 한 김명희(2016)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2.9%가 퇴직 후 연금수급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특히, 퇴직예정교사들은 퇴직 후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높았으며,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전문성과 연계된 일을 통해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측정 문항 도출

-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최현자 등(2012)의 삼성생명 은퇴준비종합지수에 유일하게 일과 관련된 문항이 있음
- 최현자 등(2012)은 일에 대한 은퇴준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SPA모형에 적용하여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일을 위한 준비계획 여부, 사회봉사참여 활동, 은퇴시점의 고려,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의 일 및 사회활동 준비계획의 실행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공무원연금공단(2017)에서 미래설계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는 ‘100세 시대 은퇴설계’에서는 일과 관련하여 퇴직 후 일(사회활동, 봉사활동 포함)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 퇴직 후 일에 대한 배우자, 가족들과의 대화 여부, 일자리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여부, 취미나 경험을 살릴 의지,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 관리 여부 등을 체크해 보는 내용이 있음

-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의 구조에 맞추어 일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 여부, 중요성 인식 및 준비계획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실천 부분 문항의 구성은 공무원연금공단의 100세 시대 은퇴설계 교재에서 일 관련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은퇴 후 일자리를 위해 경력 및 경험관리,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의 정보 원천, 일자리를 위한 의지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은퇴준비 여부를 파악하였음

6) 재무설계

(1) 이론적 배경

- 재무설계는 다른 영역의 은퇴 생활에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은퇴준비 영역 중 핵심적인 영역임
 -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 기본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생애주기 경험 연령이 늦어져서 경제활동 가능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음
- 공무원연금은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하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므로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퇴직 후의 재정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57%가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하위직일수록 연금이 적었음(박성택, 2017)
 - 공무원 집단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짧은 소득활동 기간 내에 은퇴 이후의 시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은 은퇴 이후부터 기대 수명에 이르는 생존 기간 동안의 생활 유지 가능 여부와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은퇴를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시켰으며 93%에 달하는 응답자는 충분한 생활 자금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음(HSBC, 2011)
 - 또한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 및 은퇴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짐(김지경·송현주, 2010)
- 은퇴 후 삶의 질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은퇴준비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객관적 측정 방식과 주관적 측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객관적 측정 방식은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방식과 은퇴준비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은퇴자금의 충분성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임(강성호·김경아, 2008; 문숙재·여윤경, 2001; 류건식·이봉주, 2008; 백은영, 2007; 안종범·전승훈, 2005; 여윤경, 1999;2002; 여윤경·김진호, 2007; 원종욱, 2000; 이지영·최현자, 2009; 최현자 등, 2009; 2012b)
 - 은퇴준비 여부 및 정도는 현재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 및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3층 연금 가입 여부를 바탕으로 측정하거나(최현자 등, 2012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적 은퇴준비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 등이 해당됨
- 객관적 측정결과의 표현으로 경제적 은퇴준비의 지수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은퇴 이후의 재정 자원과 재정 요구 사이의 비교에 바탕을 둔 연구임
- 최현자 등(2009)이 개발한 한국의 은퇴준비지수는 은퇴기간 동안 필요 생활비와 은퇴 시까지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을 비교하여 산출한 은퇴자금충분도, 은퇴 전의 소득과 은퇴 후의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한 은퇴소득대체율, 은퇴 전의 소득과 은퇴 후의 소비수준을 비교하여 산출한 목표소득대체율의 세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함
 - 또한 최현자 등(2013)의 은퇴소득준비지수, KB경영연구소(2012)의 재무적 노후준비도, 보스턴대학 은퇴연구소(2006)의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이하 NRRI)는 앞의 세 가지 지표 중 은퇴자금충분도의 개념으로 은퇴준비 수준을 살

퍼 본 연구에 해당함. 이 중 NRRI는 은퇴자금충분도를 알아보기 위해 은퇴소득 대체율을 산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은퇴소득대체율과 목표 대체율 간의 격차를 토대로 위험 가계를 분류하고 은퇴준비연령을 산출하기도 하였음

-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노후 준비 종합진단 지표 중 재무영역의 지표는 노후설계 준비 여건, 행태 및 인식, 자산 현황의 3개 영역의 항목을 조합하여 경제적 은퇴준비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 함
- 세 번째 유형인 경제수명 연구는 개인 및 가계가 준비한 은퇴자산을 모두 소진하여 추가적인 소득활동 없이는 더 이상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의 가구주 연령으로 정의하고 은퇴연령과 은퇴자산 사용기간의 합으로 이를 측정함
- 기존연구들에서 경제적 은퇴준비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식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체계가 사용되었음
 -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이 은퇴자금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예상 은퇴연령과 은퇴 이전 소득은 은퇴필요자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들로 역시 대부분의 측정 항목에 포함되었음
- 주관적 측정 방식의 경우 은퇴준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은퇴준비 수준, 은퇴계획 수준, 은퇴준비 자금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음(나혜림·최현자, 2013; 박주영·조혜진, 2012; 여윤경, 2007; AEGEON, 2013)

(2) 측정 문항 도출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은퇴준비 자가진단을 위하여 재무관리 정도의 인식, 준비정도, 실천을 각각 질문하고 은퇴자금충분도를 측정하고자 초기 설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 구성하였음
- 첫 번째 파트는 은퇴재무관리임
 - 설문 문항은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Awareness), 준비(Ready), 실천(Action) 의

구조에 맞추어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 여부, 실행으로 구성하였음

- 은퇴 후 재무상태 인지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재무안정 유지와 재무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음
-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 준비에 관한 2문항은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9점 척도로 질문하여 노년기 재무설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실천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과 상호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공무원연금 및 기타 연금에 대한 인지도, 기타 연금의 활용의향,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소득과 지출의 관리, 의료비와 간병비 준비여부, 부채부담, 배우자 연금준비상태 등이 해당됨

□ 두 번째 파트는 은퇴자금의 충분성임

- 일반적으로 은퇴준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은퇴필요자금과 은퇴자산을 바탕으로 은퇴자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은퇴필요자금과 은퇴자산을 추정하는데 포함되는 변수들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은퇴 준비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진단지표의 목표와 더불어, 실제 자가진단을 수행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간단한 계산으로 은퇴자금충분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은퇴자금충분도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음
- 다만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특수직역연금에 속하며, 은퇴 후 활용 가능한 연금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은퇴자금충분도의 대리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변수들을 선정한 결과, 은퇴필요자금의 추정을 위해서 일상적 생활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및 장기간병비, 보험충당금액을 측정 항목으로 포함하였고, 은퇴자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량 측면의 은퇴대비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공적연금자산과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자산 등을 질문하고자 하였음
- 필요자금 추정 로직에서는 행복수명지표(2016)에서와 같이 은퇴기에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중증질환 치료비와 장기간병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은퇴필요 자금이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음

- 또한 질병 및 장기간병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은퇴준비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보험으로부터의 비용 충당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음

□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개발된 초기 자가진단지표는 <부록 1>에 제시함

<표 3-9> 재무설계 관련 조사들의 항목 비교

	최현자 등(2009)	최현자 등(2013)	KB 경영연구소 (2012)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2006)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 원(2011)
예상 은퇴연령	0	0	0	0	0
은퇴 이전 소득	0			0	
예상 은퇴생활비	0	0	0	0	0
월 평균 노후 대비 저축액	0	0	0		
비정기적 저축액			0		
노후대비 저축 비중					0
공적연금	0	0	0	0	0
사회보장급여				0	
퇴직(연)금	0	0	0	0	0
개인연금	0	0	0	0	0
금융자산	0		0	0	0
노후대비 부동산 자산					0
노후대비 거주용 부동산		0	0	0	
노후대비 비거주용 부동산		0	0		
기타 자산			0		
부채	0		0		
자녀 교육비			0		
자녀 결혼자금			0		
경제생활 만족도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 계획					
향후 소득의 안정성					0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정도					0

3. 초기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수정

1)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표 수정

- 6개 영역별로 개발된 초기문항을 영역별 자문위원에게 의뢰하여 문항구성의 체계 (SPA/ARA)와 문항 내용 및 측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받음. 또한 전체 문항에 대한 균형과 분석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인의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함
- 자문의뢰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문항을 수정함. 주요 자문의견 및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자문내용과 이를 반영한 문항수정 및 보완 사항은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함
 - 영역별 문항개발 및 분석의 틀로 사용된 SPA/RAR의 경우 인식과 준비(계획), 실천으로 구성되는데, 인식과 준비(계획)에 포함된 문항(우려도와 만족도, 준비정도와 개선계획)은 상충되는 문항으로 점수산정에 있어서 상쇄되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관련 지표 개발 경험과 기존의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를 참고할 때 인식이나 준비(계획)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대체로 많아 점수산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실질적인 은퇴 준비에 대한 진단은 가능한 향후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어떻게 실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이에 전체적인 문항개발의 모델을 SPA/ARA 모형을 단순화하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준비를 위한 실천행동을 중점적으로 포함한 EA(Evaluation Action) 모형으로 수정 적용함
 - 6대 영역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에 필요한 하위영역을 3~5개 정도로 설정한 후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의 체계성 및 관련 요소에 대한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문항별 측정방법을 5점 또는 7점 척도로 통일하는 것이 점수화하는 데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 이에 6개 영역을 각각 3~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체계화하고, 각 문항을 가능한 5점 척도에 맞추어 점수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관리 영역의 경우 포함된 문항은 모두 적절하며,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에 있어

서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며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문항을 포함할 것을 전달받음. 유사하게 스트레스 정도와 함께 해결하는 정도가 중요하므로 문항 개발 시 고려할 것을 요구받음.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건강관리 문항의 수가 많아 가능한 중복되는 의미를 갖는 문항은 응답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음

- ☞ 자문의견에 따라 질병을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구분하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가 가능하도록 문항을 추가 구성함. 또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체중관리정도 문항 등)은 삭제함
- 대인관계의 경우 초기문항의 내용이 대부분 대인관계의 양적인 부분(대화시간, 만나는 횟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대화의 편함 정도, 갈등해결 수준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음. 또한 은퇴 후 대인관계에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비중을 늘릴 것을 권하는 의견을 받음
- ☞ 대인관계의 경우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은퇴 후 대인관계의 비중이 큰 배우자 관련 문항을 추가, 자녀와 친지 및 친구와 지인에 대한 문항을 조정함
- 주거 영역의 경우 은퇴준비를 위한 실천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예를 들어 은퇴 후 노인의 안전을 위해 턱을 없애거나 바를 설치하는 행위는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 직후에도 얼마간은 시행하지 않는 것임. 하지만 은퇴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주거에 대한 은퇴준비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거 영역의 은퇴준비 문항은 실천 행위보다는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음
- ☞ 이에 주거영역에 대한 문항을 은퇴 후 주거환경이나 이사, 주택 관리 등을 위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로 구성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은퇴 후 주거를 위해 필요함을 알고 있는지 등과 같은 인식 측정 문항으로 측정하기로 함
- 일 영역과 여가활동 영역의 경우 구분 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음. 또한 여가활동의 종류는 여가에 대한 준비수준을 점수화 하는 데에 적용할 수 없어 측정문항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여가비용이나 함께할 동반자, 관련된 정보활용 및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지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받음

- ☞ 이에 일과 여가활동에 대한 구분 기준을 소득의 발생 여부로 두고 문항 개발을 함. 또한 여가활동과 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측정 순서에서 인접하여 두기로 함. 여가활동과 일에 대한 하위 영역을 구체화하여 문항 수정 구성함
- 재무설계 영역의 경우 재무관리 부분과 노후자금충분도 평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공무원 대상 진단이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노후자금충분도를 판단할 경우에는 공단시스템을 통한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 은퇴준비에 대한 진단에서 은퇴자금충분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은퇴 후 예상생활비를 조사한 후 공무원연금 공단을 통한 예상수령액(월) 확인을 통한 소득 대체율을 제시하기로 함. 다만 재무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위해 자산, 부채, 저축 등 재무상태 평가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포함하기로 함. 또한 재무관리에 대한 습관 형성 정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현금관리, 자산부채 관리, 은퇴자금관리, 위험관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함

2) 예비조사를 통한 지표 수정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지표를 이용하여 8월 28일~29일 양일간 천안, 수안보, 부산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 중인 생애설계 참석자에게 예비조사 설문지를 통해 조사 실시, 최종 343부를 분석함
- 분석결과, 문항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응답을 한 공무원들이 90% 이상이었음. 그러나 영역별 문항 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기로 함
- 특히 재무설계 영역의 은퇴자금충분도 계산을 위한 문항들은 모두 삭제하기로 함. 이유는 은퇴자금충분도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정보를 자기기입식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값이 높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이나 자금충분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또한 공단을 통한 예상수령액 확인이 공단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용역 완료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안사(공무원연금공단)와의 협의에 의해 삭제하기로 함
-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지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부록 4> 참고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확정

-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6대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문항 및 각 영역별 은퇴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전반적인 준비에 대한 평가 문항을 포함(본조사 설문지 <부록 5> 참고)
- 각 영역의 은퇴준비 수준 진단을 위한 문항은 건강관리 12문항, 대인관계 11문항, 주거 8문항, 여가 5문항, 일 3문항, 재무관리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3~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됨

<표 3-10> 본조사에 포함된 6대 영역별 하위영역 구성 및 문항 수

영역	건강관리 (12)	대인관계 (11)	주거 (8)	여가 (5)	일 (3)	재무관리 (8)
	일상생활관리 (6)	배우자 (4)	주거환경 (4)	여가활동 지속성 (2)	역량관리 (2)	현금흐름관리 (2)
하위 영역	질병상태 및 관리 (3)	자녀 (3)	주거안정 (2)	여가비용 (1)	정보활용 (1)	자산부채관리 (3)
	정신건강 관리 (3)	가족 이외 (2)	주거계획 (2)	동반자 (1)	프로그램 참여 (1)	은퇴준비인식 (3)
		정서적 교류 (2)		정보활용 (1)		

* 괄호안의 숫자는 문항수를 의미함

- 이렇게 구성된 문항을 이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²⁾를 바탕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외부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 6>에 제시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은퇴준비 자가진단 문항을 다음 <표 3-11>과 같이 구성함

2) “제4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적용 결과” 참고

<표 3-11> 은퇴준비 자가진단 최종 문항

영역별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생활 관리	식생활 관리 3.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운동관리 4.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흡연량 5.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음주량 6.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 (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면 7.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휴식 8.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질병 상태 및 관리	건강검진 9.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중증질병 10.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10-1. (중증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 빈도 13.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스트레스 해소방법 14. 귀하께서는 귀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BMI 15.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대인관계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3. 평소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4.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5.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6.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7.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8. 평소에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가족 이외와의 관계	친지 관계	9.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관계	10.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정서적 교류		11.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12.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13.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주거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주거 인식		2.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거 환경	안전성	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쾌적성	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편의성	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접근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유지관리 용이성	6.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성	7.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지,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주택자산 운영	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집의 규모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
주거 계획	주거유형	9.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동반자	10.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여가활동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가활동 지속성	여가활동 인식 3.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활동 참여 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여가비용	5.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동반자	6.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보활용	7.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 본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일	
중요도	1.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역량 관리	역량개발 3.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관련경험 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정보활용	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참여	6. 은퇴 후 일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관리	
중요도	1.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평가	2.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흐름관리	3.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4.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자산부채관리	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6.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퇴준비인식	8.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9.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다.
	11. 자녀를 위한 지출(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되십니까? ³⁾

3) 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간보고회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추가된 문항임

4.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 산출 방식

1)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출 방식

- 공무원의 자가진단을 통한 ‘은퇴준비 종합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는 6대 영역별 진단결과 점수에 개인이 응답한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text{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 \sum_{i=1}^6 (i\text{영역 점수} \times i\text{영역 가중치}_n)$$

i : 6대 영역(건강관리영역, 대인관계 영역, 주거 영역, 여가활동 영역, 일 영역, 재무관리 영역)
 i 영역 점수 : 각 영역별 100점 만점 환산 점수
 n : 개인응답자

2)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 산출 방식

- 6대 영역별로 은퇴준비 점수 산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함

<표 3-12> 6대 영역 점수 및 RRS 산출 과정

단계	과정	설명
[1단계]	문항 점수	각 문항 응답값을 10점이 되도록 조정
[2단계]	하위영역 점수	각 영역의 하위영역 문항에 기술적 수치를 곱하여 하위영역 점수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조정
[3단계]	영역 점수	해당 하위영역 점수를 평균하여 각 영역별 점수를 산출

- 은퇴준비 자가진단 문항 중 각 영역별로 포함됨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평가 문항은 점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고 진단결과를 제시할 때 중요도 인식과 자기평가에 대한 차이를 매트릭스로 보여주게 됨
- 또한 건강관리 영역 중 키와 몸무게는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

문항은 점수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를 제시하게 됨.

□ 각 영역별 구체적인 산출식과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건강관리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일상생활관리	식생활관리	A3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1	=A3*2
	운동관리	A4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A202	=A4*2
	흡연	A5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A203	=if(A5=2,10,0)
	음주	A6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A204	=A6*2
	수면	A7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A205	=A7*2
	휴식	A8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A206	=A8*2
질병상태 및 관리	건강검진	A9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7	=A9*2
	중증질병	A10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 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A208	=IF(A10=2,10,IF(A10-1=5,8,IF(A10-1=4,6,IF(A10-1=3,4,IF(A10-1=2,2,0))))
		A10-1	귀하가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만성질병	A11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		A209	=IF(A11=2,10,IF(A11-1=5,8,IF(A11-1=

		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4,6,IF(A11-1=3,4,IF(A11-1=2,2,0))))	
	A11-1	귀하가 알고 있는 만성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신건강관리	우울감	A12-1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① 있다 ② 없다	A210	=COUNTIF(A12-1:A12-5,2)*2
		A12-2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A12-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12-4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12-5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스트레스 정도	A13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외 스트레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211	=A13*2	
스트레스 해소	A14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2	=A28*2	

2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일상생활관리	100점 만점	A301	=SUM(A201:A206) *(10/6)
	질병상태 및 관리		A302	=SUM(A207:A209) *(10/3)
	정신건강 관리		A303	=SUM(A210:A212) *(10/3)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건강관리 영역 은퇴준비점수	100점 만점	A401	=AVERAGE (A301:A303)
----------------	---------	------	-------------------------

체질량지수 산출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A15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A15-1	키: () cm	A102	=A20/(A19^2) * 체질량지수
		A15-2	체중:() kg	A103	=IF(A102>=40, "고도비만", IF(A102=30, "비만", IF(A102=25, "과체중", IF(A102>=20, "정상", "저체중"))))

(2) 대인관계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배우자와의 관계	B3	평소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1 =B3*2	
	B4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B202 =B4*2	
	B5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B203 =B5*2	
	B6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B204 =B6*2	
자녀와의 관계	B7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자녀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5 =B7*2	
	B8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B206 =B8*2	
	B9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B207 =B9*2	
가족 이외	친지 관계	B10	귀하께서는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형제자매,친지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	B208 =B10*2
	사회적 관계	B11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B209 =B11*2
정서적 교류	B12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① 1~2명 ② 3~4명 ③ 5~6명 ④ 7~8명 ⑤ 9명 이상	B210 =B12*2	
	B13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B211 =B12*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배우자와의 관계		100점 만점	B301 =SUM(B201:B204)*(10/4)	
	자녀와의 관계			B302 =SUM(B205:B207)*(10/3)	
	가족이외의 관계			B303 =SUM(B208:B209)*(10/2)	
	정서적 교류			B304 =SUM(B210:B211)*(10/2)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대인관계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B401 =AVERAGE(B301:B304)	

(3) 주거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주거 환경	안전성	C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201	=C3*2	
	쾌적성	C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2	=C4*2	
	편의성	C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3	=C5*2	
	유지 관리 용이성	C6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4	=C6*2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성	C7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5	=C7*2	
	주택 자산 운영	C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6	=C8*2	
주거 계획	거주 유형	C9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7	=C9*2	
	동반자	C10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C208	=C10*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주거환경		100점 만점		C301	=SUM(C201:C204) *(10/4)	
	주거안정			C302	=SUM(C205:C206) *(10/2)		
	주거계획			C303	=SUM(C207:C208) *(10/2)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주거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C401	=AVERAGE (C301:C303)		

(4) 여가활동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여가활동 지속성	여가 활동 인식	D3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1	=D3*2
	여가 활동 참여	D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D202	=D4*2
여가비용준비	D5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3	=D5*2	
동반자관리	D6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D204	=D6*2	
정보활용	D7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D205	=D7*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여가활동지속성	100점 만점	D301	=SUM(D201:D202) *(10/2)		
	여가비용준비		D302	=D203*10		
	동반자관리		D303	=D204*10		
	정보활용		D304	=D205*10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여가활동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D401	=AVERAGE (D301:D304)	

(5) 일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역량관리	E3	은퇴 후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1	=E3*2
	E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E202	=E4*2
정보활용	E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E203	=E5*2
프로그램 참여	E6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E204	=E6*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역량관리		100점 만점	E301	=SUM(E201:E202) *(10/2)
	정보활용			E302	=E203*10
	프로그램 참여			E303	=E204*10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일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E401	=AVERAGE (E301:E303)

(6) 재무관리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현금흐름관리	F3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1	=F3*2
	F4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F202	=F4*2
자산부채관리	F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F203	=F5*2
	F6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F204	=F6*2
	F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205	=F7*2
은퇴준비인식	F8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6	=F8*2
	F9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F207	=F9*2
	F1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F208	=F10*2
	F11	자녀를 위한 지출(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되십니까?		F209	=F11*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현금흐름관리		100점 만점	F301	=SUM(F201,F202)*(10/2)
	자산부채관리			F302	=SUM(F203:F205)*(10/3)
	은퇴준비인식			F303	=SUM(F206:F209)*(10/4)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재무관리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F401	=AVERAGE(F301:F304)

제 4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적용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공무원 직군 중 공무원연금공단과 의논하여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40-5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개발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메일(E-mail) 발송 동의를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7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26부를 회수하였으나, 월평균 가계소득 극단치 (29명 제거, 38 이상, $\delta=2133.1$), 혼인관계, 자녀유무와 관련 응답 불일치 등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750명을 분석에 이용하였음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구성 비율은 5:5로 할당표집을 하여 남성은 50.5%, 여성은 49.5%로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음
- 연령은 40-50대로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40대 초/후반, 50대 초/후반으로 구분하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55-59세는 41.9%, 50-54세는 24.9%, 45-49세 22.2%, 40-44세 11.0%의 구성 비율을 보였음. 특히, 퇴직이 가까울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50대 후반(55-59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 48.4%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대학원졸(40.7%), 고졸이하(10.9%)의 순으로 나타나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4.9%,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1%, 결혼은 하였으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0%로 나타나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96.9%였으며, 자녀수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 47.9%, 중소도시 44.2%, 농어촌 7.9%로 나타나 대부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무원 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비율(63.9%)이 지방직 공무원의 비율(3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직군은 교육직 공무원 55.3%, 일반직 공무원 42.8%, 소방직 공무원 1.9%의 구성 비율을 보였음
- 은퇴설계 관련 교육여부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89.9%)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가계소득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63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미만 13.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2%,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0.3%,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3.3%,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1.3%,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0.3%, 900만원 이상 15.1%의 구성 비율을 보였음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50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883	(50.5)	거주지역	대도시	839	(47.9)
	여성	867	(49.5)		중소도시	772	(44.2)
연령	40-44	193	(11.0)		농어촌	139	(7.9)
	45-49	389	(22.2)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	(63.9)
	50-54	435	(24.9)		지방직 공무원	632	(36.1)
	55-59	733	(41.9)	공무원 직종 및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	(42.8)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	(10.9)		소방직 공무원	34	(1.9)
	대졸	847	(48.4)		교육직 공무원	967	(55.3)
	대학원졸 이상	712	(40.7)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178	(10.2)
혼인상태	미혼	86	(4.9)		없다	1572	(89.8)
	기혼-유배우	1577	(90.1)	월평균 가계소득 (평균 : 637만원)	400만원 미만	237	(13.5)
	기혼-무배우	87	(5.0)		500만원 미만	284	(16.2)
자녀유무	없다	52	(3.1)		600만원 미만	356	(20.3)
	있다	1612	(96.9)		700만원 미만	232	(13.3)
	계	1664	(100.0)		800만원 미만	197	(11.3)
자녀수 (평균 : 2명)	1명	225	(14.0)		900만원 미만	180	(10.3)
	2명	1184	(73.4)		900만원 이상	264	(15.1)
	3명	203	(12.6)				
	계	1612	(100.0)				

2.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진단 문항 응답 결과

1) 건강관리 영역

- 건강관리 영역은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 및 전반적 관리 상태를 묻는 2개 문항과 3개 하위영역(일상생활관리, 질병상태 및 관리, 정신건강 관리)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BMI지수 산출을 위한 키와 몸무게를 추가 질문함.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점수 4.8점으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3점으로 평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관리의 하위영역은 식생활관리, 운동관리, 흡연, 음주, 수면, 휴식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관리의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운동관리의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여부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89.3%)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응답한 비율(1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대다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미만’(23.8%), ‘1주일에 1~2번 정도’(21.3%), ‘한 달에 2~3번 정도’(21.1%), ‘거의 매일’(4.7%)의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대다수가 음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4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질병상태 및 관리의 하위영역은 건강검진, 중증질병, 만성질병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4.1점으로 공무원의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3개월 이상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과 같은 4대 중증질병에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92.1%)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7.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4대 중증질병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4.1점으로 나타나 중증질병이 있는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3개월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의 만성질병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62.4%)이 ‘있다’(37.6%)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만성 질병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8점으로 나타나 만성질병이 있는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 관리의 하위영역은 우울감,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극복 정도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우울감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한 결과, 10점 만점에 6.89점으로 나타나 우울감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의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5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BMI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키와 몸무게를 살펴본 결과, 키는 평균 164.8cm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평균 64.9kg로 나타남

<표 4-2> 건강관리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중요도 인식-관리실태 차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4	(0.2)	4.8 (0.4)
		그렇지 않다	2	(0.1)	
보통이다		16	(0.9)		
그렇다		231	(13.2)		
매우 그렇다		1497	(85.5)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37	(2.1)	3.3 (0.9)	
	그렇지 않다	230	(13.1)		
	보통이다	733	(41.9)		
	그렇다	582	(33.3)		
	매우 그렇다	168	(9.6)		
일상생활관리	식생활 관리 건강한 식생활 실천정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16	(0.9)	3.5 (0.8)
		그렇지 않다	118	(6.7)	
		보통이다	656	(37.5)	
		그렇다	736	(42.1)	
		매우 그렇다	224	(12.8)	
	운동 관리 규칙적 운동 실천정도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	전혀 그렇지 않다	112	(6.4)	3.3 (1.1)
		그렇지 않다	356	(20.3)	
		보통이다	445	(25.4)	
		그렇다	522	(29.8)	
	흡연 흡연여부	담배를 피운다	188	(10.7)	3.3 (1.1)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		1562	(89.3)		
음주 음주량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	거의 매일	83	(4.7)	3.5 (1.2)	
	1주일에 1~2번 정도	373	(21.3)		
	한 달에 2~3번 정도	370	(21.1)		
	한 달에 1번 미만	416	(23.8)		
수면 수면 상태에 대한 만족도	전혀 없다(술을 마시지 않는다)	508	(29.0)	3.4 (0.9)	
	전혀 그렇지 않다	52	(3.0)		
	그렇지 않다	277	(15.8)		
	보통이다	553	(31.6)		
휴식 피로방지를 위한 적절한 휴식 정도	그렇다	641	(36.6)	3.4 (0.8)	
	매우 그렇다	227	(13.0)		
	전혀 그렇지 않다	16	(0.9)		
휴식 피로방지를 위한 적절한 휴식 정도	그렇지 않다	211	(12.1)	3.4 (0.8)	
	보통이다	611	(34.9)		

			그렇다	744	(42.5)	
			매우 그렇다	168	(9.6)	
질병상태 및 관리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9	(0.5)	4.1 (0.7)
			그렇지 않다	41	(2.3)	
			보통이다	256	(14.6)	
			그렇다	906	(51.8)	
			매우 그렇다	538	(30.7)	
	중증질병	중증질병 진단여부	있다	139	(7.9)	4.1 (1.0)
			없다	1611	(92.1)	
		진단받은 중증질병에 대한 정기적 치료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2.9)	
			그렇지 않다	8	(5.8)	
			보통이다	13	(9.4)	
그렇다	47		(33.8)			
만성질병	만성질병 진단여부	있다	658	(37.6)	3.8 (1.0)	
		없다	1092	(62.4)		
	진단받은 만성질병에 대한 정기적 치료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7	(4.1)		
		그렇지 않다	60	(9.2)		
		보통이다	89	(13.5)		
그렇다		268	(40.7)			
정신건강관리	우울감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런 적이 있다	441	(25.2)	6.8(3.1) /10점 만점
			그런 적이 없다	1309	(74.8)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런 적이 있다	554	(31.7)	
			그런 적이 없다	1196	(68.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런 적이 있다	334	(19.1)	
			그런 적이 없다	1416	(80.9)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런 적이 있다	657	(37.5)		
		그런 적이 없다	1093	(62.5)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	736	(42.1)		
		그런 적이 없다	1014	(57.9)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30	(1.7)	3.3 (0.9)
			그렇지 않다	281	(16.1)	
보통이다			725	(41.4)		
그렇다			539	(30.8)		
매우 그렇다			175	(10.0)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극복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0	(1.2)	3.5 (0.7)	
		그렇지 않다	146	(8.3)		
		보통이다	648	(37.0)		
		그렇다	805	(46.0)		
		매우 그렇다	131	(7.5)		
BMI	키(cm)				164.8 (7.7)	
	몸무게(kg)				64.9 (10.9)	

2) 대인관계 영역

- 대인관계 영역은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도 및 전반적 관리 상태를 묻는 2개 문항과 4개 하위영역(배우자, 자녀, 가족 이외, 정서적 교류)의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점수 4.0점으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3점으로 평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영역은 배우자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 배우자와의 대화 양과 질,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는 정도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배우자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0점,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점,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점,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영역은 자녀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 자녀와의 대화 양과 질이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자녀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점,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가족 이외의 관계에 대한 하위영역은 친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의 형제자매나 친지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7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대인관계 영역에 해당되는 배우자, 자녀, 친족관계, 사회적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특히 대인관계 영역 중 친족관계의 평균 점수가 2.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정서적 교류의 하위영역은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과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 수는 '1~2명'이 4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4명'(32.2%), '5~6명'(8.5%), '없음'(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2명'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4명'(30.7%), '없음'(6.9%), '5~6명'(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대인관계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중요도인식- 관리실태 차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7	(0.4)	4.0 (0.7)
		그렇지 않다	33	(1.9)	
		보통이다	333	(19.0)	
		그렇다	939	(53.7)	
		매우 그렇다	438	(25.0)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26	(1.5)	3.3 (0.8)
		그렇지 않다	202	(11.5)	
		보통이다	833	(47.6)	
		그렇다	584	(33.4)	
		매우 그렇다	105	(6.0)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 는 정도	배우자 없음	173	(9.9)	3.0 (1.3)
		전혀 없다	66	(3.8)	
		가끔 있다	270	(15.4)	
		보통이다	527	(30.1)	
		자주 있다	508	(29.0)	
	매우 자주 있다	206	(11.8)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정도	배우자 없음	173	(9.9)	3.3 (1.4)
		전혀 그렇지 않다	39	(2.2)	
		그렇지 않다	124	(7.1)	
		보통이다	429	(24.5)	
그렇다		599	(34.2)		
매우 그렇다	386	(22.1)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정도	배우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3 53 209 557 474 284	(9.9) (3.0) (11.9) (31.8) (27.1) (16.2)	3.1 (1.4)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 는 정도	배우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3 34 108 517 667 251	(9.9) (1.9) (6.2) (29.5) (38.1) (14.3)	3.2 (1.3)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	자녀 없음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이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138 41 296 645 511 119	(7.9) (2.3) (16.9) (36.9) (29.2) (6.8)	2.9 (1.2)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한 정도	자녀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8 8 96 462 752 294	(7.9) (0.5) (5.5) (26.4) (43.0) (16.8)	3.4 (1.2)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정도	자녀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8 20 234 673 511 174	(7.9) (1.1) (13.4) (38.5) (29.2) (9.9)	3.1 (1.2)
가족 이외	친족 관계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친지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	형제자매, 친지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104 595 680 292 50	(1.7) (5.9) (34.0) (38.9) (16.7) (2.9)	2.7 (0.9)
	사회적 관계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정도	친구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54 475 685 442 75	(1.1) (3.1) (27.1) (39.1) (25.3) (4.3)	2.9 (0.9)
정서적 교류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	없음 1~2명 3~4명 5~6명 7~8명 9명 이상	116 848 563 148 29 46	(6.6) (48.5) (32.2) (8.5) (1.7) (2.6)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없음 1~2명 3~4명 5~6명 7~8명 9명 이상	121 914 537 113 34 31	(6.9) (52.2) (30.7) (6.5) (1.9) (1.8)	

3) 주거 영역

- 주거 영역은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주거생활 계획을 묻는 2개 문항과 3개 하위영역(주거환경, 주거안정, 주거계획)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 점수 4.0점, 주거생활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9점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은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의 하위영역은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유지관리 용이성이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주택의 안전성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주택의 쾌적성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주택의 접근성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 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주거안정의 하위영역은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 주택운영이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지,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주택운영은 집의 규모를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7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주거계획의 하위영역은 유형, 동반자가 해당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유형은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할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동반자는 은퇴 후 부부만 거주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것인지, 동호회 주택 등에 거주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표 4-4> 주거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중요도인식- 관리실태 차이	주거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7	(0.4)	4.0 (0.7)
		그렇지 않다	26	(1.5)	
		보통이다	311	(17.8)	
		그렇다	931	(53.2)	
		매우 그렇다	475	(27.1)	
	은퇴 후 주거생활을 생각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3	(0.7)	3.9 (0.7)
		그렇지 않다	81	(4.6)	
		보통이다	260	(14.9)	
		그렇다	1009	(57.7)	
		매우 그렇다	387	(22.1)	
주거환경	안전성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74	(4.2)	3.4 (1.0)
		그렇지 않다	309	(17.7)	
		보통이다	387	(22.1)	
		그렇다	708	(40.5)	
		매우 그렇다	272	(15.5)	
	쾌적성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30	(1.7)	3.8 (0.9)
		그렇지 않다	122	(7.0)	
		보통이다	312	(17.8)	
		그렇다	872	(49.8)	
		매우 그렇다	414	(23.7)	
	편의성 *주택의 편의성이란 복지시설, 종교 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15	(0.9)	3.9 (0.8)
		그렇지 않다	83	(4.7)	
		보통이다	276	(15.8)	
		그렇다	916	(52.3)	
		매우 그렇다	460	(26.3)	
	유지관리 용이성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 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전혀 그렇지 않다	14	(0.8)	3.8 (0.8)
그렇지 않다		99	(5.7)		
보통이다		336	(19.2)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7 384	(52.4) (21.9)	
주거안정	경제적 안정성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93 324 921 391	(1.2) (5.3) (18.5) (52.6) (22.3)	3.9 (0.8)
	주택 운영 *집의 규모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2 145 388 843 332	(2.4) (8.3) (22.2) (48.2) (19.0)	3.7 (0.9)
주거계획	유형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할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75 279 949 431	(0.9) (4.3) (15.9) (54.2) (24.6)	3.9 (0.8)
	동반자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거주, 동호회 주택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59 266 991 407	(1.5) (3.4) (15.2) (56.6) (23.3)	3.9 (0.8)

4) 여가활동 영역

-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위한 여가활동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를 주는 방향이 달라서 여가활동을 하는 목적을 묻는 1개 문항을 추가함.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여가활동 계획을 묻는 2개 문항과 4개 하위영역(여가활동 지속성, 여가비용, 동반자, 정보 활용)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가활동의 목적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한 레저형 여가(56.8%)가 사회봉사, 종교 활동 등과 같이 담당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참여형 여가(36.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공무원 중 7.1%는 여가활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들에게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 점수 4.2점,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여가활동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4.0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지속성의 하위영역은 여가활동 인식과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해당되며,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4점,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5점으로 나타나 2문항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평균 점수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표 4-5> 여가활동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여가활동 목적	여가활동의 목적	레저형 여가를 즐기기 위해	994	(56.8)		
		사회참여형 여가를 즐 기기 위해	632	(36.1)		
		생각해본 적 없음	124	(7.1)		
중요도인식- 관리실태 차이	여가활동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3	(0.2)	4.2 (0.6)	
		그렇지 않다	11	(0.6)		
		보통이다	137	(7.8)		
		그렇다	927	(53.0)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한 정도	매우 그렇다	672	(38.4)	4.0 (0.7)	
		전혀 그렇지 않다	12	(0.7)		
여가 활동 지속성	여가 활동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51	(2.9)	3.4 (0.9)	
		그렇지 않다	274	(15.7)		
		보통이다	586	(33.5)		
		그렇다	607	(34.7)		
		매우 그렇다	232	(13.3)		
	여가 활동 참여 정도	6개월 동안 여가활동 빈도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135	(7.7)	3.5 (1.4)
			전혀 그렇지 않다	95	(5.4)	
			그렇지 않다	71	(4.1)	
			보통이다	289	(16.5)	

		그렇다	671	(38.3)	
		매우 그렇다	489	(27.9)	
여가비용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는 정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74	(4.2)	3.2 (1.0)
		그렇지 않다	324	(18.5)	
		보통이다	576	(32.9)	
		그렇다	597	(34.1)	
		매우 그렇다	179	(10.2)	
동반자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7	(5.0)	3.1 (1.0)
		그렇지 않다	372	(21.3)	
		보통이다	574	(32.8)	
		그렇다	555	(31.7)	
		매우 그렇다	162	(9.3)	
정보 활용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있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2	(4.7)	3.1 (1.0)
		그렇지 않다	375	(21.4)	
		보통이다	583	(33.3)	
		그렇다	550	(31.4)	
		매우 그렇다	160	(9.1)	

5) 일 영역

-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위한 일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를 주는 방향이 달라서 일을 하는 목적을 묻는 1개 문항을 추가함.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및 일에 대한 계획을 묻는 2개 문항과 3개 하위영역(역량관리, 정보 활용, 프로그램 참여)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은 '자기발전과 적성개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자아실현형)'(34.3%)와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가치추구형)'(30.6%)가 높은 비율을 보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은퇴 후 생계보다는 자신의 적성개발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함. 또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23.3%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은퇴 후 생활에서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3.5점,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은 은퇴 후 일에 대한 중요도 및 계획 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시사함
- 역량관리의 하위영역은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와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정도가 해당되며,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2.9점,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나 2개의 문항 모두 보통 수준

을 보임

-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보임
-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6> 일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일 하려는 목적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	생계유지를 위해(생계유지형)	207	(11.8)	
		자기발전과 적성개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가치추구형)	600	(34.3)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자아실현형)	536	(30.6)	
		일할 생각 없음	407	(23.3)	
중요도인식- 관리실태 차이	일 관련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47	(2.7)	3.5 (0.9)
		그렇지 않다	158	(9.0)	
		보통이다	520	(29.7)	
		그렇다	781	(44.6)	
		매우 그렇다	244	(13.9)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44	(8.2)	2.9 (1.0)
		그렇지 않다	474	(27.1)	
		보통이다	595	(34.0)	
그렇다		415	(23.7)		
매우 그렇다		122	(7.0)		
역량관리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 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44	(8.2)	2.9 (1.0)
		그렇지 않다	447	(25.5)	
		보통이다	588	(33.6)	
		그렇다	429	(24.5)	
		매우 그렇다	142	(8.1)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73	(9.9)	2.8 (1.0)
		그렇지 않다	520	(29.7)	
		보통이다	576	(32.9)	
그렇다		369	(21.1)		
매우 그렇다		112	(6.4)		
정보활용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 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51	(8.6)	2.9 (1.0)
		그렇지 않다	446	(25.5)	
		보통이다	566	(32.3)	
		그렇다	462	(26.4)	
		매우 그렇다	125	(7.1)	
프로그램 참여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 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26	(12.9)	2.6 (1.0)
		그렇지 않다	584	(33.4)	
		보통이다	527	(30.1)	
		그렇다	325	(18.6)	
		매우 그렇다	88	(5.0)	

6) 재무관리 영역

- 재무관리 영역은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에 대한 중요도 및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묻는 2개 문항과 3개 하위영역(현금흐름관리, 자산부채관리, 은퇴준비인식)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점수 4.3점으로,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재무안정을 위한 재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4점으로 평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금흐름 관리의 하위영역인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보통 수준을, 지출 계획 시 기본 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은퇴 후에는 생활비 중 특히 의료비가 많이 소비되는 시기인 만큼 생활비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자산부채 관리의 하위영역인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의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채가 없는 가계의 비율(11.0%)이 다소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됨
- 은퇴준비 인식의 하위영역인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 정도의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은퇴 후 필요한 생활에 대해 생각한 정도의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여부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94.8%)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재무관리 영역 진단문항 응답 결과

구분	문항	특성	n	(%)	평균 (S.D)
중요도인식- 관리실태 차이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2	(0.1)	4.3 (0.6)
		그렇지 않다	8	(0.5)	
보통이다		140	(8.0)		
그렇다		811	(46.3)		
매우 그렇다		789	(45.1)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잘 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32	(1.8)	3.4 (0.9)	
	그렇지 않다	214	(12.2)		
	보통이다	688	(39.3)		
	그렇다	614	(35.1)		
	매우 그렇다	202	(11.5)		
현금흐름 관리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 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55	(3.1)	3.3 (0.9)
		그렇지 않다	227	(13.0)	
보통이다		661	(37.8)		
그렇다		612	(35.0)		
매우 그렇다		195	(11.1)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 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 도	전혀 그렇지 않다	139	(7.9)	2.8 (1.0)	
	그렇지 않다	575	(32.9)		
	보통이다	540	(30.9)		
	그렇다	374	(21.4)		
	매우 그렇다	122	(7.0)		
자산부채 관리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 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13	(6.5)	3.1 (1.0)
		그렇지 않다	343	(19.6)	
보통이다		629	(35.9)		
그렇다		523	(29.9)		
매우 그렇다		142	(8.1)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 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정도	없음	193	(11.0)	1.9 (1.2)	
	전혀 그렇지 않다	543	(31.0)		
	그렇지 않다	473	(27.0)		
	보통이다	311	(17.8)		
	그렇다	175	(10.0)		
매우 그렇다	55	(3.2)			
은퇴준비 인식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0	(4.6)	3.2 (0.9)
		그렇지 않다	278	(15.9)	
보통이다		683	(39.0)		
그렇다		557	(31.8)		
매우 그렇다		152	(8.7)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 생각 한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45	(2.6)	3.6 (0.9)	
	그렇지 않다	155	(8.9)		
	보통이다	403	(23.0)		
	그렇다	885	(50.6)		
	매우 그렇다	262	(15.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확인여부	있다	1659	(94.8)		
	없다	91	(5.2)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

1)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 점수

- 은퇴준비점수를 구성하는 6대 영역의 진단 결과는 영역별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8> 및 <그림 4-1>과 같음
- 6대 영역 중 진단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77.2점인 주거 영역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53.7점인 대인관계 영역으로 나타남
 - 영역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인관계(53.7점) < 일(58.2점) < 여가활동(64.3점) < 재무관리(70.6점) < 건강관리(74.8점) < 주거(77.2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은퇴준비를 하는 영역에서 대인관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퇴 후에도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은퇴준비를 위한 6대 영역 중 주거 영역과 건강관리 영역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무원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주거 생활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8>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6대 영역별 점수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	일	재무관리
평균	74.8	53.7	77.2	64.3	58.2	70.6
(S.D)	(9.9)	(15.1)	(14.3)	(17.3)	(20.2)	(12.5)
중앙값	75.5	54.5	80.0	65.0	60.0	71.1
최소값	32.2	0.0	20.0	18.0	20.0	18.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 영역별 은퇴준비 진단 결과(100점 만점)

2)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분포

- RRS 산출을 위한 가중치는 6대 영역별로 응답자들이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을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들은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써 건강관리에 가장 높은 가중치(36.7%)를 부여하고 있었고, 일 영역에 가장 낮은 가중치(8.6%)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36.7%)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여가활동 16.4%, 재무관리 14.1%, 대인관계 12.9%, 주거 11.2%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일의 경우 8.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냄
 - 개별 영역의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관리 영역은 20% 이상~30% 미만 (29.6%)과 40% 이상~50% 미만(23.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 즉, 대인관계(62.7%), 주거(71.7%), 여가(45.1%), 일 (80.2%), 재무관리(58.1%) 영역은 10%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대인관계, 주거, 일, 재무관리는 과반수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9> 개별 영역 가중치 응답 결과

구분	특성	n(%)		평균(S.D)
건강관리	10% 미만	98	(5.6)	36.7 (15.7)
	10%이상 20%미만	289	(16.5)	
	20%이상 30%미만	518	(29.6)	
	30%이상 40%미만	266	(15.2)	
	40%이상 50%미만	406	(23.2)	
	50%이상 60%미만	89	(5.1)	
	60%이상 70%미만	50	(2.9)	
	70%이상	34	(1.9)	
대인관계	10% 미만	1098	(62.7)	12.9 (7.2)
	10%이상 20%미만	120	(6.9)	
	20%이상 30%미만	452	(25.8)	
	30%이상	80	(4.6)	
주거	10% 미만	1254	(71.7)	11.2 (9.5)
	10%이상 20%미만	369	(21.1)	
	20%이상	127	(7.3)	
여가	10% 미만	789	(45.1)	16.4 (8.8)
	10%이상 20%미만	129	(7.4)	
	20%이상 30%미만	572	(32.7)	
	30%이상 40%미만	247	(14.1)	
	40%이상	13	(0.7)	
일	10% 미만	1403	(80.2)	8.6 (7.8)
	10%이상 20%미만	270	(15.4)	
	20%이상 30%미만	65	(3.7)	
	30%이상	12	(0.7)	
재무관리	10% 미만	1017	(58.1)	14.1 (10.3)
	10%이상 20%미만	124	(7.1)	
	20%이상 30%미만	416	(23.8)	
	30%이상 40%미만	162	(9.3)	
	40%이상 50%미만	18	(1.0)	
	50%이상	13	(0.7)	



<그림 4-2>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에서 개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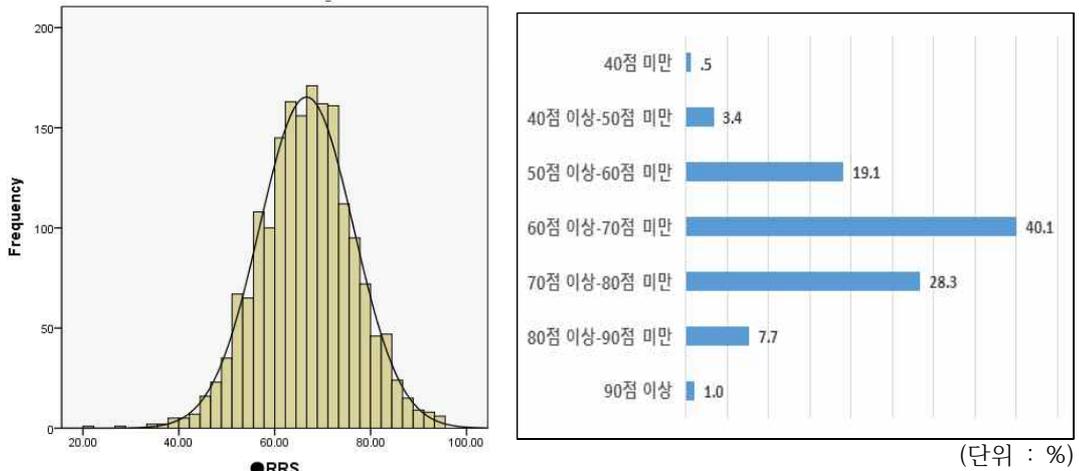
3)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산출결과

-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평균은 68.8점이었고 최소값은 22.2점, 최대값은 96.0점이었음

<표 4-10>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RS)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68.4	9.8	68.8	22.2	96.0

-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0.1%가 60점~70점 사이에 해당하였고, 28.3%는 70점~80점 사이였으며, 23.0%는 60점 미만이었음. 반면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가 80점 이상인 공무원은 8.7%에 불과하였음



<그림 4-3>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포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종합점수

- 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포 차이를 t-test와 av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69.2점)이 남성(67.5점)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대(50-54세 69.4점, 55-59세 69.1세)가 40대(40-44세 65.7점, 45-49세 67.1세)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공무원이 연령이 낮은 공무원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70.6점)의 은퇴준비점수(RSS)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대졸(67.3점), 고졸이하(65.1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기혼(배우자가 있는 경우 68.8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 66.4점)이 미혼(61.7점)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이 미혼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68.9점)가 자녀가 없는 경우(64.2점)보다 은퇴준비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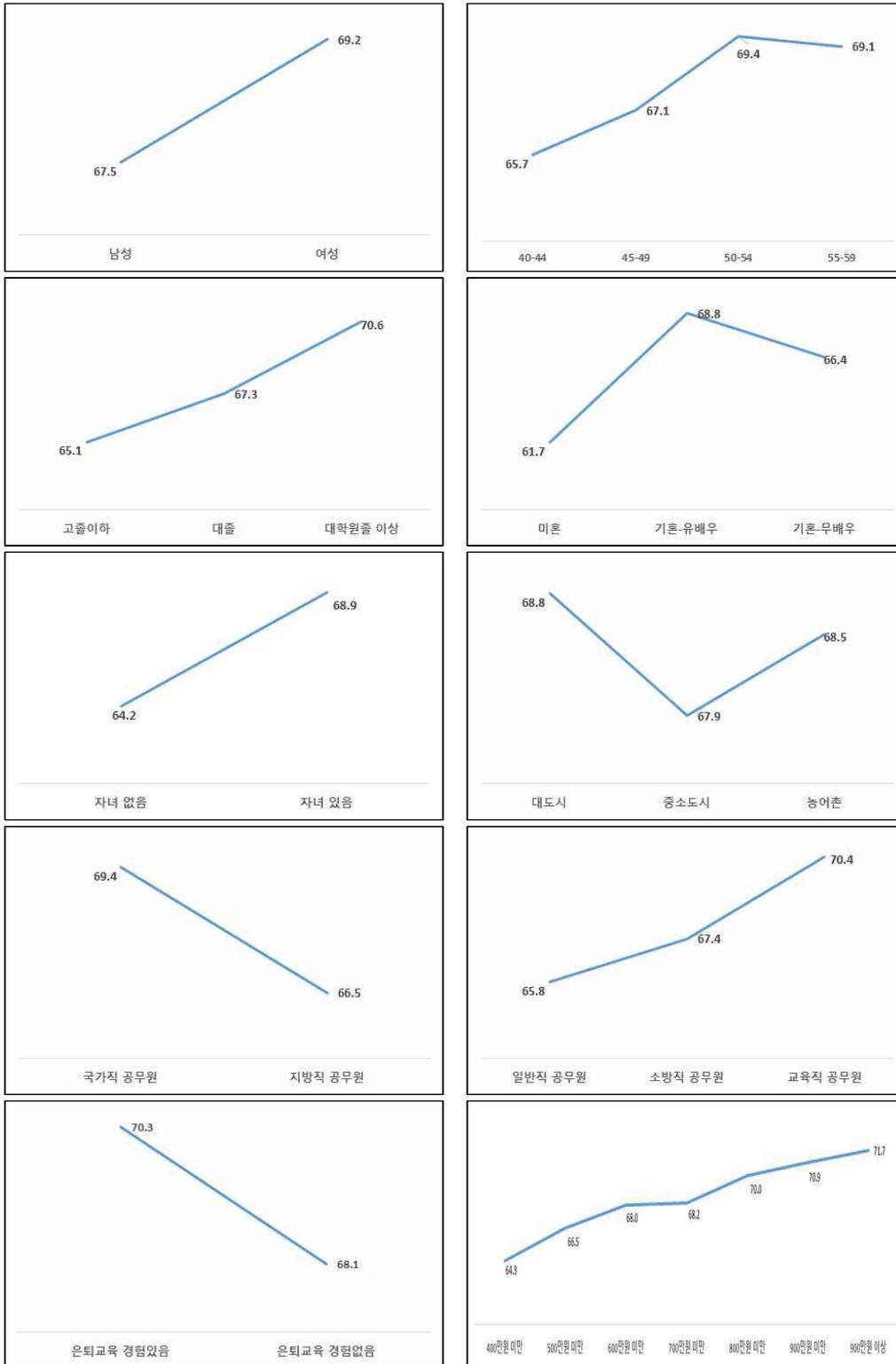
(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있는 가계가 자녀가 없는 가계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69.4점)이 지방직 공무원(66.5점)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70.4점)이 소방직 공무원(67.4점)과 일반직 공무원(65.8점)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은퇴설계 관련 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70.3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68.1점)보다 은퇴준비점수(RS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집단(71.7점)이 은퇴준비점수가(RSS)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400만원 미만인 집단(64.3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4>와 같음
- 은퇴준비점수가(RSS)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50대(특히, 50-54세), 대학원 졸업 이상, 기혼, 자녀 있음, 국가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있음,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은퇴준비점수가(RSS)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40대(특히, 40-44세), 고졸이하, 미혼, 자녀 없음,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없음,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은퇴준비점수(RRS)		t/F
		n(%)	평균(S.D.)	
성별	남성	883(50.5)	67.5(9.7)	-3.511***
	여성	867(49.5)	69.2(9.8)	
연령	40-44	193(11.0)	65.7(11.1) b	10.106***
	45-49	389(22.2)	67.1(9.5) b	
	50-54	435(24.9)	69.4(9.8) a	
	55-59	733(41.9)	69.1(9.4)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65.1(9.5) c	35.143***
	대졸	847(48.4)	67.3(10.0) b	
	대학원졸 이상	712(40.7)	70.6(9.1) a	
혼인상태	미혼	86(4.9)	61.7(12.1) b	23.671***
	기혼-유배우	1577(90.1)	68.8(9.5) a	
	기혼-무배우	87(5.0)	66.4(9.9) a	
자녀 유무	없다	52(3.1)	64.2(10.9)	-3.440**
	있다	1612(96.9)	68.9(9.5)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68.8(9.8)	1.704
	중소도시	772(44.2)	67.9(9.7)	
	농어촌	139(7.9)	68.5(9.8)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69.4(9.7)	6.151***
	지방직 공무원	632(36.1)	66.5(9.6)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65.8(9.2) b	47.288***
	소방직 공무원	34(1.9)	67.4(12.3) b	
	교육직 공무원	967(55.3)	70.4(9.7) a	
은퇴설계	있다	178(10.2)	70.3(9.3)	2.807**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68.1(9.8)	
소득 분위	400만원 미만	237(13.5)	64.3(11.0) d	17.587***
	500만원 미만	284(16.2)	66.5(10.0) cd	
	600만원 미만	356(20.3)	68.0(9.0) bc	
	700만원 미만	232(13.3)	68.2(9.0) bc	
	800만원 미만	197(11.3)	70.0(8.8) ab	
	900만원 미만	180(10.3)	70.9(9.4) ab	
	900만원 이상	264(15.1)	71.7(9.1) a	
평균 (S.D.)		68.4(9.8)		
최소값		22.2		
최대값		96.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4-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공무원의 은퇴준비점수(RRS)

5)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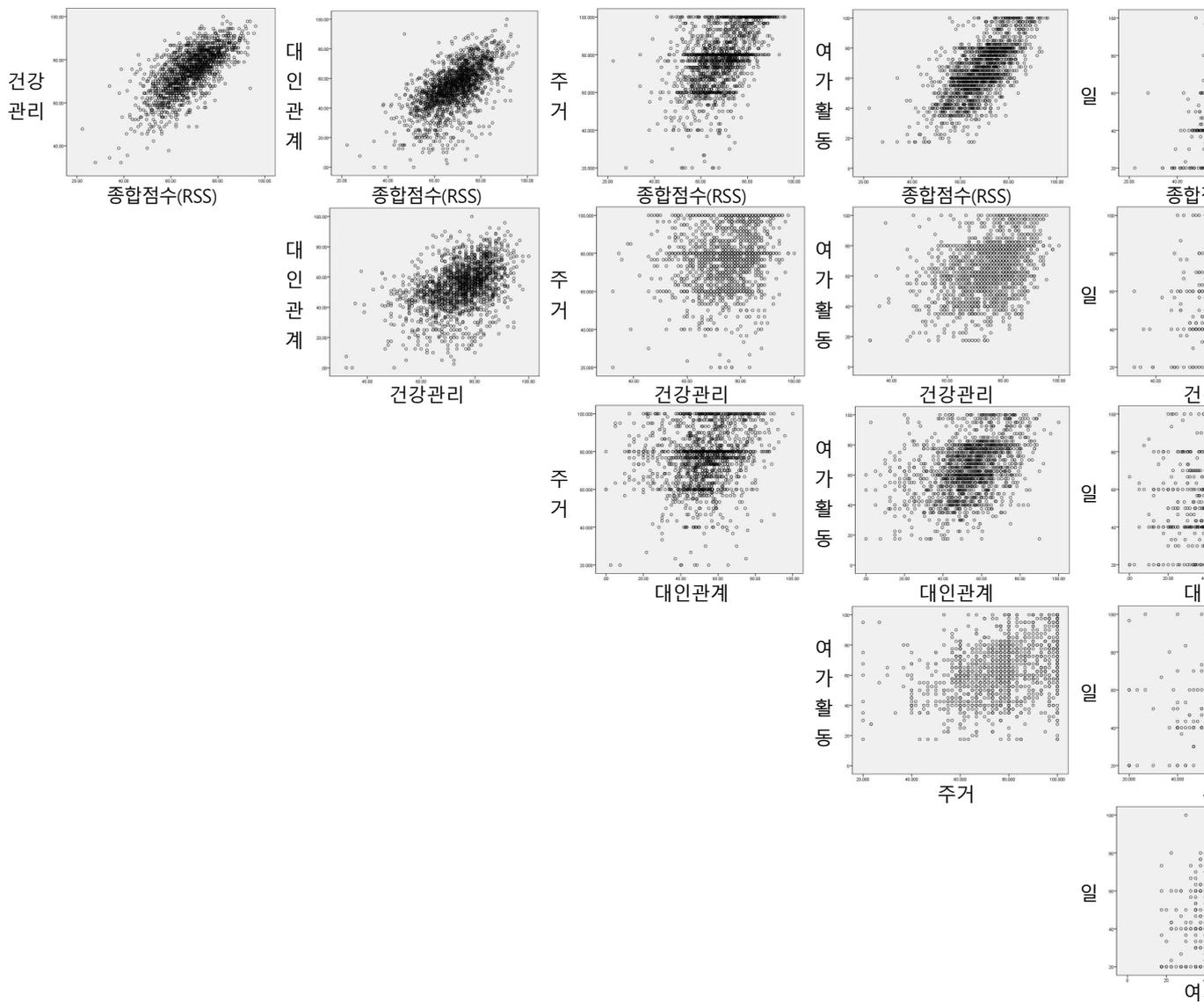
- 6대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12> 및 <그림 4-5>와 같음
- 분석 결과, 개인별 가중치를 반영한 은퇴준비점수(RRS)는 다른 영역 점수와 모두 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건강관리 영역과 은퇴준비 점수(RRS)의 상관이 0.699로 가장 큰 편이었고, 대인관계, 여가활동, 재무관리 영역은 0.6대의 상관을 나타냄
 - 6대 영역 간에는 특별히 높은 상관을 보인 영역은 없었으나 여가활동과 재무관리 간의 상관이 0.498로 가장 높았음. 건강관리와 대인관계, 여가활동과 일 영역 간에 각각 0.4대의 상관을 보였으며,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건강관리와 재무관리, 대인관계와 여가활동, 주거와 여가활동, 주거와 재무관리 영역에서는 0.3대의 상관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영역은 건강관리와 주거 영역으로 0.179의 상관관계를 보임

<표 4-12> 6대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합점수 (RSS)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활동	일	재무관리
종합점수 (RSS)	1	.699***	.605***	.476***	.678***	.511***	.626***
건강관리		1	.411***	.179***	.395***	.190***	.385***
대인관계			1	.207***	.390***	.189***	.283***
주거				1	.353***	.246***	.335***
여가활동					1	.449***	.498***
일						1	.235***
재무관리							1

*** $p < 0.001$

- 은퇴준비점수(RRS)와 건강관리, 대인관계, 재무관리 간의 산점도가 밀집된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나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나머지는 앞서 살펴 본 상관관계 그래프보다는 밀집도가 떨어지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6대 영역 간 상관관계 분포도

4.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분석 결과

1) 건강관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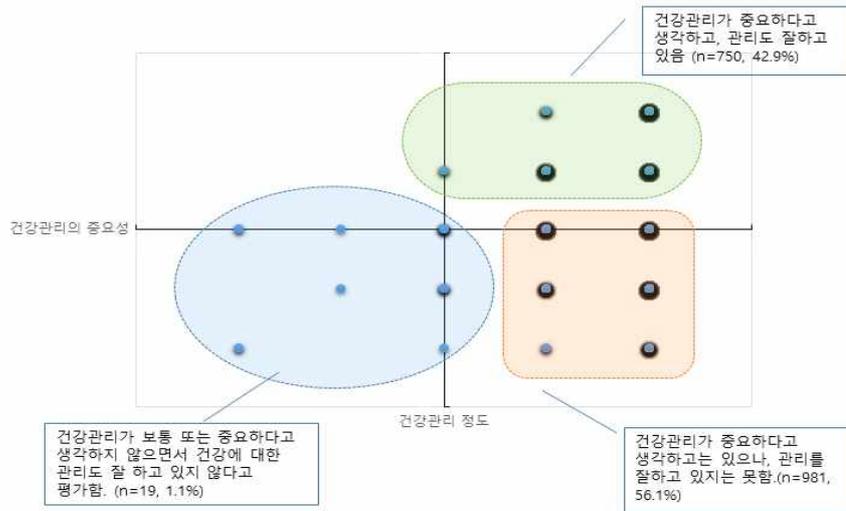
(1)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4.8점으로 나타났으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3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1.5점의 차이가 나타남
-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5.1%에 불과함.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84.9%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3>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4.8	3.3	-1.5		
s.d.	0.4	0.9	-0.9		
n(%)				265(15.1)	1485(84.9)

-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관리 정도를 3점(보통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2.9%에 해당함. 그러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56.1%(981명)로 더 많았음. 한편, 건강관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리도 잘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1%(19명)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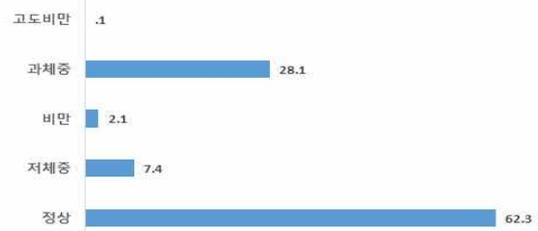


<그림 4-6>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체질량지수(BMI) 판단 결과

- 키와 몸무게를 통해 산출되는 체질량지수(BMI)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 체질량지수(BMI)를 판단하는 기준과 결과는 <그림 4-7>과 같음
- 키와 몸무게를 통해 산출하는 체질량지수(BMI)에 대한 판단은 체질량지수(BMI)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저체중’, 20~25 사이는 ‘정상’, 26~30 사이는 ‘과체중’, 31~40 사이는 ‘비만’, 40.1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명명함. 그 결과, 정상이 6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과체중(28.1%), 저체중(7.4%)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고도비만과 비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7.5%로, 이들은 특별히 체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저체중	20 이하
	정상	20~25
	과체중	26~30
	비만	31~40
	고도비만	40.1 이상



(단위 : %)

<그림 4-7> 체질량 지수(BMI) 판단

(3) 건강관리 영역 점수

- 건강관리 영역 점수는 3개 하위영역(일상생활 관리, 질병상태 및 관리, 정신건강 관리) 총 12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5점 척도로 측정된 8개 문항(식생활관리, 운동관리, 음주량, 수면,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정도 및 해소정도)을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흡연여부를 묻는 문항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10점을, 흡연을 하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질병관리 하위영역 중 중증질병과 만성질병의 경우,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없는 경우는 10점을 부여, 있는 경우는 진단받은 질병을 위한 정기적인 치료 상태에 따라 2점을 부여하되 8점을 최대값으로 설정함
 - 우울감 점수의 경우 5개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개수에 2점을 부여하여 최대 10점으로 산출함
- 건강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일상생활 관리, 질병상태 및 관리, 정신건강 관리)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건강관리 영역 점수로 활용함
- 건강관리 영역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4> 및 <그림 4-8>과 같음
 - 건강관리 점수는 평균 74.8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2.2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3개 하위영역 중 질병상태 및 관리에 대한 점수가 87.7점으로 가장 높고, 정신건강 관리 점수가 64.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 영역에서 특히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건강관리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질병상태 및 관리	정신건강 관리
평균	74.8	72.5	87.7	64.2
(s.d.)	9.9	12.5	11.1	16.7
중앙값	75.6	73.3	93.3	66.7
최소값	32.2	20.0	20.0	13.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그림 4-8> 건강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영역 점수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v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공무원 종류, 공무원 직군,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76.0점)이 남성(73.6점)보다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대 후(74.7점)반부터 50대 초(75.3점)·후(75.2점)반까지의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40대 초(72.5점)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 후반부터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76.9점)의 건강관리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대졸(73.8점), 고졸이하(71.6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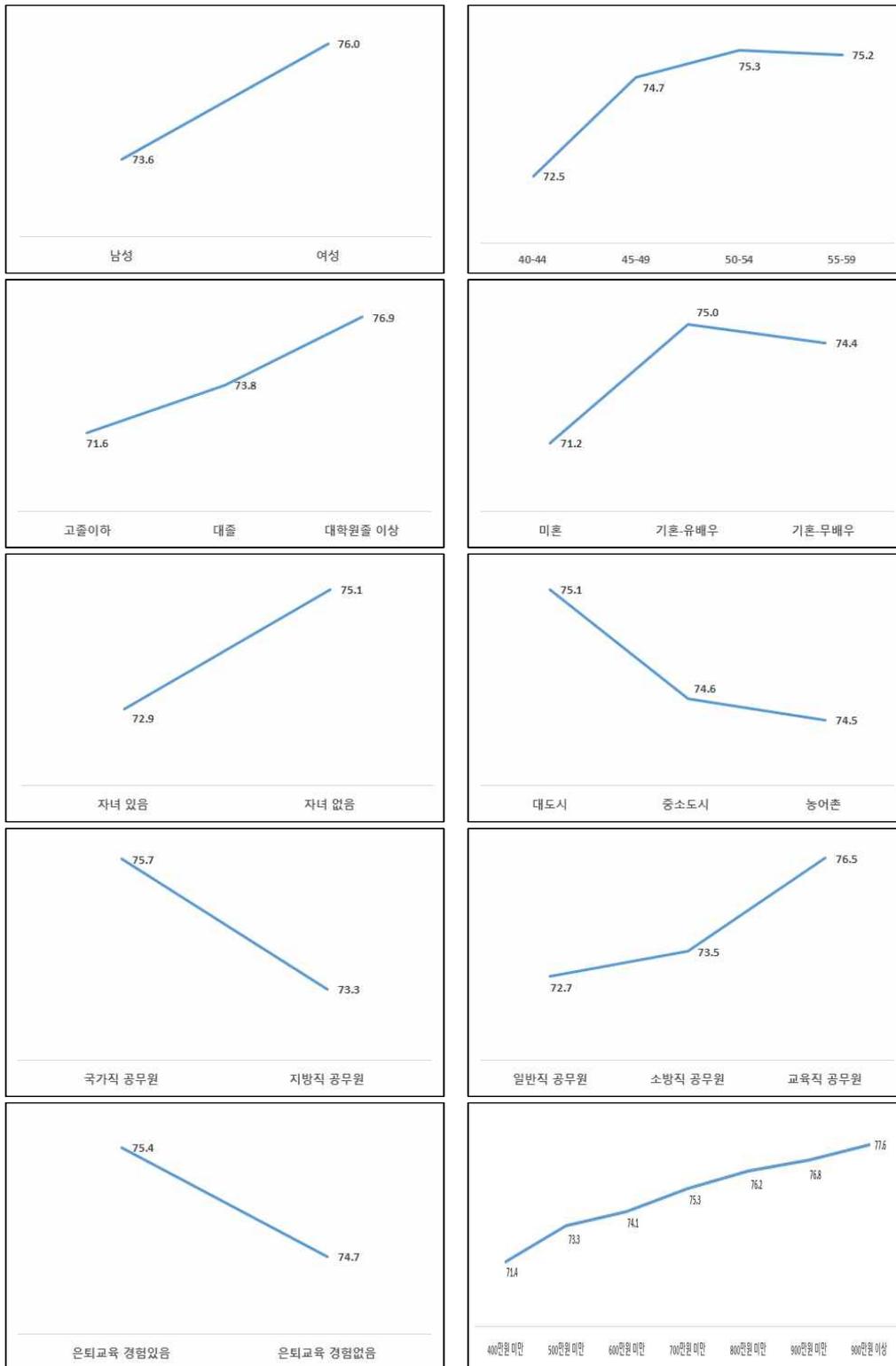
수록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기혼(배우자가 있는 경우 75.0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 74.4점)이 미혼(71.2점)보다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이 미혼보다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75.7점)이 지방직 공무원(73.3점)보다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76.5점)이 소방직 공무원(73.5점)과 일반직 공무원(72.7점)보다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보다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집단(77.6점)이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400만원 미만인 집단(71.4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9>와 같음
-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45-59세, 대학원졸 이상, 기혼, 국가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 영역의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40-44세, 고졸이하, 미혼,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리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건강관리 영역		t/F
		n(%)	평균(S.D.)	
성별	남성	883(50.5)	73.6(10.1)	-5.224***
	여성	867(49.5)	76.0(9.5)	
연령	40-44	193(11.0)	72.5(11.3)	b
	45-49	389(22.2)	74.7(9.9)	a
	50-54	435(24.9)	75.3(10.0)	a
	55-59	733(41.9)	75.2(9.4)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71.6(10.4)	c
	대졸	847(48.4)	73.8(10.0)	b
	대학원졸 이상	712(40.7)	76.9(9.2)	a
혼인상태	미혼	86(4.9)	71.2(12.8)	b
	기혼-유배우	1577(90.1)	75.0(9.6)	a
	기혼-무배우	87(5.0)	74.4(10.8)	a
자녀 유무	없다	52(3.1)	72.9(9.7)	-1.605
	있다	1612(96.9)	75.1(9.7)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75.1(9.8)	0.586
	중소도시	772(44.2)	74.6(9.9)	
	농어촌	139(7.9)	74.5(10.1)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75.7(9.8)	4.942***
	지방직 공무원	632(36.1)	73.3(9.9)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72.7(9.9)	b
	소방직 공무원	34(1.9)	73.5(8.9)	b
	교육직 공무원	967(55.3)	76.5(9.6)	a
은퇴설계	있다	178(10.2)	75.4(9.7)	0.918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74.7(9.9)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71.4(10.7)	e
	500만원 미만	284(16.2)	73.3(10.5)	d
	600만원 미만	356(20.3)	74.1(9.3)	cd
	700만원 미만	232(13.3)	75.3(9.3)	bc
	800만원 미만	197(11.3)	76.2(10.1)	ab
	900만원 미만	180(10.3)	76.8(8.2)	ab
	900만원 이상	264(15.1)	77.6(9.4)	a
평균 (S.D.)			74.8(9.9)	
최소값			32.2	
최대값			100.0	

** $p < 0.01$, *** $p < 0.001$



<그림 4-9>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리 영역 점수

2) 대인관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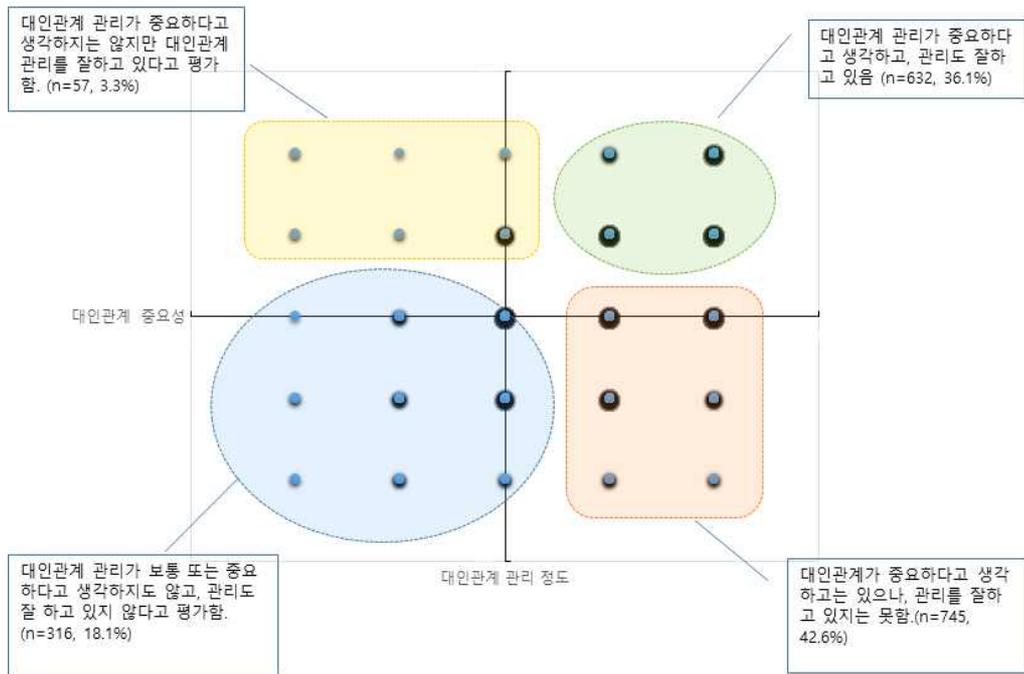
(1)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의 중요도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4.0점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3점으로 나타나 평균 점수가 0.7점의 차이가 나타남
-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2.7%로 나타남.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로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42.7%인 것임. 나머지 57.3%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16>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4.0	3.3	-0.7		
s.d.	0.7	0.8	-0.1		
n(%)				747(42.7)	1003(57.3)

-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도와 관리정도를 3점(보통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대인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인관계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35.6%였으며, 대인관계의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4%뿐임. 한편, 대인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인관계 관리도 잘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18.5%나 됨.



<그림 4-10>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대인관계 영역 점수

- 대인관계 영역 점수는 4개 하위영역(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이외 관계, 정서적 교류)에 대한 총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지,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1개 문항(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이외 관계, 정서적 교류)을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대인관계 영역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이외 관계, 정서적 교류)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대인관계 영역 점수로 활용함
- 대인관계 영역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7> 및 <그림 4-11>과 같음
 - 대인관계 점수는 평균 53.7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0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4개 하위영역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63.8점으로 가장 높고, 정서적 교류에 대한 점수가 30.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평상 시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하거나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4-17> 대인관계 영역점수 및 4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대인관계	배우자	자녀	가족 이외	정서적 교류
평균	53.7	63.8	63.5	56.8	30.7
(s.d.)	15.1	27.0	23.9	16.5	18.2
중앙값	54.5	70.0	66.6	60.0	20.0
최소값	0.0	0.0	0.0	0.0	0.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1> 대인관계 영역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영역 점수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은퇴설계 교육 여부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54.5점)이 남성(52.9점)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대(50-54세 54.7점, 55-59세 54.4점)가 40대(40-44세 50.9점, 45-49세 52.7점)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공무원이 40대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55.6점)의 대인관계 영역 점수는 고졸이하(50.7점)나 대졸(52.8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을 졸업한 공무원이 고졸이하나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56.5점)가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36.1점)나 미혼자(20.0점)보다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나 미혼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집단(56.1점)이 자녀가 없는 집단(36.2점)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가 없는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54.7점) 집단의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중소도시(52.7점)나 농어촌(53.6점) 집단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55.1점)의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지방직 공무원(51.3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56.1점)의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소방직 공무원(52.9점)과 일반직 공무원(50.6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보다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집단(59.8

점),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인 집단(58.5점),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집단(57.4점)의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0만원 미만인 집단(43.6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1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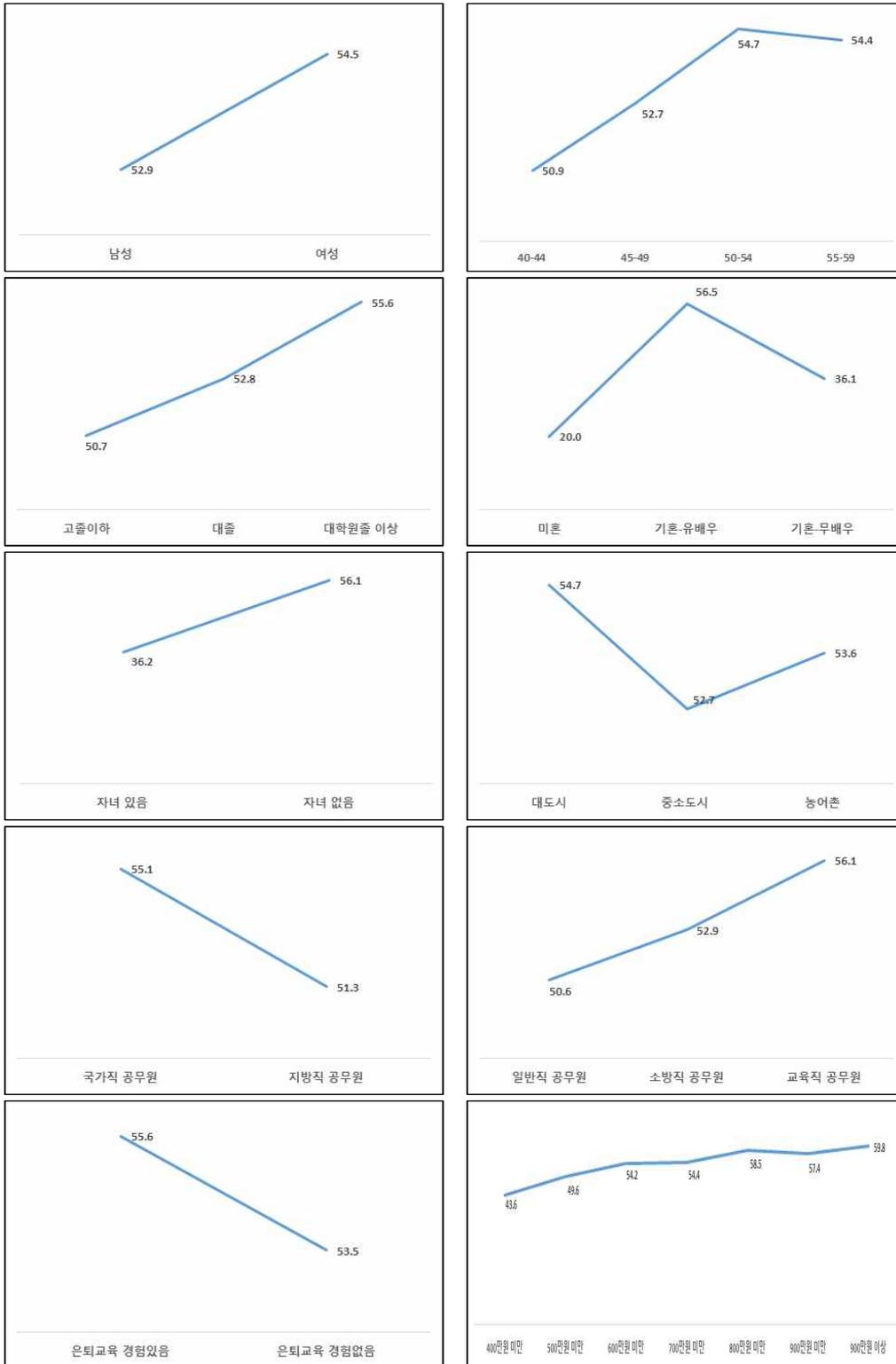
- 대인관계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50대, 대학원졸 이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자녀 있음, 대도시 거주, 국가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인관계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40대(특히, 40-44세), 고졸이하와 대졸, 미혼, 자녀 없음, 중소도시 거주,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인관계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대인관계 영역		t/F	
		n(%)	평균(S.D.)		
성별	남성	883(50.5)	52.9(14.2)	-2.273*	
	여성	867(49.5)	54.5(16.0)		
연령	40-44	193(11.0)	50.9(18.7)	b	3.983**
	45-49	389(22.2)	52.7(15.2)	ab	
	50-54	435(24.9)	54.7(15.5)	a	
	55-59	733(41.9)	54.4(13.6)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50.7(14.2)	b	10.935***
	대졸	847(48.4)	52.8(15.2)	b	
	대학원졸 이상	712(40.7)	55.6(15.1)	a	
혼인상태	미혼	86(4.9)	20.0(9.0)	c	451.388***
	기혼-유배우	1577(90.1)	56.5(12.4)	a	
	기혼-무배우	87(5.0)	36.1(13.2)	b	
자녀 유무	없다	52(3.1)	36.2(12.9)	-10.991***	
	있다	1612(96.9)	56.1(12.8)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54.7(15.0)	a	3.334*
	중소도시	772(44.2)	52.7(15.0)	b	
	농어촌	139(7.9)	53.6(16.0)	ab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55.1(15.4)	4.985***	
	지방직 공무원	632(36.1)	51.3(14.4)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50.6(14.4)	b	29.208***
	소방직 공무원	34(1.9)	52.9(12.2)	ab	
	교육직 공무원	967(55.3)	56.1(15.3)	a	
은퇴설계	있다	178(10.2)	55.6(15.5)	1.768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53.5(15.1)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43.6(18.7)	d	37.385***
	500만원 미만	284(16.2)	49.6(16.5)	c	
	600만원 미만	356(20.3)	54.2(12.9)	b	
	700만원 미만	232(13.3)	54.4(13.5)	b	
	800만원 미만	197(11.3)	58.5(11.1)	a	
	900만원 미만	180(10.3)	57.4(12.0)	a	
	900만원 이상	264(15.1)	59.8(12.9)	a	
평균 (S.D.)			53.7(15.1)		
최소값			0.0		
최대값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4-1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대인관계 영역 점수

3) 주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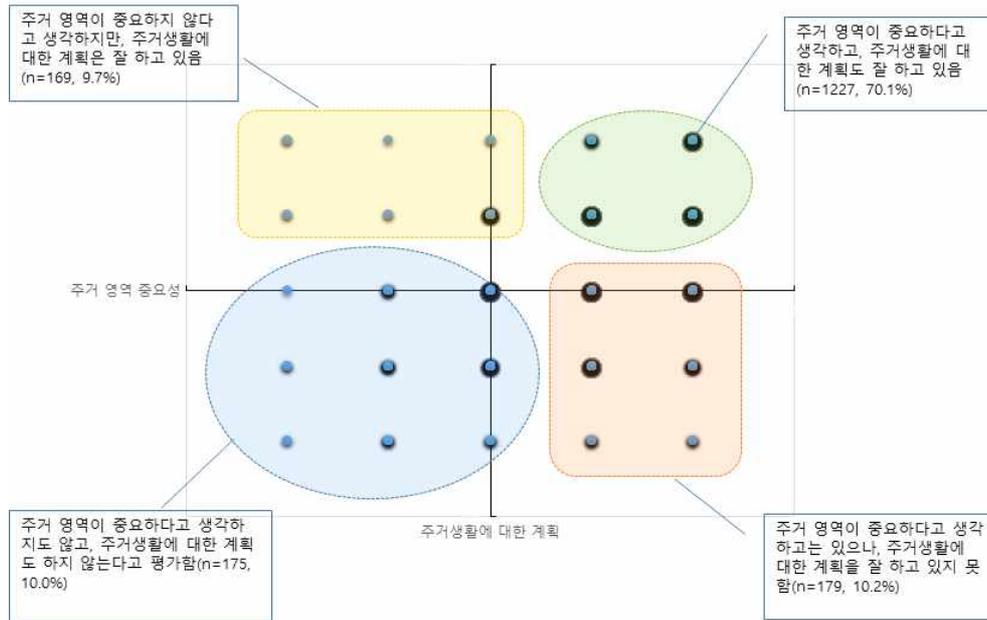
(1)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4.0점이었으며,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 정도도 3.9점으로 비슷한 수준(평균적으로 0.1점 차이)으로 나타나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주거생활에 계획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9.3%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 외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7%로 나타남

<표 4-19>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4.0	3.9	-0.1		
s.d.	0.7	0.7	0.0		
n(%)				1388(79.3)	362(20.7)

-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 정도를 3점(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0.1%로 나타나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도 잘 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한편,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도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0.0%(175명) 정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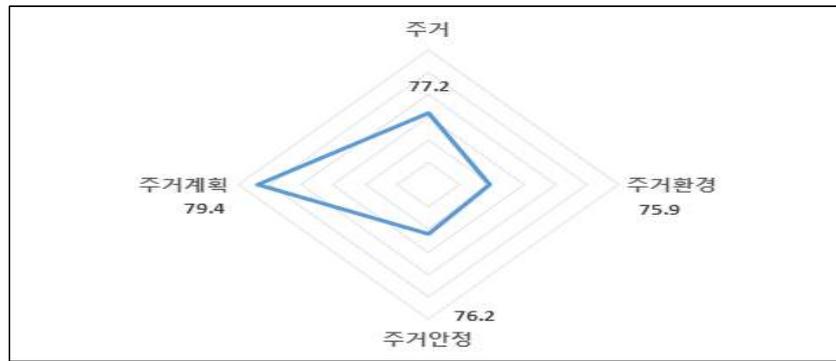
<그림 4-13> 주거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주거 영역 점수

- 주거 영역 점수는 3개 하위영역(주거환경, 주거안정, 주거계획) 총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주거 영역에 대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주거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주거환경, 주거안정, 주거계획)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주거 영역 점수로 활용함
- 주거 영역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0> 및 <그림 4-14>와 같음
 - 주거 영역 점수는 평균 77.2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0.0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3개 하위영역 중 주거계획이 7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주거환경이 75.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주거환경 요인은 주택의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4-20> 주거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주거	주거환경	주거안정	주거계획
평균	77.2	75.9	76.2	79.4
(s.d.)	14.3	15.7	16.0	15.2
중앙값	80.0	80.0	80.0	80.0
최소값	20.0	20.0	20.0	20.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4> 주거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 영역 점수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공무원 종류, 공무원 직군,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79.2점)이 남성(75.2점)보다 주거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54세(78.5점) 집단이 다른 연령대(55-59세 77.4점, 45-49세 76.2점, 40-44세 75.2점)보다 주거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54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78.8점)과 대졸(76.6점)의 주거 영역에 대한 점수가 고졸 이하(73.3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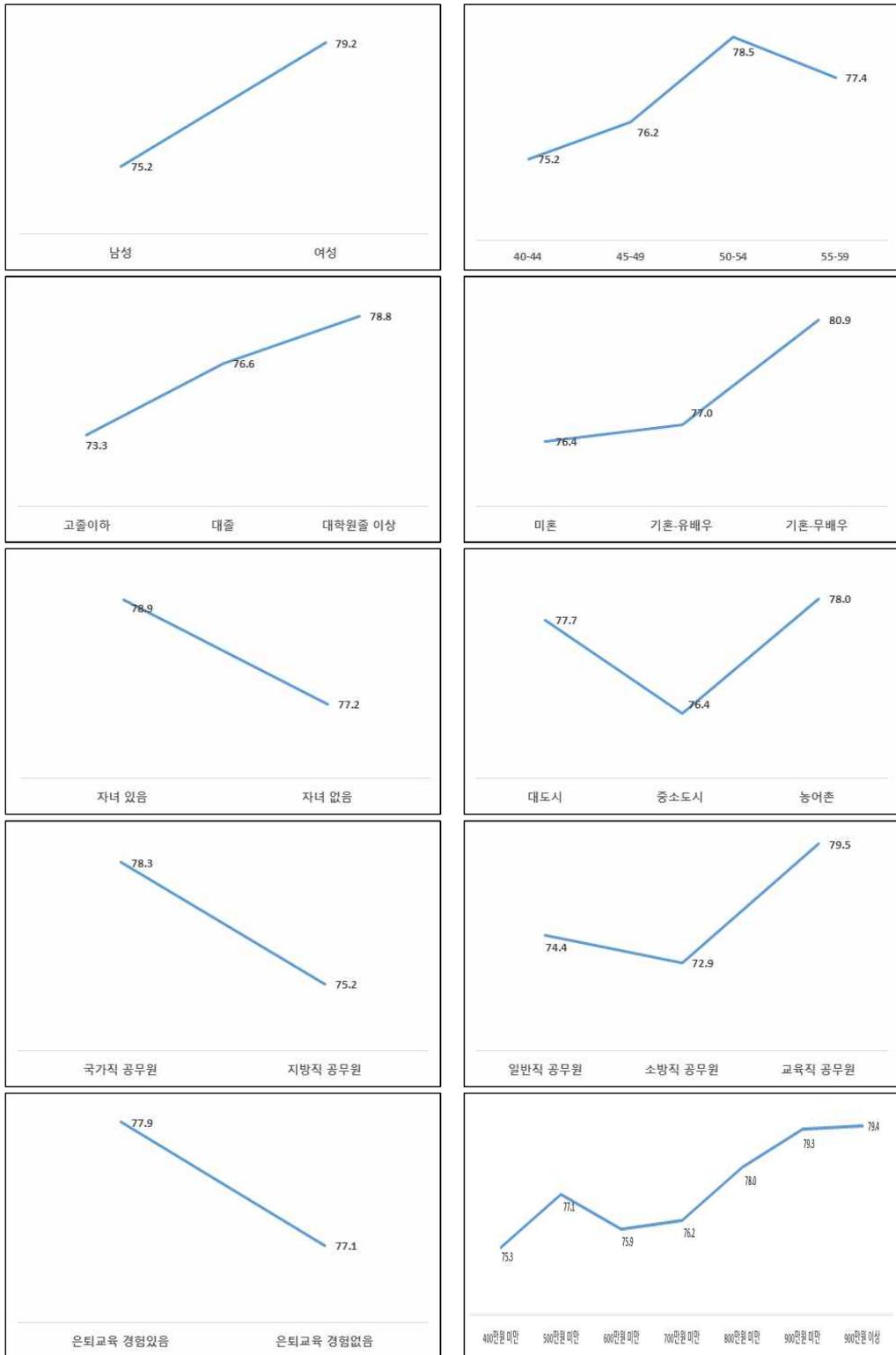
이 고졸이하의 공무원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80.9점)가 미혼자(76.4점)보다 주거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78.3점)의 주거 영역 점수가 지방직 공무원(75.2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79.5점)의 주거 영역 점수가 일반직 공무원(74.4점)과 소방직 공무원(72.9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보다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집단(79.4점)과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집단(79.3점)의 주거 영역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0만원 미만인 집단(75.3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15>와 같음
- 주거 영역의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50-54세, 대학원졸 이상과 대졸,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 국가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주거 영역의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40-44세, 고졸이하, 미혼,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거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주거 영역		t/F	
		n(%)	평균(S.D.)		
성별	남성	883(50.5)	75.2(14.5)	-5.784***	
	여성	867(49.5)	79.2(13.9)		
연령	40-44	193(11.0)	75.2(15.7)	b	3.086*
	45-49	389(22.2)	76.2(14.4)	ab	
	50-54	435(24.9)	78.5(14.2)	a	
	55-59	733(41.9)	77.4(13.9)	ab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73.3(14.1)	b	12.216***
	대졸	847(48.4)	76.6(14.5)	a	
	대학원졸 이상	712(40.7)	78.8(13.9)	a	
혼인상태	미혼	86(4.9)	76.4(15.6)	b	3.137*
	기혼-유배우	1577(90.1)	77.0(14.3)	ab	
	기혼-무배우	87(5.0)	80.9(13.7)	a	
자녀 유무	없다	52(3.1)	78.9(15.6)	0.846	
	있다	1612(96.9)	77.2(14.2)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77.7(14.3)	2.019	
	중소도시	772(44.2)	76.4(14.5)		
	농어촌	139(7.9)	78.0(13.5)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78.3(14.4)	4.281***	
	지방직 공무원	632(36.1)	75.2(14.0)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74.4(14.5)	b	29.479***
	소방직 공무원	34(1.9)	72.9(17.6)	b	
	교육직 공무원	967(55.3)	79.5(13.6)	a	
은퇴설계	있다	178(10.2)	77.9(14.8)	0.716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77.1(14.3)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75.3(15.2)	b	3.082**
	500만원 미만	284(16.2)	77.1(15.6)	ab	
	600만원 미만	356(20.3)	75.9(14.4)	b	
	700만원 미만	232(13.3)	76.2(14.4)	b	
	800만원 미만	197(11.3)	78.0(11.9)	ab	
	900만원 미만	180(10.3)	79.3(14.8)	a	
	900만원 이상	264(15.1)	79.4(12.9)	a	
평균 (S.D.)			77.2(14.3)		
최소값			20.0		
최대값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4-1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거 영역 점수

4) 여가활동 영역

(1)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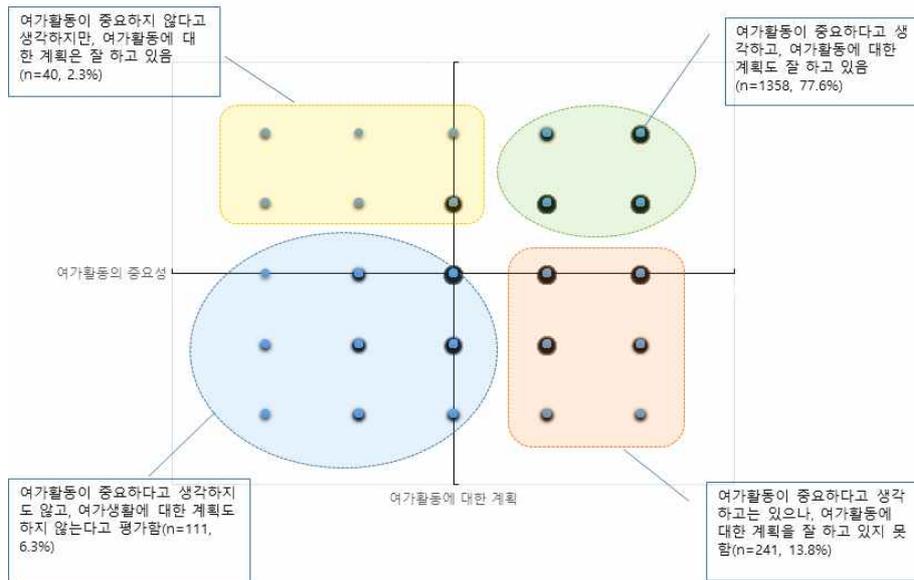
-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만큼 여가활동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4.2점이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 정도도 4.0점으로 비슷한 수준(평균적으로 0.2점 차이)으로 나타나 여가활동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4.1%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즉,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여가활동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 외 여가활동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5.9%로 나타남

<표 4-22>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4.2	4.0	-0.2		
s.d.	0.6	0.7	-0.1		
n(%)				1297(74.1)	453(25.9)

-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관리정도를 3점(보통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7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여가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한편 여가활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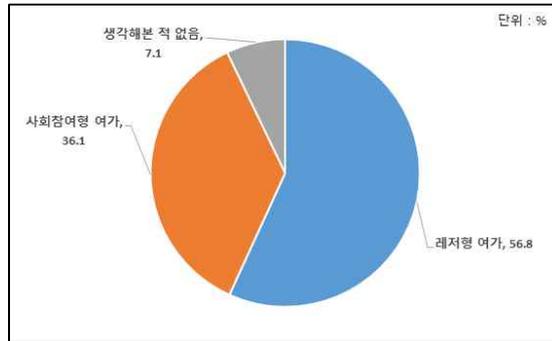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도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3%(111명)이었음



<그림 4-16>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여가활동 목적 분포

-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위한 여가활동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를 주는 방향이 달라서 목적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여가활동의 목적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여행, 취미·오락 활동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하는 레저형 여가와 사회봉사, 종교 활동 등과 같이 담당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형 여가로 나눌 수 있음
- 여가활동 목적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7>와 같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목적이 레저형 여가를 즐긴다는 비율(56.8%)이 사회참여형 여가를 즐긴다는 비율(3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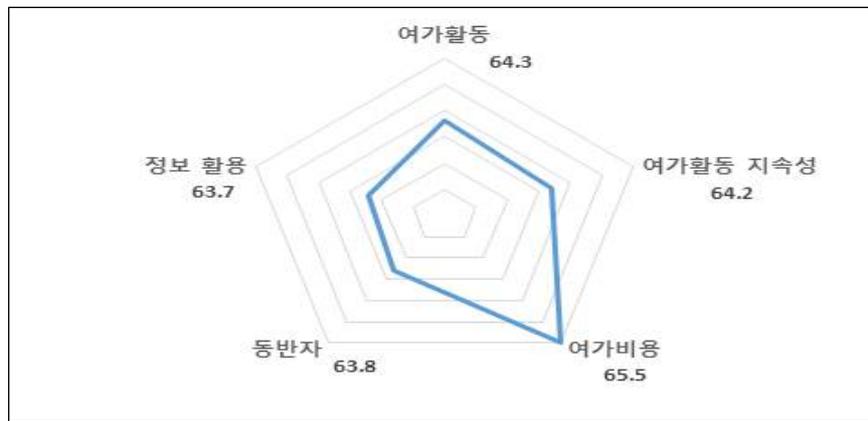
<그림 4-17> 여가활동 목적 분포

(3) 여가활동 영역 점수

-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는 4개 하위영역(여가활동 지속성, 여가비용, 동반자, 정보 활용) 총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모든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여가활동 영역 점수는 4개 하위영역(여가활동 지속성, 여가비용, 동반자, 정보 활용)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여가활동 영역 점수로 활용함
- 여가활동 영역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3> 및 <그림 4-18>과 같음
 - 여가활동 영역 점수는 평균 64.3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7.5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4개 하위영역 중 여가비용이 6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정보 활용이 6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본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4-23> 여가활동 영역점수 및 4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여가활동	여가활동 지속성	여가비용	동반자	정보 활용
평균	64.3	64.2	65.5	63.8	63.7
(s.d.)	17.3	19.5	20.2	20.6	20.4
중앙값	65.0	70.0	60.0	60.0	60.0
최소값	17.5	10.0	20.0	20.0	20.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8> 여가활동 영역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4) 여가활동 목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영역 점수

- 여가활동 목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공무원 종류, 공무원 직군, 은퇴설계 교육 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대(50-54세 65.7점, 55-59세 66.8점)가 40대(40-44세 59.5점, 45-49세 60.4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대가 40대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67.5점)이 대졸(62.5점)과 고졸이하(60.6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졸 이상의 공무원이 대졸 이하의 공무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기혼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66.0점, 배우자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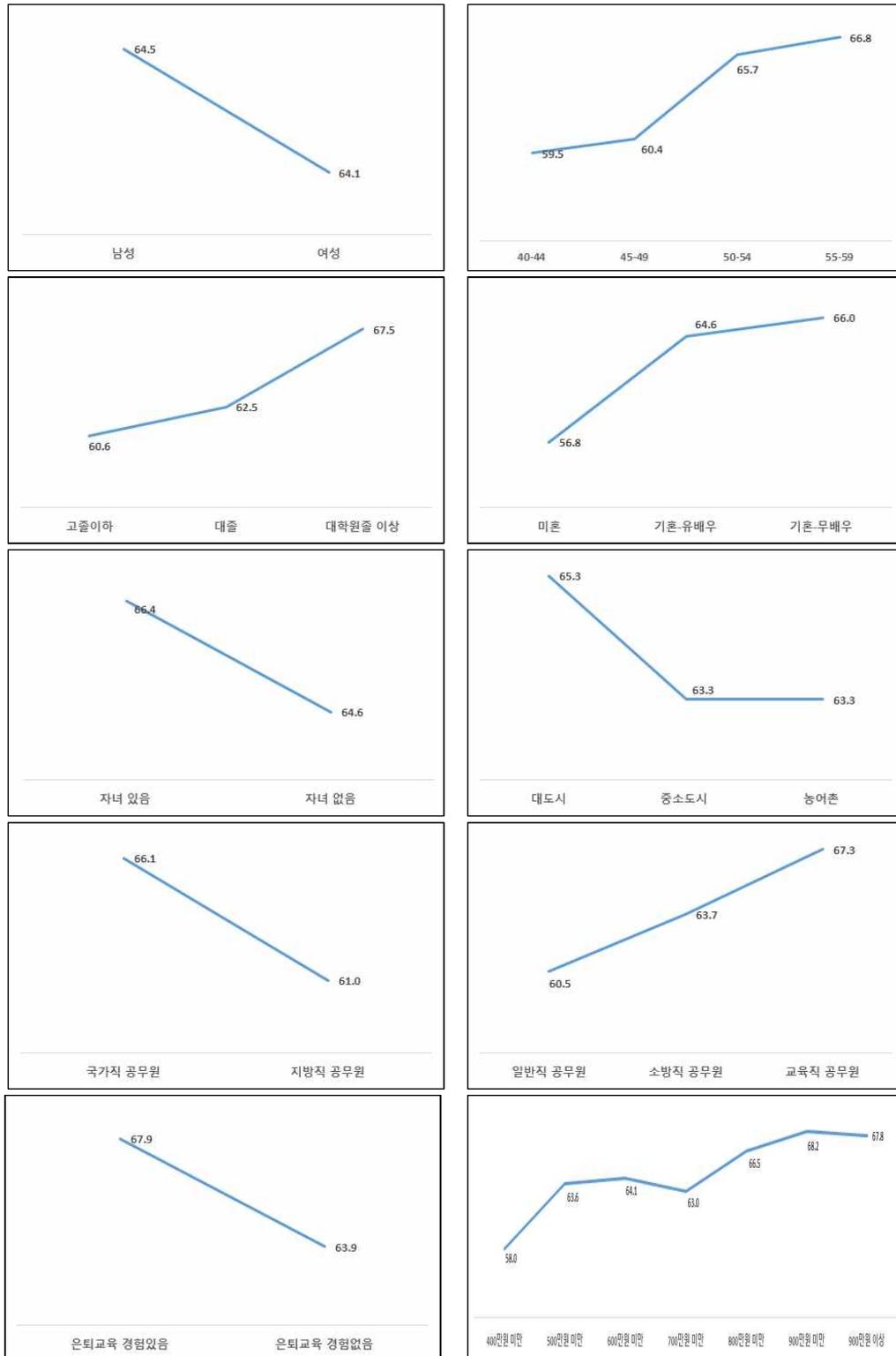
64.6점)가 미혼자(56.8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66.1점)의 점수가 지방직 공무원(61.0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67.3점)의 여가활동 영역 점수가 일반직 공무원(60.5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은퇴설계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67.9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63.9점)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여가활동 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19>와 같음
-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50대, 대학원졸 이상, 기혼자, 국가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있음,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영역의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40대, 고졸이하와 대졸, 미혼자,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없음,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여가활동 영역		t/F	
		n(%)	평균(S.D.)		
여가활동 목적	레저형 여가	994(61.1)	66.3(16.4)	1.752	
	사회참여형 여가	632(38.9)	64.9(16.7)		
성별	남성	883(50.5)	64.5(16.3)	0.553	
	여성	867(49.5)	64.1(18.2)		
연령	40-44	193(11.0)	59.5(17.8)	b	18.106***
	45-49	389(22.2)	60.4(16.9)	b	
	50-54	435(24.9)	65.7(17.1)	a	
	55-59	733(41.9)	66.8(16.9)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60.6(17.3)	b	21.452***
	대졸	847(48.4)	62.5(17.4)	b	
	대학원졸 이상	712(40.7)	67.5(16.6)	a	
혼인상태	미혼	86(4.9)	56.8(19.2)	b	8.712***
	기혼-유배우	1577(90.1)	64.6(17.0)	a	
	기혼-무배우	87(5.0)	66.0(18.3)	a	
자녀 유무	없다	52(3.1)	66.4(18.1)	0.738	
	있다	1612(96.9)	64.6(17.1)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65.3(17.3)	2.967	
	중소도시	772(44.2)	63.3(16.9)		
	농어촌	139(7.9)	63.3(18.6)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66.1(17.3)	5.947***	
	지방직 공무원	632(36.1)	61.0(16.7)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60.5(16.3)	b	33.885***
	소방직 공무원	34(1.9)	63.7(18.7)	ab	
	교육직 공무원	967(55.3)	67.3(17.4)	a	
은퇴설계	있다	178(10.2)	67.9(16.0)	2.935**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63.9(17.4)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58.0(18.4)	b	9.636***
	500만원 미만	284(16.2)	63.6(16.8)	a	
	600만원 미만	356(20.3)	64.1(16.2)	a	
	700만원 미만	232(13.3)	63.0(16.8)	ab	
	800만원 미만	197(11.3)	66.5(15.8)	a	
	900만원 미만	180(10.3)	68.2(17.9)	a	
	900만원 이상	264(15.1)	67.8(17.5)	a	
평균 (S.D.)			64.3(17.3)		
최소값			17.5		
최대값			100.0		

* $p<0.05$, *** $p<0.01$, **** $p<0.001$



<그림 4-19>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여가활동 영역 점수

5) 일 영역

(1)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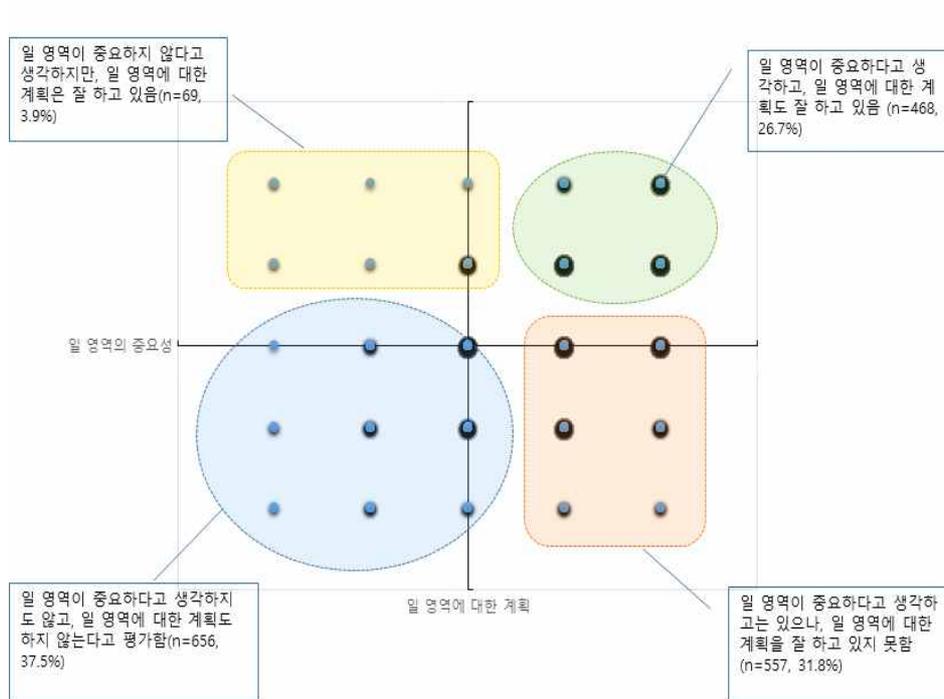
-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3.5점으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정도는 2.9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차이는 평균적으로 0.6점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 만큼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 영역을 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9.2%로 나타남. 즉, 이는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그 외 나머지 50.8%는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실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25>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3.5	2.9	-0.6		
s.d.	0.9	1.0	-0.1		
n(%)				861(49.2)	889(50.8)

-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관리정도를 3점(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일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 영역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6.7%뿐임. 일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일 영역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도 잘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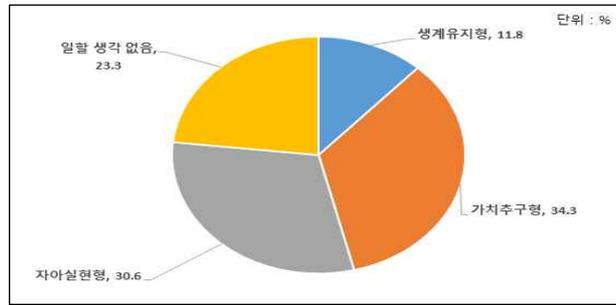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또한 일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일 영역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31.8%의 높은 비율을 보여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그림 4-20> 일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일 목적 분포

-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위한 일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를 주는 방향이 달라서 목적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 은퇴 후 일은 재취업, 창업, 창직(創職, Job Creation), 귀농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 유지형, 자기발전과 적성개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추구형,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자아실현형으로 구분함
-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은 <그림 4-21>과 같으며, 가치추구형이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형(30.6%), 생계유지형(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3%의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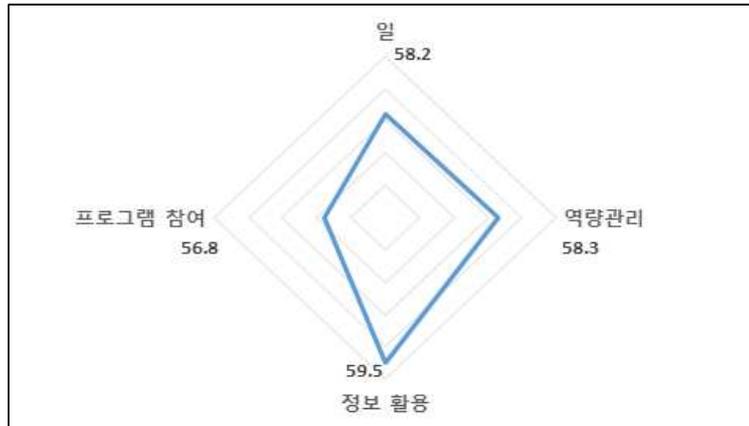
<그림 4-21> 일 목적 분포

(3) 일 영역 점수

- 일 영역 점수는 3개 하위영역(역량관리, 정보 활용, 프로그램 참여) 총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일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일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역량관리, 정보 활용, 프로그램 참여)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일 영역 점수로 활용함
- 일 영역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6> 및 <그림 4-22>와 같음
 - 일 영역 점수는 평균 58.2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0.0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3개 하위영역 중 정보 활용이 5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가 5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이러한 결과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공무원은 일을 위해 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4-26> 일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일	역량관리	정보 활용	프로그램 참여
평균	58.2	58.3	59.5	56.8
(s.d.)	20.2	20.5	21.4	21.3
중앙값	60.0	60.0	60.0	60.0
최소값	20.0	20.0	20.0	20.0
최대값	100.0	100.0	100.0	100.0



<그림 4-22> 일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4) 일 목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 영역 점수

- 일 목적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일 목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은퇴설계 교육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 목적에 따른 차이는 일을 하려는 목적이 가치추구형(64.5점)과 자아실현형(64.5점)의 점수가 생계유지형(55.2)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치추구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생계유지형 공무원들보다 일 영역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60.8점)이 여성(55.6점)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일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대 후반(55-59세, 59.9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40대 초반(40-44세, 55.5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50대 후반의 공무원이 다른 연령대의 공무원보다 일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61.6점)의 점수가 고졸이하(55.5점)와 대졸(56.0점)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졸 이상의 공무원이 고졸이하와 대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보다 일 영역의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은퇴설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63.6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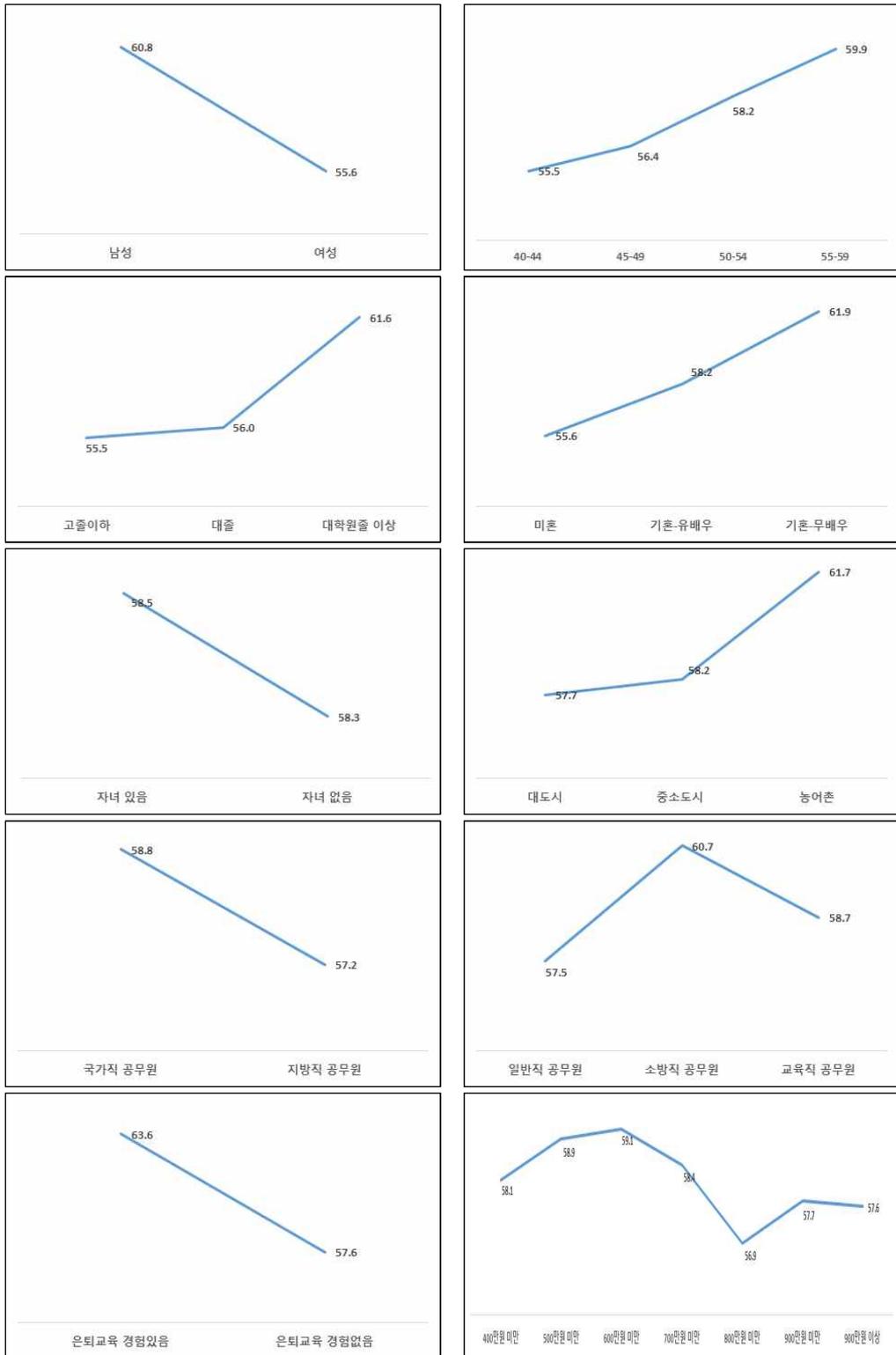
(57.6점)보다 일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설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일 영역의 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23>과 같음
- 일 영역의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55-59세, 대학원졸 이상, 은퇴설계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 영역의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40-44세, 고졸이하와 대졸, 은퇴설계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일 영역		t/F
		n(%)	평균(S.D.)	
성별	생계유지형	207(15.4)	55.2(18.9) b	22.888**
	가치추구형	600(44.7)	64.5(17.8) a	
	자아실현형	536(39.9)	64.5(18.2) a	
성별	남성	883(50.5)	60.8(19.5)	5.332***
	여성	867(49.5)	55.6(20.6)	
연령	40-44	193(11.0)	55.5(21.9) b	4.047**
	45-49	389(22.2)	56.4(19.5) ab	
	50-54	435(24.9)	58.2(20.5) ab	
	55-59	733(41.9)	59.9(19.8)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55.5(19.7) b	16.993***
	대졸	847(48.4)	56.0(19.6) b	
	대학원졸 이상	712(40.7)	61.6(20.6) a	
혼인상태	미혼	86(4.9)	55.6(21.8)	2.185
	기혼-유배우	1577(90.1)	58.2(20.1)	
	기혼-무배우	87(5.0)	61.9(21.1)	
자녀 유무	없다	52(3.1)	58.5(21.6)	0.070
	있다	1612(96.9)	58.3(20.1)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57.7(21.3)	2.337
	중소도시	772(44.2)	58.2(19.2)	
	농어촌	139(7.9)	61.7(19.0)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58.8(20.6)	1.616
	지방직 공무원	632(36.1)	57.2(19.4)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57.5(19.0)	0.971
	소방직 공무원	34(1.9)	60.7(22.8)	
	교육직 공무원	967(55.3)	58.7(21.0)	
은퇴설계	있다	178(10.2)	63.6(20.2)	3.772***
교육 여부	없다	1572(89.8)	57.6(20.1)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58.1(19.8)	0.366
	500만원 미만	284(16.2)	58.9(20.1)	
	600만원 미만	356(20.3)	59.1(20.1)	
	700만원 미만	232(13.3)	58.4(20.3)	
	800만원 미만	197(11.3)	56.9(19.1)	
	900만원 미만	180(10.3)	57.7(20.8)	
	900만원 이상	264(15.1)	57.6(21.3)	
평균 (S.D.)			58.2(20.2)	
최소값			20.0	
최대값			100.0	

** $p < 0.01$, *** $p < 0.001$



<그림 4-2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 영역 점수

6) 재무관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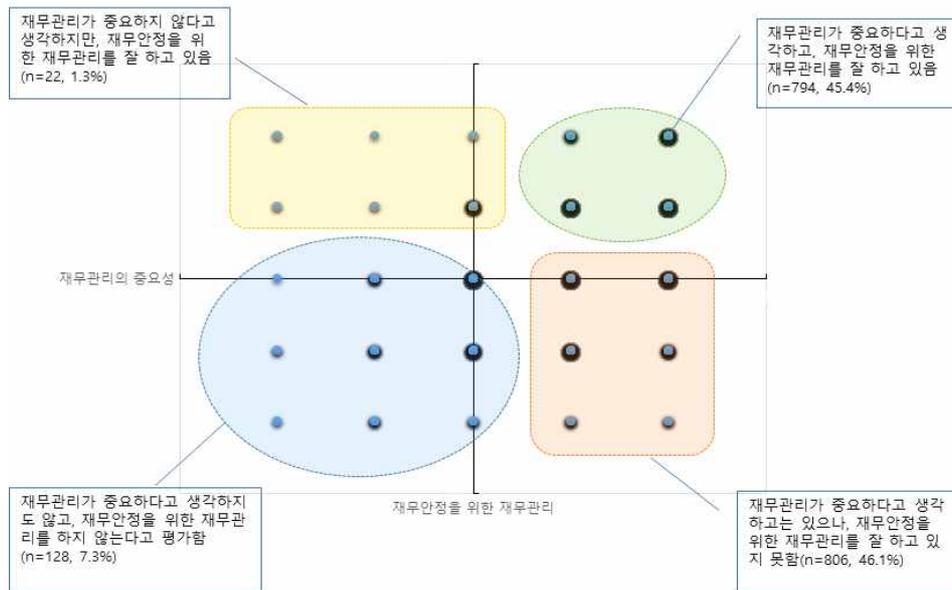
(1)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차이

-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재무안정을 위한 재무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재무관리에 대한 중요도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4.3점으로 나타났으나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4점으로 나타내 평균적으로 0.9점의 차이가 나타남
-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9.0%인 것으로 나타남. 즉, 이러한 결과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39.0%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 외 나머지 61.0%는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재무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28>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

	중요도 인식 (a)	관리 정도 (b)	인식과 관리 차이(b-a)	b≥a (관리≥중요도인식)	b<a (관리<중요도인식)
평균	4.3	3.4	-0.9		
s.d.	0.6	0.9	0.3		
n(%)				683(39.0)	1067(61.0)

- 재무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관리정도를 3점(보통수준)을 기준으로 교차하는 분포를 살펴보면,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재무안정을 위한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무안정을 위한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45.4%인 반면,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재무안정을 위한 재무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비율은 7.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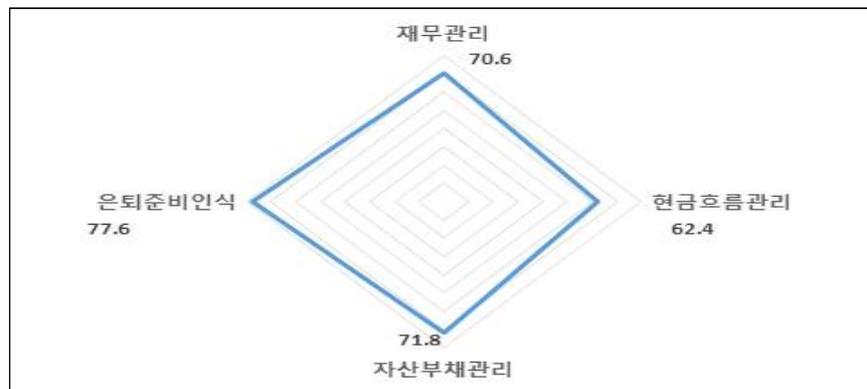
<그림 4-24>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관리정도에 대한 평가

(2) 재무관리 영역 점수

- 재무관리 영역 점수는 3개 하위영역(현금흐름관리, 자산부채관리, 은퇴준비인식) 총 7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 부채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없음으로 체크하도록 하고, 0점을 부여함
 - 재무관리 영역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7개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각각 1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 2점씩 부여함
- 재무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현금흐름관리, 자산부채관리, 은퇴준비인식)별로 각각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재무관리 영역 점수로 활용함
 - 재무관리 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7.8점, 최대값은 100.0점으로 나타남
 - 3개 하위영역 중 은퇴준비인식이 7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현금흐름관리가 6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이는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현금흐름 관리에 맞추어 소비해야 함을 시사함

<표 4-29> 재무관리 영역점수 및 3개 하위영역별 점수(100점 만점)

	재무관리	현금흐름관리	자산부채관리	은퇴준비인식
평균	70.6	62.4	71.8	77.6
(s.d.)	12.5	18.3	16.8	13.4
중앙값	71.1	60.0	73.3	80.0
최소값	17.8	20.0	20.0	13.3
최대값	100.0	100.0	100.0	100.



<그림 4-25> 재무관리 영역을 구성하는 3개 하위영역별 점수 분포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 영역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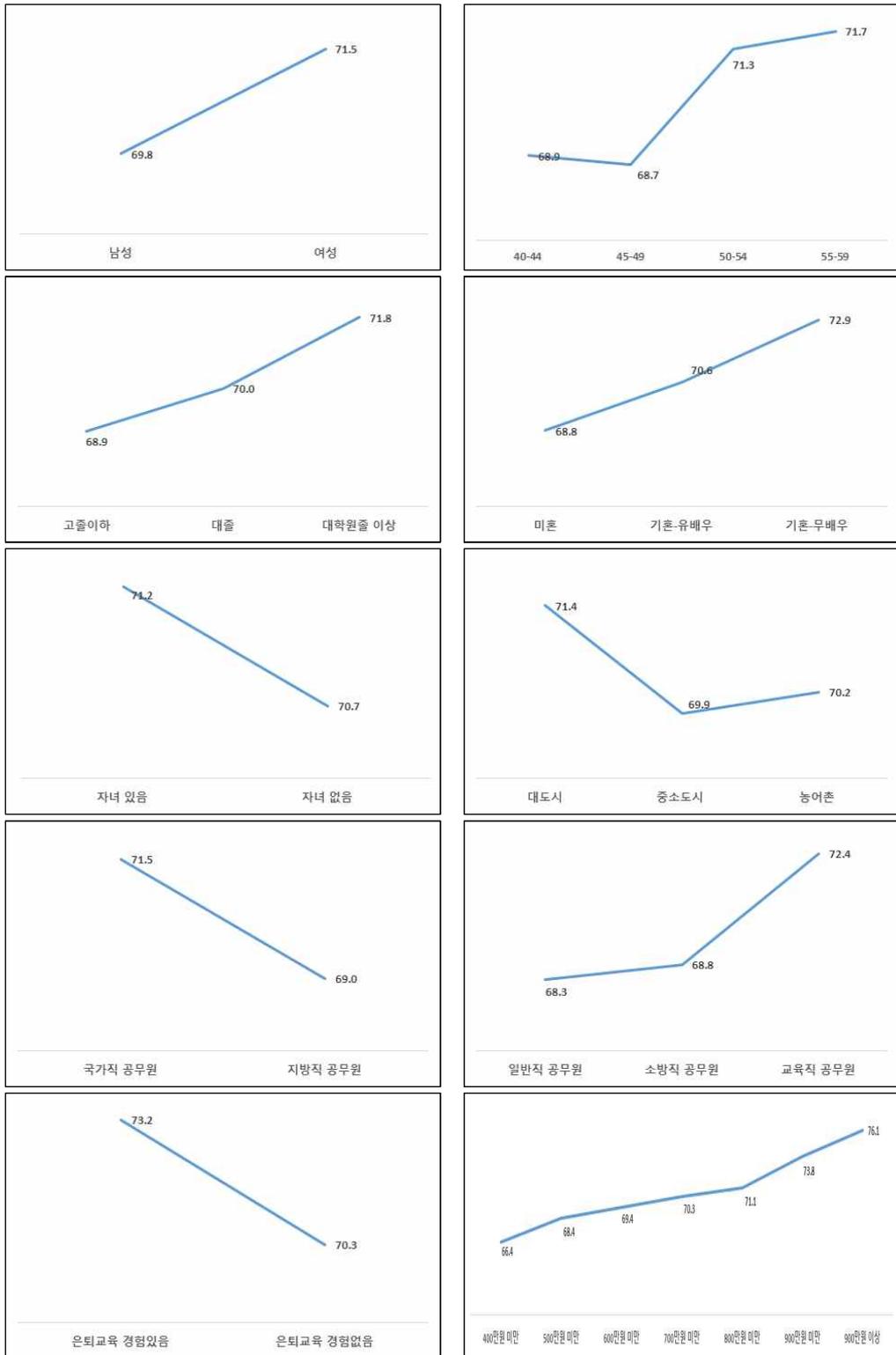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 영역 점수 분포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공무원 종류, 공무원 직군, 은퇴설계 교육 여부,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71.5점)이 남성(69.8점)보다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연령에 따른 차이는 50대(50-54세 71.3점, 55-59세 71.7점)가 40대(40-44세 68.9점, 45-49세 68.7점)보다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대의 공무원이 40대의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졸 이상(71.8점)의 재무관리 영역 점수가 고졸이하(68.9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졸 이상의 공무원이 고졸이하의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71.4점)에 거주하는 집단이 농어촌(70.2점)이나 중소도시(69.9점)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종류에 따른 차이는 국가직 공무원(71.5점)의 재무관리 영역 점수가 지방직 공무원(69.0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공무원 직군에 따른 차이는 교육직 공무원(72.4점)의 재무관리 영역 점수가 일반직 공무원(68.3점)과 소방직 공무원(68.8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은퇴설계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73.2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70.3점)보다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집단(76.1점)의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0만 원 미만인 집단(66.4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26>과 같음
-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높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여성, 50대, 대학원졸 이상, 대도시 거주, 국가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있음, 월평균 가계소득 9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재무관리 영역의 점수가 낮은 공무원들의 특성은 남성, 40대, 고졸이하,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 은퇴설계 교육경험 없음,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재무관리 영역 분석 결과

구분	특성	재무관리 영역		t/F
		n(%)	평균(S.D.)	
성별	남성	883(50.5)	69.8(12.0)	-2.857**
	여성	867(49.5)	71.5(12.9)	
연령	40-44	193(11.0)	68.9(14.0)	b
	45-49	389(22.2)	68.7(13.2)	b
	50-54	435(24.9)	71.3(11.6)	a
	55-59	733(41.9)	71.7(11.9)	a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10.9)	68.9(12.2)	b
	대졸	847(48.4)	70.0(12.8)	ab
	대학원졸 이상	712(40.7)	71.8(12.0)	a
혼인상태	미혼	86(4.9)	68.8(16.4)	2.297
	기혼-유배우	1577(90.1)	70.6(12.2)	
	기혼-무배우	87(5.0)	72.9(12.0)	
자녀 유무	없다	52(3.1)	71.2(12.5)	0.321
	있다	1612(96.9)	70.7(12.2)	
거주지역	대도시	839(47.9)	71.4(12.4)	a
	중소도시	772(44.2)	69.9(12.5)	b
	농어촌	139(7.9)	70.2(11.9)	b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1118(63.9)	71.5(12.3)	4.075***
	지방직 공무원	632(36.1)	69.0(12.6)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749(42.8)	68.3(12.1)	b
	소방직 공무원	34(1.9)	68.8(14.3)	b
	교육직 공무원	967(55.3)	72.4(12.4)	a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178(10.2)	73.2(12.1)	2.884**
	없다	1572(89.8)	70.3(12.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13.5)	66.4(13.6)	d
	500만원 미만	284(16.2)	68.4(12.0)	cd
	600만원 미만	356(20.3)	69.4(11.1)	cd
	700만원 미만	232(13.3)	70.3(12.6)	bc
	800만원 미만	197(11.3)	71.1(11.4)	bc
	900만원 미만	180(10.3)	73.8(12.6)	ab
	900만원 이상	264(15.1)	76.1(11.7)	a
평균 (S.D.)			70.6(12.5)	
최소값			17.7	
최대값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4-26>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재무관리 영역 점수

5. 본조사를 통한 의의와 결과의 활용

- 첫째, 공무원의 은퇴준비 종합점수(Retirement Readiness Score, RSS)는 평균 68.8점, 은퇴준비점수(RRS)가 80점 이상인 공무원은 8.7%에 불과함
 -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는 자가진단을 하는 공무원의 은퇴준비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값으로 활용, 이를 통해 자신이 동일 직업군(공무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은퇴준비를 하는지 인식하게 함
 - 본조사 결과 산출된 은퇴준비 종합점수, 영역별 점수, 하위영역별 점수 및 균형성,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된 가중치 등은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해석에 비교값(기준값)으로 적용됨

- 둘째,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가 낮은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퇴설계 교육 안내 및 적극적 홍보 필요성 시사함
 -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가 낮은 공무원의 특성은 남성, 40대(특히, 40~44세), 고졸 이하, 미혼, 자녀 없음,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은퇴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공무원연금공단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은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심층적인 은퇴준비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셋째, 은퇴설계 교육의 대상을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할 필요성 시사함
 - 은퇴를 앞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40대에서 은퇴준비 수준이 낮은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해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준비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교육대상 및 커리큘럼을 젊은 공무원에 맞도록 구성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젊은 공무원의 경우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기과정, 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무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기관별 인센티브 및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등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은퇴설계 교

육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은퇴준비에 포함된 6대 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취약하여,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및 교육과정과 내용의 점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영역별 점수는 대인관계(53.7점) < 일(58.2점) < 여가활동(64.3점) < 재무관리(70.6점) < 건강관리(74.8점) < 주거(77.2점)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특성 상 근무기간 중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점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은퇴 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접촉하게 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교육은 이론 교육보다는 배우자,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보기를 권함. 더불어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활동과의 연계성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퇴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넷째, 일 영역과 여가활동 영역의 경우 시간 사용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두 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 해석이 관련 내용을 반영함. 또한 이는 교육과정 점검 및 보완 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

제 5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의 유형화

1. 진단결과 및 가이드 제시의 기본 방향

-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는 공무원들의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영역 간 균형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개인의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 전달과 교육 참여의 동기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단결과 및 가이드로 제공할 예정임
 - 첫째,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를 보여주어 은퇴준비 수준을 인식하게 하고,
 - 둘째,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와 준비 수준을 보여주어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줌. 또한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함
 - 셋째, 이상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 및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교육을 소개하는 등 공무원들의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2. 자가진단 점수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 자가진단 결과를 이용하여 은퇴준비의 유형화 방법에는 영역별 준비 특성을 고려하여 명명하는 방법(국민연금 노후보장서비스)과 점수를 기준으로 취약한 정도를 통해 유형화하는 방법(생명보험협회의 행복수명)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고 취약한 영역을 인식하게 하고, 6대 영역 간 균형잡힌 준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강조하기 위해 후자의 방법 즉, 점수를 중심으로 한 평균 및 중앙값과의 비교를 통한 점수 기준 유형화 작업을 진행함
- 이에 따라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 및 준비수준

-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6대 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에 개인이 생각하는 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로, 전반적인 은퇴준비 수준을 알려줌으로써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종합점수 수준의 판단은 1) 개별 응답한 가중치를 반영한 은퇴준비 종합점수, 2) 공무원 평균 점수와의 차이, 그리고 3) 공무원 중 본인의 은퇴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줌
- 은퇴준비 수준은 종합점수를 이용하여 우수/양호/보통/미흡/위험으로 분류함. 이는 산출된 RRS(종합점수)의 10분위 수를 이용하여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분류한 후 상위 10%는 은퇴준비수준 우수, 상위 20~30%는 양호, 상위 40~60%는 보통, 하위 30~40%는 미흡, 하위 10~20%는 위험으로 분류한 것임
- 백분위 분포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 5-1> 은퇴준비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점수 백분위

판단	백분위	분류기준				RRS
위험	하위 10%	56.0 미만				50.6(5.3)
	하위 20%	56.0 이상	60.1 미만			
미흡	하위 30%	60.1 이상	63.3 미만			61.6(2.8)
	하위 40%	63.3 이상	66.2 미만			
보통	상위 60%	66.2 이상	68.8 미만			70.1(2.2)
	상위 50%	68.8 이상	71.5 미만			
	상위 40%	71.5 이상	73.7 미만			
양호	상위 30%	73.7 이상	76.6 미만			76.8(2.0)
	상위 20%	76.6 이상	80.7 미만			
우수	상위 10%	80.7 이상				85.1(3.5)

<표 5-2>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RRS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위험
RRS (종합점수)	85.1	76.8	70.1	61.6	50.6
건강관리	86.0	80.6	76.7	69.8	61.9
대인관계	69.7	61.5	55.6	46.8	37.5
주거	92.7	82.4	76.8	72.2	67.5
여가활동	84.5	75.4	65.6	56.1	42.9
일	77.5	66.8	59.0	51.4	40.3
재무관리	85.5	77.3	71.4	65.0	57.4

2)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점수 및 준비수준

- 영역별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는 은퇴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6대 영역들 간의 균형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균형있는 은퇴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각 영역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영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고, 6대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중상/중하/하 수준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수준을 판단함
- 또한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인식-평가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3~4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평균 기준 상하집단을 분류한 후 조합하여 하위영역에서의 균형성을 함께 파악함

(1)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및 영역 간 균형성

-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은 각 영역 점수의 4분위수를 이용하여 상/중상/중하/하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기준에 대한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 5-3>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 기준

수준	하 (미만)	중하 (이상~미만)	중상 (이상~미만)	상 (이상)
건강관리	68.9점	68.9점 ~ 75.6점	75.6점 ~ 82.2점	82.1점
대인관계	45.0점	45.0점 ~ 54.6점	54.6점 ~ 63.3점	63.3점
주거	70.0점	70.0점 ~ 80.0점	80.0점 ~ 83.3점	83.3점
여가활동	55.0점	55.0점 ~ 65.0점	65.0점 ~ 77.5점	77.5점
일	40.0점	40.0점 ~ 60.0점	60.0점 ~ 73.3점	73.3점
재무관리	63.3점	63.3점 ~ 71.1점	71.1점 ~ 78.9점	78.9점

- 위 기준에 의한 6대 영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영역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역점수는 <부록 5>에 제시하였음.

<표 5-4>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분포

	하		중하		중상		상	
건강관리	418	(23.9)	385	(22.0)	481	(27.5)	466	(26.6)
대인관계	412	(23.5)	455	(26.0)	440	(25.1)	443	(25.3)
주거	432	(24.7)	405	(23.1)	436	(24.9)	477	(27.3)
여가활동	436	(24.9)	437	(25.0)	391	(22.3)	486	(27.8)
일	181	(10.3)	567	(32.4)	555	(31.7)	447	(25.5)
재무관리	423	(24.2)	434	(24.8)	429	(24.5)	464	(26.5)

(2) 영역별 하위영역의 균형성

- 각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균형성은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결과를 보여줄 때 개인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즉, 영역 점수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간에 균형적인 요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 각 영역을 구성하는 3~4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동일 연령대⁴⁾의 평균을 기준으로

4) 연령집단은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로 비교하였음

상하 여부를 판단한 후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의 수를 이용하여 영역 내에서의 하위영역별 균형성을 판단함

- 동일 연령대의 평균과 비교 목적은 같은 연령대의 집단에서 은퇴준비가 부족한 측면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 전체 6대 영역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하여, 유형을 명명하기 위한 유형화가 아닌 취약한 부분을 짚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하였음
- 하위영역을 바탕으로 한 네 집단의 명명은 양호-균형, 보통-불균형, 미흡-불균형, 위험으로 하였음. 평균이상의 하위영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균형성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은퇴준비가 부족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하위영역이 4개인 대인관계, 일 영역의 경우, 4개가 모두 평균 초과면 양호-균형, 2개~3개 평균 초과이면 보통-불균형, 1개만 평균 초과이면 미흡-불균형, 4개가 모두 평균 미만이면 위험으로 함
- 하위영역이 3개인 건강관리, 주거, 일, 재무관리의 경우, 3평균 초과면 양호-균형, 2개가 평균 초과이면 보통-불균형, 1개만 평균 초과이면 미흡, 3개가 모두 평균 미만이 위험으로 함
- 3개 또는 4개 하위영역 모두 평균 초과하는 경우영역별 하위영역 구성 및 평균 상하 여부 판단에 이용된 각 영역의 연령대별 평균은 다음과 같음

<표 5-5>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 기준 (동일 연령대별 평균)

6대 영역 및 하위영역		전체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후반
건강관리	일생활 관리	72.6	68.3	71.6	73.9	73.5
	질병상태 및 관리	87.7	89.4	89.1	87.4	86.7
	정신건강관리	64.2	59.8	63.5	64.6	65.5
대인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63.8	59.1	61.5	65.8	65.1
	자녀와의 관계	63.6	57.8	62.8	64.6	65.0
	가족이외관계	56.9	55.4	55.9	57.3	57.5
	정서적 교류	30.8	31.5	30.7	31.4	30.2
주거	주거환경	76.0	74.4	74.5	77.4	76.3
	주거안정	76.3	74.5	75.6	77.5	76.3
	주거계획	79.4	76.9	78.6	80.7	79.7
여가활동	여가활동지속성	64.2	60.7	61.3	65.0	66.2

	여가비용관리	65.5	60.5	61.0	67.1	68.3
	동반자관리	63.8	59.6	59.6	65.8	65.9
	여가활동 정보활용	63.8	57.4	59.6	65.0	66.9
일	역량관리	58.3	56.0	56.6	58.3	59.8
	취업 정보활용	59.6	55.8	57.8	59.3	61.7
	프로그램참여도	56.9	54.8	54.8	57.1	58.4
재무관리	현금흐름관리	62.5	60.5	59.6	63.5	63.9
	자산부채관리	71.9	73.2	69.9	71.8	72.6
	노후자금준비인식	77.6	73.1	76.7	78.7	78.7

- 위 기준에 의한 각 영역의 하위영역별 균형성 판단 결과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판단 결과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점수는 <부록 6>에 제시하였음

<표 5-6>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진단 결과에 따른 분포

	양호-균형		보통-불균형		미흡-불균형		위험	
건강관리	430	(24.6)	573	(32.7)	457	(26.1)	290	(16.6)
대인관계	301	(17.2)	854	(48.8)	343	(19.6)	252	(14.4)
주거	748	(42.7)	376	(21.5)	251	(14.3)	375	(21.4)
여가활동	472	(27.0)	541	(30.9)	269	(15.4)	468	(26.7)
일	807	(46.1)	237	(13.5)	107	(6.1)	599	(34.2)
재무관리	472	(27.0)	508	(29.0)	440	(25.1)	330	(18.9)

3. 군집분석을 통한 은퇴준비 유형화

- 추가적으로 은퇴준비 자가진단 종합점수를 이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총 8개의 군집을 도출함
-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특징을 찾아내고 유형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6대 영역 간 준비 수준의 균형성 및 취약한 영역을 보여줌
- 군집의 명칭에 “취약”이 포함된 경우(군집4~군집8)는 전반적으로 은퇴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별히 준비가 부족한 영역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군집8은

모든 영역이 취약하여 특정 영역을 명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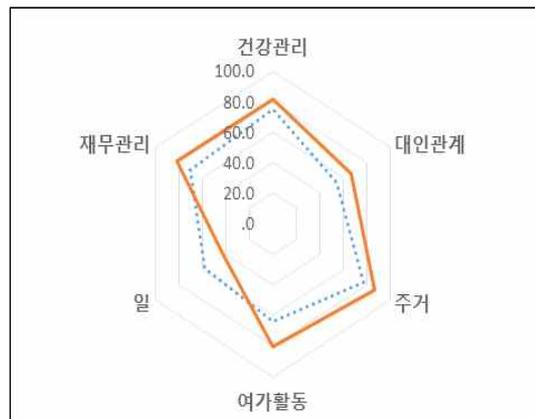
- “보완”이 포함된 경우(군집2)는 전반적으로 은퇴준비가 평균 이상의 수준이지만 유일하게 준비가 미흡한 영역의 명칭을 부여함
- 6대 영역 모두에서 평균 수준 또는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는 군집(군집1, 군집3)에는 “균형형”을 포함하여 명명함

1) 군집1 : 우수 균형형 (17.7%)

- 군집1의 경우 RRS가 79.8점으로 가장 높으면서 6대 영역 모두에서 영역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은퇴준비를 균형 있게 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평균 이상의 균형형”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군집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17.7%에 해당하며,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군집1: 평균 이상의 균형형



<그림 5-2> 군집2: 일 준비 보완형

2) 군집2: 일 준비 보완형 (9.8%)

- 군집2의 경우 RRS가 75.7점으로 군집1 다음으로 높은 점수이지만, 다른 영역들과 달리 은퇴 후 일에 대한 준비만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이 군집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9.8%에 해당하는 171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56.1%)은 일할 생각이 없는 공무원들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43.9%는 어떠한 목적⁵⁾으로든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이며 이들의 일 영역 점수도 49.9점으로 매우 낮음

- 따라서 이 유형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은퇴 전에 일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일 준비 보완형”으로 명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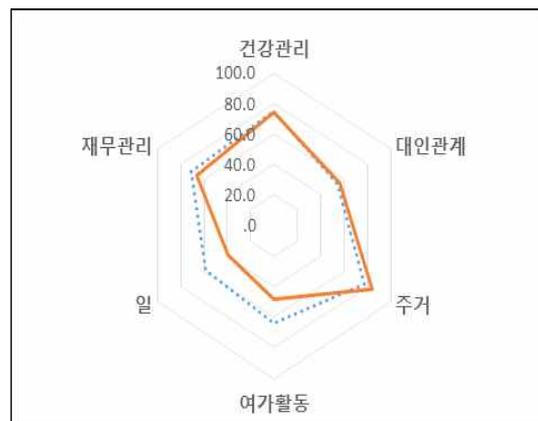
3) 군집3: 평균 균형형 (21.7%)

□ 군집3의 RRS는 71.2점으로 군집1에 비해 낮고 모든 영역별 점수도 낮지만 군집1과 같이 6대 영역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고 모두 평균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이므로 “보통 수준의 균형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유형의 공무원들은 현재 평균 수준의 은퇴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영역별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됨. 이 군집에 포함되는 조사대상자의 21.7%로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해당됨



<그림 5-3> 군집3: 보통 수준의 균형형



<그림 5-4> 군집4: 시간사용 준비 취약형

4) 군집4: 시간활용(일-여가활동) 준비 취약형 (10.6%)

5) 가치추구 목적 23.4%, 자아실현 목적 18.7%, 생계유지 목적 1.8%

- 군집4의 경우는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 영역은 평균 수준이지만 재무관리 영역도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일과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조사대상자의 10.6%가 이 군집에 속하며 RRS는 64.2점임
- 은퇴 후 일과 여가활동은 은퇴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2개의 축으로 시간사용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게 됨. 그러나 이 군집의 특성은 일과 여가활동 측면 모두 평균을 미달하기 때문에 은퇴 후 여유가 생기는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 매우 취약함
- 군집2의 경우도 일 영역 준비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시간사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군집4는 두 가지의 시간사용 축 모두가 부족하여 은퇴준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5) 군집5: 일 준비 취약형 (10.1%)

- 군집5는 RRS가 64.4점으로 조사대상자의 10.1%가 해당함. 군집4와 비교하여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준비는 평균 수준인 반면 주거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은 평균에 미치지 못함. 즉, 6대 영역 중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준비된 영역은 없으면서 특히 일에 대한 준비는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일 준비 취약형”으로 볼 수 있음
- 이 군집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 주거,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를 보완하여 6대 영역 간 균형잡힌 은퇴준비가 필요하며, 이후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평균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5-5> 군집5: 일 준비 취약형



<그림 5-6> 군집6: 대인관계 준비 취약형

6) 군집6: 대인관계 준비 취약형 (8.5%)

- 군집6은 일과 주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건강관리, 대인관계, 여가활동, 재무관리) 모두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고, 주거 영역의 경우에도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은 아님. 반면 대인관계 영역은 확연히 미달되는 수준으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에서 대인관계 영역은 매우 취약함. 이에 군집6은 “대인관계 준비 취약형”으로 볼 수 있음
- 대인관계 영역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취약하기 쉬우나 이 군집에 포함된 148명 중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50.7%이며 이들의 대인관계 영역준비 점수는 40.4점으로 대인관계 전체 평균(53.8점)에 미달함

7) 군집7: 주거 준비 취약형 (11.3%)

- 군집7의 경우 일에 대한 준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관리와 대인관계, 여가활동, 재무관리에 대한 준비는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주거에 대한 준비는 평균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임. 조사대상자의 11.3%가 이 군집에 포함되고 RRS는 64.1점임
- 주거 영역의 경우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여 은퇴 후에 바로 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나지는 않으나 은퇴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은퇴 후 주거생활에서 고려해야하는 요인들을 인식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그림 5-7> 군집7: 주거 준비 취약형



<그림 5-8> 군집8: 전반적 취약형

8) 군집8: 전반적 취약형 (10.5%)

□ 군집8은 6대 영역 모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준비상태를 보이고 RRS도 53.9점으로 가장 낮으며 조사대상자의 10.5%가 해당함. 이 군집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어떤 한 영역에서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평균을 초과하여 준비된 영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안한 은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통해 자신의 은퇴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인식하여야 하며,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

□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은퇴준비를 하는 공무원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6대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균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약 22%임. 이러한 공무원들은 자칫 영역 간의 균형이 깨지거나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은퇴준비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8개의 유형 중 일, 여가활동, 재무관리 영역이 각 영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은 하위영역별로 유형의 종류는 다르지만 각각 4개씩의 영역이 해당되며, 모두 조사대상자의 41%씩이 해당됨. 특히 여가활동과 재무관리 영역의 경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의 종류가 시간활용 준비 취약형, 대인관계 준비 취약

형, 주거 준비 취약형, 전체 취약형으로 동일함. 이는 어떤 한 영역에서 취약한 준비 수준을 보이는 유형은 여가활동과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수준이 보통 이하임을 의미함. 따라서 어떤 한 영역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은퇴준비 교육 시 기본적으로 여가활동과 재무관리 영역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은퇴준비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셋째, 분류된 유형 중 시간활용 준비 취약형은 일과 여가활동 영역 모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유형으로 은퇴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여유가 생기는 시간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임. 은퇴 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은퇴 후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가활동 또는 일을 위한 은퇴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받는 등 준비가 필요함
- 넷째, 8개 유형 중 대인관계 영역이 평균 미만인 유형은 총 3개 유형으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29%임.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508명 중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16.7%인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는 72.4%에 달함. 전자의 경우 은퇴 후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가 친지나 친구 지인 등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영역의 점수가 낮은 것은 은퇴준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음. 대인관계 형성의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대인관계 형성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기 때문임. 따라서 대인관계 준비 수준이 미흡한 공무원들은 혼인관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 및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계 형성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표 5-7> 은퇴준비 종합점수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군집	전체	우수균형형		일 준비 보완형		평균균형형		시간활용 준비 취약형		일 준비 취약형		대인관계 취약형						
		건강관리	재무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활동	일	건강관리	재무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활동	일	건강관리	재무관리	대인관계	주거	여가활동
n(%)	1,750 (100.0)	309 (17.7)	171 (9.8)	379 (21.7)	186 (10.6)	177 (10.1)	148 (8.5)											
건강관리	74.9	80.7	81.1	76.3	73.7	74.6	67.6											
대인관계	53.8	63.8	66.1	57.3	56.0	49.8	31.6											
주거	77.2	87.6	86.2	80.9	83.2	67.5	81.0											
여가활동	64.3	83.6	80.1	67.2	48.6	65.0	56.6											
일	58.3	85.0	42.6	65.7	39.5	38.2	67.2											
재무관리	70.7	80.8	81.9	71.0	66.1	70.3	66.4											
RRS	68.4	79.8	75.7	71.2	64.2	64.4	62.9											
		양호	보통				미흡											

제 6 장 은퇴준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

- 본 장에서는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문항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점수 산출 로직 및 제시방법, 출력할 정보 등을 제시하며, 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전략을 시스템 구축 업체에 의뢰하여 제시함(부록10)

1. 은퇴준비 종합점수(RRS)

-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각 영역의 점수와 개별 응답한 가중치를 곱한 가중평균 점수로 함

<표 6-1> 가중치를 반영한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정

	i영역 점수	i영역 가중치	종합점수	
건강관리	A401	A0	RRS	=SUMPRODUCT (A401:F401, A0:F0)
대인관계	B401	B0		
주거	C401	C0		
여가활동	D401	D0		
일	E401	E0		
재무관리	F401	F0		

2.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 각 영역별 은퇴준비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화함

1) 건강관리

<표 6-2> 은퇴준비점수 건강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일상 생활 관리	식생활 관리 A3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1 =A3*2

운동 관리	A4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A202	=A4*2		
	흡연	A5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① 담배를 피운다. ②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	A203	=if(A5=2,10,0)	
	음주	A6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번 정도 ③ 한 달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1번 미만 ⑤ 전혀 없다(술을 마시지 않는다)	A204	=A6*2	
	수면	A7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A205	=A7*2	
	휴식	A8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6	=A8*2	
	건강 검진	A9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07	=A9*2	
	질병 상태 및 관리	중증 질병	A10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 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① 있다 ② 없다	A208	=IF(A10=2,10,IF(A10-1=5,8,IF(A10-1=4,6,IF(A10-1=3,4,IF(A10-1=2,2,0))))))
			A10-1	귀하가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만성 질병		A11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 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① 있다 ② 없다	A209	=IF(A11=2,10,IF(A11-1=5,8,IF(A11-1=4,6,IF(A11-1=3,4,IF(A11-1=2,2,0))))))	
A11-1	귀하가 앓고 있는 만성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정신 건강 관리	우울 감	A12-1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① 있다 ② 없다	A210	=COUNTIF(A12-1:A12-5,2)*2	
		A12-2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A12-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12-4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A12-5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스트레스 정도	A13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211	=A13*2
스트레스 해소	A14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2	=A28*2

2단계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일상생활관리	100점 만점	A301	=SUM(A201:A206) *(10/6)
	질병상태 및 관리		A302	=SUM(A207:A209) *(10/3)
	정신건강 관리		A303	=SUM(A210:A212) *(10/3)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건강관리 영역 은퇴준비점수	100점 만점	A401	=AVERAGE (A301:A303)
----------------	---------	------	-------------------------

체질량지수 산출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A15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A15-1	키: () cm	A102	=A20/(A19^2) * 체질량지수
		A15-2	체중:() kg	A103	=IF(A102>=40, "고도비만", IF(A102=30, "비만", IF(A102=25, "과체중", IF(A102>=20, "정상", "저체중"))))

2) 대인관계

<표 6-3> 은퇴준비점수 대인관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배우자와의 관계	B3	평소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배우자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1	=B3*2
	B4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B202	=B4*2
	B5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B203	=B5*2
	B6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B204	=B6*2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B7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자녀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05	=B7*2
	B8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B206	=B8*2
	B9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B207	=B9*2
가족 이외	친지 관계	B10	귀하께서는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형제자매, 친지없음 ① 전혀없다 ② 가끔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있다 ⑤ 매우자주	B208	=B10*2
	사회적 관계	B11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B209	=B11*2
정서적 교류	B12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① 1~2명 ② 3~4명 ③ 5~6명 ④ 7~8명 ⑤ 9명 이상	B210	=B12*2
	B13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B211	=B12*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배우자와의 관계	100점 만점	B301	=SUM(B201:B204) *(10/4)
	자녀와의 관계		B302	=SUM(B205:B207) *(10/3)
	가족이외의 관계		B303	=SUM(B208:B209) *(10/2)
	정서적 교류		B304	=SUM(B210:B211) *(10/2)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대인관계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B401	=AVERAGE (B301:B304)
-----------------	---------	------	-------------------------

3) 주거

<표 6-4> 은퇴준비점수 주거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주거	안정성	C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201 =C3*2

환경	쾌적성	C4	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202	=C4*2
	편의성	C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3	=C5*2
	유지관리 용이성	C6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4	=C6*2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성	C7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5	=C7*2
	주택 자산 운영	C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6	=C8*2
주거 계획	거주유형	C9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07	=C9*2
	동반자	C10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C208	=C10*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주거환경	100점 만점	C301	=SUM(C201:C204) *(10/4)
	주거안정		C302	=SUM(C205:C206) *(10/2)
	주거계획		C303	=SUM(C207:C208) *(10/2)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주거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C401	=AVERAGE (C301:C303)
---------------	---------	------	-------------------------

4) 여가활동

<표 6-5> 은퇴준비점수 여가활동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여가 활동 지속성	여가 활동 인식	D3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1	=D3*2
	여가 활동 참여	D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D202	=D4*2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여가비용준비	D5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203	=D5*2
동반자관리	D6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D204	=D6*2
정보 활용도	D7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D205	=D7*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여가활동지속성		100점 만점	D301	=SUM(D201:D202) *(10/2)
	여가비용준비			D302	=D203*10
	동반자관리			D303	=D204*10
	정보활용도			D304	=D205*10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여가활동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D401	=AVERAGE (D301:D304)

5) 일

<표 6-6> 은퇴준비점수 일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역량관리수준	E3	은퇴 후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01	=E3*2	
	E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E202	=E4*2	
정보활용도	E5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E203	=E5*2	
프로그램 참여도	E6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E204	=E6*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역량관리수준			100점 만점	E301	=SUM(E201:E202) *(10/2)
	정보활용도		E302		=E203*10	
	프로그램 참여도		E303		=E204*10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일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E401	=AVERAGE (E301:E303)

6) 재무관리

<표 6-7> 은퇴준비점수 재무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

1단계 : 문항 점수 산출					
구분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현금흐름관리	F3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201	=F3*2
	F4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F202	=F4*2
자산부채관리	F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F203	=F5*2
	F6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F204	=F6*2
	F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205	=F7*2
은퇴준비인식	F8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F206	=F8*2
	F9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F207	=F9*2
	F1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F208	=F10*2
	F11	자녀를 위한 지출(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됩니까?		F209	=F11*2
2단계 : 하위영역 점수 산출					
하위영역	현금흐름관리			100점 만점	F301
	자산부채관리		F302		=SUM(F203:F205) * (10/3)
	은퇴준비인식		F303		=SUM(F206:F209) * (10/4)
3단계 : 영역 점수 산출					
재무관리 영역 은퇴준비 점수		100점 만점	F401	=AVERAGE (F301:F304)	

3. 자가진단 결과 출력 화면 구성 가이드

- 은퇴준비 자가진단 진단결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공하는 목적은 1)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2) 은퇴 준비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3)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 전달과 교육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은퇴준비 자가진단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은퇴준비 하위 영역을 포괄한 종합점수(RRS)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은퇴준비 6대 영역별 점수와 준비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역 간 균형 있는 은퇴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방식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됨
- [1단계 : 종합점수를 통한 은퇴준비수준 판단] 개별적으로 응답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 은퇴준비 종합점수를 제시, 본조사를 통해 산출된 공무원들의 평균 점수와의 차이를 파악하여 은퇴준비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줌
 - 종합점수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위험’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위해 10분위 수를 활용함. 이 때 상위 10%는 ‘우수’, 상위 20~30%는 ‘양호’, 상위 40~60%는 ‘보통’, 하위 30~40%는 ‘미흡’, 하위 10~20%는 ‘위험’으로 구분함
- [2단계 :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정보] 은퇴준비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된 개인이 응답한 6대 영역 가중치를 보여주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보여줌
- [3단계 : 영역별 진단 결과] 6대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점수와 수준, 영역별 하위영역의 균형성 판단 결과를 보여줌
 - 2단계는 은퇴준비 영역별 점수를 우선 제시한 후 4분위수를 이용하여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균형성을 판단하는 등 자세한 진단결과 및 정보를 제공함
 - 전체 6대 영역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현함. 하위영역 모

두 평균 이상인 경우 ‘양호-균형’, 하위영역 2~3개가 평균 이상인 경우 ‘보통-불균형’, 하위영역 1개가 평균 이상인 경우 ‘미흡-불균형’, 하위영역 모두 평균 미만인 경우 ‘위험’으로 판단함

- [4단계 : 영역별 진단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각 영역별 하위영역에 대한 진단 결과 및 균형성, 취약한 부분의 은퇴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 추가적으로 진단결과 저장 및 이메일 발송 방법을 안내하는 화면을 출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이 추가될 수 있음

1) 1단계 : 종합점수를 통한 은퇴준비수준 판단

- 자가진단을 마친 공무원은 “자가진단 결과보기”를 눌러 자신의 진단결과를 볼 수 있음. 이때의 첫 번째 화면은 자가진단 종합점수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값에 대한 진단결과를 보여주게 됨. 종합점수 산출 로직 및 제시문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제시값은 개별 종합점수로 진단결과 산출된 종합점수(RRS)의 값을 보여줌
- 두 번째 제시값은 개별 종합점수와 본조사를 통해 산출된 평균과의 비교를 하는 정보로, 평균과 같은 경우, 평균보다 높은 경우, 평균보다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문이 출력됨
 - 개인 RRS가 평균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과의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낮거나 높다는 메시지를 함께 출력함
- 세 번째 제시값은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한 은퇴준비 수준을 판단한 정보로, RRS를 기준으로 10분위수에 의해 위험/미흡/보통/양호/우수 로 판단한 결과를 보여줌
 - 판단 기준은 <표 5-1> 참고

<표 6-8> 자가진단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로직 및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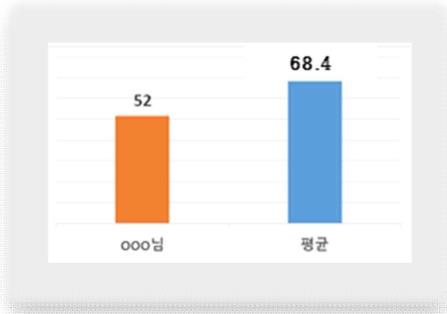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개인 종합점수	= RRS	귀하의 6대 영역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는 { RRS } 점으로	

<p>평균과의 비교</p>	<p>IF RRS = 68.4 IF RRS > 68.4 IF RRS < 68.4</p>	<p>평균과 동일한 점수입니다. 평균에 비해 { <i>RRS - 68.4</i> } 점 높은 점수입니다. 평균에 비해 { <i>68.4 - RRS</i> } 점 낮은 점수입니다.</p>	<p>68.4 = 평균</p>
<p>종합점수 수준 판단</p>	<p>IF RRS < 56.0</p>	<p>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 <i>위험한</i> } 수준에 해당합니다. → ‘설명’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 퇴준비 종합점수가 하위 10~20%에 속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 터라도 은퇴준비를 위한 철저한 계획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p>	<p>은퇴준비 종합점수 하위 10~20%</p>
	<p>else IF RRS < 66.2</p>	<p>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 <i>미흡한</i> } 수준에 해당합니다. → ‘설명’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 퇴준비 종합점수가 하위 30~40%에 속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더욱 관심 을 가져주세요.</p>	<p>은퇴준비 종합점수 하위 30~40%</p>
	<p>else IF RRS < 73.7</p>	<p>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 <i>보통의</i> } 수준에 해당합니다. → ‘설명’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 퇴준비 종합점수가 상위 40~60%에 속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에 더 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은퇴준비 종합점수 상위 40~60%</p>
	<p>else IF RRS < 80.7</p>	<p>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 <i>양호한</i> } 수준에 해당합니다. → ‘설명’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 퇴준비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속하</p>	<p>은퇴준비 종합점수 상위 20~30%</p>

		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else	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 우수한 } 수준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퇴준비 종합점수가 상위 10%에 속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은퇴생활을 위한 준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은퇴준비 종합점수 상위 10%
종합점수 그래프	평균 = 68.4 ooo님 = RRS	막대그래프로 제시	

<출력화면 예시>

귀하의 6대 영역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는 **52.2점**으로, 평균에 비해 **16.2점 낮은** 점수입니다.
이러한 점수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위험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결과 설명>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은퇴준비 종합점수가 하위 10~20%에 속하는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준비를 위한 철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영역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산출된 점수이며, 평균점수는 예비은퇴공무원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다시 진단하기
다음 (종합진단 점수 자세히보기) ▶

2) 2단계 :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정보

- 첫 번째 화면에서 “종합점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종합점수가 산출되는데 사용된 개인의 영역별 가중치를 보여주고, 각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은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줌
- 특히 어느 한 영역에 대해 가중치를 0을 둔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잠깐! OO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영역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줌

<표 6-9> 종합점수 자세히 보기 화면을 위한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개인 종합점수	= RRS	귀하의 은퇴준비 종합점수 { RRS } 점은 귀하가 6대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된 점수입니다.																												
영역별 점수와 영역별 중요도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건강관리</th> <th>대인관계</th> <th>주거계획</th> <th>여가활동</th> <th>일</th> <th>재무관리</th> </tr> </thead> <tbody> <tr> <td>점수(100점)</td> <td>{A401}</td> <td>{B401}</td> <td>{C401}</td> <td>{D401}</td> <td>{E401}</td> <td>{F401}</td> </tr> <tr> <td>중요도</td> <td>{A0}</td> <td>{B0}</td> <td>{C0}</td> <td>{D0}</td> <td>{E0}</td> <td>{F0}</td> </tr> <tr> <td>은퇴준비종합점수</td> <td colspan="6">{RRS}</td> </tr> </tbody> </table>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계획	여가활동	일	재무관리	점수(100점)	{A401}	{B401}	{C401}	{D401}	{E401}	{F401}	중요도	{A0}	{B0}	{C0}	{D0}	{E0}	{F0}	은퇴준비종합점수	{RRS}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계획	여가활동	일	재무관리																								
점수(100점)	{A401}	{B401}	{C401}	{D401}	{E401}	{F401}																								
중요도	{A0}	{B0}	{C0}	{D0}	{E0}	{F0}																								
은퇴준비종합점수	{RRS}																													
균형잡힌 은퇴준비 필요성 메시지 출력		은퇴 후 생활은 어느 한 영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영역별 균형 잡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치를 두지 않는 영역에 대한 준비 필요성 제시	IF A0 = 0	<p>* 잠깐!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변화는 물론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비 은퇴공무원들은 은퇴 후 생활과 관련된 6대 영역 중 건강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평균 37%로 부여하였습니다. 은퇴기의 인생단계에서는 신체적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체적 노화는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켜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인활동, 여가활동, 재무관리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건강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IF B0 = 0	<p>* 잠깐!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기에는 직장생활을 마감하면서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관계형성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이미 은퇴하신 많은 분들은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등 대인관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p>
IF C0 = 0	<p>* 잠깐! 주거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 후에는 외부활동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주거공간은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신체의 노화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집안을 수리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관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등 노인 생활에 적합한 주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 주거공간을 바꾸거나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p>
IF D0 = 0	<p>* 잠깐!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 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던 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료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여행이나 운동과 같은 레저형 여가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도 포함됩니다. 은퇴 후 여가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은퇴 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여가활동을 동반자와 함께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은퇴 후 여가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p>
IF E0 = 0	<p>* 잠깐! 일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 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이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 또는 길어진 노후를 즐기기 위한 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실 생각이 없다면 여가활동을 통해 여유로워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자기개발이나 가치실현,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시고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준비 없이 시작하는 일은 생활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p>

IF E0 = 0	<p>* 잠깐! 재무관리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p> <p>은퇴 후 재무관리는 단순히 노후자금이 충분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적든 모아둔 은퇴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나의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산이 있다면 그 금액도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와 별도로 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재무관리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p>
-----------	---

<출력화면 예시>

귀하의 은퇴준비 종합점수 **52.2점**은
귀하가 6대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된 점수입니다.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계획	여가활동	일	재무관리
점수(100점)	67.8	45.0	60.0	45.0	40.0	52.2
중요도	30%	20%	0%	20%	15%	15%
은퇴준비 종합점수	52.2					

은퇴 후 생활은 어느 한 영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영역별 균형 잡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잠깐! 주거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도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 주거공간은 외부활동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신체의 노화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집을 수리하고 집안의 구조를 바꾸거나 관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등 노인 생활에 적합한 주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 주거공간을 바꾸거나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다시 진단하기

다음 (영역별 진단결과) ▶

3) 3단계 : 영역별 진단 결과

- “영역별 진단결과”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으로, 6대 영역별 점수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및 하위영역 균형성 진단결과를 보여줌
-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은 영역별 점수의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상위 25%에서 하위 25% 까지 4등급의 준비수준으로 구분하고, 상/중상/중하/하 로 판단한 결과를 제시함
 -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을 위한 로직은 다음과 같음(판단 기준 <표 5-3> 참고)

<표 6-10>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 판단 로직

구분	번호	로직	비고
건강관리	A501	=IF(A401<68.9,“하”,IF(A401<75.6,“중하”,IF(A401<82.2,“중상”,“상”)))	A401 : 건강관리 영역 점수
대인관계	B501	=IF(B401<45.0,“하”,IF(B401<54.6,“중하”,IF(B401<63.3,“중상”,“상”)))	B401 : 대인관계 영역 점수
주거	C501	=IF(C401<70.0,“하”,IF(C401<80.0,“중하”,IF(C401<83.3,“중상”,“상”)))	C401 : 주거 영역 점수
여가활동	D501	=IF(D401<55.0,“하”,IF(D401<65.0,“중하”,IF(D401<77.5,“중상”,“상”)))	D401 : 여가활동 영역 점수
일	E501	=IF(E401<40.0,“하”,IF(E401<60.0,“중하”,IF(E401<73.3,“중상”,“상”)))	E401 : 일 영역 점수
재무관리	F501	=IF(F401<63.3,“하”,IF(F401<71.1,“중하”,IF(F401<78.9,“중상”,“상”)))	F401 : 재무관리 영역 점수

- 하위영역 균형성은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해 동일 연령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여부를 판단한 후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의 수를 이용하여 균형성을 판단한 결과로, 양호-균형/보통-불균형/미흡-불균형/위험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각 영역의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을 위한 로직은 다음과 같음(판단 기준 <표 5-5> 참고)

<표 6-11> 영역별 하위영역의 균형성 판단 로직

구분	번호	로직	비고	
기본정보 : 연령대				
연령대	P101	=IF(P1<45,1,IF(P1<50,2,IF(P1<55,3,4)))	P1 : 개인연령	
1단계 : 각 영역 하위영역의 평균 초과여부 판단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A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A301>68.3,1,0) =IF(A301>71.6,1,0) =IF(A301>73.9,1,0) =IF(A301>73.5,1,0)	A301 : 일상생활관리 점수
	질병관리 A602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A302>89.4,1,0) =IF(A302>89.1,1,0) =IF(A302>87.4,1,0) =IF(A302>83.7,1,0)	A302 : 질병관리 점수
	정신건강관리 A603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A303>59.8,1,0) =IF(A303>63.5,1,0) =IF(A303>64.6,1,0) =IF(A303>65.5,1,0)	A303 : 정신건강관리 점수
대인관계	부모 B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B301>59.1,1,0) =IF(B301>61.5,1,0) =IF(B301>65.8,1,0) =IF(B301>65.1,1,0)	B301 : 부모와의 관계 점수
	자녀 B602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B301>57.8,1,0) =IF(B301>62.8,1,0) =IF(B301>64.6,1,0) =IF(B301>65.0,1,0)	B302 : 자녀와의 관계 점수
	가족이외 B603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B302>55.4,1,0) =IF(B302>55.9,1,0) =IF(B302>57.3,1,0) =IF(B302>57.5,1,0)	B303 : 가족이외와의 관계 점수
	정서적지지도 B604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B304>31.5,1,0) =IF(B304>30.7,1,0) =IF(B304>31.4,1,0) =IF(B304>30.2,1,0)	B304 : 정서적지지도 점수
주거	주거환경 C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C301>74.4,1,0) =IF(C301>74.5,1,0) =IF(C301>77.4,1,0) =IF(C301>76.3,1,0)	C301 : 주거환경 점수
	주거안정 C602	IF P101=1 IF P101=2	=IF(C302>74.5,1,0) =IF(C302>75.6,1,0)	C302 : 주거안정 점수

			IF P101=3 IF P101=4	=IF(C302>77.5,1,0) =IF(C302>76.3,1,0)	
	주거계획	C603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C303>76.9,1,0) =IF(C303>78.6,1,0) =IF(C303>80.7,1,0) =IF(C303>79.7,1,0)	C303 : 주거계획 점수
여 가 활 동	여가활동 지속성	D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D301>60.7,1,0) =IF(D301>61.3,1,0) =IF(D301>65.01,0) =IF(D301>66.2,1,0)	D301 : 여가활동 지속성 점수
	여가비용 관리	D602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D302>60.5,1,0) =IF(D302>61.0,1,0) =IF(D302>67.1,1,0) =IF(D302>68.3,1,0)	D302 : 여가비용관리 점수
	동반자 관리	D603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D303>59.6,1,0) =IF(D303>59.6,1,0) =IF(D303>65.8,1,0) =IF(D303>65.9,1,0)	D303 : 동반자 관리 점수
	여가활동 정보활용	D604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D304>57.4,1,0) =IF(D304>59.6,1,0) =IF(D304>65.0,1,0) =IF(D304>66.9,1,0)	D303 : 여가활동 정보활용 점수
일	역량관리	E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E301>56.0,1,0) =IF(E301>56.6,1,0) =IF(E301>58.3,1,0) =IF(E301>59.8,1,0)	E301 : 역량관리 점수
	취업 정보활용	E602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E302>55.8,1,0) =IF(E302>57.8,1,0) =IF(E302>59.3,1,0) =IF(E302>61.7,1,0)	E302 : 취업정보활용 점수
	프로그램 참여	E603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E303>54.8,1,0) =IF(E303>54.8,1,0) =IF(E303>57.1,1,0) =IF(E303>58.4,1,0)	E303 : 프로그램 참여 점수
재 무 설 계	현금흐름 관리	E601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 P101=4	=IF(F301>60.5,1,0) =IF(F301>59.6,1,0) =IF(F301>63.5,1,0) =IF(F301>63.9,1,0)	F301 : 현금흐름 관리 점수
	자산부채 관리	F602	IF P101=1 IF P101=2 IF P101=3	=IF(F302>73.2,1,0) =IF(F302>69.6,1,0) =IF(F302>71.8,1,0)	F302 : 자산부채관리 점수

		IF P101=4	=IF(F302>72.6,1,0)	
노후자금 준비	F603	IF P101=1	=IF(F303>73.1,1,0)	F303 : 노후자금준비 점수
		IF P101=2	=IF(F303>76.7,1,0)	
		IF P101=3	=IF(F303>78.7,1,0)	
		IF P101=4	=IF(F303>78.7,1,0)	

2단계 : 각 영역별 평균초과 하위영역 개수

건강관리	A701	=SUM(A601:A603)	
대인관계	B701	=SUM(B601:B604)	
주거	C701	=SUM(C601:C603)	
여가활동	D701	=SUM(D601:D604)	
일	E701	=SUM(E601:E603)	
재무설계	F701	=SUM(F601:F603)	

3단계 : 각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

건강관리	A801	=IF(A701=3,“양호-균형”,IF(A701=2,“보통-불균형”,IF(A701=1,“미흡-불균형”,“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균형 : 모두 평균 이상인 경우 • 보통-불균형 :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이 2개(하위영역 4개인 경우는 2~3개)인 경우 • 미흡-불균형 :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이 1개인 경우 • 위험 : 평균을 넘는 하위영역이 0개인 경우
대인관계	B801	=IF(B701=4,“양호-균형”,IF(B701>=2,“보통-불균형”,IF(B701=1,“미흡-불균형”,“위험”)))	
주거	C801	=IF(C701=3,“양호-균형”,IF(C701=2,“보통-불균형”,IF(C701=1,“미흡-불균형”,“위험”)))	
여가활동	D801	=IF(D701=4,“양호-균형”,IF(D701>=2,“보통-불균형”,IF(D701=1,“미흡-불균형”,“위험”)))	
일	E801	=IF(E701=3,“양호-균형”,IF(E701=2,“보통-불균형”,IF(E701=1,“미흡-불균형”,“위험”)))	
재무설계	F801	=IF(F701=3,“양호-균형”,IF(F701=2,“보통-불균형”,IF(F701=1,“미흡-불균형”,“위험”)))	

- 영역별 점수, 영역 점수의 수준, 하위영역 균형성 판단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제시하고, 표 아래에 개인의 영역별 점수와 전체 평균을 이용하여 방사형 그래프를 제시함. 이를 통해 개인별 6대 영역의 균형 잡힌 은퇴준비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평균과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함

<표 6-12> 영역별 진단 결과 화면의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및 제시문	
결과제시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계획	귀하의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OO점입니다. 종합점수는 6대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건강관리영역의 은퇴준비는 OO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p>여가활동 일 재무관리</p>	<p>수준이고, 대인관계 영역은 00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입니다. 주거계획 영역은 00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이고, 여가활동 영역은 00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입니다. 일 영역은 00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이고, 재무관리 영역은 00점으로 {상, 중상, 중하, 하} 수준입니다.</p> <p>영역별로 치우침 없이 준비하는 것은 전체 은퇴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영역 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영역간 균형잡힌 준비가 필요한 이유 ▶</div> 클릭하면 <표 6-12>를 보여줌 </div>																																					
<p>결과 표 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점수</th> <th>은퇴준비수준</th> <th>하위영역 균형성</th> <th></th> </tr> </thead> <tbody> <tr> <td>건강관리</td> <td>{A401}</td> <td>{A501}</td> <td>{A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r> <td>대인관계</td> <td>{B401}</td> <td>{B501}</td> <td>{B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r> <td>주거계획</td> <td>{C401}</td> <td>{C501}</td> <td>{C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r> <td>여가활동</td> <td>{D401}</td> <td>{D501}</td> <td>{D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r> <td>일</td> <td>{E401}</td> <td>{E501}</td> <td>{E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r> <td>재무관리</td> <td>{F401}</td> <td>{F501}</td> <td>{F801}</td> <td>자세히 보기</td> </tr> </tbody> </table>					점수	은퇴준비수준	하위영역 균형성		건강관리	{A401}	{A501}	{A801}	자세히 보기	대인관계	{B401}	{B501}	{B801}	자세히 보기	주거계획	{C401}	{C501}	{C801}	자세히 보기	여가활동	{D401}	{D501}	{D801}	자세히 보기	일	{E401}	{E501}	{E801}	자세히 보기	재무관리	{F401}	{F501}	{F801}	자세히 보기
	점수	은퇴준비수준	하위영역 균형성																																				
건강관리	{A401}	{A501}	{A801}	자세히 보기																																			
대인관계	{B401}	{B501}	{B801}	자세히 보기																																			
주거계획	{C401}	{C501}	{C801}	자세히 보기																																			
여가활동	{D401}	{D501}	{D801}	자세히 보기																																			
일	{E401}	{E501}	{E801}	자세히 보기																																			
재무관리	{F401}	{F501}	{F801}	자세히 보기																																			
<p>영역별 점수와 평균 비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평균</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건강관리</td> <td>74.9</td> <td>{A401}</td> </tr> <tr> <td>대인관계</td> <td>53.8</td> <td>{B401}</td> </tr> <tr> <td>주거계획</td> <td>77.2</td> <td>{C401}</td> </tr> <tr> <td>여가활동</td> <td>64.3</td> <td>{D401}</td> </tr> <tr> <td>일</td> <td>58.3</td> <td>{E401}</td> </tr> <tr> <td>재무관리</td> <td>70.7</td> <td>{F401}</td> </tr> </tbody> </table>			평균	점수	건강관리	74.9	{A401}	대인관계	53.8	{B401}	주거계획	77.2	{C401}	여가활동	64.3	{D401}	일	58.3	{E401}	재무관리	70.7	{F401}	<p>방사형 그래프로 제시 -평균 : 점선 -A401~F401 : 실선</p> <p>* 평균 테이블은 보이지 않음</p>															
	평균	점수																																					
건강관리	74.9	{A401}																																					
대인관계	53.8	{B401}																																					
주거계획	77.2	{C401}																																					
여가활동	64.3	{D401}																																					
일	58.3	{E401}																																					
재무관리	70.7	{F401}																																					

□ 영역 간 균형 잡힌 은퇴준비가 필요한 이유(영역간 균형잡힌 준비가 필요한 이유 ▶)를 보기 위해 클릭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팝업창으로 제시하여 줌6)

6) 제시된 그림 사용 시 저작권 문제 발생가능성 있어 삭제 또는 개발하여 사용 필요함

<표 6-13> 영역 간 균형 잡힌 은퇴준비가 필요한 이유

<p>건강관리</p> 	<p>은퇴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공무원들은 은퇴 후 생활과 관련된 영역 중 건강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37%를 부여하였습니다. 은퇴기는 노화를 수반하는 인생단계이기 때문에 신체적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노화는 우울감으로 이어지거나 대인활동, 여가활동, 재무관리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p>
<p>대인관계</p> 	<p>은퇴 후 직장생활을 마감하면서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주로 관계가 형성되는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대인관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은퇴 후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주거</p> 	<p>은퇴 후 주거공간은 외부활동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직후에는 신체의 노화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집안의 구조를 바꾸거나 관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이전 또는 수리를 하는 등 노인 생활에 적합한 주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 주거공간을 바꾸거나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p>
<p>여가활동</p>	<p>은퇴 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던 시간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료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여가활동이라고 하</p>



면 여행이나 운동과 같은 레저형 여가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은퇴 후 여가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은퇴 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여가활동을 동반자와 함께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은퇴 후 여가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은퇴 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이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 또는 길어진 노후를 즐기기 위한 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실 생각이 없다면 여가활동을 통해 여유로워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자기개발이나 가치실현,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시고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준비 없이 시작하는 일은 생활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관리



은퇴 후 재무관리는 단순히 노후자금이 충분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적든 모아둔 은퇴자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나의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산이 있다면 그 금액도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와 별도로 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재무관리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력화면 예시>

귀하의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52.2점**입니다.

종합점수는 6대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건강관리 영역의 은퇴준비는 **67.8점**으로 { 하 } 수준이고, 대인관계 영역은 **45.0점**으로 { 중하 } 수준입니다. 주거 영역은 **60.0점**으로 { 하 } 수준이고, 여가활동 영역은 **45.0점**으로 { 하 } 수준입니다. 일 영역은 **40.0점**으로 { 하 } 수준이고, 재무관리 영역은 **52.2점**으로 { 하 } 수준입니다.

영역별로 치우침 없이 준비하는 것은 전체 은퇴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영역 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역 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한 이유 ▶

	점수	은퇴준비수준	하위영역 균형성	
건강관리	67.8	하	미흡-불균형	자세히 보기
대인관계	45.0	중하	보통-불균형	자세히 보기
주거계획	60.0	하	미흡-불균형	자세히 보기
여가활동	45.0	하	위험	자세히 보기
일	40.0	중하	위험	자세히 보기
재무관리	52.2	하	위험	자세히 보기



* 영역별 은퇴준비수준은 예비은퇴공무원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준입니다.

◀ 다시 진단하기

영역별 진단결과 자세히 보기 ▶

4) 4단계 : 영역별 진단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 진단 결과 제시 표에서 하위영역에 대한 개인별 점수와 은퇴준비수준, 하위영역 균형성을 각각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자세한 진단결과를 제시함
- 진단결과 자세히 보기에서는 은퇴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하위영역별 관리에 대한 평가의 개인별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함. 또한 해당 영역에 대해 스스로 진단한 결과를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1) 건강관리 영역

<표 6-14> 건강관리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A1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101 if A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A1 =2, 중요하지 않다 if A1 =3, 보통이다 if A1 =4, 중요하다 if A1 =5, 매우 중요하다
A2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102 if A2 =1, 전혀 못하고 있다 if A2 =2, 못하고 있는 편이다 if A2 =3, 보통이다 if A2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if A2 =5, 매우 잘하고 있다

<표 6-15>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구분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A101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 A101 } 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에는 건강에 대한 관리를 { A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A102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A101=5 if A101=4 if A101=3 if A101=2 if A101=1	😊😊 😊 😐 😞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A102=5 if A102=4 if A102=3 if A102=2 if A102=1	😊😊 😊 😐 😞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 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화면출력 예시>7)

{ 건강관리 } 영역

< 은퇴준비에 대한 중요도 인식 - 관리에 대한 평가 차이 >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에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은퇴 후 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중요도 😊😊
-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실천도 😊

전반적 건강관리상태

7) 모든 영역 동일한 방식이므로 출력예시는 건강관리 영역에 대해서만 제시함

- 건강관리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출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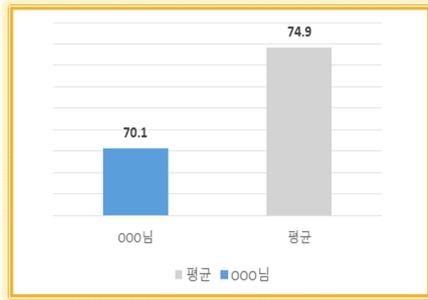
<표 6-16>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A401 = 상위 25%	<p>귀하의 건강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A401 } 점으로, 건강관리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판단 기준값 <표 5-3> 참고
	if A401 = 상위 50%	<p>귀하의 건강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A401 } 점으로, 건강관리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A401 = 하위 50%	<p>귀하의 건강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A401 } 점으로, 건강관리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A401 = 하위 25%	<p>귀하의 건강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A401 } 점으로, 건강관리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평균과 비교 그래프	평균 = 74.8 A401	막대그래프 출력
하위영역의 균형성	A801	귀하의 건강관리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A801}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A301 A302 A303	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 * 건강관리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
	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	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
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	일상생활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질병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정신건강 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하위영역 가이드 정보	일상생활관리	<p>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p> <p>첫째,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등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계절식품을 많이 먹고,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한 가지 반찬보다는 여러 반찬으로 식탁을 구성하고, 가족의 기호를 고려하되 식품의 중복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시 가공식품의 사용은 최소화하여 콜레스테롤은 적게, 과일 채소의 섭취량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p> <p>둘째, 운동경력, 병력,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함으로써 체질량 지수를 정상범위 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맨손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요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p> <p>셋째,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양치를 하고 치실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제거하는 등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의 치태와 음식물을 제거해 풍치 등을 막는데 유용합니다. 풍치는 당뇨병과 뇌졸중,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까지 2차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검진을 통해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p> <p>넷째,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연령일수록 수면 장애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날</p>

		<p>몸을 쉽게 지치게 하고 예민한 하루를 보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가능한 낮잠 자는 것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을 하여 일정한 패턴에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가볍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p> <p>다섯째, 흡연은 심장병, 폐암, 기관지염 등 만병의 원인이므로 금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금연을 시도할 엄두가 안 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 프로그램(흡연자인 국민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여섯째,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신체적 질병은 물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을 평생 마시고 싶다면 '절주'와 '적정음주'를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p>														
	질병관리	<p>건강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질병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의 쇠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청력 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평소 TV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거나 일상 대화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병원 중 수검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스트레스 관리	<p>건강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p> <p>첫째, 복식 호흡이나 심호흡, 근육이완법,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호흡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차분해지기 마련입니다.</p> <p>둘째,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 반드시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십시오.</p> <p>셋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있으므로 찾아보기를 권합니다.</p>														
BMI	A102 A103	<table border="1" data-bbox="571 1632 1177 1886"> <thead> <tr> <th>귀하의 BMI</th> <th>판단</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A102 }</td> <td>저체중</td> <td>20 이하</td> </tr> <tr> <td>정상</td> <td>20~25</td> </tr> <tr> <td>과체중</td> <td>26~30</td> </tr> <tr> <td>비만</td> <td>30~40</td> </tr> <tr> <td>고도비만</td> <td>40.1 이상</td> </tr> </tbody> </table> <p>귀하의 체질량지수는 { A102 } 로 { 정상 }에 해당합니다. 꾸준한 체중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바랍니다.</p>	귀하의 BMI	판단	기준	{ A102 }	저체중	20 이하	정상	20~25	과체중	26~30	비만	30~40	고도비만	40.1 이상
귀하의 BMI	판단	기준														
{ A102 }	저체중	20 이하														
	정상	20~25														
	과체중	26~30														
	비만	30~40														
	고도비만	40.1 이상														

귀하의 **건강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67.8점**으로, 건강관리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하**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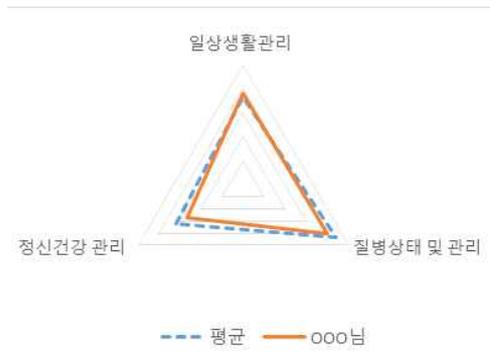


(판단 기준 설명 보기)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위영역의 균형성>

귀하의 **건강관리**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보통 - 불균형”**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를 위한 Tips! >

일상생활관리

Tip	000님	평균
흡연	6.0	7.0
수면	6.8	8.0
음주	4.0	7.0
운동	8.9	10.0
규칙적인 운동	6.7	10.0
건강한 식생활	8.0	7.2

일상생활관리 방법 확인하기

<화면출력 예시> 8)

8) 모든 영역 동일한 방식이므로 출력예시는 건강관리 영역에 대해서만 제시함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등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계절식품을 많이 먹고,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한 가지 반찬보다는 여러 반찬으로 식탁을 구성하고, 가족의 기호를 고려하되 식품의 중복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시 가공식품의 사용은 최소화하여 콜레스테롤은 적게, 과일 채소의 섭취량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동경력, 병력,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함으로써 체질량 지수를 정상범위 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맨손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요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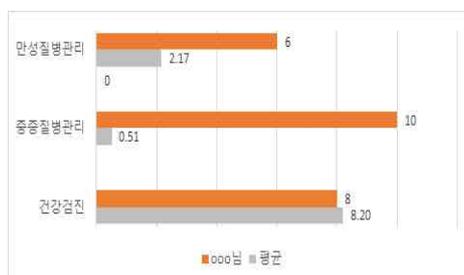
셋째,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양치를 하고 치실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제거하는 등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의 치태와 음식물을 제거해 풍치 등을 막는데 유용합니다. 풍치는 당뇨병과 뇌졸중,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까지 2차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검진을 통해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연령일수록 수면 장애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날 몸을 쉽게 지치게 하고 예민한 하루를 보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가능한 낮잠 자는 것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을 하여 일정한 패턴에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가볍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흡연은 심장병, 폐암, 기관지염 등 만병의 원인이므로 금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금연을 시도할 엄두가 안 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 프로그램(흡연자인 국민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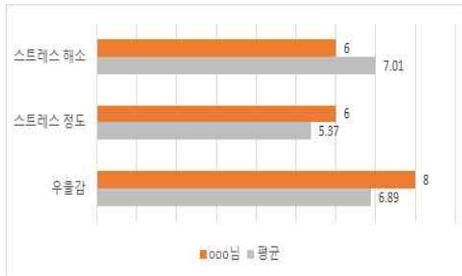
여섯째,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신체적 질병은 물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을 평생 마시고 싶다면 '절주'와 '적정음주'를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질
병
관
리



질병관리 방법 확인하기

건강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질병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의 쇠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청력 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 평소 TV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거나 일상 대화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병원 중 수검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방법 확인하기

정신건강 관리

건강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첫째, 복식 호흡이나 심호흡, 근육이완법,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호흡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차분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 반드시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셋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있으므로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BMI 지수]

귀하의 BMI	판단	기준	귀하의 체질량지수는 24.5 로 정상 에 해당합니다. 꾸준한 체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24.5	저체중	20 이하	
	정상	20~25	
	과체중	26~30	
	비만	30~40	
	고도비만	40.1 이상	

(2) 대인관계 영역

<표 6-17> 대인관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B1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01 if B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B1 =2, 중요하지 않다 if B1 =3, 보통이다 if B1 =4, 중요하다 if B1 =5, 매우 중요하다
B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02 if B2 =1, 전혀 못하고 있다 if B2 =2, 못하고 있는 편이다 if B2 =3, 보통이다 if B2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if B2 =5, 매우 잘하고 있다

<표 6-17>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구분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B101 B102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 관리가 { B101 } 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관리를 { B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기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B101=5 if B101=4 if B101=3 if B101=2 if B101=1	😊😊 😊 😐 😞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B102=5 if B102=4 if B102=3 if B102=2 if B102=1	😊😊 😊 😐 😞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 대인관계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 출력함

<표 6-18>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B401 = 상위 25%	<p>귀하의 대인관계 영역 준비 점수는 { B401 } 점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판단 기준값 <표 5-3> 참고
	if B401 = 상위 50%	<p>귀하의 대인관계 영역 준비 점수는 { B401 } 점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B401 = 하위 50%	<p>귀하의 대인관계 영역 준비 점수는 { B401 } 점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사회적관계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B401 = 하위 25%	<p>귀하의 대인관계 영역 준비 점수는 { B401 } 점으로, 대인관계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사회적관계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평균과 비교 그래프	평균 = 53.8 B401	막대그래프 출력
하위영역의 균형성	B801	귀하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B801} 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B301 B302 B303 B304	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 * 대인관계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
하위영역 포함 각 문항의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	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
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은퇴생활에서 중요한 이유 → 클릭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하는 방법 확인하기 → 클릭 자녀와의 관계가 은퇴생활에서 중요한 이유 → 클릭 자녀와의 관계 향상하는 방법 확인하기 → 클릭 가족 이외와의 관계가 은퇴생활에서 중요한 이유 → 클릭 가족 이외와의 관계 향상하는 방법 확인하기 → 클릭 정신적 교류 관계 향상하는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하위영역 가이드 정보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소개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해야 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물러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성할지 고려하는 것은 은퇴준비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증진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신혼 때처럼 서로에 대해 탐색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후 30년 이상을 서로 다른 직장 또는 가정에서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해온 남편과 아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자에 대해 가졌던 틀을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대화의 물고름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p>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먼저 배우자에게 말에 경청하고 대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시간을 정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배우자와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p> <p>셋째, 배우자의 개인공간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일정 시간은 배우자와 함께 취미활동을 하여 유대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부부는 집에서 공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개인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p>
	<p>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p>	<p>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닌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p>
	<p>자녀와의 관계증진</p>	<p>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p> <p>첫째, 성인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과 자녀가 내 마음에 응하는 건 별개'라는 말이 있듯이 독립적으로 성인자녀를 대하여야 더욱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둘째,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와 자녀지원에 합리적으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성인자녀 또한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p> <p>셋째, 성인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는 협의 하에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도 자녀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자녀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가족 이외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소개</p>	<p>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으면 은퇴생활이 풍요롭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유일무이한 존재들로 은퇴 후 심리적인 지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p> <p>또한 은퇴 후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CEO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30년 동안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면서 잊고 지냈던 자아실현을 하고자 할 때, 받는 것보다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살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p>

<p>가족 이외와의 관계증진</p>	<p>은퇴 후 형제자매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p> <p>첫째, 형제자매와 만날 때는 식사, 숙박 등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합니다.</p> <p>둘째, 부모부양과 상속에 관한 문제를 미리 형제자매와 대화함으로써 계획을 세워주세요.</p> <p>셋째, 형제자매의 은퇴생활을 공유하여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나의 은퇴생활을 준비하는데 조언을 얻으세요.</p> <p>또한 은퇴 후 생활에 매우 소중한 친구 및 친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p> <p>첫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p> <p>둘째, 노년기의 친구 관계는 점차 그 폭을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처럼 나와 맞지 않은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대화의 주제에 공감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친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p> <p>셋째, 전공, 전업 등 은퇴 전 했던 일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봉사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세요.</p> <p>넷째,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할 사람, 미워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마음을 나누기 위한 도전을 하세요.</p>
<p>정서적 교류 관계가 중요한 이유</p>	<p>은퇴기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며, 서로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고받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교류는 사회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교류는 노후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은퇴기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p>
<p>정서적 교류 관계 증진</p>	<p>정서적 교류 관계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만한 정서적 교류 관계는 든든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p> <p>첫째, 나의 주위에 정서적 교류 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 봅니다.</p> <p>둘째, 주위에 교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먼저 도와주세요. 호주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477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정서적 교류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p> <p>셋째, 주변에서 나의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찾아 보세요. 지역 주민센터나 커뮤니티를 찾아 나의 교류망을 탄탄하게 하면 노후 생활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p>

(3) 주거 영역

<표 6-19> 주거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C1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101 if C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C1 =2, 중요하지 않다 if C1 =3, 보통이다 if C1 =4, 중요하다 if C1 =5, 매우 중요하다
C2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102 if C2 =1, 전혀 그렇지 않다 if C2 =2, 그렇지 않다 if C2 =3, 보통이다 if C2 =4, 그렇다 if C2 =5, 매우 그렇다

<표 6-20>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구분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C101 C102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 C101 } 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 은퇴 후 주거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 C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거 영역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C101=5 if C101=4 if C101=3 if C101=2 if C101=1	😊😊 😊 😐 😞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C102=5 if C102=4 if C102=3 if C102=2 if C102=1	😊😊 😊 😐 😞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 주거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 출력함

<표 6-21>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C401 = 상위 25%	<p>귀하의 주거 영역 준비 점수는 { C401 } 점으로, 주거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주거계획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거주할 곳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판단 기준값 <표 5-3> 참고
	if C401 = 상위 50%	<p>귀하의 주거 영역 준비 점수는 { C401 } 점으로, 주거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주거계획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거주할 곳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C401 = 하위 50%	<p>귀하의 주거 영역 준비 점수는 { C401 } 점으로, 주거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주거계획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거주할 곳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if C401 = 하위 25%	<p>귀하의 주거 영역 준비 점수는 { C401 } 점으로, 주거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주거계획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거주할 곳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평균과 비교 그래프	평균 = 77.2 C401	막대그래프 출력	
하위영역의 균형성	C801	귀하의 주거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C801} 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C301 C302 C303	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 * 주거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	
하위영역 포함 각 문항의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	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	
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	주거환경의 중요성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주거안정의 중요성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주거계획의 필요성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	
하위영역 가이드 정보	주거환경	은퇴 후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에,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유지 관리 용이성이 각각 어떠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주거지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온도·습도·풍경 등의 자연여건이 적합한지, 간병기에 필요한 의료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안정	은퇴 후에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아무래도 고정수입이 적어지고 지금까지 모아둔 자금을 나누어 생활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거주비용(재산세, 임대료 등)이 적당한 주택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전·월세 등 주거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거주 주택을 생활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와 관련하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험요인은 크지 않지만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계획	<p>은퇴 후 거주 유형과 동반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p> <p>첫째,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게 될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거생활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친구·친척들과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는 주거가 바람직합니다.</p> <p>둘째, 보통 은퇴 후에는 귀촌이나 실버타운 입주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셋째,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할 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부부만 거주하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 동호회 주택 등의 형태도 있습니다.</p>
--	------	--

(4) 여가활동 영역

<표 6-22> 여가활동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D1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101	if D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D1 =2, 중요하지 않다 if D1 =3, 보통이다 if D1 =4, 중요하다 if D1 =5, 매우 중요하다
D2	은퇴 후 늘어날 여윌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102	if D2 =1, 전혀 못하고 있다 if D2 =2, 못하고 있는 편이다 if D2 =3, 보통이다 if D2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if D2 =5, 매우 잘하고 있다

<표 6-23>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구분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D101 D102	<p>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 D101 } 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에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리를 { D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p> <p>여가활동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취미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D101=5	😊😊
	if D101=4	😊
	if D101=3	😐
	if D101=2	😞
	if D101=1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D102=5	😊😊
	if D102=4	😊
	if D102=3	😐
	if D102=2	😞
	if D102=1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 여가활동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 출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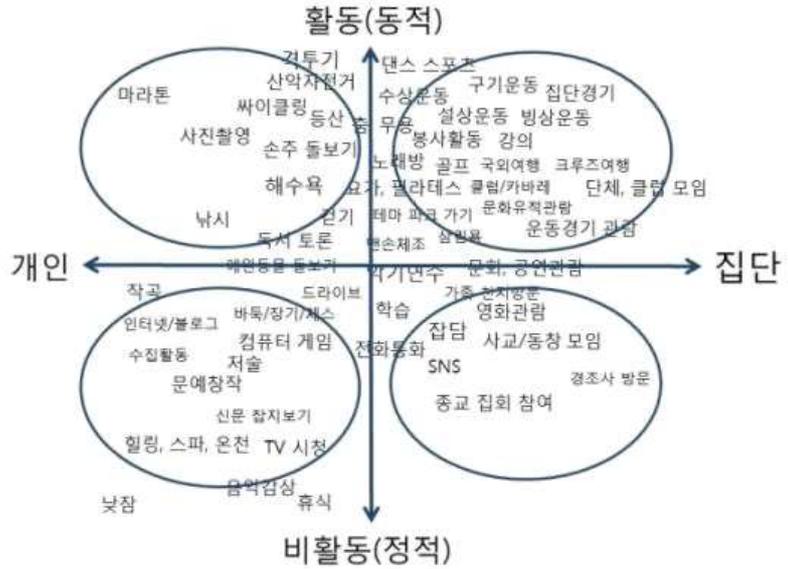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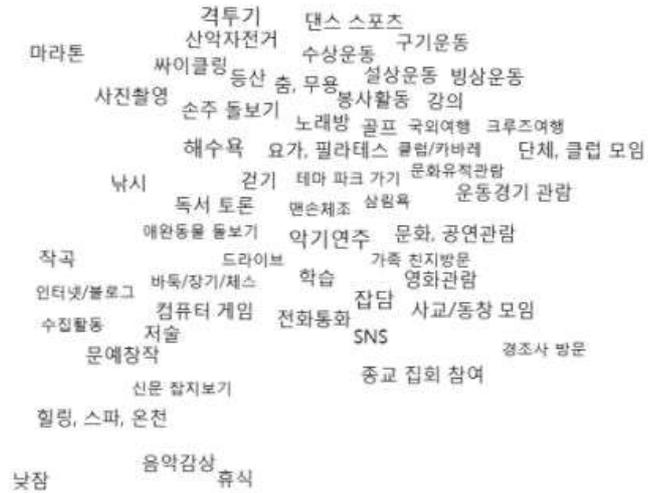
<표 6-24>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D401 = 상위 25%	<p>귀하의 여가활동 영역 준비 점수는 { D401 } 점으로,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취미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판단 기준값 <표 5-3> 참고
	if D401 = 상위 50%	<p>귀하의 여가활동 영역 준비 점수는 { D401 } 점으로,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취미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D401 = 하위 50%</p>	<p>귀하의 여가활동 영역의 준비 점수는 { D401 } 점으로,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여가활동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취미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D401 = 하위 25%</p>	<p>귀하의 여가활동 영역 준비 점수는 { D401 } 점으로, 여가활동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여가활동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취미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평균과 비교 그래프</p>	<p>평균 = 64.3 D401</p>	<p>막대그래프 출력</p>
<p>하위영역의 균형성</p>	<p>D801</p>	<p>귀하의 여가활동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D801}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p>
	<p>D301 D302 D303</p>	<p>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p> <p>* 여가활동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p>
<p>하위영역 포함 각 문항의 점수 평균과의 비교</p>	<p>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p>	<p>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p>
<p>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p>	<p>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p>	<p>여가활동의 지속성 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 여가비용을 관리하는 방법 확인하기 → 클릭 여가활동을 같이 할 동반자 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 유용한 정보활용 방법 확인하기 → 클릭</p>
<p>하위영역 가이드</p>	<p>여가활동 지속성</p>	<p>여가활동의 준비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점검하여 나한테 맞춤형 여가모델을 개발하세요. 여가</p>

활동은 문화예술, 스포츠, 휴식, 사회활동, 관광, 취미 오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인지 집단인지, 활동적인지 비활동적인지에 따라 여가활동의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여가활동까지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정보



여가활동을 꾸준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소 은퇴 3년 전부터는 모으세요. 은퇴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에 이르는 활동 시기에 취미생활이나 국내외 여행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선 은퇴 후 여가활동에 쓸 '은퇴 축하금'을 만들어 놓고 최소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은퇴 축하금은 우리 돈으로 5,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동반자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의 재능을 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V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활용	은퇴 후 여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여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일 영역

<표 6-25> 일 영역 문항 및 산출식-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E1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01	if E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E1 =2, 중요하지 않다 if E1 =3, 보통이다 if E1 =4, 중요하다 if E1 =5, 매우 중요하다
E2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02	if E2 =1, 전혀 못하고 있다 if E2 =2, 못하고 있는 편이다 if E2 =3, 보통이다 if E2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if E2 =5, 매우 잘하고 있다

<표 6-26>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E101 E102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일 영역이 { E101 } 고 생각하고 계시며,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 E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성공적인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E101=5 if E101=4	 

	if E101=3 if E101=2 if E101=1	☹️ ☹️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E102=5 if E102=4 if E102=3 if E102=2 if E102=1	😊😊 😊 ☹️ ☹️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 일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 출력함

<표 6-27>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E401 = 상위 25%	<p>귀하의 일 영역 준비 점수는 { E401 } 점으로, 일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일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판단기준값 <표 5-3> 참고
	if E401 = 상위 50%	<p>귀하의 일 영역 준비 점수는 { E401 } 점으로, 일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일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E401 = 하위 50%</p>	<p>귀하의 일 영역 준비 점수는 { E401 } 점으로, 일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일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E401 = 하위 25%</p>	<p>귀하의 일 영역 준비 점수는 { E401 } 점으로, 일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일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평균과 비교 그래프</p>	<p>평균 = 58.3 E401</p>	<p>막대그래프 출력</p>
<p>하위영역의 균형성</p>	<p>E801</p>	<p>귀하의 일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E801}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p>
	<p>E301 E302 E303 E304</p>	<p>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p> <p>* 일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p>
<p>하위영역 포함 각 문항의 점수 평균과의 비교</p>	<p>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p>	<p>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p>
<p>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p>	<p>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p>	<p>은퇴 후 나의 역량 관리하는 법 확인하기 → 클릭 일 관련 정보 활용하는 법 확인하기 → 클릭 일 관련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확인하기 → 클릭</p>

<p>하위영역 가이드 정보</p>	<p>역량관리</p>	<p>인간의 평균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백세시대를 살면서 50, 60대에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노후’나 ‘은퇴’의 연관 키워드 중 재취업이나 창업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퇴직 공무원들도 재취업이나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첫째, 은퇴 후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갈지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에 따라 일과 관련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적 목적이 아니라더라도 은퇴 후 사회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p> <p>둘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1년 이내 재취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연봉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p> <p>셋째, 은퇴 전 사회적인 위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소개 준비, 관련 서류 구비, 회사와 직무에 대해 파악하세요. 은퇴 후 직업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나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넷째, 경력을 살린 재취업을 할 경우 관련 분야를 열심히 탐색해보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경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미리 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직종 및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세요.</p> <p>다섯째,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을 할 경우 나의 적성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여가가 새로운 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지한 여가’의 개념으로 접근해보세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p>
	<p>정보활용</p>	<p>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p> <p>첫째,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심리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직업전환검사 등 - 직업정보: 분류별로 찾기, 지식으로 찾기, 업무수행능력으로 찾기 등 - 진로상담: 진로결정 및 취업문제 상담, 진로상담 FAQ, 취업, 진로 길라잡이 등 -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기초직무능력 진단→개인별 경력자산 도출→경력연장을 위한 향후 경력개발 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경력관리 계획 작성을 위한 워크북도 제공

		둘째, 서울시, 부산시의 50플러스 포털에서는 시니어 일자리정보와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p>은퇴 후 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첫째, 고용노동부 성실프로그램 : ‘성(成)공적인 실(silver)버’ 라는 뜻의 성실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준비하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일씩 6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구직기술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p> <p>둘째, 고용노동부 장년인턴사업 : 전국 45세 이상 중장년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p>셋째, 고용노동부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 40세 이상 재직근로자와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쌓아온 경력을 유지, 개발하고 생애경력을 점검하며 퇴직 후의 재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생애경력설계교육입니다.</p> <p>넷째, 고용노동부 신중년 취업성공패키지 : 특화 직업훈련서비스, 신중년적합업무 개발 및 신규고용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p> <p>다섯째, 보건복지부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 65세 이상의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을 제고하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p> <p>여섯째, 서울시, 부산시 50+ :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 정보공유를 제공합니다</p>

(6) 재무설계 영역

<표 6-28> 재무설계 영역 문항 및 산출식_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번호	문항	측정방법	산출식	
F1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101	if F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if F1 =2, 중요하지 않다 if F1 =3, 보통이다 if F1 =4, 중요하다 if F1 =5, 매우 중요하다
F2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102	if F2 =1, 전혀 못하고 있다 if F2 =2, 못하고 있는 편이다 if F2 =3, 보통이다 if F2 =4, 잘하고 있는 편이다 if F2 =5, 매우 잘하고 있다

<표 6-29> 영역별 점수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구분	로직	제시문
영역별 중요도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	F101 F102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재무관리가 { F101 } 고 생각하고 계시며, 평상시에는 재무관리에 대한 관리를 { F102 }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은퇴 후 바람직한 재무관리 습관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인식 캐릭터 표시	if F101=5 if F101=4 if F101=3 if F101=2 if F101=1	😊😊 😊 😐 😞 😞😞
전반적 평가 캐릭터 표시	if F102=5 if F102=4 if F102=3 if F102=2 if F102=1	😊😊 😊 😐 😞 😞😞
매트릭스 화면 출력	개인 응답값	가로축 : 영역별 중요성 인식도 세로축 : 영역별 전반적인 관리 평가 두 축 교차점 : 3점

- 재무관리 영역의 은퇴준비점수 수준 및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성과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출력함

<표 6-30> 영역별 은퇴준비점수 및 하위영역 균형성 결과 해석 로직 및 제시문

구분	로직	제시문	비고
영역별 점수 및 수준	if F401 = 상위 25%	귀하의 재무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F401 } 점으로, 재무관리 영역의 평균보다 높은 { 상 } 수준입니다. →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 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재무관리와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	판단 기준값 <표 5-3> 참고

	<p>if F401 = 상위 50%</p>	<p>귀하의 재무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F401 } 점으로, 재무관리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 중상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가 상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재무관리와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F401 = 하위 50%</p>	<p>귀하의 재무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F401 } 점으로, 재무관리 영역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 중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5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재무관리와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if F401 = 하위 25%</p>	<p>귀하의 재무관리 영역 준비 점수는 { F401 } 점으로, 재무관리 영역의 평균보다 낮은 { 하 } 수준입니다.</p> <p>→ ‘판단 기준 설명보기’ 클릭 시 다음 메시지 제시</p> <p>공무원 집단의 평균과 비교할 때 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 재무관리와 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세요.</p>
<p>평균과 비교 그래프</p>	<p>평균 = 70.7 F401</p>	<p>막대그래프 출력</p>
<p>하위영역의 균형성</p>	<p>F801</p>	<p>귀하의 재무관리 영역에서 하위영역의 균형성은 {F801} 입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준비 방법을 확인하시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p>
	<p>F301 F302 F303</p>	<p>평균과 함께 막대그래프 및 방사형 그래프 출력</p> <p>* 재무관리 영역 하위영역 평균 → <표 5-5>의 “전체” 참고</p>
<p>하위영역 포함 각 문항의 점수 평균과의 비교</p>	<p>해당 문항 : 산출방식 참고 해당 문항의 평균 : <표 4-15> 참고</p>	<p>막대그래프 표시, 막대 끝에 개인 점수 표시</p>

하위영역 점수 평균과의 비교	하위 영역 관리 정보 제시	<p>현금흐름 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p> <p>자산부채 관리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p> <p>은퇴자금준비 방법 확인하기 → 클릭하면 하단 내용 출력</p>
하위영역 가이드 정보	현금흐름관리	<p>재무적 준비의 첫째는 현금흐름 관리입니다.</p> <p>첫째, 한 달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세요. 3개월 이상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염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생활은 이전 소득의 70%-80%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p> <p>둘째, 은퇴 후 생활비는 똑같지 않고 주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은퇴를 막 하고 난 후에는 기존의 소비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다보면 소득에 비하여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기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p>
	자산부채관리	<p>스스로의 자산부채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산부채 상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 치중되어 있다면 소득의 일부를 더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목돈을 연금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을만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을 유독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월세 및 주거비 관련 부채 상황)가 적정한지 고민할 때입니다.</p> <p>둘째,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수용성향을 고려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수명과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예·적금상품의 금리는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점에서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손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불안할 수가 있어서 투자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데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세요.</p>
	은퇴 자금 준비	<p>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두고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길어진 노후에는 재무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도록 합니다.</p> <p>첫째, 공무원연금 및 개인연금 등 자신과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의 예상수령액을 꼭 확인하세요.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저축할 금액을 산정하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언제 연금을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사이트(100lifeplan.fss.or.kr)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우리 가계의</p>

	<p>연금 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p> <p>통합연금포털이란? --> 클릭하면 다음 내용 표시</p> <p>둘째, 은퇴 후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지거나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비상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p>
--	--

5) 마무리 화면

은퇴자금은 기본적으로 3층 연금체계에 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층 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의미하며, 공무원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하나로 합쳐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는 공무원도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되어 여러분 스스로 금액을 납입하고 계좌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은퇴자금인 공무원연금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 연금의 경우 사망 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여 은퇴 후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후 확인가능)

** 현재 조회일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총일시금이 조회되며, 은퇴 시 예상수령액(월)은 2018년 상반기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하기

<https://www.geps.or.kr/landing/civil.jsp>

개인연금은 공무원 연금 이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관리한 후 55세 이후부터 선택에 의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이 다르고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하시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가입한 모든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예상수령액 포함)를 한 눈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필요자금 및 준비자금에 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최초 공인인증서 등록 후 정보수집기간 2~3일 후 확인 가능).

** 공무원연금 연계는 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기

<https://100lifeplan.fss.or.kr>

- 진단결과를 확인하는 마지막 화면에서는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저장방법과 이메일로 받아보는 방법, 직접 인쇄하는 기능을 안내함
- 또한 추가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예정자 교육에 대한 안내 링크를 포함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진단결과 다시 확인하기

 파일저장

 이메일 전송

이메일주소 @ [전송](#)

 인쇄

◆ 은퇴준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공무원들은 은퇴준비 종합점수는 물론 6대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설계지원실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과정을 확인하시고 은퇴준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설계지원실
교육(연수)과정 보러가기 (링크)

제 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의의

- 공무원연금공단의 첫 번째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이며, 6대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첫 번째 은퇴준비 자가진단 도구임
 - 은퇴준비 수준 인식 개선을 위해 6대 영역을 구분하여 포함한 첫 번째 종합 자가진단 도구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현재 복지와 더불어 은퇴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기회가 됨
- 공무원 스스로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강조하는 지표로서, 체계적인 은퇴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일반 국민이 은퇴에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와 퇴직 전 휴일 및 근무시간 보장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은퇴준비에 여유가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은퇴준비가 더욱 중요하므로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으로 공표할 수 있음
 -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으로 은퇴준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함
- 6대 영역별 진단을 포함한 종합적 진단도구로서 공무원의 고유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징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은퇴준비의 영역별 균형을 강조함
 - 영역별 진단결과에 따른 유형화는 전체 및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각 영역별로 준비가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은퇴 후 생활을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와 이를 위한 현재 생활에서의 실천력,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점검 등 은퇴설계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임

- 누구나 쉽게 은퇴준비의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연구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은퇴준비를 하는 공무원은 약 18%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60% 이상이 영역 간 불균형 또는 비이상적인 은퇴준비를 하고 있었음
- 공무원들의 영역별 준비 수준이 높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은퇴설계를 통하여 퇴직 이후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2) 기대효과

-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개시를 통하여 공무원도 은퇴준비가 필요하며,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은퇴준비 자가진단에 따른 종합점수(RRS)를 통해 은퇴준비정도를 인식하도록 하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점수와 준비 수준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은퇴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높이고, 영역 간 균형 있는 준비 정도를 시각화하고 계획 및 실천의지를 강조함
-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함
- 개인별 맞춤형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대상 은퇴준비교육 및 미래설계 교육의 참여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은퇴설계 진단 결과에 따른 가이드 제공 시 공무원연금공단의 교육과정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임

2.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안

1) 공무원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 현재 은퇴준비 실태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음으로써 체계적인 은퇴준비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실행의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결과 제시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균형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여 은퇴 준비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은퇴준비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퇴준비의 필요성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미흡한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전 국민 대상 노후진단서비스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은퇴준비 자가진단 결과 해석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은퇴준비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정보를 연계하여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외 사적연금을 활용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용 및 연금상품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음
 - '17년 7월 26일부터 공무원도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으로 기존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확대됨. 이에 각 금융권에서 공무원 대상 공격적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품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임
 - 또한 재무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3층 연금체계” 중 1층 연금(공적연금)과 2층

연금(퇴직연금)이 분리되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연금공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연금공단의 진단서비스 활용방안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바로 접속하여 누구나 은퇴준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연수 참여자들에게 URL을 이용하여 손쉽게 자가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향후 은퇴준비 유형 분류 결과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비은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 전략 및 성과 향상 전략을 구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변화 방안으로는 6대 영역 모두를 기본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영역별 2~3개의 선택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선택과정 운영 시 여가활동 영역과 재무관리 영역의 경우 취약한 다른 영역이 있는 경우 여가와 재무관리 영역도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영역별 진단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77.2점인 주거 영역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53.7점인 대인관계 영역이었음. 영역별 진단 점수가 가장 낮았던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교육,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 등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교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 영역에서는 은퇴 후 일을 할 생각이 없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진단결과가 낮을 경우 여가활동 영역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두 영역에 대한 진단 및 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일 영역과 여가활동 영역은 시간의 활용을 토대로 하므로 상호연관성을 갖고 교육이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재무 영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상연금수령액 조회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재무 관리 영역 진단결과에 따른 정보제공에 연금소득대체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은퇴 후 예상생활비 대비 공무원연금의 대체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공무원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공무원들의 자기진단 정보를 수집한다면 공무원의 은퇴준비 실태 파악 및 교육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축적된 자기진단 보고서를 활용하여 희망 시 전문가에 의한 은퇴설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자기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유형화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진단 서비스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자기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공무원연금에 관한 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공무원 은퇴준비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 은퇴준비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퇴를 앞둔 예비퇴직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순간부터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4~50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기진단 서비스를 20~30대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공무원으로서 은퇴준비와 관련된 차별성을 찾아 이를 반영한 문항 또는 상담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자기진단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자기진단 결과가 상담으로 연계되어야 함. 본 용역에서 포함한 범위는 자기진단 문항 개발과 진단결과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그 진단결과를 통한 상담연계 방안 및 상담 콘텐츠는 별개의 용역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퇴준비 관련 교육 또는 연수과정이 공무원들의 은퇴준비를 위해 가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결과를 반영한 커리큘럼 및 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자가진단 데이터의 축적과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임
- 자가진단의 목표가 부족한 은퇴준비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통한 전후 비교 등의 변화관리를 위한 지표는 새롭게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함
- 개인이 인지하는 개념과 중요도, 우선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진단 후 교육과정 또는 연수, 상담 등을 종합적 또는 복합적 진단 서비스의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더 바람직할 것임
 -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집단 평균과의 비교 등 계량화된 정보 이외에 각 개인의 취약영역에 대한 복합적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해야 개개인이 자신의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 이상의 제언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가진단 문항이 개발된 이번 용역은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공무원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가진단 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도입
 - 은퇴준비 상담인력 확보와 지속적 교육 및 상담 콘텐츠 개발
 - 은퇴준비 교육 수행과 관련된 변화관리 툴 개발 및 적용
 - 은퇴준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
 - 전 연령대에 맞는 자가진단 지표의 개발 및 보완
 -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과 연계된 재무설계 서비스 툴 개발 및 운영

참고문헌

1. 해외자료

- Cohen, S.,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¹,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3, 3-22.
- Gottlieb, B. H. (1981),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4, Sage Publications.
- Hagerty, M. R., Cummins, R. A., Ferriss, A. L., Land, K., Michalos, A. C., Peterson, M., & Vogel, J.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Housman, J., & Dorman, S. (2005), The Alameda County study: a systematic, chronological review, *Journal of Health Education*, 36(5), 302-308.
- Jeon, G. S., Jang, S. N., & Park, S. (2012),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 and frailty in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16(2), 84-94.
- Kahn, R. L.,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Lawton, N. P. & Nahemow, L. (1973).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2010), *The Metlife Retirement Readiness Index Are Americans Prepared for the Transition?*.

- Munnell, A. H., Webb, A., & Delorme, L. (2006). A new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 Issue in Brief, 48.
- Noone, J. H., Stephens, C., & Alpass, F. (2010). The Process of Retirement Planning Scale (PRePS):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22(3), 520.
- OECD(2015).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 Schoenborn, C. A. (1986), Health habits of US adults, 1985: the " Alameda 7" revisited, Public Health Reports, 101(6), 571.
- Seitsamo, J. (2007), Retirement Transition and Wellbeing - A 16year Longitudinal Study,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 Stebbins, Robert A.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Press.
- Veenhoven, R. (1996), Happy life-expectan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1), 1-58.
- Wellman, B. (1979), The community questio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201-1231.

2. 국내자료

- BRAVO(2017), 균형 잡힌 여가모델을 개발하자, 2017년 10월 23일자.
- HSBC(2011), 2011 한국인의 은퇴보고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KB연구보고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KB노후 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 NH투자증권(2015), 2016년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

- 가용현(20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성호·김경아(2008),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사회보장연구, 24(3), 171-198.
- 강은나·김혜진·정병오(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 고대영(2013), 은퇴공무원과 은퇴예정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의택(2006), 경찰공무원의 노후복지 대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종승(2000), 정년퇴직공무원의 생활실태 및 재취업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혜영(2015), 지방정부 공무원의 노후준비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3), 139~166.
-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 연구·개발.
- 국민연금연구원(2015), 중·고령자 경제생활과 노후준비 실태.
- 김경숙(2006), 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재직 및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2004), 여가활동으로서의 근력강화운동 참가가 노인의 체력,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613-22.
- 김경호(201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여가서비스: 타임스타일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22, 3-25.
- 김금숙(2010), 소방공무원의 노인 이미지와 노후생활준비도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권 2호, 1-38.
- 김순애(2017), 은퇴준비와 은퇴 이후의 생활세계 연구-울산광역시교육청 은퇴공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한국노년학, 24, 169-185.

- 김옥희(2013), 사회적 지지와 동거여부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 234-255.
- 김용진(2013), 개인-환경 적합성 모델을 이용한 노인의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 분석, 주거환경, 11(1), 51-62.
- 김원경(2001),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10, 55-64.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 155-168.
- 김지경·송현주(2010),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적응의 영향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6), 83-101.
- 김철환(2008), 우리가족 건강을 부탁해요, 서울: 김영사.
- 김태일(2005), 공무원과 민간기업 은퇴자의 노년소득 비교,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51-169.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8(1), 150-169.
- 김현수(2002), 지방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혜림·최현자(2013),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27-60.
- 나혜림·최현자(2014),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43-72.
- 남기민·남현정(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395-420.
- 도나라(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건식·이봉주(2008),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업경영연구, 28, 189-205.
- 리즈호가드(2006), 이경아 역, 행복전문가 6인이 밝히는 행복의 심리학(영국 BBC 다큐멘터리), 예담.
- 리해근·하규수(2012),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

문지, 12(6), 280-292.

메트라이프·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2010), 한국베이비부머 패널조사.

문숙재·여운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115-131.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여가행복지수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연가활동조사.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5), 은퇴 후 '110,000'시간,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22.

민경진(2006),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621-647.

박성택(2017), 공무원의 귀농·귀촌 인식조사를 통한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 퇴직 예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란·박경순(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단일호), 323-352.

박주영·조혜진(2012), 통제위치성향과 은퇴준비행동과의 관계,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89-112.

박현숙·임정도(2012),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48-260.

백은영(2007), 여성노인가계의 적정 소득대체율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4(2), 1-24.

보건복지부(2012).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삼성생명(2015), 여행의 계절 5월, 은퇴 후 여가에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2015년 5월 20일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의원실(2014). 「2014, 한국의 고독사 현황」.

- 선종영(2010), 인적자원 관점에서 본 퇴직기 근로자 퇴직준비 인식조사 연구 : 서울특별시교
육청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양민·우재룡(2014), 100세 시대 은퇴 대사전: 30부터 준비하는 108가지 은퇴전략, 21세기
북스.
- 신상식(2011),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승택(2010),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 교육 욕구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퇴직 예정 공무원
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현진·이일현·이현실(2013), 국가·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노후준비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3(10), 365-374.
-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1-19.
- 안기선·김윤경(2009), 산업체 근로자들의 은퇴준비도와 은퇴태도간의 관계, 대한케어복지학,
12, 113-130.
- 안정행정부(2013).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 안종범·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 양동표(2004), 지방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윤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여윤경(2002),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3), 83-97.
- 여윤경·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30.
-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
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 129-155.
- 오영은·이정화·신효연(2014),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구조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4), 511-531.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45, 32-42.

- 윤영결(2010), 내 인생의 오후. 서울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윤정숙(2006), 정부청사 일부 공무원의 건강관리 실태와 노인요양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원·엄기욱(2015), 여성노인의 긍정적 사회관계망 기능이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와 성공적 노화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69, 171-192.
- 윤종대(2002),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 부산광역시 퇴직예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해수(2010), 노인의 주거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영·박태진(2000),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의 관련성,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1(5), 672-682.
- 이미리·이영민(2014),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 지방행정연구, 28(3), 129-153.
- 이상권(2002),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에 따른 생활만족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엽(2011), 은퇴예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은퇴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145-176.
- 이상현·이성국(2003), 공무원들의 여가생활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39-50.
- 이소정·정경희·오영희·정홍원·박지승·박모미·이금룡(2011),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 연구 개발,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이신숙(2002), 문화적규범, 가족지지, 공적지지와 기능손상노인의 심리적 복지 간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3), 79-93.
- 이지영·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9(1), 215-230.
- 이코노미스트(2017), [서명수의 노후 준비 5년 만에 끝내기(29) 은퇴 예산 짜기] 여가활동비·내구재 교체비는 별도 계정으로, 2017년 10월 16일자.

- 이투데이(2014),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은퇴 후 여가전략, 2014년 5월 29일자.
- 임동오·주상욱·정용약(2002), 공무원의 여가행동과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1), 313-330.
- 임동진·채성준(2014),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인사행정학 회보, 13(2), 63-92.
- 임병우(2007),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평가 연구 -경기도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케어복지학회, 7, 67-85.
- 임소영(2008),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강민아·조성일(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8, 281-308.
- 임창희(2008), 부정적 감정성향과 집단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개인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경영연구, 23, 75-100.
- 장미옥(2015), 중·고령층의 여가시간 사용분석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7(1), 203-217.
-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전후기 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장우승(2011), 슈퍼실버 빈곤실버 :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서울 : 넥서스.
- 장인협·최성재(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귀연·임주영(2002), 노인의 애착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22, 171-191.
- 전지영(200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관웅(2014), 퇴직 공무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내훈(2004), 퇴직공무원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87-108.
- 정우진·김태성(2015), 가족 내 상호지지와 가족 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

- 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0, 41-68.
- 제갈돈·김태영(2007),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1(3), 7-34.
- 조경호(2003), 공무원의 삶의 질 요인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2), 131-144.
- 조경호·김미숙(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27-45.
- 조경희·박영민·지수혜·추정은·임현선(2014), 개인별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보고서.
- 조일훈(2004), 나의 꿈 나의 청춘 : 한국 대표기업 CEO열전. 서울 : 울림사.
- 지은영·은난순·홍형옥(2008), 주거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I- 수요자 측면의 주거복지체감 지표와 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5), 85-92.
- 최성희(2012), 퇴직예정군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최인숙(2007),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무원의 퇴직준비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민·황선영·김순은(2015), 사회적 관계망과 고령자의 문제: 성별과 사회관계망 간 상호작용의 정책적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4), 83-114.
- 최현자·김민정·이지영·김민정(2013), 장수위험과 금융자산활용비율을 고려한 은퇴소득준비도 평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59-178.
- 최현자·김민정·이지영·나혜림(2016), 행복수명지표 개발 연구, 생명보험협회·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 용역결과보고서.
- 최현자·김민정A·이지영·김민정B(2012a),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47-71.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조혜진(2012b),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개발 연구, 조사연구, 13(3), 63-87.

최현자·주소현·조혜진·김민정(2012c), 금융위기 전후 도시근로자가계의 은퇴준비도 변화 : 2006년과 2009년의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1), 45-71.

최현자·주소현·조혜진·김민정·김정현(2012), 은퇴지수 개발 연구-삼성생명 RAINBOW 은퇴지수, 삼성생명-서울대학교 용역결과보고서.

최화강(2012),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2015), 「2015 고령자통계」.

트렌드모니터(2017), 2017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프리미엄 조선(2014), 은퇴 후 주거지 선택의 7대 포인트, 2014년 5월 16일자.

한국FP협회(2014), 주거자산의 관리와 활용, 한국FPSB.

한국건강관리협회(2006), 건강 나이 측정법, 건강소식, 30(6), 32-33.

한국고용정보원(2014),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6), 중고령자 은퇴 전후 소득과 삶의 만족도. 2016 고용패널브리프.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고령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서울: 경춘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한국행정연구원(2012). 퇴직공무원 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조사.

한정화(2010), 노년기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경미·최기문(2006),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5(3), 11-46.

허균석·황덕순(2012), 은퇴연구 패러다임의 추가-시간자본의 활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17-46.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2(2), 227-247.

허지정(2017),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및 여가장소 선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헬스조선(2016),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2016년 8월 14일자)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황미구·김은주(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3. 참고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s.or.kr>.
-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59&categoryId=43659>.
-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67&categoryId=43667>.
- 블루존스, <https://www.bluezones.com>.
- 신한생명, Hidoc 건강나이 측정, <http://shinhanlife.hidoc.co.kr>.
- 아바리스, <https://www.myabaris.com>.
- 캐나다 프로젝트 빅 라이프, <https://www.projectbiglife.ca>.
- 통계청 국가지표, <http://www.index.go.kr>
- living to 100, <https://www.livingto100.com>.

부 록

- <부록 1> 초기문항
- <부록 2> 전문가 자문 내용
- <부록 3>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표 수정 및 보완
- <부록 4>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지표 수정 및 보완
- <부록 5> 본조사 설문지
- <부록 6>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에 대한 자문 내용 및 반영사항
- <부록 7> 최종 진단 문항
- <부록 8>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 <부록 9> 6대 영역의 하위영역별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 <부록 10> 은퇴준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전략 (가치업 제공)
- <부록 11> IRB 심의결과서

<부록 1> 초기 문항

A. 건강관리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신체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신체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정신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개선계획	귀하는 은퇴 후 신체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Action	식습관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운동량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30분 이상, 1주 5회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 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흡연량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0) 하루 1.5갑 이상, 10년 이상 흡연 1) 하루 반 갑 이상 1.5갑 미만, 10년 이상 흡연 2) 하루 반 갑 미만 흡연 3) 끊은 지 6개월 이상 5년 미만 4) 끊은 지 5년 이상 15년 미만 5) 전혀 피운 적이 없거나 끊은 지 15년 이상
	음주량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3잔, 여성의 경우 소주 2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거의 매일 2) 1주일에 1~2번 정도 3) 한 달에 2~3번 정도 4) 한 달에 1번 미만 5) 전혀 없다

	건강검진	귀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질병유인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 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1) 4개 이상 2) 3개 3) 2개 4) 1개 5) 없다
	BMI 지수	키를 입력해 주십시오.	() cm
		몸무게를 입력해 주십시오.	() kg
	체중관리 노력	귀하께서는 평소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수면	귀하께서는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휴식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스트레스 요인	다음 중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②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③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④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⑤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거나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개
	스트레스 빈도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스트레스 해소방법	귀하께서는 귀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0) 별도의 해소방법이 없다 1) 해소방법이 있지만 잘 이용하지는 못한다. 2) 해소방법이 있고 잘 이용하지만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는다. 3) 해소방법이 있고 잘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고 있다. 4) 해소방법이 있고 잘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매우 잘 풀고 있다.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신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정신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B. 대인관계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귀하는 현재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 정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족관계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사회적 관계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개선 계획	귀하는 은퇴 후 가족관계 영역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귀하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영역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Action	시간 공유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 함께 모임 참석하기 - 함께 운동, 산책, 취미활동 하기 - 함께 여행하기	1) 없음 2) 6개월 1회 3) 3개월 1~2회 4) 한달 1~2회 5) 1주 1~2회 6) 1주 3회 이상
		(자녀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 함께 식사하기 (외식 포함) - 함께 운동, 산책, 취미활동 하기 - 함께 여행하기	1) 없음 2) 6개월 1회 3) 3개월 1~2회 4) 한달 1~2회 5) 1주 1~2회 6) 1주 3회 이상
		(부모님, 친척 있는 경우만) 귀하는 부모님, 친척과 어느 정도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본인 부모님/배우자 부모님/친척	1) 없음 2) 6개월 1회 3) 3개월 1~2회 4) 한달 1~2회 5) 1주 1~2회 6) 1주 3회 이상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이웃, 친한 직장 동	1) 없음

		료,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 (업무 이외의 일)/지인	2) 6개월 1회 3) 3개월 1~2회 5) 한달 1~2회 5) 1주 1~2회 6) 1주 3회 이상
대화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충분히 다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물론 메신저 등을 통해 하는 대화도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부모님, 친척과 충분히 다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 본인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 - 친척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는 부담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친구, 이웃, 친한 직장 동료, 지인이 있으십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가사분담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의 부부는 가사분담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0) 전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한다. 1) 주로 한 사람이 하지만 배우자가 많이 도와준다. 2) 주로 한 사람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 배우자가 가끔 도와준다. 3) 대부분 부부가 같이 한다.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_모임 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필요할 때 소소한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나 힘들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필요할 때 마다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0점(없음) / 1점(있음)
		귀하께서 1년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단체 및 동호회(온라인 동호회 포함)의 수는 몇 개입니까?	()개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관계란 가족과 친척 외에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C. 여가활동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여가 활동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 여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여가 활동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개선계획	3. 귀하는 여가 활동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Action	여가활동의 종류에 대한 고려	귀하는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을 위한 레저형 활동이나 타인을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하지만 소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활동의 일상성	귀하는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0) 거의안함 1) 6개월에 1~3회 정도 2) 월 1~2회 정도 3) 주 1~3회 정도 4) 거의 매일
	여가활동의 지속성	귀하는 현재 하고 여가활동을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0) 꾸준히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 없다 1) 여가생활을 시작한지 1년 이내 2) 여가생활을 시작한지 1~3년 이내 3) 여가생활을 시작한지 3~5년 이내 5) 여가생활을 시작한지 5년 이상
	여가활동의 지속 의향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 [분석용 문항] - LTM(Leisure Total Matching Index)

항목	문항	측정보기
여가생활 참여여부	1. 귀하는 현재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중단】
여가생활 동반자	2. 귀하는 여가생활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 혼자서 2) 가족 3) 친구(연인 포함) 4) 직장 동료 5)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회원 6) 기타 ()

여가생활 목적	3. 귀하께서 여가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건강을 위해 2)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3)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4) 대인관계·교제를 위해 5)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6) 자기 계발을 위해 7) 자기만족을 위해 8) 시간을 보내기 위해 9)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10) 기타 ()					
선호하는 장소	4. 귀하께서 여가생활을 주로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민간여가시설이나 기관 2) 공공여가시설이나 기관 3) 장소는 상관없음 4)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주변 자연 환경(근린공원 산책, 등산 등)					
	5.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위해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민간여가시설이나 기관 2) 공공여가시설이나 기관 3) 장소는 상관없음 4)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주변 자연 환경(근린공원 산책, 등산 등)					
여가생활 시기	6. 귀하는 여가생활을 주로 언제 즐기십니까?	1) 평일 2) 주말 및 공휴일					
여가생활 지출비용 및 경제적 부담여부	7. 귀하께서 한 달 평균 여가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 만원					
	8. 귀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생활 비용(한 달 평균)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 만원					
	9. 귀하께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출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2) 될 수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3) 여가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어도 좋다. 4) 너무 많은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원하는 여가활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5) 내가 하고 싶은 여가생활을 하는데 비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구분	문항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은퇴 후 희망 여가활동		
		1)하지 않음	2)가끔	3)자주	1)하지 않음	2)가끔	3)자주
현재 하고 있는 여가생활 유형 및 은퇴 후 희망 여가활동	1. 문화예술 관람활동 (전시회, 영화, 연극 등 관람)						
	2. 문화예술 참여활동 (미술, 사진 촬영, 노래교실 등)						
	3. 스포츠 관람활동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 스포츠 참여활동 (낚시, 등산, 헬스, 조깅 등)						
	5.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6. 사회봉사활동						
	7. 종교모임						
	8. 각종 친목모임						
	9. 여행						

D. 주거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 주거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안정성/쾌적성/능률성/심미성/경제성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개선계획	귀하는 은퇴 후 주거생활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Action	주거의 안정성	귀하께서는 은퇴 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자가 2) 비자가(전세나 월세) 3) 기타
	주거지역과 형태의 변동가능성 고려	귀하께서는 은퇴 후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머무르실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형태의 집으로 이사하실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동거인	귀하께서는 은퇴 후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활동의 지속 의향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 사항 인지	은퇴 후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하실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 내부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건강관리와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병원이나 경찰서, 관공서 등의 의료·치안시설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운동이나 취미·여가생활, 사회활동, 정신적 피로회복 등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근린생활시설(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 포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편리한 이동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대중교통 편리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생활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E. 일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관련 영역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관련 영역과 관련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개선계획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관련 영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Action	경력 및 경험관리	귀하는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 및 경험관리를 잘 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일자리 도움여부	귀하는 현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은퇴 후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일자리 정보 원천	귀하는 은퇴 후 일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홈페이지, 기관, 박람회 등)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일자리를 위한 의지	귀하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귀하는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재취업 지원, 창업 창원 등)에 참여 한 적이 있으십니까?	0) 아니오 1) 예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F. 재무설계

1) 재무관리

	항목	문항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상태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개선계획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 유지와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Action	연금에 대한 인지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알고 계십니까?	0) 예상수령액을 모르고 궁금하지 않다. 1) 예상수령액이 궁금하긴 하지만 알지 못한다. 2) 예상수령액을 어렵듯이 알고 있다. 3)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4)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기타연금에 대한 인지도	공무원연금 이외의 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예상 수령액을 알고 계십니까?	0) 공무원연금 이외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없다 1) 공무원연금 이외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있지만 예상수령액은 모른다. 2) 공무원연금 이외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있고 예상수령액을 어렵듯이 알고 있다. 3) 공무원연금 이외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있고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기타연금 활용 의향	공무원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각종 공제회 등에 가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또는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은퇴 후 생활비 계획	귀하께서는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경조사비, 여가활동비, 일상적인 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기본재무관리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의료비와 간병비 준비여부	귀하께서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부채부담	혹시 부채가 있으시다면 은퇴 전까지 모두 상환가능합니까?	예/아니오/부채없음
	배우자 연금준비상태 (배우자 있는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예/아니오/모름
귀하의 배우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아니오/직장없음/모름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성 및 재무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9)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비중 입력)	각 영역별 비중 입력 : ()%
--	---------	---	--------------------

2) 은퇴자금충분도

은퇴연령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언제 은퇴하실 예정이십니까?	본인 : 만()세 배우자 : 만()세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은퇴 이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만큼의 생활비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경조사비, 여가활동비, 일상적인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3,0000 만원)	월평균 ()만원	
	은퇴 이후에 혹시 걸릴지도 모르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 치료 비용 및 생애 말기의 장기간병비용 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 만원)	월평균 ()만원	
은퇴 자산	보험 충당	혹시 가입하신 질병보험 혹은 간병보험이 있다면 위에서 응답하신 금액 중 보험을 통해 얼마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관련보험이 없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원
	금융 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중 순수하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모아둔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개인연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 만원)	총규모 ()만원
	은퇴 목적 저축	매월 평균 얼마씩 저축 하고 계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만원
		앞서 응답하신 금액 중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 은 몇%입니까? (개인연금을 포함)	()%
	주택 자산	혹시 귀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뺀 집의 가치 는 얼마나 되나요? 해당사항이 없거나 주택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자녀상속 등)에는 0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총규모 ()만원
	주택 이외 자산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이 있다면 관련 부채 잔액을 뺀 금액 중 얼마 정도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0만원)	총규모 ()만원
	공적 연금 자산	은퇴 후 매달 평균 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모르는 경우 99999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 만원)	본인 :월평균()만원 배우자 :월평균()만원
	퇴직 사적 연금 자산	귀하의 배우자가 은퇴 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월평균 ()만원 또는 총규모()만원
		귀하와 배우자가 은퇴 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연금 수령금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월평균 ()만원 또는 총규모()만원

<부록 2>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자문의견 및 예비조사 설문지 반영사항

<모형 및 전반 공통사항>

▣ 지표개발 전반 자문가 : 최현자, 성영애

구분	자문의견	반영사항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Satisfaction) 측정은 현재 상태 평가를 위한 문항에서 만들어진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상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여 만족도보다는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려도와 만족도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점수 산출 시 왜곡 발생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및 우려도 문항을 삭제하고,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정도와 개선계획에서 미래 시점과 현재시점이 혼재되어 있고, 준비정도는 결국 현재의 상태이고, 개선계획은 행동(Action) 다음에 평가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ARA 모형을 단순화하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준비를 위한 실천행동을 포함하여 EA(Evaluation Action) 모형으로 수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만족도와 준비상태 등을 통합하여 인식 혹은 개인적인 평가(Evaluation)와 행동 및 준비상황(Action)을 진단하는 단순모형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상 Evaluation과 Action의 중복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영역별로 중복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Evaluation과 Action 각각에 대한 가중치 없이 문항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심플한 모형 적용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ARA 모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하위차원의 가중치 적용은 하지 않음. EA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차원 가중치 반영하지 않고 모든 문항의 총점을 100점으로 산출하기로 함
	전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영역별로 하위영역을 두어 체계화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을 건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4) : 현직관리, 역량관리, 경력관리, 정보관리 • 2안) 2안) 1안으로 예비 조사하되 조정 필요할 경우 2안 고려 - 재무설계 : 소득/지출, 자산/부채, 신용, 기타 - 건강관리 :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 대인관계 : 가족관계, 기타 대인관계 - 여가활동 :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 주거 : 주거의 안정성, 미래 주거에 대한 계획 - 일 : 경력관리, 미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과 일은 시간관리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구분(예, 봉사활동이 ‘여가’ 또는 ‘일’ 일 수도 있음)이 어려워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두 영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두 영역을 인접하여 질문 및 평가하는 것이 좋겠음 • 두 영역간의 구분은 활동목적이 소득 발생이면 ‘일’, 그렇지 않은 것은 ‘여가’ 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질문 순서를 인접시키기로 함 • 소득 발생 목적의 활동은 일, 이외의 시간 이용은 여가로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가중치 설정을 위한 문항)에 대한 질문을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각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비중(%)을 기록하는 방식이 좋겠지만, 영역이 6개로 응답자들이 비중을 적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초안대로 10점 척도로 질문한 후, 산술적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음 • 100%로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의 가중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질문하는 것도 필요함 • 가중치가 개인 각각이 응답하고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10점 척도로 응답 후 산술적으로 가중치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10점 척도로 할 경우 급간이 작아 가중치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5점 척도를 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에서 2가지 질문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본 후 두 값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본 조사에 포함할 가중치 설정을 위한 문항을 결정하기로 함 • 6대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개인별 중요도 측정 결과를 반영하고 개인의 은퇴준비점수에 반영하여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로 10점 리커트, 5점 리커트, yes/no로 되어 있는 현재 척도는 점수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척도 통일이 필요함 • 빈도로 측정되는 문항의 경우에도 그 빈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능한 척도화 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리커트 척도로 통일하되, 빈도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그대로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면 영역별 문항수를 비슷하게 구성하되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질문으로 구성하여야 함. 기존의 다양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는 측정 신뢰도를 낮출 수 있음 •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도구는 모든 영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응답자의 작성 또는 준비의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므로 응답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영역별 문항수를 유사하게 구성하고 응답 피로도가 높지 않도록 문항 수 조절 • 영역별 각각의 하위영역에 대해 2~3문항으로 구성하고, 1개 영역 당 15개 문항 이내로 구성
--	---

<건강관리>

▣ ‘건강관리’ 영역 전문가 : 조비룡, 김지선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이 기본항목, 일상생활 관리,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을 포함하여 잘 구성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음. 질병유인 항목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문항 추가하지 않음 • 다만, 질병유인 중 중증질환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증질환과 일반 만성질환으로 구분하고,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문항을 구분하여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유인에서 암, 중풍, 심근경색은 한 개만 있어도 다른 질병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중요한 질병이므로 분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유인의 만성질환 개수만 묻기보다 선택한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검진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량의 기준 변경, 확인 필요함(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잘 정도의 운동을 <u>1회 30분 이상, 1주 5회 이상</u>의 운동 ⇒ <u>1회 기준 1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u>의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량 문항의 측정방법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로 변경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산출 및 측정방법의 통일(5점 척도)을 위해 반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운동 강도, 근력 강화운동, 유연성과 균형 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 함(IPAQ 설문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문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고 응답자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 문항 추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u>소주 3잔</u>, 여성의 경우 <u>소주 2잔</u> ⇒ 남자 2잔, 여성 1잔 초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문항의 부연 설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정기적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건강검진’ 으로 문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문항에서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의 경우 응답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일정한 기간 (예, 지난 1개월 동안)을 명시해주는 것이 좋으며, 응답자의 수면 상태와 정도가 모두 반영된 응답을 위해 만족스러운지를 질문하는 것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관련 문항의 보기를 노인용 우울척도 검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고려해 볼 것을 권함(아래 제안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하다. (주요우울증, 진단 기준입니다.) ②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죄책감이 있다. ③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죽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 ④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⑤ 나의 미래(노후)가 희망적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문항에 추가, 총 10개 보기를 제시하여 예비조사 진행하고 문항 간 상관관계 확인 후 포함여부 결정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통한 관리를 묻는 문항을 해소방법이 있는지의 구분과 잘 이겨내는지를 질문하고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함(예, 귀하께서는 귀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반영하여 문항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습관 문항의 측정방법을 일주에 몇 번 하는 지로 변경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산출 어려움이 있으며, 측정방법(5점 리커트) 동일 적용으로 반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량 측정 분류 방법이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화 가능하도록 예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이 많을 경우 체중관리 문항은 식생활 / 운동 등과 관련되므로 삭제해도 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관리 문항 삭제함

<대인관계>

▣ ‘대인관계’ 영역 자문가 : 성미애, 권석만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대화, 시간공유, 가사분담 등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영역 설정이 잘 되어 있음 • 인간관계의 중요한 측면들이 대체로 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려도와 준비정도, 개선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와 준비이며, 어떤 측면에서의 개선계획 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수정으로 해당 문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정한 대화나 다정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어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대화” 라고 하면 긍정적 부정적 대화 모두를 포함하므로 긍정적 대화로 한정하기 위해 ‘다정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유지하되, ‘기분 좋은’ 이라는 단어를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항목은 좋으나 측정문항을 질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network)의 경우에는 network의 size와 depth가 모두 중요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노후에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일정 시간 이상의 외출 또는 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대화 시의 느낌이나 편안함 정도가 더 중요함. 즉,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추가가 필요함(예,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도/효율적 의사소통,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정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문항 구성 •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질적 측면을 묻는 문항을 더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 갈등해결에 대한 문항 추가 고려(예,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의견충돌이나 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이러한 갈등을 심각한 감정적 대립 없이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대인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함. 그 이외의 대상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도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의 영역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로 구분하여 문항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족 이외의 네트워크 관리도 중요하므로 친척, 친구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분석을 통해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반영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문항구성이 잘 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문항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하므로 중복될 수 있는 문항(예: 사회적 관계망)은 축소하는 것이 좋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상관관계 확인 후 문항 축소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현재 측정문항을 유지한다면 측정방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우려도, 준비정도나 개선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후 분석 과정에서 해석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변경을 위해 우려도/준비도/개선계획 관련 문항 삭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문항의 경우 응답척도가 “0-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문항과의 가중치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문항을 5점

3~4점 주변에 “약간 그렇다” 6~7점 주변에 “상당히 그렇다” 등의 표현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도 중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의 척도(양방향 평가척도)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의 척도(일방향 평가척도)를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척도는 공통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 빈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귀하께서는 평소에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수정하고 5점 척도 또는 9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공유와 대화의 구분이 모호하여 시간으로 합치고 시간공유에 외출, 여행, 대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자주 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문항을 2점 척도(0점-없음, 1점-있음)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없음, 1명, 2~3명, 4~7명, 8명 이상” 등의 방식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반영하여 세분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도, 준비정도, 개선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무엇에 대한 우려이고, 준비이며, 개선계획인지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결론을 제시할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도/준비도/개선계획 관련 문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수가 많은 것 같은데, 효과적인 평가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항을 줄여야 할 듯함. 인간관계는 그 대상과 관계의 측면이 다양하여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것 같은데, 효과적인 평가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항을 줄여야 하여야 함. 문항이 많아지면 응답자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예비 연구자료를 통해 중복되는 문항,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항(예: 사회적 관계에서 대상 각각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는지)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문항 축소 조정하기로 함

<주거>

▣ ‘주거’ 영역 전문가 : 권오정, 박경옥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로 측정방법이 일관성 있게 수정 필요. 10점 척도로 세분화할 때 오히려 5점 척도보다 신뢰성 있는 답이 나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점 리커트 척도로 통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영역에서 9개의 지표를 정하고 몇 개 질문은 세부문항으로 분류되어 만들어져 있는데, 응답자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느낌이 들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의 측정 기준을 주택내부 안전 시설(안전성), 경제적 안정성, 거주지역의 환경(쾌적성), 근린시설 활용성(접근성), 주택규모와 유형(유지관리용이성)으로 세분화(하위영역)하고 문항을 체계화함 하위영역에 대한 예시와 용어설명을 추가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영역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주거의 어떤 측면을 고려한 중요도인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보다는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택규모와 유형(유지관리용이성)을 포함한 하위영역에 측정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형태의 집으로 이사 개념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시니어주택)이 포함되는 개념인지 명확하게 제시 필요. 만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포함된 개념이면 ‘형태’라는 용어 사용이 괜찮으나 일반적인 주거라면 형태보다 주거 ‘유형’이 더 적절한 표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주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삭제하고, 은퇴 후 생활할 주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 대체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역과 형태(유형)의 변동성 고려, 동거인 질문에 대한 보기로 비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ion에 해당하는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유지 또는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의 경우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지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Evaluation)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임. 대신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은퇴 후 주거 영역에 대한 준비 상태를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ion에 해당하는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유지 또는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의 Action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대부분 인식에 대한 문항이지만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영역에서의 Action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예를 들어 주택 내 안전을 위해 턱을 없애거나 바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후 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은퇴 후에 이사(Action)하는 것임. 따라서 주거 영역에서의 Action은 결국 은퇴 후 주거(주택) 영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정도로 밖에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tion에 해당하는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유지 또는 수정함

<여가활동>

▣ ‘여가활동’ 영역 전문가 : 이금룡, 홍성희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정도와 개선계획 항목은 실천과 인식의 차이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의향이나 인식이 실천이나 행동을 선행하기 때문에 개선계획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도, 준비정도, 개선계획에 대한 문항은 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삭제함(모형 변경)

<p>준비정도에서도 낮은 점수일 개연성이 높아서 이중적으로 점수를 감점당하는 상황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1-2가지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성향의 차이를 노후여가준비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항 삭제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와 만족도의 측정방법에서 “얼마나”는 삭제하고 5점 척도로 질문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영역에서 동일 적용하여 ‘얼마나’는 삭제하고 대부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점 척도, 5점 척도, 4점 척도 등을 통일시킬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점 척도로 통일하여 측정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하는가의 항목 이외에 장소, 비용, 정보, 동반자 등에 따라 실행의지와 빈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의 측정목적과 다른 영역과의 균형에 따라 일부 항목을 반영할 것을 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의 영역을 활동관리, 비용관리, 동반자관리, 정보관리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의 일상성, 지속성, 지속의향의 시점 및 개념이 서로 중복됨. ‘일상성’은 현재 시점, ‘지속의향’은 미래 시점으로 현재 또는 미래 시점으로 통일시킬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시점으로 통일하여 문항을 하나로 합치고, 5점 척도로 측정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하는 장소나 여가지출비용 등은 은퇴 이후의 시점으로 질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하는 장소에 대한 문항은 모호하여 반영하지 않고, 여가지출비용(여가비용관리)의 경우 미래 시점으로 질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정도를 묻는 문항(귀하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의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항으로 수정 필요해 보임(예, 귀하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위해 정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구체화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성에 대한 문항 수정 검토 : 귀하는 현재 하고 여가활동을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성에 대한 문항에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현재 하는지 안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판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음’과 ‘하고 있지 않음’은 구분되어야 함. 즉, 현재 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이 없음이라는 보기가 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수정하되 현재 하는 여가활동 없는 응답자를 고려하여 측정보기에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영역에 비해 여가활동 영역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여가활동’을 ‘시간관리’ 또는 ‘시간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은 elective selection에 해당되는 영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은퇴자들은 여가생활을 하면서 창업으로 까지 연장하여 창직(job creating)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노후여가설계진단지표에서는 점수를 토대로 여가유형들을 제시하였음.(저관여-소극적, 저관여-적극적, 고관여-소극적, 고관여-적극적 등). 본 연구에서 구성되는 문항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여가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p>(LTM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여가생활에 2개 이상의 복수의 여가목적에 있을 수 있으며, 동일한 여가활동에도 사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가활동 목적을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는 것은 향후 상담에 활용하기에 미흡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문 문항마다 여가목적에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여가활동의 9개 범주를 제시하되 응답 시에는 해당 범주의 활동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에 대한 유형분류를 위해 LTMI 문항을 참고하되,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본 조사 포함여부 확인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제약요인 추가: 시간부족, 건강상태, 정보부족, 공간 및 장소 부족, 비용부족, 동반자 부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영역의 하위영역에 정보, 장소, 비용, 동반자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고, 별도의 제약요인을 질문할 경우 상반된 응답으로 중복 감점 또는 중복 가점이 될 수 있어 문항 추가하지 않기로 함

<일>

▣ ‘일’ 영역 자문가 : 최성재, 우재룡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에 대한 욕구과약, 은퇴 후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관련 문항, 지수측정 후 동기부여로의 연결을 고려한 문항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수정, 측정방법 수정 예비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본조사용 설문지 보완 예정 일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현직관리, 역량관리, 경력관리, 정보관리를 포함하여 체계성을 갖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경우 은퇴 후 연금생활이 가능하므로 은퇴 후 일에 대해서는 1)자아를 성취하고 2)인생의 보람을 증가시키며 3)인간관계의 확대나 심화로 연결되길 바라는 경향이 큼. 특히 휴식, 여가에 대한 욕구도 강할 것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후 일에 대한 정의에 창직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창직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공무원의 은퇴 후 일에 대한 욕구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창직 創職’ (Job creation) 지향적인 것이 바람직함 • 공무원 은퇴자에게 적합한 창직 대안은 5가지 예술형, 자원봉사형, 교육형, 레크리에이션형, 소득형 일자리임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보람차고 활발한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문항으로 측정하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의 경우 현재의 일에 만족을 묻는 것은 은퇴 후 생활과 연결되기 어려움. 이렇게 묻기보다는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창직(創職)거리를 준비하는 현재의 노력이 만족한 지를 묻는 것이 어떨까 추천해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문항은 삭제함 • 현재의 노력을 관리 정도로 질문하되, 현직관리, 역량관리, 경력관리, 정보관리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및 경험관리 질문의 경우 현재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직무에서 은퇴 후 일거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 이 질문을 다소 개선하면 좋을 듯함. 대안은 “은퇴 후 활동할 일로 연결될만한 사회봉사, 자기계발, 취미여가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좋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내용은 여가활동과 구분이 모호하여 일 영역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함 • 일과 여가활동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통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도움 여부 질문을 다소 보완해서 “현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 현재 자신의 경험, 지식, 취미여가, 자원봉사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관리와 현직관리, 경력관리에 대한 하위영역의 평가에 대한 문항에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프로그램 참여여부 관련 질문을 보완해서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 으로 수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획득이 목적인 활동을 일로 정의하고 있으나 소득획득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성취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를 수정하여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함

<재무>

▣ ‘재무’ 영역 전문가 : 주소현, 차경욱

	자문의견	반영사항
재무상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재무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재무영역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응답문항이 지나치게 많고(소득, 지출, 보험, 저축,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등), 일반적으로 재무상황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재무상태 문항을 삭제함(소득, 지출, 보험, 저축,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등)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본 자가진단에서 일반적인 재무상태 진단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필요할 경우 재무설계 진단 가능한 사이트 링크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은퇴자금 충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준비에 대한 자가 진단이므로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은퇴자금충분도 계산 없어도 무방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필요하면서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축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연금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은퇴자금충분도까지 산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액 확인(링크)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를 산출을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액을 스스로 확인(또는 계산)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치적 산출이 아닌 공단과 개별 금융기관을 통한 연금액 확인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자금 충분도 측정을 위해서는 은퇴 예상생활비, 예상수명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를 다 측정하려면 문항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한 대체율을 계산한 다음 나머지 항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그런데 이 진단지표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은퇴자금 충분도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공무원 스스로가 은퇴준비에 대한 각성 혹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포괄적 수준의 충분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러한 수준은 앞에서 질문하는 소득/지출, 자산부채, 신용 등의 항목을 통하여 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도 산출을 위해 가장 간소화된 질문으로 측정 시도함(예비조사) 예비조사 결과 재무 상태에 대한 응답률 및 신뢰도 확인하여 항목 포함 여부 결정 본 조사에서 재무상태 진단을 제외할 경우 무료 재무상태 진단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사이트 링크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은퇴자금 충분도 산출하지 않고, 재무설계의 하위영역에 대한 Action 문항으로 측정 가능함(공단과 협의 예정)
재무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문항의 측정 수준 (현재 인지 미래인지)이 통일되어야 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문항 특성에 따라 미래시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의 영역을 몇 가지로 설정하여 각 영역에 대하여 평가 및 행동을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음.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설문이 유용할 것 같음(소득/지출, 자산/부채, 신용 등/소득 지출의 영역에서는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로 나누어 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영역을 소득관리/자산관리/부채관리/은퇴자금관리/위험관리로 구분함 지출 영역은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로 나눔

<부록 3>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표 수정 및 보완

1) 건강관리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신체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	
	만족도	귀하는 현재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신체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정신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개선계획	귀하는 은퇴 후 신체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는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Action	식습관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운동량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주 5회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입니다)
흡연량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음주량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3잔, 여성의 경우 소주 2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검진	귀하께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합니다)
질병유인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BMI 지수	키를 입력해 주십시오 몸무게를 입력해 주십시오
체중	귀하께서는 평소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노

고되는 기준)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매일 한 갑 ② 매일 반 갑다. ③ 매일 반 갑 ④ 매일은 아님 ⑤ 전혀 피우지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 ③ 한 달에 2~ ④ 한 달에 1번 ⑤ 전혀 없다(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환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다
귀하가 앓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몇 개 있습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다
귀하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 ~ 매우 그렇다
귀하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키 : (체중 : (
-	-

	관리 노력	력을 하십니까?
	수면	귀하께서는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계십니까?
	휴식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요인	<p>다음 중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p> <p>①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p> <p>②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p> <p>③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p> <p>④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p> <p>⑤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거나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다.</p>
	스트레스 빈도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귀하께서는 귀하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가 중 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신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정신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p>①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p> <p>②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p> <p>③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p> <p>④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p> <p>⑤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거나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다.</p> <p>⑥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하다.</p> <p>⑦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p> <p>⑧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죽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p> <p>⑨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p> <p>⑩ 나의 미래(노후)가 희망적이지 않다.</p>	선택/미선택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귀하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대인관계 관리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	
		귀하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	
	만족도	귀하는 현재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	
		귀하는 현재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	
Ready	준비 정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족관계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	
		귀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사회적 관계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	
	개선 계획	귀하는 은퇴 후 가족관계 영역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친척	-	
		귀하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영역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업무 이외의 일)/지인	-	
			귀하께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전혀 그렇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2
Action	시간 공유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 함께 모임 참석하기 - 함께 운동, 산책, 취미활동 하기 - 함께 여행하기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자녀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 함께 식사하기 (외식 포함) - 함께 운동, 산책, 취미활동 하기 - 함께 여행가기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부모님, 친척 있는 경우만) 귀하는 부모님, 친척과 어느 정도 자주 다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본인 부모님/배우자 부모님/친척	귀하께서는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 (업무 이외의 일)/지인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이웃, 친한 직장 동료,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 하셨습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귀하께서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친구/이웃/친한 직장동료 (업무 이외의 일)/지인	귀하께서는 직장동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대화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충분히 다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물론 메신저 등을 통해 하는 대화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 대립 없이 잘 해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2			

			귀하께서는 평소에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녀와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녀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존중을 받거나 책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자녀와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 대립 없이 잘 해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부모님, 친척과 충분히 다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상 각각에 대해 응답) - 본인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 - 친척	-	
		귀하께서는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친구, 이웃, 친한 직장 동료, 지인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친구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직장동료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가사 분담	(배우자 있는 경우만) 귀하의 부부는 가사분담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_모임 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필요할 때 소소한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필요할 때 소소한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나 힘들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힘들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 매우 그렇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필요할 때 마다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 매우 그렇
		귀하께서 1년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단체 및 동호회(온라인 동호회 포함)의 수는 몇 개입니까?	-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가족 관계/사회적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 매우 그렇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관계란 가족과 친척 외에 친구, 이웃, 직장동료, 기타 지인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 매우 그렇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주거계획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Awaren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주거생활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	

ess	만족도	귀하는 현재 주거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응답) 안정성/쾌적성/능률성/심미성/경제성	-		
Ready	준비 정도	귀하는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혀 ~ 매	
	개선 계획	귀하는 은퇴 후 주거생활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Action	주거의 안정성	귀하께서는 은퇴 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주거지역과 형태의 변동가능성 고려	귀하께서는 은퇴 후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머무르실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형태의 집으로 이사하실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어디에서 생활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전혀 ~ 매	
	동거인	귀하께서는 은퇴 후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사항 인지	은퇴 후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하실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 <u>내부</u>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전혀 ~ 매
		은퇴 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u>외부환경</u> 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전혀 ~ 매
		은퇴 후 건강관리와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병원이나 경찰서, 관공서 등의 <u>의료·치안시설 접근성</u> 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접근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전혀 ~ 매
		은퇴 후 운동이나 취미·여가생활, 사회활동, 정신적 피로회복 등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u>근린생활시설</u>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퇴 후 편리한 이동을 위해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대중교통 편리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 포함)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지,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전혀 ~ 매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전혀 ~ 매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생활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전혀 ~ 매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4) 여가활동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여가 활동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귀하는 현재 여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Ready	준비정도	귀하는 은퇴 후 여가 활동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개선계획	귀하는 여가 활동을 위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Action	여유시간 활용인식	귀하는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인을 위한 레저형 활동이나 타인을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하지만 소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	
	여가활동의 일상성	귀하는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여가활동의 지속 의향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귀하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여가활동의 지속성	귀하는 현재 하고 여가활동을 얼마동안 하겠습니까? (레저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형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	-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L T M	여가생활 참여여부	귀하는 현재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현재 하고 ② 전혀 하지 ③ 거의 하지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 ⑥ 매우 자주
	여가생활 동반자	귀하는 여가생활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3명 ④ 4~7명 ⑤ 8명 이상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 ③ 친구(동창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 회 합)과 함께 ⑥ 기타 (
	여가생활 목적	귀하께서 여가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여가생활을 주로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위해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귀하는 여가생활을 주로 언제 즐기십니까?	-	
		귀하께서 한 달 평균 여가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① 비용이 전 여가활동을 ② 될 수 있 지 않는 다.
	귀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생활 비용(한 달 평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께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출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③ 여가활동에 비용이 지출 ④ 너무 많은 지출 ⑤ 내가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귀하께서 은퇴 후 추구하시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나 자신을 위해 ②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 ③ 타인과 교류 ④ 생각해본 적이 없다.
여가 활동 유형	문화예술 관람활동 (전시회, 영화, 연극 등 관람)	1. 문화예술 관람활동 (전시회, 영화, 연극 등 관람)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가끔함/매일함 은퇴 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없음/가끔함/매일함 여가활동 목적	
	문화예술 참여활동 (미술, 사진촬영, 노래교실 등)	2. 문화예술 참여활동 (미술, 사진촬영, 노래교실 등)		
	스포츠 관람활동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3. 스포츠 관람활동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참여활동 (낚시, 등산, 헬스, 조깅 등)	4. 스포츠 참여활동 (낚시, 등산, 헬스, 조깅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5.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사회봉사활동	6. 사회봉사활동		
	종교모임	7. 종교모임		
	각종 친목모임	8. 각종 친목모임		
	여행			

5) 일자리 관리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에 대해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Read y	준비 정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 관련 영역과 관련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개선 계획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퇴 후 일은 재취업, 창업, 창직, 귀농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전혀 ~ 매우
Acti on	경력 및 경험 관리	귀하는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 및 경험관리를 잘 하고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한 일을 위해 자신의 역량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경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 매우 전혀 ~ 매우
	일자리 도움 여부	귀하는 현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은퇴 후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과 현재의 직장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 매우
	일자리 정보 원천	귀하는 은퇴 후 일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홈페이지, 기관, 박람회 등)을 알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기관, 박람회,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 매우
	일자리 를 위한 의지	귀하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전혀 ~ 매우
	지원 프로 그램 참여 여부	귀하는 은퇴 후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재취업 지원, 창업 창원 등)에 참여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전혀 ~ 매우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로 연결될 만한 사회봉사활동, 자기계발, 취미여가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의 경험, 지식, 취미여가, 자원봉사가 은퇴 후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 매우 전혀 ~ 매우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등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 매우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6) 재무관리 및 준비

(1) 재무관리

구분	항목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및 측정보기	
Awareness	우려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상태에 대해 얼마나 걱정 되십니까?	-	-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	-
Ready	준비 정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과 재무관리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
	개선 계획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 유지와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귀하는 전반적으로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Action	공무원연금 인식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은퇴 후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알고 계십니까?		
	기타 연금 인식	공무원연금 이외의 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예상 수령액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연금 등의 연금상품 예상수령액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공무원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각종 공제회 등에 가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무원연금 이외의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또는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
	은퇴 후 생활비 인식	귀하께서는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경조사비, 여가활동비, 일상적인 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	-
	재무 관리 상태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귀하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의료비/간병비 준비	귀하께서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부채 부담	혹시 부채가 있으시다면 은퇴 전까지 모두 상환가능합니까?			
배우자 연금 준비 상태	귀하의 배우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	
	귀하의 배우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재무안정성 및 재무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은퇴자금 충분도

구분	초기문항	자문의견 반영한 문항 측정보기	
은퇴연령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언제 은퇴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지	
은퇴 후 필요생활비	은퇴 이후 지금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만큼의 생활비(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경조사비, 여가활동비, 일상적인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3,0000 만원)	유지	
	은퇴 이후에 혹시 걸릴지도 모르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 치료 비용 및 생애 말기의 장기간병비용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 만원)	유지	
은퇴 자산	보험 충당	혹시 가입하신 질병보험 혹은 간병보험이 있다면 위에서 응답하신 금액 중 보험을 통해 얼마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관련보험이 없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유지
	금융 자산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중 순수하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모아둔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개인연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 만원)	유지
	은퇴 목적 저축	매월 평균 얼마씩 저축하고 계십니까?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유지
		앞서 응답하신 금액 중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은 몇% 인니까? (개인연금을 포함)	유지
	주택 자산	혹시 귀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뺀 집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해당사항이 없거나 주택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자녀상속 등)에는 0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유지
	주택이 외자산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이 있다면 관련 부채 잔액을 뺀 금액 중 얼마 정도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00만원)	유지
	공적 연금 자산	은퇴 후 매달 평균 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모르시는 경우 99999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가치로,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0~10,000 만원)	유지
	퇴직 사적 연금 자산	귀하의 배우자가 은퇴 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유지
귀하와 배우자가 은퇴 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연금 수령금액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유지	

<부록 4>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지표 수정 및 보완

A. 건강관리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사 반영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전반적 평가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실천 (관리)	일상 생활 관리	식생활관리	귀하께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운동관리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흡연량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매일 한 갑 이상을 피운다. ② 매일 반 갑~한 갑 정도를 피운다. ③ 매일 반 갑 이하를 피운다. ④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 가끔 피운다. ⑤ 전혀 피우지 않는다. ○
		음주량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번 정도 ③ 한 달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1번 미만 ⑤ 전혀 없다(술을 마시지 않는다) ○

		수면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휴식	귀하께서는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질병 관리	건강검진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중증질병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다	0 (수정)
			귀하가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만성질병	귀하가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병이 몇 개 있습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다	0 (수정)
			귀하가 앓고 있는 만성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정신 건강 관리	우울감	①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선택/미선택
	②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0
	③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0
④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0	
⑤ 할 일이 너무 많아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거나 다 하지 못할 때도 있다.				X	
⑥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하다.				X	

			⑦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O
			⑧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죽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		X
			⑨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X
			⑩ 나의 미래(노후)가 희망적이지 않다.		X
	스트레스 빈도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스트레스 해소방법	귀하께서는 귀하의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BMI		귀하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키 : () cm	O
				체중 : () kg	O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O

B. 대인관계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사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귀하께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귀하께서는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귀하께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배우자와의 관계	B1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배우자없음(0) 전혀 없다(1) ~ 매우 자주 있다(5)	O
		B2	귀하께서는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O
		B3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O
		B4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십니까?	배우자 없음(0)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B5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O
		B6	귀하께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의견충돌이나 갈등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O
		B7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 대립 없이 잘 해결하십니까?		O
	자녀와의 관계	B8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자녀 없음(0) 전혀 없다(1) ~ 매우 자주 있다(5)	O

		B9	귀하께서는 평소에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0	
		B10	귀하께서는 자녀와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0	
		B11	귀하께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십니까?	자녀없음(0)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B12	귀하께서는 자녀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십니까?		0	
		B13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존중을 받거나 책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B14	귀하께서는 자녀와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 대립 없이 잘 해결하십니까?		0	
	친족과의 관계	B15	귀하께서는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형제자매, 친지없음(0) 전혀 없다(1) ~매우 자주 있다(5)	0
	사회적 관계	B16	귀하께서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친구 없음(0) 전혀 없다(1) ~매우 자주 있다(5)	0
		B17	귀하께서는 직장동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0		
		B18	귀하께서는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음(0) 1명(1) 2~3명(2) 4~7명(3) 8명 이상(4)	0	
		B19	귀하께서는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직장동료가 있으십니까?		0	
	정서적 교류	B20	귀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0 (수정)	
		B21	귀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0 (수정)	
		B22	귀하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0 (수정)	
		B23	귀하께서는 필요할 때 소소한 일이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0 (수정)	

		B24	귀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힘들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O (수정)
		B25	귀하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O (수정)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귀하께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은퇴 후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상대적 중요도	B0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O

C. 주거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사 변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주거계획 인식		귀하는 은퇴 후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거주형태		귀하께서는 은퇴 후 어디에서 생활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안전성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쾌적성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접근성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접근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안정성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유지관리 용이성	귀하께서는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의 유지관리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0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상대적 중요도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0

D. 여가활동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준비인식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유시간활용인식	D1	귀하는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을 위한 레저형 활동이나 타인을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하지만 소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활동의 지속성	D2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비용관리	D3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동반자관리	D4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활동 정보활용	D5	귀하께서는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귀하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여가활동 참여정도	D6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가중치	중요도		귀하는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상대적 중요도	D0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 일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사 반영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퇴 후 일은 재취업, 창업, 창직, 귀농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퇴 후 일에 계획을 세우시거나 준비 또는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한 생각 등)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추가)
경력 및 경험관리	E1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할 일을 위해 자신의 역량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수정)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경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E2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로 연결될 만한 사회봉사활동, 자기계발, 취미여가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수정)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의 경험, 지식, 취미여가, 자원봉사가 은퇴 후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과 현재의 직장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일 관련 정보관리	E3	귀하께서는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시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기관, 박람회,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일에 대한 의지	E4	귀하께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E5	귀하께서는 은퇴 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계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상대적 중요도	E0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O

F. 재무설계

1) 재무관리

구분	항목	번호	예비조사문항	본조사 반영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가전
			귀하는 전반적으로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	점중도
Action	공무원 연금 인식	F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수정)	측있
	기타연금 인식	F2	개인연금 등의 연금상품 예상수령액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수정)	측있
			귀하께서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무원연금 이외의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점

	은퇴 후 생활비 인식	F3	귀하께서는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추가)	은 식	
	의료비/간병비 준비	F4	귀하께서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은퇴 후 부채부담	F5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추가)	은 경	
	재무관리 상태	F6	귀하께서는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O		
		F7	귀하께서는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F8	귀하께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귀하의 위험 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F9	귀하께서는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가중치	중요도		귀하께서는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X	
		상대적 중요도	F0	다음의 6가지 영역이 귀하의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O	타

2) 은퇴소득대체율 및 자금충분도 관련 문항 모두 삭제

공무원 은퇴준비 자가진단 측정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지는 건강관리, 대인관계, 주거계획, 여가생활, 일자리, 재무관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개인정보 및 세부 응답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중단하기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을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조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모든 답변은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P. 다음은 응답자를 분류하기 위한 문항으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P1. 현재 공무원 직종 및 직군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일반직 공무원 ② 소방공무원 ③ 교육공무원
P2.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P3. 다음의 구분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국가직 공무원 ② 지방직 공무원
P4. 출생년도는?	()년
P5. 혼인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이혼/별거/사별 ④ 기타
P6. (미혼 제외) 자녀 유무 및 명수는?	① 없다 ② 있다 (명)
P7. 월평균 소득은?(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한 소득)	월평균 ()만원

P8. 다음의 6가지 영역이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 총합이 100% 안되는 경우 경고창)

영역별 비중 (총합 100%)					
건강관리	()%	여가생활준비	()%		
대인관계관리	()%	일자리 준비	()%		
주거계획	()%	재무관리와 준비	()%		

A. 다음은 “건강관리”에 대한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A1.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2.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2.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4.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5.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6.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A8.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 키 : () cm • 체중 : () kg

B. 다음은 “대인관계 관리”에 대한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B1.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 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2. 평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지인(친구, 이웃 등)과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친지,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없음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 이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1.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2.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3.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4.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B3.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2.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 를 하고 계십니까?						
3.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십니까?						

B4.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 하십니까?						
2.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 를 하고 계십니까?						

B5.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없음	1~2명	3~4명	5~6명	7~8명	9명 이상
1.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2.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C. 다음은 “주거계획”에 대한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C1.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2. 은퇴 후 주거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C2.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2.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접근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 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6. 은퇴 후 어디에서 생활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7.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집의 규모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					

D. 다음은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위한 여가활동과 일은 다른 영역과 달리 가이드를 주는 방향이 달라서 목적(유형)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레저형 여가:**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취미·오락활동(수집, 생활공예, 요리, 게임, 바둑·장기, 애완동물 기르기, 산책, 목욕, 사우나, 낮잠, TV시청, 비디오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신문·잡지읽기 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 **사회참여형 여가 :**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담당하고 보람된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 하는 여가활동으로 사회봉사, 종교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D1. 은퇴 후 여가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레저형 여가를 즐기 위해 ② 사회참여형 여가를 즐기 위해 ③ 생각해본 적 없음

D2.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D3.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3.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4.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 본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D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E. 다음은 “일”에 대한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 은퇴 후 일은 재취업, 창업, 창직(創職, Job Creation), 귀농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E1. 은퇴 후 일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유지형 일)
- ② 자기발전과 적성개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가치추구형 일)
- ③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 (자아실현형 일)
- ④ 일할 생각 없음

E2.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E3.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 은퇴 후 활동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3.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4. 은퇴 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개발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5.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F. 다음은 “재무관리와 준비”에서의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F1.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2.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없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2.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3.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4.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5.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6.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3. 각 문항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해당없음	있다	없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한 적이 있다.			
2. 개인연금 등의 연금상품 예상수령액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 (※ 공무원연금 이외에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Q. 마지막으로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SQ2.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규모는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SQ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SQ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연수 제외)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한국은행,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은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SQ5.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은퇴준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연수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SQ5-1) ② 없다

SQ5-1. 교육 내용이 은퇴준비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부록 6>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에 대한 자문 내용 및 반영사항

자문의견	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교육을 받기 전 사전 평가 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고나서 그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는냐에 대해 다시 자가진단을 통해 평가 필요 미래설계과정의 교육내용과 목차를 고려하여 설문 문항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 영역의 목적은 공무원의 은퇴준비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은퇴준비 관련 교육 효과를 진단하는 지표가 아님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문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진단 개발은 추후 공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주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 상에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 결과물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솔루션이 필요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를 양성하거나 다른 전문적인 기관(재무 분야 - 은행, 증권, 보험사의 재무사와 연계; 대인관계 분야 - 협약된 상담센터)과 연결하는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 영역의 범위에는 상담 컨텐츠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해석에 사용될 가이드(간단한 정보)만 포함함 자가진단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단결과를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관련된 문항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한 달 동안 얼마를 벌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더 현실적임 건강관리 영역에서 중증질병/만성질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는 것처럼, 재무관리 영역에서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자녀교육비가 자산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 결혼비를 얼마나 생각(고려)하고 계십니까?’ 등과 같은 자녀에 대한 지출 관련 문항 추가 필요 → 재무관리 준비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의견의 내용은 모두 필요하며 은퇴준비 상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은 맞음 그러나 자가진단 지표의 특성 상 진단결과를 점수화하기 위해 척도화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의견들은 점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반영하지 않음 추후 자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추가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은 크게 고민 없이 답변한 문항은 높은 점수/고민한 문항은 낮은 점수로 나타남. ‘은퇴 후 어디(서울/지방도시/농촌)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라는 문항을 추가하면 생활비, 자녀와의 관계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영역에서 BMI지수 활용방안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점수화하기 어려운 관계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가 재무관리 영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여부 관련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부부를 고려하는 것은 본 연구 영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공무원의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단순화한 지표 개발이 우선이며, 향후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및 보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공단에서는 이번 개발된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상담 연계, 지표의 정교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인 계획인 수립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이후부터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0-40대부터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본 연구 영역에서는 공무원연금 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지 않고 퇴직예정공무원들로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 공무원부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일정 수(가령, 신입공무원 포함하여 1,000명 정도)의 패널을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신입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이들의 생애 경로를 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타 직업군과의 비교도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는 공무원 대상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1단계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추후 전 연령대, 특히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은퇴준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후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로의 수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영역 분류의 경우 주거를 재무설계에 포함하면 5대 영역으로 단순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 영역에서는 기존대로 6대 영역을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가중치, 객관적 가중치와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 주관적 가중치로 계산한 은퇴준비지수(RRS)와 객관적 가중치(평균)를 계산한 조정 은퇴준비지수(Adjusted RRS)를 구해서 비교하는 것을 제안 RRS vs ARRS 비교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고려할 것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은퇴준비점수(RRS)와 객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은퇴준비 점수(A-RRS)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자문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에서의 가중치를 “객관적” 수치로 설정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의견 많음 (아래 참고) 따라서 본 연구영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다만 A-RRS가 필요한 이유는 영역별로 지나치게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므로, A-RRS를 산출하는 대신 가중치가 0인 영역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영역에 대한 준비도 생각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고 그 필요성에

	<p>대해서도 가이드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 함</p> <p>(아래 - 객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A-RRS 산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의 경우 전문가 조사와 응답자 평균을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두 개를 평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함. 조정지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전문가 의견이 좋을 것 같음 • ‘객관적’ 가중치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객관적 가중치가 꼭 필요한지 의문임 • 주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은퇴준비점수(RSS)와 객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은퇴준비점수(A-RSS)를 비교했는지 문의 •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구한 가중치를 객관적 가중치라고 명명하기 어려움 • 응답자의 평균은 응답인원이 증가할수록 가중치도 변하는데 이를 객관적 가중치라고 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준이 적정 평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됨.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사용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 지표에 포함된 모든 문항과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점수가 더 높거나 또는 은퇴준비를 더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평균차이를 본 결과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은퇴준비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할 때에는 적절한 비교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예를들어, 교육을 받지 않은 A의 자가진단 결과가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평균보다 높을 경우, 은퇴준비 교육이 필요함을 전달하기 곤란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자가진단 지표(→국가지표,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승인사항)와 진단지가 혼용되는 부분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되는 진단이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자가진단 문항과 혼용되는 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측정 문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문항으로 문항 자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측정 방법의 경우 본 연구 영역에서는 척도화 방법에 차별을 두고 있어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판단됨 • 다만 자가진단 지표라는 용어보다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자가진단 서비스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공단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문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분석 활용 방안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영역별 100점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알고 난 후(객관화), 군집분석의 집단 비교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상대비교)를 알 수 있는 데 유용할 것임 • 군집분석을 통한 비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본인의 reference에 대하여 비교해 주는 것과 ideal 한 모습(절대 점수 몇 점 이상)에 대하여 비교해 주는 것만 있어도 충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분석 결과는 본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것으로 이를 개개인의 자가진단 결과에 반영하여 유형화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통한 비교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참고자료만 사용할 예정임 •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자가진단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적절히 활용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집1과 군집3의 명칭을 ‘우수준비형’ 과 ‘평균균형형’ 수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의 군집분석 결과에 명칭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별 하위영역이 3개 또는 4개인데 이를 3개로 일관되게 통일하는 것을 고려(현재도 나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영역을 3개 하위영역으로 통일성을 두면 더 좋겠으나,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두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은퇴준비에 대한 자가진단을 개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및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은퇴준비의 각 영역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원에서 개개인이 인지하는 개념과 중요도, 우선 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진단 후 교육과정 또는 연수, 상담 등을 종합적 또는 복합적 진단 서비스의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집단 평균과의 비교 등 계량화된 정보 이외에 각 개인의 취약영역에 대한 복합적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해야 개개인이 자신의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본 연구 결과 및 자가진단항목에는 이러한 복합적 접근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추가 연구 및 진단척도 개발 등을 위한 향후 과제 또는 제안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수렴하여 제언에 제시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영역] 마지막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는 척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영역]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정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어색함. 형용사를 삭제해도 내용 전달에 지장은 없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정한 →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수정 •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틀리지 않으나, 대화의 질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대화의 수준을 정의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 주거환경 ‘안정성’ 항목의 문항 질문에는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로 되어 있음.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안정성 (일부 오타임) → 주거환경 안전성으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 조사대상 공무원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영역의 은퇴준비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33PPT) 이는 현재 자가주택 보유여부와 큰 관계가 있어 보임. 대다수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주택을 기준으로 자가주택 거주 상황을 생각하고 노후주거준비를 판단했을 것 같음. 그러나 현 주택이 노후에 가장 최선의 주거는 아닐 수 있어, 이를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은퇴 후 주거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될지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준비에서 주거 영역에 대한 자가진단의 한계를 인정함 그러나 6대 영역으로 은퇴준비를 확장하고 은퇴 전 당장의 주거 변경이나 실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주거 영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포함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 29PPT에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현 주택 소유권여부(자가/타가)나 자가주택 보유 여부 등의 항목 조사여부 문의. 주택소유는 가장 큰 노후자산 준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진단 지표에 집의 소유형태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나 이를 점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영역] 용어의 수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영역 중, 주거환경 → 주거수준 - 접근성 → 편의성 - 은퇴 후 거주 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 → ~거주하실 주택 마련 및 주거비 등 경제적 안정성 - 주택운영 → 주택자산운영 - 유형의 설명에서 은퇴 후 어디에서 생활하실지 ~ → 거주하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영역] 여가활동 지속성, 정보활용, 동반자, 여가비용 등을 기준으로 방사선 그래프를 제시하였음. 동반자의 경우 명목척도로서 어떻게 점수화하였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자는 명목척도가 아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방사선 그래프 제시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영역] 설문문항에 제시되었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위의 네 가지 요인들(여가지속성, 정보활용, 여가비용, 동반자)이 진단결과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영역]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활동계획을 축으로 하여 4사분면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여가활동이 중요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전체 7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시사점이 있지만, 거의 80%에 속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좀 더 다른 차원의 구분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음(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 용역의 목적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부족한 은퇴준비 또는 향후 은퇴준비를 위한 상담 전략은 본 용역의 범위에 벗어남 향후 공단의 자가지단 결과 활용 계획에 따라 상담으로의 연계가 진행될 시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제언 부분에 제시하기로 함

1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12. 은퇴 후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생계유지를 위한 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일 포함

13.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은퇴준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연수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연수 제외)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한국은행,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은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은퇴준비영역별 중요도

1. 다음의 6가지 영역이 은퇴 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 영역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	합 100%
대인관계관리	()%	
주거계획	()%	
여가생활준비	()%	
일자리 준비	()%	
재무관리와 준비	()%	

A. 건강관리

1. 은퇴 후 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한 식생활이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폭식을 하지 않는 등의 식생활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규칙적인 운동이란 땀을 흘리거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되는 기준)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담배를 피운다. ②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다.

6.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또는 남성의 경우 맥주 2캔 정도, 여성의 경우 1캔 반)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2번 정도 ③ 한 달에 2~3번 정도
④ 한 달에 1번 미만 ⑤ 전혀 없다(술을 마시지 않는다)

7. 최근 1개월 동안의 **수면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피로방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또는 개인의 필요에 의한 건강검진 모두 포함)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중증질병**이 있으십니까?

(※ 4대 중증질병 : 암, 뇌질환(뇌졸중/중풍),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희귀난치병)

- ① 있다 ② 없다 (→ 10-1 이동하여 응답)

10-1. (10에서 중증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중증질병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질병**이 있으십니까?

(※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

- ① 있다 ② 없다 (→ 11-1로 이동하여 응답)

11-1. (11에서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다음 중 지난 한 달 동안 본인의 경험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있다	없다
12-1.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다.		
12-2. 내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느낀 적이 있었다.		
12-3.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12-4.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12-5. 나는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13.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십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이외 스트레스 모두 포함)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있고, 힘든 일을 겪은 후 잘 이겨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키와 체중을 적어 주십시오.

- 키 : () cm • 체중 : () kg

B. 대인관계 관리

1. 은퇴 후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은퇴 후 대인관계를 위해 현재 대인관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평소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배우자없음

4. 평소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배우자없음

5. 평소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배우자없음

6.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배우자없음

※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7.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자녀없음

8.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자녀없음

9.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자녀없음

※ 다음은 가족이외의 친지나 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할 대상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0. **형제자매(본인과 배우자 쪽 모두 포함)·친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다정하고 기분 좋은 시간(외출, 여행, 대화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형제자매,친지없음

11.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친구, 이웃 없음

※ 다음 질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나 친지, 친구나 이웃 등의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평소 **부담 없이 마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대화할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①없음 ②1~2명 ③3~4명 ④5~6명 ⑤7~8명 ⑥9명 이상

13. 평소 문제발생 시 도움이나 조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 ①없음 ②1~2명 ③3~4명 ④5~6명 ⑤7~8명 ⑥9명 이상

C. 주거

1. 은퇴 후 생활에서 **주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주지역, 근린시설 접근성, 주변환경, 주택유지관리, 경제적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중요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은퇴 후 **주거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안전성**이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단차 없애기,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쾌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쾌적성**이란 주택 주변의 외부 경사도, 공기오염,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 주변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편의성**이란 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병원, 대중교통 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것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유지관리 용이성**이란 주택의 규모나 층수, 정원설치 등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지 않은 것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은퇴 후 거주하실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주택의 경제적 안정성**이란 주택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임대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세금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은퇴 후 주거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집의 규모 줄일 것인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등)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은퇴 후 어디에서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현재 거주주택에서 계속 거주, 다른 주택으로 이주(귀촌 포함), 실버타운 입주, 해외은퇴이민 등과 같은 거주하실 지역이 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의미)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은퇴 후 누구와 함께 거주하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부부만 거주, 자녀와 함께, 동호회 주택 등)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D. 여가활동

• 본 진단에서 의미하는 “여가”는 레저형 여가와 사회참여형 여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 레저형 여가 :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 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취미·오락활동 등(수집, 생활공예, 요리, 게임, 바둑·장기, 애완동물 기르기, 산책, 목욕, 사우나, 낮잠, TV시청, 비디오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신문·잡지읽기 등) 등의 다양한 활동
- 사회참여형 여가 :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담당하고 보람된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여가활동으로 사회봉사, 종교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

1.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은퇴 후 늘어날 여유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은퇴 후 여가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최근 6개월 동안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없음. ② 전혀 하지 못했다. ③ 거의 하지 못했다.
④ 보통이다. ⑤ 자주 한 편이다. ⑥ 매우 자주했다.

5. 은퇴 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지출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함)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은퇴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계십니까? (※ 본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의 종류나 활동 장소, 동반자,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이나 매체, 여가시설 등으로부터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 일

※ 본 진단에서 “일”은 은퇴 후 재취업, 창업, 귀농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은퇴 전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경우 등 자아실현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일도 포함합니다.

1. 은퇴 후 생활에서 일 관련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은퇴 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은퇴 후 일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은퇴 후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은퇴 후 일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탐색하고 활용하는 등 정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은퇴 후 일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재취업, 창업, 자기개발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F. 재무관리와 준비

1. 은퇴 후 **재무적 안정 및 재무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을 위해 재무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소득과 지출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지출 계획 시 **기본생활비, 기타 생활비,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본인의 **위험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되는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은퇴하신 후에도 **부채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은퇴 후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자녀를 위한 지출(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록 8> 6대 영역별 은퇴준비 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건강관리

<표> 건강관리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건강관리 영역				x ²	
	상 (n=466)	중상 (n=481)	중하 (n=385)	하 (n=418)		
성별	남성	197(42.3)	239(49.7)	203(52.7)	244(58.4)	23.867***
	여성	269(57.7)	242(50.3)	182(47.3)	174(41.6)	
연령	40-44	42(9.0)	46(9.6)	48(12.5)	57(13.6)	12.680
	45-49	104(22.3)	106(22.0)	84(21.8)	95(22.7)	
	50-54	129(27.7)	120(24.9)	80(20.8)	106(25.4)	
	55-59	191(41.0)	209(43.5)	173(44.9)	160(38.3)	
교육수준	고졸이하	27(5.8)	49(10.2)	53(13.8)	62(14.8)	63.842***
	대졸	191(41.0)	231(48.0)	191(49.6)	234(56.0)	
	대학원졸 이상	248(53.2)	201(41.8)	141(36.6)	122(29.2)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43(9.2)	35(7.3)	40(10.4)	55(13.2)	9.036*
	기혼(유배우)	423(90.8)	446(92.7)	345(89.6)	363(86.8)	
자녀 유무	없다	12(2.7)	11(2.4)	10(2.7)	19(4.9)	5.286
	있다	438(97.3)	449(97.6)	355(97.3)	370(95.1)	
거주지역	대도시	226(48.5)	236(49.1)	187(48.6)	190(45.5)	2.415
	중소도시	208(44.6)	205(42.6)	166(43.1)	193(46.2)	
	농어촌	32(6.9)	40(8.3)	32(8.3)	35(8.4)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42(73.4)	307(63.8)	228(59.2)	241(57.7)	28.912***
	지방직 공무원	124(26.6)	174(36.2)	157(40.8)	177(42.3)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38(29.6)	191(39.7)	189(49.1)	231(55.3)	73.055***
	소방직 공무원	6(1.3)	14(2.9)	6(1.6)	8(1.9)	
	교육직 공무원	322(69.1)	276(57.4)	190(49.4)	179(42.8)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2(11.2)	50(10.4)	43(11.2)	33(7.9)	3.314
	없다	414(88.8)	431(89.6)	342(88.8)	385(92.1)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39(8.4)	57(11.9)	55(14.3)	86(20.6)	70.115***
	500만원 미만	66(14.2)	71(14.8)	61(15.8)	86(20.6)	
	600만원 미만	83(17.8)	102(21.2)	81(21.0)	90(21.5)	
	700만원 미만	61(13.1)	69(14.3)	56(14.5)	46(11.0)	
	800만원 미만	62(13.3)	58(12.1)	34(8.8)	43(10.3)	
	900만원 미만	56(12.0)	54(11.2)	44(11.4)	26(6.2)	
	900만원 이상	99(21.2)	70(14.6)	54(14.0)	41(9.8)	

*p<0.05, **p<0.01, ***p<0.001

(2) 대인관계

<표> 대인관계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대인관계 영역				χ^2
		상 (n=443)	중상 (n=440)	중하 (n=455)	하 (n=412)	
성별	남성	185(41.8)	226(51.4)	257(56.5)	215(52.2)	20.649***
	여성	258(58.2)	214(48.6)	198(43.5)	197(47.8)	
연령	40-44	52(11.7)	42(9.5)	39(8.6)	60(14.6)	16.189
	45-49	89(20.1)	107(24.3)	93(20.4)	100(24.3)	
	50-54	120(27.1)	109(24.8)	114(25.1)	92(22.3)	
	55-59	182(41.1)	182(41.4)	209(45.9)	160(38.8)	
교육수준	고졸이하	32(7.2)	43(9.8)	67(14.7)	49(11.9)	24.986***
	대졸	205(46.3)	207(47.0)	213(46.8)	222(53.9)	
	대학원졸 이상	206(46.5)	190(43.2)	175(38.5)	141(34.2)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5(1.1)	1(0.2)	17(3.7)	150(36.4)	428.843***
	기혼(유배우)	438(98.9)	439(99.8)	438(96.3)	262(63.6)	
자녀 유무	없다	1(0.2)	2(0.5)	11(2.4)	38(11.6)	100.943***
	있다	442(99.8)	438(99.5)	442(97.6)	290(88.4)	
거주지역	대도시	223(50.3)	223(50.7)	210(46.2)	183(44.4)	8.210
	중소도시	180(40.6)	189(43.0)	212(46.6)	191(46.4)	
	농어촌	40(9.0)	28(6.4)	33(7.3)	38(9.2)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26(73.6)	286(65.0)	267(58.7)	239(58.0)	29.823***
	지방직 공무원	117(26.4)	154(35.0)	188(41.3)	173(42.0)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27(28.7)	172(39.1)	231(50.8)	219(53.2)	73.953***
	소방직 공무원	5(1.1)	10(2.3)	10(2.2)	9(2.2)	
	교육직 공무원	311(70.2)	258(58.6)	214(47.0)	184(44.7)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4(12.2)	48(10.9)	42(9.2)	34(8.3)	4.338
	없다	389(87.8)	392(89.1)	413(90.8)	378(91.7)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36(8.1)	37(8.4)	55(12.1)	109(26.5)	176.302***
	500만원 미만	54(12.2)	63(14.3)	66(14.5)	101(24.5)	
	600만원 미만	84(19.0)	87(19.8)	111(24.4)	74(18.0)	
	700만원 미만	54(12.2)	60(13.6)	70(15.4)	48(11.7)	
	800만원 미만	56(12.6)	66(15.0)	55(12.1)	20(4.9)	
	900만원 미만	51(11.5)	61(13.9)	42(9.2)	26(6.3)	
	900만원 이상	108(24.4)	66(15.0)	56(12.3)	34(8.3)	

* $p<0.05$, ** $p<0.01$, *** $p<0.001$

(3) 주거

<표> 주거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주거 영역				x ²
		상 (n=477)	중상 (n=436)	중하 (n=405)	하 (n=432)	
성별	남성	191(40.0)	228(52.3)	201(49.6)	263(60.9)	40.171***
	여성	286(60.0)	208(47.7)	204(50.4)	169(39.1)	
연령	40-44	53(11.1)	32(7.3)	49(12.1)	59(13.7)	16.347
	45-49	95(19.9)	98(22.5)	92(22.7)	104(24.1)	
	50-54	136(28.5)	109(25.0)	93(23.0)	97(22.5)	
	55-59	193(40.5)	197(45.2)	171(42.2)	172(39.8)	
교육수준	고졸이하	40(8.4)	36(8.3)	46(11.4)	69(16.0)	30.303***
	대졸	214(44.9)	209(47.9)	203(50.1)	221(51.2)	
	대학원졸 이상	223(46.8)	191(43.8)	156(38.5)	142(32.9)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57(11.9)	41(9.4)	35(8.6)	40(9.3)	3.288
	기혼(유배우)	420(88.1)	395(90.6)	370(91.4)	392(90.7)	
자녀 유무	없다	21(4.6)	7(1.7)	11(2.8)	13(3.2)	6.278
	있다	433(95.4)	406(98.3)	377(97.2)	396(96.8)	
거주지역	대도시	243(50.9)	204(46.8)	202(49.9)	190(44.0)	5.364
	중소도시	197(41.3)	197(45.2)	172(42.5)	206(47.7)	
	농어촌	37(7.8)	35(8.0)	31(7.7)	36(8.3)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40(71.3)	288(66.1)	250(61.7)	240(55.6)	26.000***
	지방직 공무원	137(28.7)	148(33.9)	155(38.3)	192(44.4)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52(31.9)	182(41.7)	175(43.2)	240(55.6)	60.693***
	소방직 공무원	6(1.3)	9(2.1)	6(1.5)	13(3.0)	
	교육직 공무원	319(66.9)	245(56.2)	224(55.3)	179(41.4)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4(11.3)	44(10.1)	37(9.1)	43(10.0)	1.190
	없다	423(88.7)	392(89.9)	368(90.9)	389(90.0)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61(12.8)	56(12.8)	44(10.9)	76(17.6)	37.983**
	500만원 미만	81(17.0)	70(16.1)	61(15.1)	72(16.7)	
	600만원 미만	87(18.2)	85(19.5)	86(21.2)	98(22.7)	
	700만원 미만	59(12.4)	57(13.1)	47(11.6)	69(16.0)	
	800만원 미만	45(9.4)	58(13.3)	56(13.8)	38(8.8)	
	900만원 미만	58(12.2)	49(11.2)	39(9.6)	34(7.9)	
	900만원 이상	86(18.0)	61(14.0)	72(17.8)	45(10.4)	

*p<0.05, **p<0.01, ***p<0.001

(4) 여가활동

<표> 여가활동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여가활동 영역				χ^2
		상 (n=486)	중상 (n=391)	중하 (n=437)	하 (n=436)	
성별	남성	245(50.4)	202(51.7)	240(54.9)	196(45.0)	8.991*
	여성	241(49.6)	189(48.3)	197(45.1)	240(55.0)	
연령	40-44	35(7.2)	43(11.0)	43(9.8)	72(16.5)	60.357***
	45-49	82(16.9)	67(17.1)	113(25.9)	127(29.1)	
	50-54	133(27.4)	104(26.6)	105(24.0)	93(21.3)	
	55-59	236(48.6)	177(45.3)	176(40.3)	144(33.0)	
교육수준	고졸이하	44(9.1)	32(8.2)	55(12.6)	60(13.8)	43.907***
	대졸	196(40.3)	186(47.6)	229(52.4)	236(54.1)	
	대학원졸 이상	246(50.6)	173(44.2)	153(35.0)	140(32.1)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40(8.2)	39(10.0)	38(8.7)	56(12.8)	6.476
	기혼(유배우)	446(91.8)	352(90.0)	399(91.3)	380(87.2)	
자녀 유무	없다	14(3.0)	15(4.0)	8(1.9)	15(3.8)	3.485
	있다	457(97.0)	361(96.0)	409(98.1)	385(96.3)	
거주지역	대도시	257(52.9)	194(49.6)	189(43.2)	199(45.6)	11.788
	중소도시	188(38.7)	170(43.5)	210(48.1)	204(46.8)	
	농어촌	41(8.4)	27(6.9)	38(8.7)	33(7.6)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53(72.6)	260(66.5)	261(59.7)	244(56.0)	32.414***
	지방직 공무원	133(27.4)	131(33.5)	176(40.3)	192(44.0)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41(29.0)	164(41.9)	213(48.7)	231(53.0)	63.441***
	소방직 공무원	11(2.3)	6(1.5)	9(2.1)	8(1.8)	
	교육직 공무원	334(68.7)	221(56.5)	215(49.2)	197(45.2)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4(11.1)	54(13.8)	40(9.2)	30(6.9)	11.801**
	없다	432(88.9)	337(86.2)	397(90.8)	406(93.1)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46(9.5)	36(9.2)	63(14.4)	92(21.1)	65.408***
	500만원 미만	70(14.4)	60(15.3)	84(19.2)	70(16.1)	
	600만원 미만	95(19.5)	76(19.4)	94(21.5)	91(20.9)	
	700만원 미만	56(11.5)	55(14.1)	59(13.5)	62(14.2)	
	800만원 미만	58(11.9)	51(13.0)	48(11.0)	40(9.2)	
	900만원 미만	64(13.2)	45(11.5)	40(9.2)	31(7.1)	
	900만원 이상	97(20.0)	68(17.4)	49(11.2)	50(11.5)	

* $p < 0.05$, ** $p < 0.01$, *** $p < 0.001$

(5) 일

<표> 일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일 영역				χ^2
		상 (n=447)	중상 (n=555)	중하 (n=567)	하 (n=181)	
성별	남성	239(53.5)	318(57.3)	263(46.4)	63(34.8)	33.505***
	여성	208(46.5)	237(42.7)	304(53.6)	118(65.2)	
연령	40-44	49(11.0)	52(9.4)	62(10.9)	30(16.6)	17.627*
	45-49	81(18.1)	128(23.1)	137(24.2)	43(23.8)	
	50-54	112(25.1)	142(25.6)	132(23.3)	49(27.1)	
	55-59	205(45.9)	233(42.0)	236(41.6)	59(32.6)	
교육수준	고졸이하	36(8.1)	65(11.7)	70(12.3)	20(11.0)	37.329***
	대졸	179(40.0)	266(47.9)	306(54.0)	96(53.0)	
	대학원졸 이상	232(51.9)	224(40.4)	191(33.7)	65(35.9)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47(10.5)	54(9.7)	51(9.0)	21(11.6)	1.317
	기혼(유배우)	400(89.5)	501(90.3)	516(91.0)	160(88.4)	
자녀 유무	없다	15(3.5)	16(3.0)	14(2.6)	7(4.2)	1.406
	있다	409(96.5)	516(97.0)	527(97.4)	160(95.8)	
거주지역	대도시	223(49.9)	240(43.2)	271(47.8)	105(58.0)	17.518**
	중소도시	180(40.3)	269(48.5)	256(45.1)	67(37.0)	
	농어촌	44(9.8)	46(8.3)	40(7.1)	9(5.0)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07(68.7)	346(62.3)	346(61.0)	119(65.7)	7.312
	지방직 공무원	140(31.3)	209(37.7)	221(39.0)	62(34.3)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63(36.5)	255(45.9)	266(46.9)	65(35.9)	17.734**
	소방직 공무원	11(2.5)	8(1.4)	11(1.9)	4(2.2)	
	교육직 공무원	273(61.1)	292(52.6)	290(51.1)	112(61.9)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61(13.6)	59(10.6)	48(8.5)	10(5.5)	12.119**
	없다	386(86.4)	496(89.4)	519(91.5)	171(94.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57(12.8)	84(15.1)	71(12.5)	25(13.8)	13.300
	500만원 미만	71(15.9)	88(15.9)	100(17.6)	25(13.8)	
	600만원 미만	95(21.3)	119(21.4)	110(19.4)	32(17.7)	
	700만원 미만	56(12.5)	76(13.7)	75(13.2)	25(13.8)	
	800만원 미만	44(9.8)	66(11.9)	69(12.2)	18(9.9)	
	900만원 미만	48(10.7)	54(9.7)	57(10.1)	21(11.6)	
	900만원 이상	76(17.0)	68(12.3)	85(15.0)	35(19.3)	

* $p<0.05$, ** $p<0.01$, *** $p<0.001$

(6) 재무관리

<표> 재무관리 영역 준비수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재무관리 영역				χ^2
		상 (n=464)	중상 (n=429)	중하 (n=434)	하 (n=423)	
성별	남성	207(44.6)	223(52.0)	226(52.1)	227(53.7)	8.934*
	여성	257(55.4)	206(48.0)	208(47.9)	196(46.3)	
연령	40-44	48(10.3)	37(8.6)	47(10.8)	61(14.4)	18.009*
	45-49	86(18.5)	90(21.0)	107(24.7)	106(25.1)	
	50-54	125(26.9)	110(25.6)	107(24.7)	93(22.0)	
	55-59	205(44.2)	192(44.8)	173(39.9)	163(38.5)	
교육수준	고졸이하	41(8.8)	39(9.1)	52(12.0)	59(13.9)	20.602**
	대졸	213(45.9)	194(45.2)	227(52.3)	213(50.4)	
	대학원졸 이상	210(45.3)	196(45.7)	155(35.7)	151(35.7)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56(12.1)	39(9.1)	31(7.1)	47(11.1)	7.165
	기혼(유배우)	408(87.9)	390(90.9)	403(92.9)	376(88.9)	
자녀 유무	없다	12(2.7)	15(3.6)	13(3.1)	12(3.0)	0.585
	있다	427(97.3)	398(96.4)	403(96.9)	384(97.0)	
거주지역	대도시	234(50.4)	221(51.5)	194(44.7)	190(44.9)	9.234
	중소도시	192(41.4)	183(42.7)	199(45.9)	198(46.8)	
	농어촌	38(8.2)	25(5.8)	41(9.4)	35(8.3)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20(69.0)	292(68.1)	272(62.7)	234(55.3)	22.169***
	지방직 공무원	144(31.0)	137(31.9)	162(37.3)	189(44.7)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50(32.3)	170(39.6)	204(47.0)	225(53.2)	46.715***
	소방직 공무원	7(1.5)	9(2.1)	9(2.1)	9(2.1)	
	교육직 공무원	307(66.2)	250(58.3)	221(50.9)	189(44.7)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6(12.1)	56(13.1)	30(6.9)	36(8.5)	12.051**
	없다	408(87.9)	373(86.9)	404(93.1)	387(91.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41(8.8)	49(11.4)	63(14.5)	84(19.9)	113.674***
	500만원 미만	56(12.1)	57(13.3)	83(19.1)	88(20.8)	
	600만원 미만	72(15.5)	94(21.9)	95(21.9)	95(22.5)	
	700만원 미만	69(14.9)	48(11.2)	58(13.4)	57(13.5)	
	800만원 미만	48(10.3)	59(13.8)	50(11.5)	40(9.5)	
	900만원 미만	64(13.8)	53(12.4)	35(8.1)	28(6.6)	
	900만원 이상	114(24.6)	69(16.1)	50(11.5)	31(7.3)	

* $p<0.05$, ** $p<0.01$, *** $p<0.001$

<부록 9> 6대 영역별 하위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건강관리

<표> 건강관리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건강관리 영역				χ^2
		양호-균형 (n=430)	양호-불균형 (n=573)	미흡-불균형 (n=457)	위험 (n=290)	
성별	남성	165(38.4)	290(50.6)	261(57.1)	167(57.6)	39.119***
	여성	265(61.6)	283(49.4)	196(42.9)	123(42.4)	
연령	40-44	60(14.0)	61(10.6)	39(8.5)	33(11.4)	24.502**
	45-49	110(25.6)	120(20.9)	98(21.4)	61(21.0)	
	50-54	103(24.0)	150(26.2)	96(21.0)	86(29.7)	
	55-59	157(36.5)	242(42.2)	224(49.0)	110(37.9)	
교육수준	고졸이하	18(4.2)	68(11.9)	60(13.1)	45(15.5)	61.212***
	대졸	187(43.5)	264(46.1)	233(51.0)	163(56.2)	
	대학원졸 이상	225(52.3)	241(42.1)	164(35.9)	82(28.3)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46(10.7)	45(7.9)	42(9.2)	40(13.8)	8.193*
	기혼(유배우)	384(89.3)	528(92.1)	415(90.8)	250(86.2)	
	없다	8(2.0)	15(2.7)	17(3.9)	12(4.5)	
자녀 유무	있다	400(98.0)	538(97.3)	420(96.1)	254(95.5)	4.671
	대도시	212(49.3)	289(50.4)	198(43.3)	140(48.3)	
거주지역	중소도시	188(43.7)	237(41.4)	222(48.6)	125(43.1)	6.813
	농어촌	30(7.0)	47(8.2)	37(8.1)	25(8.6)	
	공무원	국가지 공무원	308(71.6)	374(65.3)	277(60.6)	
종류	지방직 공무원	122(28.4)	199(34.7)	180(39.4)	131(45.2)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34(31.2)	223(38.9)	227(49.7)	165(56.9)	71.484***
	소방직 공무원	3(0.7)	19(3.3)	6(1.3)	6(2.1)	
	교육직 공무원	293(68.1)	331(57.8)	224(49.0)	119(41.0)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45(10.5)	65(11.3)	40(8.8)	28(9.7)	1.994
	없다	385(89.5)	508(88.7)	417(91.2)	262(90.3)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40(9.3)	67(11.7)	66(14.4)	64(22.1)	72.735***
	500만원 미만	60(14.0)	87(15.2)	78(17.1)	59(20.3)	
	600만원 미만	71(16.5)	124(21.6)	97(21.2)	64(22.1)	
	700만원 미만	58(13.5)	75(13.1)	67(14.7)	32(11.0)	
	800만원 미만	64(14.9)	59(10.3)	41(9.0)	33(11.4)	
	900만원 미만	46(10.7)	69(12.0)	47(10.3)	18(6.2)	
	900만원 이상	91(21.2)	92(16.1)	61(13.3)	20(6.9)	

* $p<0.05$, ** $p<0.01$, *** $p<0.001$

(2) 대인관계

<표> 대인관계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대인관계 영역				χ^2
		양호-균형 (n=301)	양호-불균형 (n=854)	미흡-불균형 (n=343)	위험 (n=252)	
성별	남성	139(46.2)	405(47.4)	179(52.2)	160(63.5)	22.885***
	여성	162(53.8)	449(52.6)	164(47.8)	92(36.5)	
연령	40-44	37(12.3)	104(12.2)	35(10.2)	17(6.7)	9.484
	45-49	67(22.3)	196(23.0)	73(21.3)	53(21.0)	
	50-54	79(26.2)	207(24.2)	86(25.1)	63(25.0)	
	55-59	118(39.2)	347(40.6)	149(43.4)	119(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22(7.3)	81(9.5)	45(13.1)	43(17.1)	33.127***
	대졸	129(42.9)	411(48.1)	178(51.9)	129(51.2)	
	대학원졸 이상	150(49.8)	362(42.4)	120(35.0)	80(31.7)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0(0.0)	59(6.9)	57(16.6)	57(22.6)	104.833***
	기혼(유배우)	301(100.0)	795(93.1)	286(83.4)	195(77.4)	
	없다	0(0.0)	29(3.5)	14(4.5)	9(4.1)	
자녀 유무	있다	301(100.0)	804(96.5)	299(95.5)	208(95.9)	12.687**
	없다	0(0.0)	29(3.5)	14(4.5)	9(4.1)	
거주지역	대도시	157(52.2)	418(48.9)	151(44.0)	113(44.8)	8.753
	중소도시	116(38.5)	377(44.1)	160(46.6)	119(47.2)	
	농어촌	28(9.3)	59(6.9)	32(9.3)	20(7.9)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220(73.1)	554(64.9)	201(58.6)	143(56.7)	21.132***
	지방직 공무원	81(26.9)	300(35.1)	142(41.4)	109(43.3)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90(29.9)	339(39.7)	170(49.6)	150(59.5)	62.363***
	소방직 공무원	4(1.3)	17(2.0)	7(2.0)	6(2.4)	
	교육직 공무원	207(68.8)	498(58.3)	166(48.4)	96(38.1)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34(11.3)	91(10.7)	31(9.0)	22(8.7)	1.691
	없다	267(88.7)	763(89.3)	312(91.0)	230(91.3)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3(7.6)	91(10.7)	59(17.2)	64(25.4)	113.004***
	500만원 미만	40(13.3)	125(14.6)	66(19.2)	53(21.0)	
	600만원 미만	57(18.9)	171(20.0)	85(24.8)	43(17.1)	
	700만원 미만	33(11.0)	117(13.7)	45(13.1)	37(14.7)	
	800만원 미만	40(13.3)	115(13.5)	32(9.3)	10(4.0)	
	900만원 미만	35(11.6)	103(12.1)	26(7.6)	16(6.3)	
	900만원 이상	73(24.3)	132(15.5)	30(8.7)	29(11.5)	

** $p < 0.01$, *** $p < 0.001$

(3) 주거

<표> 주거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주거 영역				χ^2
		양호-균형 (n=748)	양호-불균형 (n=376)	미흡-불균형 (n=251)	위험 (n=375)	
성별	남성	350(46.8)	180(47.9)	125(49.8)	228(60.8)	21.117***
	여성	398(53.2)	196(52.1)	126(50.2)	147(39.2)	
연령	40-44	88(11.8)	31(8.2)	31(12.4)	43(11.5)	76.885***
	45-49	188(25.1)	75(19.9)	49(19.5)	77(20.5)	
	50-54	112(15.0)	137(36.4)	73(29.1)	113(30.1)	
	55-59	360(48.1)	133(35.4)	98(39.0)	142(37.9)	
교육수준	고졸이하	60(8.0)	35(9.3)	34(13.5)	62(16.5)	33.762***
	대졸	346(46.3)	183(48.7)	136(54.2)	182(48.5)	
	대학원졸 이상	342(45.7)	158(42.0)	81(32.3)	131(34.9)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84(11.2)	34(9.0)	27(10.8)	28(7.5)	4.494
	기혼(유배우)	664(88.8)	342(91.0)	224(89.2)	347(92.5)	
	없다	27(3.8)	6(1.7)	9(3.8)	10(2.8)	
자녀 유무	있다	683(96.2)	351(98.3)	226(96.2)	352(97.2)	4.080
	없다	27(3.8)	6(1.7)	9(3.8)	10(2.8)	
거주지역	대도시	358(47.9)	206(54.8)	114(45.4)	161(42.9)	14.274*
	중소도시	328(43.9)	148(39.4)	111(44.2)	185(49.3)	
	농어촌	62(8.3)	22(5.9)	26(10.4)	29(7.7)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520(69.5)	247(65.7)	139(55.4)	212(56.5)	27.478***
	지방직 공무원	228(30.5)	129(34.3)	112(44.6)	163(43.5)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276(36.9)	144(38.3)	122(48.6)	207(55.2)	48.525***
	소방직 공무원	9(1.2)	9(2.4)	5(2.0)	11(2.9)	
	교육직 공무원	463(61.9)	223(59.3)	124(49.4)	157(41.9)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93(12.4)	25(6.6)	28(11.2)	32(8.5)	10.661*
	없다	655(87.6)	351(93.4)	223(88.8)	343(91.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98(13.1)	42(11.2)	31(12.4)	66(17.6)	24.795
	500만원 미만	118(15.8)	65(17.3)	38(15.1)	63(16.8)	
	600만원 미만	145(19.4)	77(20.5)	51(20.3)	83(22.1)	
	700만원 미만	93(12.4)	47(12.5)	34(13.5)	58(15.5)	
	800만원 미만	91(12.2)	39(10.4)	31(12.4)	36(9.6)	
	900만원 미만	90(12.0)	36(9.6)	27(10.8)	27(7.2)	
	900만원 이상	113(15.1)	70(18.6)	39(15.5)	42(11.2)	

* $p<0.05$, ** $p<0.01$, *** $p<0.001$

(4) 여가활동

<표> 여가활동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여가활동 영역				χ^2
		양호-균형 (n=472)	양호-불균형 (n=541)	미흡-불균형 (n=269)	위험 (n=468)	
성별	남성	237(50.2)	265(49.0)	138(51.3)	243(51.9)	0.960
	여성	235(49.8)	276(51.0)	131(48.7)	225(48.1)	
연령	40-44	49(10.4)	77(14.2)	23(8.6)	44(9.4)	48.872***
	45-49	96(20.3)	163(30.1)	54(20.1)	76(16.2)	
	50-54	117(24.8)	114(21.1)	67(24.9)	137(29.3)	
	55-59	210(44.5)	187(34.6)	125(46.5)	211(45.1)	
교육수준	고졸이하	39(8.3)	45(8.3)	41(15.2)	66(14.1)	46.784***
	대졸	191(40.5)	281(51.9)	125(46.5)	250(53.4)	
	대학원졸 이상	242(51.3)	215(39.7)	103(38.3)	152(32.5)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38(8.1)	59(10.9)	28(10.4)	48(10.3)	2.571
	기혼(유배우)	434(91.9)	482(89.1)	241(89.6)	420(89.7)	
	없다	14(3.1)	19(3.7)	8(3.1)	11(2.5)	
자녀 유무	있다	442(96.9)	496(96.3)	246(96.9)	428(97.5)	1.103
	없다	14(3.1)	19(3.7)	8(3.1)	11(2.5)	
거주지역	대도시	252(53.4)	250(46.2)	133(49.4)	204(43.6)	10.857
	중소도시	186(39.4)	249(46.0)	112(41.6)	225(48.1)	
	농어촌	34(7.2)	42(7.8)	24(8.9)	39(8.3)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46(73.3)	337(62.3)	167(62.1)	268(57.3)	28.018***
	지방직 공무원	126(26.7)	204(37.7)	102(37.9)	200(42.7)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38(29.2)	241(44.5)	123(45.7)	247(52.8)	58.808***
	소방직 공무원	9(1.9)	8(1.5)	6(2.2)	11(2.4)	
	교육직 공무원	325(68.9)	292(54.0)	140(52.0)	210(44.9)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52(11.0)	63(11.6)	27(10.0)	36(7.7)	4.809
	없다	420(89.0)	478(88.4)	242(90.0)	432(92.3)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41(8.7)	80(14.8)	32(11.9)	84(17.9)	51.452***
	500만원 미만	69(14.6)	80(14.8)	50(18.6)	85(18.2)	
	600만원 미만	93(19.7)	101(18.7)	54(20.1)	108(23.1)	
	700만원 미만	57(12.1)	72(13.3)	34(12.6)	69(14.7)	
	800만원 미만	57(12.1)	69(12.8)	31(11.5)	40(8.5)	
	900만원 미만	62(13.1)	60(11.1)	23(8.6)	35(7.5)	
	900만원 이상	93(19.7)	79(14.6)	45(16.7)	47(10.0)	

* $p<0.05$, *** $p<0.001$

(5) 일

<표> 일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일 영역				χ^2
		양호-균형 (n=807)	양호-불균형 (n=237)	미흡-불균형 (n=107)	위험 (n=599)	
성별	남성	438(54.3)	139(58.6)	49(45.8)	257(42.9)	25.667***
	여성	369(45.7)	98(41.4)	58(54.2)	342(57.1)	
연령	40-44	99(12.3)	6(2.5)	12(11.2)	76(12.7)	203.767***
	45-49	202(25.0)	17(7.2)	43(40.2)	127(21.2)	
	50-54	247(30.6)	24(10.1)	27(25.2)	137(22.9)	
	55-59	259(32.1)	190(80.2)	25(23.4)	259(43.2)	
교육수준	고졸이하	78(9.7)	22(9.3)	14(13.1)	77(12.9)	26.812***
	대졸	360(44.6)	108(45.6)	60(56.1)	319(53.3)	
	대학원졸 이상	369(45.7)	107(45.1)	33(30.8)	203(33.9)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88(10.9)	18(7.6)	9(8.4)	58(9.7)	2.625
	기혼(유배우)	719(89.1)	219(92.4)	98(91.6)	541(90.3)	
자녀 유무	없다	28(3.7)	4(1.7)	3(2.9)	17(3.0)	2.280
	있다	736(96.3)	228(98.3)	100(97.1)	548(97.0)	
거주지역	대도시	379(47.0)	103(43.5)	48(44.9)	309(51.6)	8.855
	중소도시	355(44.0)	113(47.7)	53(49.5)	251(41.9)	
	농어촌	73(9.0)	21(8.9)	6(5.6)	39(6.5)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518(64.2)	164(69.2)	57(53.3)	379(63.3)	8.254*
	지방직 공무원	289(35.8)	73(30.8)	50(46.7)	220(36.7)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341(42.3)	93(39.2)	55(51.4)	260(43.4)	8.231
	소방직 공무원	17(2.1)	3(1.3)	4(3.7)	10(1.7)	
	교육직 공무원	449(55.6)	141(59.5)	48(44.9)	329(54.9)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94(11.6)	30(12.7)	7(6.5)	47(7.8)	8.617*
	없다	713(88.4)	207(87.3)	100(93.5)	552(92.2)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123(15.2)	21(8.9)	13(12.1)	80(13.4)	16.061
	500만원 미만	124(15.4)	47(19.8)	23(21.5)	90(15.0)	
	600만원 미만	167(20.7)	51(21.5)	19(17.8)	119(19.9)	
	700만원 미만	108(13.4)	31(13.1)	18(16.8)	75(12.5)	
	800만원 미만	90(11.2)	25(10.5)	11(10.3)	71(11.9)	
	900만원 미만	77(9.5)	26(11.0)	12(11.2)	65(10.9)	
	900만원 이상	118(14.6)	36(15.2)	11(10.3)	99(16.5)	

* $p < 0.05$, ** $p < 0.01$, *** $p < 0.001$

(6) 재무관리

<표> 재무관리 영역 균형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재무관리 영역				χ^2
		양호-균형 (n=472)	양호-불균형 (n=508)	미흡-불균형 (n=440)	위험 (n=330)	
성별	남성	213(45.1)	254(50.0)	223(50.7)	193(58.5)	13.923**
	여성	259(54.9)	254(50.0)	217(49.3)	137(41.5)	
연령	40-44	48(10.2)	54(10.6)	60(13.6)	31(9.4)	15.406
	45-49	117(24.8)	95(18.7)	111(25.2)	66(20.0)	
	50-54	115(24.4)	137(27.0)	95(21.6)	88(26.7)	
	55-59	192(40.7)	222(43.7)	174(39.5)	145(43.9)	
교육수준	고졸이하	40(8.5)	49(9.6)	55(12.5)	47(14.2)	15.961*
	대졸	217(46.0)	242(47.6)	221(50.2)	167(50.6)	
	대학원졸 이상	215(45.6)	217(42.7)	164(37.3)	116(35.2)	
혼인상태	미혼/기혼(무배우)	59(12.5)	42(8.3)	45(10.2)	27(8.2)	6.247
	기혼(유배우)	413(87.5)	466(91.7)	395(89.8)	303(91.8)	
	없다	16(3.6)	16(3.3)	10(2.4)	10(3.2)	
자녀 유무	있다	431(96.4)	473(96.7)	407(97.6)	301(96.8)	1.076
	없다	16(3.6)	16(3.3)	10(2.4)	10(3.2)	
거주지역	대도시	246(52.1)	246(48.4)	209(47.5)	138(41.8)	10.093
	중소도시	195(41.3)	220(43.3)	191(43.4)	166(50.3)	
	농어촌	31(6.6)	42(8.3)	40(9.1)	26(7.9)	
공무원 종류	국가직 공무원	328(69.5)	334(65.7)	271(61.6)	185(56.1)	16.955**
	지방직 공무원	144(30.5)	174(34.3)	169(38.4)	145(43.9)	
공무원 직군	일반직 공무원	162(34.3)	196(38.6)	215(48.9)	176(53.3)	42.363***
	소방직 공무원	6(1.3)	12(2.4)	9(2.0)	7(2.1)	
	교육직 공무원	304(64.4)	300(59.1)	216(49.1)	147(44.5)	
은퇴설계 교육 여부	있다	63(13.3)	49(9.6)	37(8.4)	29(8.8)	7.552
	없다	409(86.7)	459(90.4)	403(91.6)	301(91.2)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45(9.5)	61(12.0)	67(15.2)	64(19.4)	93.306***
	500만원 미만	56(11.9)	76(15.0)	90(20.5)	62(18.8)	
	600만원 미만	83(17.6)	90(17.7)	109(24.8)	74(22.4)	
	700만원 미만	63(13.3)	69(13.6)	52(11.8)	48(14.5)	
	800만원 미만	52(11.0)	69(13.6)	40(9.1)	36(10.9)	
	900만원 미만	65(13.8)	60(11.8)	34(7.7)	21(6.4)	
	900만원 이상	108(22.9)	83(16.3)	48(10.9)	25(7.6)	

* $p < 0.05$, ** $p < 0.01$, *** $p < 0.00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제정의서

과제.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2017년 10월



Contents

과제 12.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검토

- ✓ 과제개요
- ✓ 과제 상세화
- ✓ 과제 추진 일정

과제정의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황 및 추진방안,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과제명	진단시스템구축 검토 <input type="checkbox"/> BIZ <input checked="" type="checkbox"/> IT	장기
정의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자가진단지표를 시스템화하여 진단결과 분석 및 교육방향 제시 	BA AA
현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나 자료수집 및 분석시스템 미 존재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준비 필요성 인식 제고 및 균형 있는 은퇴준비교육 기반 강화 • 진단결과 분석 및 교육방향 제시를 통해 교육성과 제고
추진방안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통계자료의 정의 •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G-시니어 시스템과 협의 • 세부 기능 정의

3

1.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방안

고객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접점 채널은 G-시니어를 통한 접근인 것으로 판단됨.



4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방안- 1) 설문관리시스템 UI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검토
> 과제 상세화

G-시니어를 통한 일원화된 채널로 고객서비스 제공

UI 구성

AS-IS : 국민연금 노후준비종합진단 페이지 링크

G-시니어에서 자체 자가진단시스템 오픈

UI 구성 방안

- 방안1: 메뉴 클릭 시 IMPORT or POP-up 방식으로 표시
- 방안2: G-시니어 직접 소스에 반영

포인트

방안1: 자가진단시스템 오류 발생 시 차단 가능 (권고 함)

방안2: 자가진단시스템 오류 발생 시 G-시니어 시스템 문제 발생.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방안- 2) 설문관리 기능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검토
> 과제 상세화

설문관리 기능: 진단표를 반영한 설문 기능이 가능 하도록 하고 상시 수정 가능 해야함.

설문관리기능

문항관리

- 수정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
- 선택 값에 따라 지정 문항으로 점프 하는 기능 필요
- 문항별 배점관리 필요
- 설문지 내의 문항이 아닌 안내글 기능 필요
- 문항별 산식 관리기능 필요

보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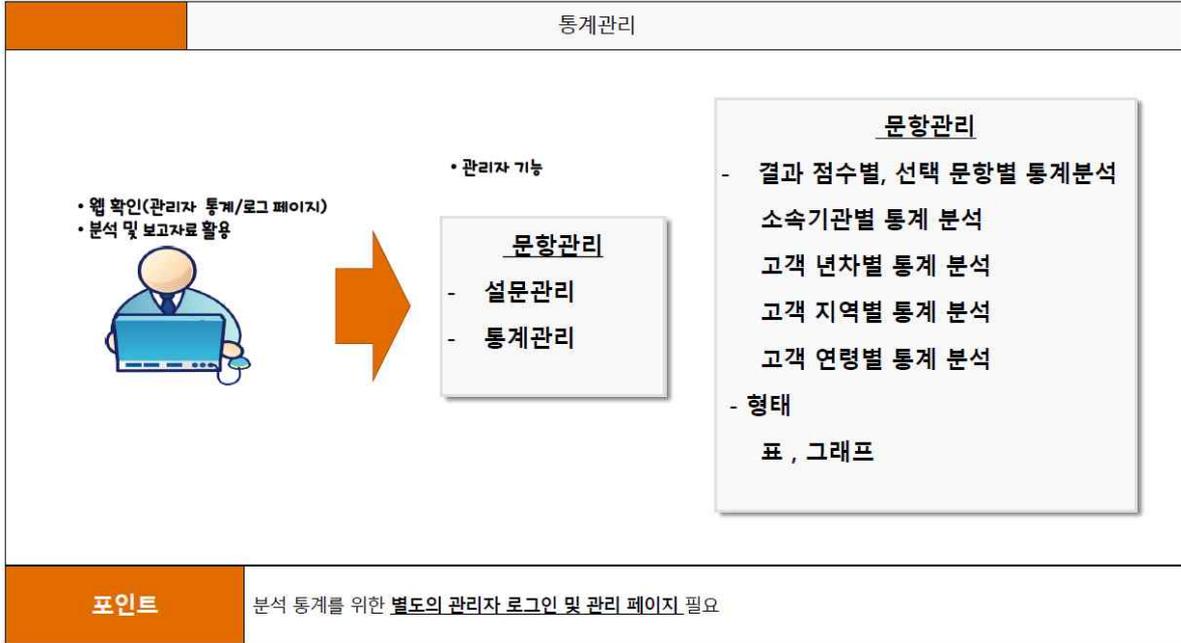
- 다양한 형태의 유형 필요
- 1. 사지선다형
- 2. True / False형
- 3. Table형
- 4. 그림형
- 5. 서술형
- 보기별 점수 관리 필요

포인트

운영 중 주요 환경요소에 따라 자가진단표 변경 시 설문지 내용을 변경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보기 유형이 있어야 한다.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방안- 3) 관리자 기능

자가진단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통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 하여 향후 교육 방향 제기에 활용함.



7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방안- 4) 예상 비용

예산비용

구축부문	구축범위	예상비용	
자가진단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관리 (등록, 수정, 삭제) • 문항,보기별 산식관리 • 통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패키지 	3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스트마이징 	3천
<p>< 고려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O, REPORT TOOL, 통합로그인 부분 제외 • H/W Infra 는 G-시니어 시스템 활용. 			

8

1. 자가진단시스템 구축방안- 4) 추진기간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은 은퇴준비 자가진단지표 개발 연구용역의 진단표가 완료된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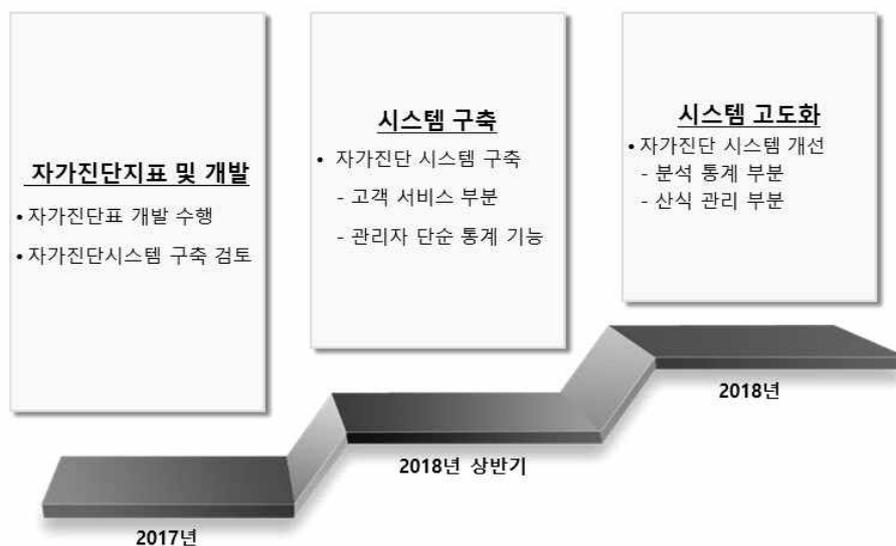
구분	기간	개발기간				
	2M	M+0		M+1		M+2
개발		분석/설계	구현	개발 및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이행	안정화
		현황분석/ 요구사항정의	화면 및 모델/상세설계	업무(온라인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실시 이행 계획 인수 테스트 본이행	시스템 안정화

※ 자가진단시스템의 핵심인 자가진단표 개발한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함.

과제 추진일정

2017년 자가진단 고객서비스를 위한 자가진단지표 및 개발 완료
2018년 분석 통계 기능 및 산식 관리기능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추진 로드 맵



<부록 11>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접수번호	2017-0151	IRB과제관리번호	CBNU-201709-BMSB-549-01
승인일자	2017년 09월 21일	승인 유효일자	2017년 12월 31일
심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심의면제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식심의 <input type="checkbox"/> 심의반려		
과제명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소속	생활과학대학		
연구책임자	김민정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 통지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후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정식심의)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 및 사항의 중지 또는 보류 <input type="checkbox"/> 심의면제 <input type="checkbox"/> 조기종료 <input type="checkbox"/> 일시중지
	승인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속심의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지속심의신청서제출일정기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과 통지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장석천 